2004년 설교

홍순관 강도사

[2004.01.04] 부자되세요! (여호수아 6:15~7:1)
[2004.01.18] 내 전을 지어준다니까 하는 말인데... (열왕기상 6:1~13)
[2004.01.21] 나홀의 하나님 (창세기 31:43~55)
[2004.02.01] 물감을 뒤집어 쓴 투명인간 (요한일서 1:1~10)
[2004.02.11] 작은 불꽃 하나가! (사도행전 11:19~26)
[2004.02.25] 즐거운 예배, 기쁜 헌신 (신명기 14:22~29)
[2004.02.29] 로마에 갈 수만 있다면야! (사도행전 27:9~26)
[2004.03.10]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출애굽기 14:13~28)
[2004.03.14] 피묻은 복장을 불에 사르는 날 (이사야 8:16~9:7)
[2004.03.24]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민수기 35:16~28)
[2004.03.28] 기도하려면 엘리야처럼 한 방에? (야고보서 5:13~18)
[2004.04.07] 종을 보고 친구라니! (요한복음 15:9~17)
[2004.04.11] 먼저 가서 기다리마! (마가복음 14:27~31)
[2004.04.21] 누가 도끼의 간을 키우는가? (이사야 10:5~27)
[2004.04.25] 아니 이거 말고 돈 줘! (창세기 28:10~22)
[2004.05.05] 애들이 뭘 안다고? (에스라 10:1~4)
[2004.05.09] 하나님도 장가들고 싶데요 (호세아 2:14~19)
[2004.05.23] 진정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이사야 10:33~11:10)
[2004.06.02] 비시는 하나님 (스바냐 3:1~8)
[2004.06.16] 나, 하나님과 친한데! (신명기 4:1~9)
[2004.06.20] 사모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2:1~14)
[2004.06.30] 우거하는 이 땅을 유업으로 (창세기 28:1~9)
[2004.07.11] 폼생폼사, 복생복사 (사도행전 25:13~27)
[2004.07.21] 이래도 버틸테냐? (이사야 9:8~10:4, 12:1~6)
[2004.07.25] 시므온과 레위의 작별 (민수기 25:1~15)
[2004.08.04] 느닷없는 바벨론 멸망 (이사야 13:1~22)
[2004.08.08] 누가 나라를 쪼갰는가? (열왕기상 11:29~38)
[2004.08.25] 왕도 부럽지 않은 여인 (열왕기하 8:1~15)
[2004.08.29]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더라 (창세기 5:18~24)
[2004.09.08] 세상을 빨리 멸하시지 않고 (요한계시록 6:1~17)
[2004.09.22] 인 맞은 하나님의 종 (요한계시록 7:1~8)
[2004.09.26]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11:10~16)
[2004.10.06] 네 아들이 묻거든 (신명기 6:16~25)
[2004.10.17]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히브리서 6:1~12)
[2004.10.31] 죽으란 말입니까? (여호수아 5:1~6)
[2004.11.03]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으니 (열왕기상 8:27~32)
[2004.11.07] 어린양이 목자라구요? (요한계시록 7:9~17)
[2004.11.17]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사야 38:9~20)
[2004.12.01]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사도행전 15:1~9)
[2004.12.05] 이만하면 잘 했죠? (마태복음 25:14~30)
[2004.12.15] 마음이 변한 포도원지기 (이사야 27:1~13)
[2004.12.19]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사야 53:1~3)

부자되세요*!*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제칠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 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개역, 여호수아 6:15~7:1]*

우리 교회는 행사 있을 때마다 퀴즈를 잘 내던데 저도 오늘은 문제를 하나 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20*대 독립해서 *1*억 만들기*'* *'*남보다 빨리 *10*억 만들기*'* 이게 뭐죠*?* *'*월급만으로 살 수 없다*'* *'*나의 꿈 *10*억 만들기*'* *'*한국의 부자들*'* 이제는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뭐죠*?* 아마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들이 전부 책 이름입니다.

*'20*대 독립해서 *1*억 만들기*'* 그 옆에 붙어 있는 말이 *'*청년이여 돈 없으면 희망도 없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남보다 빨리 *10*억 만들기*'* *'*월급만으로 살 수 없다*'* 이건 아마 최근에 나온 거라서 제목이 익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전부 부자되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안 봐도 이런 책은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책 본다고 부자 될까요*?* 이런 책 본 사람이 다 부자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책 쓴 사람은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책 본다고 쉽게 부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조할 것은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종 인사 *'*부자되세요*'*

요즘 인사가 *'*안녕하세요*?'* 대신에 *'*부자되세요*'*랍니다. 부자 되세요 하면 그냥 좋게 듣고 말면 되는데 *'*그런다고 부자될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부자되세요*'* 하는 말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에 *'*돈을 쫓아 가서는 안된다. 돈이 따라와야지*'* 란 말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돈을 위해 노력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다 되는 것 아닌데 다른 것 다 희생하고 돈만 목표로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살지 말라는 뜻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말도 있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사람이 낸다.*'* 이건 아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면 그런대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뜻에서 노력하라는 뜻 같습니다.

돈에 가장 관심이 많다*?*

그러나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결국은 돈이 우리 사고나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어느 때에 돈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돈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회가 그렇게 건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면 그리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거의 몸으로 때우는 일이었습니다. 웬만큼 규모가 크다는 교회는 몸으로 봉사하기보다 돈으로 떼우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열심히 땀흘려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돈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서로가 현명하게 일들을 잘 꾸려나가면서 돈이 최우선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나 교회나 돈이 중심이 되고, 돈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에 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때로는 듣기 싫을 정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사람들의 간이 커져서 요즘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은 돈 축에 들지도 않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돈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고 정당한 방법과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책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전 어차피 돈하고 담쌓고 살기로 마음먹었으니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볼 수 있거든 한 번쯤 보십시오. 단,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그런 책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을지 모르니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주인공이 된 이런 시대에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이 커야 큰 부자가 되지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생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하고 같은지 다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 성의 온 백성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래 전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자기들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막강한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손에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맨 땅처럼 건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멀쩡하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지금 이리로 온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단강물을 또 마른 땅처럼 갈라놓고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 백성들이 온통 두려움에 싸여서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워낙 튼튼하니까 '올테면 와봐라' 그래서 딱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는 형편인데 라합의 집에 낯선 정탐꾼이 들어온 것이죠. 라합만 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낌새를 알아차렸던 모양입니다. 왕의 군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때 정탐꾼을 숨긴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라합은 정말 간 큰 여자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간 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라합이 정말 간이 컸던 모양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숨긴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내어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성을 점령할 때에 내가 당신들을 살려 준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우리 친족을 살려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합은 자기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친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들키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짓을 라합이 감행한 거죠.

간도 잘못 크면*?*

반면에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내린 주의 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라합의 가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약간 어려운 말이 있으므로 본문을 한 번 봅시다.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바치는 물건을 스스**

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할까 함이라' 이 말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바침'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19*절에 보시면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다 구별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곧 구별하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구별한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본문 어딘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1*절에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거기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바쳤으면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소나 양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절 중간에,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이 표현은 '이스라엘 진이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무슨 물건이든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너희가 취하게 되면 너희가 도로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 너희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리고 성을 침공할 때 주어진 명령 중에 하나는 라합의 가족을 살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이백세겔 그리고 금덩이 오십세겔이었습니다. 그걸 훔쳐서 자기 장막을 파고 거기다 묻어 두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면전에서 아간이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아간*?*

아간이 너무 심하게 벌을 받은 것 아니냐*?* 억울하지 않느냐*?* 지은 죄도 있지만 너무 심한 벌을 받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도 멀리 가서 짓든지 하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면전에서 지은 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입니다. 똑같은 죄라도 안 보이는데서 욕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면전에서 하는 욕은 죄가 큽니다. 아간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를 짓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만성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은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월을 *40*년이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강둑에 물이 콸콸 넘치는 그 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여리고 성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리고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소리지른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역사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간에게는 만성이 된 것 같습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것을 놀랍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처음 느꼈을 때는 참 놀라고 감격했겠지만 날마다 반복이 되고 날마다 그 속에서 사니까 그 고마움을, 그 감격을 잊어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우린 참으로 적응을 잘 합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함께 부대끼다 보면 견딜만 해요. 시골 화장실요*?* 냄새나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코를 틀어 막지만 거기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

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콧물 흘리다가 얼마쯤 지나면 만성이 되어 못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마는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때로는 '혼자서라도 교회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가슴 졸이면서 안타까움으로 교회 다니던 분이 세월 지나서 온 가족이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과거의 안타까움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정상?

좀 안된 얘기지만 '진실한 교회는 북한에 있고 남한에는 하나도 없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왜요? 여기야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겁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반면에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야 말로 진짜 신자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려고 좀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감격이야 하는지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가 못가고 시집 못가서 안달하던 때를 생각하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는커녕 서로가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입니다. 그러니 돌이켜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서로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하면서 사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헛된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격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아간은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살면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느꼈는지 아니면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재물에 욕심을 내서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것에 욕심을 내게 마련입니다.

조금만 더 참지...

옛날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싸우면 얻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드리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해도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겠죠. 아간이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재물에 탐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첫 새끼는 내 것이고 첫 아들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이것은 내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다 네 것이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성부터는 하나님께서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걸 못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원칙만 확인하고 난 다음에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인식을 시키고 그런 훈련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횡재한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공짜나 횡재를 바라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주어지는 많은 재물은 복이 되지만 그런 것 없이 횡재하듯이 얻는 재물은 결국 그 재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탐이 나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라합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합이 보통 여자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온 낯선 손님이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보는 눈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놀

라운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소식을 라합도 알고 있었고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라합이 다른점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실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 뜻에 순응하는 것이 라합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책 사면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책 중에 어느 것을 샀어도 하라고 하는 대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 기록되어 있겠죠. 아마 따라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책 한권 읽으면 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기를 쓰고 따라 해야 뭐가 돼도 되겠지요마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은 라합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아간은 재물이 그렇게 탐이 났지만 라합은 소문에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취할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 재물도 탐이나고 하나님도 탐이나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 신앙도 잘 가꾸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라합이 죽을 각오를 하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절이라 해도 예수 믿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단한 각오가 필요한 것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가끔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왜요? "똑같은 월급 가지고, 우리는 이것 가지고도 못살 판인데 그걸 떼어서 헌금하고, 누구 돕고, 뭐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사냐?" 아니 그런 얘기 가끔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서 잠잘 시간도 없는데 언제 새벽기도 가고, 날마다 예배가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잠은 언제 자냐?"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전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며 승진도 하고 재물도 모으고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하고 때로는 욕 먹어가면서도 해야 하고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 계셔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숙해지면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민족에게는 반역이요 배신자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이 바로 여러분을 따라옵니까? 바로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마는 라합의 삶을 통해서 간접으로 생각해 봅시다.

라합이 부자가 되었나요?

이렇게 해서 살아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왔습니다. 라합이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생이요 이방인이요 민족을 배반하고 우리편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했을까요? 했습니다! 결혼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 다음에 이새, 그 다음에 다윗이죠.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결국은 메시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부자 되었나요*?* 부자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이 복은 누군가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받는 장본인이 우리 자식들이 아닐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복을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욕심을 내고 재물을 차지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와 체면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뭡니까*?* 낮출 때 진정으로 높아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질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와 다투어 항상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질 줄 아는 성도가 진짜 높은 성도요, 그가 부한 성도입니다. '나는 마 지고는 못산다*?*'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지고 못산다' 그러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시거든 지고 사십시오. 그게 부요한 자입니다. 체면이 좀 깎인다 싶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란 얘깁니다.

아파트 평수 좀 넓은 사람이 부럽고, 그럴싸하게 좋은 옷 좋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남의 자식들은 대학을 잘도 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공부가 왜 이 모양이냐*?* 이래서 기가 죽고 부끄러워 못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풍성한 은혜에 감격해 사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거만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또 떨어져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3*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늘 합니다, '합격해도 당당하게 들어오고 떨어져도 '선생님, 저 떨어졌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들어오너라. 적어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다면 대학 떨어진 것 가지고 그렇게 기 죽을 일 없다. 시험치러 갈 때 미역국 먹고 가서 붙어라.' 이러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부자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부자 되라고는 잘 말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표현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성경적인 부자라는 겁니다. 혹시 모임에 내가 끼면 문제가 생기고 나만 들어가면 말썽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라는 말을 합니다. 선한 일에 부한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부자라는 것이죠. 부동산 부자는 부자축에 잘 안들 때도 많아요. 부동산 부자는 참 가난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때 제대로 쓸 줄 모르면 부자 아닙니다. 제대로 쓰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성도는 선한 사업에 부요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부자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자는 달리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부요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약속하신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부자입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저 보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구요 대답이 좀 궁했습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성깔이 좀 안 좋다라는 건 저 자신도 압니다. 속이 넓은 축에 안 들어요. 그런데 제 답은 "화가 잘 안 나는데요*?*" 입니다. 왜요*?* 부자거든요. 부자는 푼돈에 그렇게 방방 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소리 좀 하고 듣기 싫은 소리 좀 하면 그것 때문에 밤잠 못자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러고 있나요*?*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 작은 소

리 하나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 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에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향하여 초라하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부요한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보다 돈이 좀 더 있고, 남보다 사는 게 좀 낫고... 그게 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난하면 눈멀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부디 부자 되세요*!*

재물을 좇아 달려갔던 아간은 결과적으로 재물도 잃고 재산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목숨을 버릴 각오로, 재물은커녕 목숨만이라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라합은 결국 엄청난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라합이 목숨 버릴 각오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 보낸 것처럼 우리가 목숨 버릴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는 라합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하는 사람과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만 부자되는 책을 보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부자가 되어 보겠다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 부자는커녕 잘하면 하나님까지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은 그런 책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악세사리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나 재물이 악세사리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재산을 많이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신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일로 해서 더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문외한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재미난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탈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서 활용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게 낸 사람이 누구냐*?* 정답은 국세청장입니다. 이 사람은 세금 거두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를 잘 아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세금을 얼마 안 내었더라구요. 하나도 불법은 없어요.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재물이나 세상만 보인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망할 징조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은 아직은 가망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싶으면서 하나님이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그러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은 아닙니다. 거기서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즐겁고,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은 다 없습니다. 없지만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부자되세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벌써 부자 되었습니다*!*' '전 부자입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

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전을 지어준다니까 하는 말인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사년 시브월 곧 이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육십 규빗이요 광이 이십 규빗이요 고가 삼십 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이십 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십 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여섯 규빗이요 제삼층 다락의 광은 일곱 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삼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서까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개역, 열왕기상 6:1~13]*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

저희 부모님들이 좀 어렵게 사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조그마한 단칸방에 형제들 다섯명이 부모님과 나란히 누우면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대학 마치고 군에 갔다와서 형편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룻 끝에 전세집을 하나 얻었는데 이상하리만치 방 하나가 넓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그렇게 큰 방에 주무시게 된 게 처음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불 개고 펴고 할 필요없다. 넓은 방에 밤새도록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구르며 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선합니다. 전세집이었지만 넓은 방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평생토록 자기 집 없이 사시던 부모님들에게 어떤 아들이 출세해서 집 한 채를 사드렸다면 그 부모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소작농을 하시던 부모님에게 출세한 자식들이 논을 많이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쩌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드린 것 같습니다. 비유컨대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니며 사셨던 하나님께 솔로몬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지어드린 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잘 지켜라'고 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생하는 부모님에게 좋은 집을 혹은 많은 논을 사서 드렸을 때 부모님이 보여준 태도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여준 태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왜 염치도 없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는데도 어떻게 고맙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

출애굽기 뒤편에 보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재미없는 본문일 겁니다. 잘 읽다가 이 얘기가 나오면 대충대충 읽기도 하고 그냥 건너 뛰기도 합니다. 재미없는 얘기가 밉다고 반복되는 바람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잘 되지 않는 같은 내용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건너 뛰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찬찬히 공부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광야 사막 땅에 세마포로 포장을 둘러 쳤습니다. 길이와 넓이가 *10*규빗, *30*규빗이니까 폭이 *9m*이고 길이는 *27m*정도입니다. 높이는 *1.5m* 정도 되는 포장입니다. 사막에 이런 포장을 둘러치고, 그 안 입구쪽에 흙을 돋워서 단을,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물두멍이라는 손을 씻는 큰 대야도 만들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성소라고 하는 길쭉한 방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은혜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100%* 조립식 건물이어서 이동할 때는 다 풀어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름이 나타나서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물렀고 구름이 떠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분해해서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 하나 분해해서 다 철거하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가장 안쪽에 있는 법궤라는 것입니다. 법궤의 크기는 보통 *4*인 가족이 쓰는 식탁의 절반 정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 꿰어져 있는 막대를 이용해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엄숙하게 다루었습니다.

민망한 어른 대접

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법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졌던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괄세를 당했습니다.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정말 서러운 세월을 지냈습니다. 몇 년간을 그렇게 지냈을까요*?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480*년이요...'** 애굽에서 나온 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기간이 *480*년간인데 그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대접을 못받았습니다. 법궤를 안치해둘 제대로 된 집도 없이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제대로 보관했겠지만 우상을 숭배할 때는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사장 엘리 시절에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왕에 죽을 것이니...' 하면서 죽을 각오로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아 자기들의 신, 다곤신 앞에 갖다 놓지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다곤신이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잡아왔습니다." 이튿날 보니까 다곤의 머리가 날아가고, 팔 다리가 날아가고, 굴렀더라...'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 이거 법궤를 우리 신 앞에 두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다섯 도시를 순회합니다. 갖다 놓는 곳마다 거기에 온갖 재앙이 떨어집니다. '이거 안되겠다' 옆 동네에 또 옮겨 놓습니다. 거기에 또 온갖 재앙이 떨어집니다. '야, 이 재앙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수레에 실어서 벧세메스로 가나 서험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벧세메스로 돌아옵니다.

벧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보고 '이것이 그 유명한 법궤야*?*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자' 그러면서 그걸 열어보았다가 한 마을 사람들이 거의 몰살 당하다시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법궤가 머물러 있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던, 아주 거룩하게 모셔졌던 이것을 벧세메스 사람들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싶어서 열어보았단 말이에요. 벧세메스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 좀 가져가거라' 해서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다 놓아 두었는데 적어도 *80*년 이상 그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으로 주어졌던 법궤를 이렇게 천대를 해도 별 일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도 집이...

다윗이 왕이 되어 법궤를 찾습니다. 법궤는 손으로 만져서도 안되고 수레에 실어도 안되고 반드시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했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실고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웃사가 잡으려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오랫토록 참았던 분노가 거기서 터졌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다윗도 '아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겠다'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편을 잘 알았고 자기 집에다 두 달간 모셔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재차 용기를 내어서 이것을 자기 성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회막과 법궤는 따로 보관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제자리에 모셔두기까지 *48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모셔도 되겠느냐 싶을 정도로 천대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누가복음 *9:58)*'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괄세받고 고생하셨는지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가 보면 하나님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머무를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해 했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크기는 길이가 *60*규빗이고 폭이 *20*규빗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회막의 크기와 비교하면 길이가 꼭 두배입니다. *60*규빗 *20*규빗, 대략 폭이 *10m* 길이가 *30m*입니다.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90*평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큽니까, 작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세가 지었던 회막에 비하면 상당히 커졌습니다. 높이가 *15m*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이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안쪽 방은 *1*년에 한 차례만 제사장이 들어가는 방이니까 이 건물이 그렇게 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건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부가 벽, 바닥, 천장 안에 있는 기물까지 완전하게 금으로 된 집입니다.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집이 되지 않을까요*?*

이 집을 지으면서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이 있는데 옆에 부속 건물을 만들면 부속 건물의 들보가 본 건물 벽으로 들어가서 얹히는 게 정상인데 이 건물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속 건물의 들보가 성전 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전 벽 바깥에다 다시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거기에 들보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부속 건물의 내부는 *3*층으로 되었는데 밑층의 방 폭이 좁아요. 올라갈수록 넓어집니다. 대들보를 걸친 만큼 올라가면서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사중에도 현장에서 철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들여다보면 가슴 아픈 적이 더러 있습니다. 공사하는 인부들이 현장에서 술도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보기가 싫더군요. 공사중인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술 먹고 술병 던져 놓은 것이나 담배꽁초를 보면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교회 건물은 교인들이 지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짓는 과정에서조차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특별하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드리고 귀하게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계실 곳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셨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본문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없이 오래도록 사셨는데 언젠가 작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면서 살던 집을 미처 처분을 못하는 바람에 집이 두 채가 되어 버렸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는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걸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나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하나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건데도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 얼굴이나 폼이 좀 다르더라구요. 아 그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는 게...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 융자를 좀 얻어야 했는데 '제 이름으로 재형저축을 들고 저의 부친의 이름으로 융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갚기는 제가 갚구요. 그런데도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 폼이 다르더라니까요. 작은 아파트거나 말거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보탠 것이 전혀 없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것만으로도 뿌듯해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더라구요.

아쉬운 것은 내가 아니고 너희니라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480*년동안 집도 없이 천대받던 하나님께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무슨 상급이라도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네가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 내가 말하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만 하시느냐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반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와 우리 부모

님과의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500*년이 지나가는 데도 하나님께서 화도 안 내셨을까요*?* 아니면 야단도 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궁핍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집을 지으라고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보고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하고, 솔로몬은 전달받은 대로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회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집이 필요하니까 네가 집을 지어다오' 그래서 만든 집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네가 멋진 집을 만들었다마는 네가 내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게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게 훌륭한 집을 지어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80*년이나 집이 없어 떠돌아 다녔다고 해서 한이 맺힌 하나님이 아니란 얘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 그동안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닌다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집을 만들어 드렸으니 여기서 편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정말 철없는 짓입니다. 철없는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집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8*장 *2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도 여기 거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도 없는 집을 짓긴 왜 지었어요*?* *2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와서 기도하거든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29*절이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라고 하는데 '이 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고 하셨으니 이 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화려하고 이 성전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셨으니 말하자면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멋진 집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요'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철없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실수하지 않았더라는 얘깁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사랑합니다' 하면 이 말 한마디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기 전에 사랑을 많이 쏟아서 키우십시오. 그러면 어설픈 사랑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선생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잘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겁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아이들이 나를 좀 봐 주지 않나*?*' 하는 수도 있고, 혹은 인기에 연연하는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도 모르고 그냥 베푸는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생님으로 안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지켜야 한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집이 없어서 아쉬운 분인가요? 인기를 구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시는 것은 '제사 열심히 드리지 말고 이 놈아 말 좀 들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제사 제물에 굶주린 사람이냐? 아니란 얘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수양의 기름이나 제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이 쏠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죠.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려라' '성전 지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었고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그렇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진짜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가져 와서 '하나님 제 소득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할 것 같아요? '아, 그래, 고맙다. 내가 너에게 복을 더 많이 줄게' 그런 하나님 같아 보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하나님 같으면 좋다고 덥석 받고 돈을 많이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취할 바른 태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완공했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나같이 미천한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실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으니 여기서 비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 했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얼마나 드렸으며 교회를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까? 새벽기도 다니오고 주일에 하루 종일, 수요일, 구역예배, 금요심야기도회, 이만하면 하나님 잘 했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이 조금 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친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전의 휘장을 찢기 위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겁니다. 성전의 휘장을 왜 찢어놓으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몇 번 나온 것만 가지고 '하나님 잘 했죠?' 이러고 있으면 철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내가 나아올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밥 안 먹으려는 아이에게 자꾸 밥 먹이려고 하니까 진짜 철없는 아이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엄마, 오늘 나 밥 다 먹었는데 얼마 줄래?" 밥 먹으라고 사정하니까 엄마 좋으라고 밥 먹으라고 하는 줄 알고 '밥 다 먹는 게' 굉장한 공로인줄 압니다. "내가 밥 다 먹었으니까 얼마 줄래?" 그런 딸 되게 밉죠? 안 밉습니까?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미운 건 아닙니다. 그냥 철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쁘죠! 철없는 짓을 해도 부모에게는 아름다운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짓을 해도 탓할 바는 아닙니다. 계속 철없는 짓을 하며 하나님께 재롱떨며 사십시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일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드리는데요, 저는 계산할 때 세금도 안 떼고 아무 것도 안 떼고 조금 더 붙였습니다. 잘 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감사헌금에 그런 내용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십일조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할 수 없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가 십일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감격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일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열배 스무배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 어려운 일입니다. 찬양대도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연습하고 예배를 도우고 있으니까 참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어릴 뿐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노력을 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내 입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하고 거기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강도사는 무슨 낙으로 살까요? 앞으로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꿈을 먹고 살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일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맛에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고, 재미없고 길기만 한 설교를 은혜롭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안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밉겠습니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네 하나님으로 네가 정말 나의 백성이라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궁색해서 내가 보태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못하시니까 내가 대신 해드리는 것 아니요, 성전도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자녀삼으셨구나' 하는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평생 행복한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이런 성전을 지어드립시다.

뭘로 지어드려요? 금도 없고 돈도 없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얄팍한 거래관계로 파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주셔야지요? 이건 어린 아이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엄청난 사랑을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홀의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개역, 창세기 31:43~55]*

오늘은 특별히 반갑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멀리서 모처럼 오신 분들이 많아서 참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에 '나홀의 하나님'이란 설교를 들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데가 없고, 그리 중요한 표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맞아 모처럼 오셨는데 특이한 제목을 기억함으로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흥미로운 고수들의 대결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나 고수들의 시합을 옆에서 지켜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이 무서워요. 고수 혹은 어떤 분야에 대가라면 존경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탁구가 무슨 운동이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88*올림픽 때 외국의 어떤 탁구팀이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합을 한 게 아니고 공연을 했어요. 두 사람이 탁구공을 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도대체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공격하는 사람은 탁구대 위에 올라가서 내리칩니다. 공이 저 멀리 날아가면 수비하는 사람은 저쪽 뒷편에서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다 받아 올립니다.

공이 천정으로 붕 떠올랐다가 탁구대 위에 똑 떨어지면 탁구대 위에 올라 간 사람이 또 내리치듯이 칩니다. 그러면 또 저 구석에서 받아올려요. 코메디 비슷한데 장난이 아니에요.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코메디보다도 더 재미있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탁구의 대가쯤 되니까 저런 쇼도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대가나 전문가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참 흥미로운 법입니다.

잔머리의 대가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고수가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라반과 야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종목의 고수일까요? 라반과 야곱은 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고단수입니다. 어떤 종목에서요? 잔머리 굴리기에 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잔머리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붙어서 피터지도록 싸운 이야기가 앞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가겠다고 형님 발꿈치 잡고 태어났던 야곱이 평생 그렇게 삽니다. 결국은 형님을 보기 좋게 속이죠. 배고픈 형에게 "형,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내가 형하자." "에라, 배고픈데 형이 밥먹여 주나? 네가 형 해라." 그래서 명목상으로 형을 차지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눈먼 아버

지를 완전히 속여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니 할 수 없이 저 먼 외삼촌집으로 피난을 보내버렸습니다.

거기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로 20년을 지내게 되죠. 가장 결정적으로 싸운 것이 일 해주고 보수를 정할 때 두 사람이 머리싸움을 엄청나게 합니다. "장인어른, 내게 매월 일정액을 줄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양 떼들 중에 아롱지고 점있는 것을 다 가려내고 가져가세요. 제가 흰 양떼만 치겠습니다. 흰 양떼만 쳤는데 여기에서 만약 얼룩이나 점 있는 게 나오면 그걸 제 삯으로 주세요." 엄청나게 머리를 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겠지만 좌우간 흰 양떼만 쳤는데 여기에 점박이가 막 쏟아진 거예요. 라반이 보니까 안되겠거든요. "야, 올해는 방식을 좀 바꾸자. 점박이가 나오면 내꺼다. 하얀 놈이 나오면 너 해라." 이래서 나중에 야곱이 말하는 것을 보면 열 번을 바꿨답니다. 야곱도 일정액을 받아서는 일이 안된다는 걸 다 계산하고 성과급을 노린 셈이죠. 6년만에 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으니 둘이서 잔머리를 얼마나 굴렸는지 알만하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님이 두려워서 강을 건너면서 가족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뇌물을 한꺼번에 왕창 가져다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것을 여러 등분 나누어서 요만큼 갔다 드리고 또 갔다 드리고 계속 몇 번 갔다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공부 하면서 물어 보니까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오더라구요. 엄청난 거액을 한꺼번에 주는 것과 이걸 몇 번 쪼개서 주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낫겠느냐? 야곱은 그런 궁리까지 다 합니다.

가족을 한꺼번에 안 데리고 가죠? 네 조각으로 나누어 맨 뒤편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그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럼 제일 앞에는? 원래 종이었다가 자기 아내가 된 덜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들은 앞에다 세우고 제일 뒤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세우고 갑니다. 만약에 형님이 와서 이쪽을 치면 나머지라도 도망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궁리죠. 얼마나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리는지 모르는데 야곱의 생애를 찬찬히 보면 이건 잔머리입니다. 쓸데없는 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렸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와 맞대결을 펼쳤던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반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누이동생이 시집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감을 구하러고 왔던 장면을 보면 라반이란 사람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여동생이 물길러 갔는데 한나절이 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놈의... 나타나기만 해 봐라. 혼을 낼거다' 이러고 있는데 늦게서야 나타나는데 보니까 세상에 평소에 없던 코고리에다 굵은 금팔찌를 끼고 나타나는 걸 보고 "웬 거냐?" "우물가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주더라" 그 말을 듣고 총알같이 뛰어갑니다. 가서,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온갖 아부를 다 합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짐승들 짐 내리고 짚 먹이고 발씻을 물 대령하고 온갖 아부를 다 떨었는데 그로 인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대접했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좌우간 돈 될 만하다 싶으면 얼마나 동작이 빠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런 라반을 만나서 속고 속이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기 결혼이지요. 라반에게 딸이 둘 있었는데 둘째 딸이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첫째 딸은 안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눈빛이 좀 희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빛이 희미했다는 건 정신도 좀 온전치 못했다는 뜻일 테고 어떻게 시집보낼 방법도 없는 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둘째 딸을 좋아하거든요. 라반이 그걸 미끼로 삼아서 첫째 딸을 먼저 치우는 겁니다. "둘째 딸을 위해 7년간 봉사하면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7년간 잘 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을 잘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 보니 둘째 딸이 아니고 첫째 딸이란 말이죠.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외삼촌의 답변이 "우리 풍습에 맏이를 놔두고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한마디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일 다 끝내놓고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처지가 처지인 만큼 그렇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마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둘째도 오늘 당장 줄게." 그래서 부인을 한꺼번에 둘이나 얻습니다. 그래서 7년 봉사하고 맏이는 속아서 얻었고 둘째를 얻어놓고 후불로 7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을 지냈습니다. 아마 이 일이 야곱이 삼촌에게 속았던 것 중 가장 큰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딸 둘을 미끼로 14년간 부려먹었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할 때 라반이 붙듭니다. 아마 이런 일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지요. "삯을 줄 테니까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논쟁이 벌어지죠. 라반이 삯을 수도 없이 바꾸고 바꾸었지만 결국은 거부가 된 것은 야곱이었고, 아들들의 눈총이 이전 같지 못하자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집을 떠날 때에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야곱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젠 고향으로 가라고 했으니 가야 되겠다 같이 가자' 그 때 딸들이 뭐라고 하면서 따라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괄시하는 것 아니냐? 당신 가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따라오는데 사실은 도망치는 겁니다.

라반이 양털 깎느라고 멀리 나가 있는 틈에 도망쳐 버리는 거죠. 사흘 뒤에 라반이 그 소문을 듣고 군사들을 끌고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몬이 두 고수의 마지막 대결이 아닌가 싶어요. 서로 속고 속이면서 *20*년을 지내다가 마지막 대결을 여기서 한 판 하고 끝을 냅니다. 찬찬히 들여다 보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라반이 일주일을 추격해서 따라잡습니다. 내일이면 따라잡을 참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를 참 기쁘게 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야곱이 잘못했더라도 말하지 말란 얘깁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와서 재산을 다 빼앗고 전부 붙들어 데려갈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해요? 다른 얘기나 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가겠다고 말했으면 내가 잔치를 베풀고 환송식을 해서 보내줄 것인데 꼭 내 딸들과 내 손자손녀들을 마치 강도같이 잡아서 끌고 가느냐?"고 짐짓 책망을 합니다마는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느라고 법석을 떨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쁜 말을 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용기를 내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다 털어냅니다. 외삼촌이 자신을 얼마나 박대했으며,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일했는지를 죽 언급하고 난 직후에 서로 헤어집니다.

라반의 말이 참 걸작인 것은, 자기 딸들이 아버지를 평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다'라고 말하는 그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당부합니다.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언약을 맺자.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이 말은 인자한 아버지가 딸을 멀리 시집보내면서 신신당부하는듯 한 말입니다. 라반이 평소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와서 별 도리가 없으니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두 사람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속고 속이다가 마지막 판에, 어쩌면 라반이 이겼어야 할 막판이 무승부 비슷하지만 내용상 야곱이 이긴 셈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라반이 기를 쓰고 따라올 때는 '내 딸들을 잘 돌봐주라'는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만 하고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마지막 대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주신 덕분에 야곱이 이긴 셈이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야곱이 이렇게 잔머리만 굴리고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형이 되어 자기가 유업을 받아 누리겠다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애를 썼는데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형이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집으로 도망갈 때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인데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후손도 번성하고 땅도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님 손에 죽을까 싶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무척 고민도 하고 힘들어 하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답답해 할 이유가 없었고 또 형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꾀를 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꾀는 다 부려 놓고도 막판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내게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보내주시겠구나' 하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전에 나에게 그렇게 약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려고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대 쥐어 박힐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고향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니 너는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안달하고 걱정하니? 그리고 나한테 얘기 안해줘도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며 힘들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동시에 연결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된 곳이 있어요. 왜 야곱의 하나님은 없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볼 때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야곱의 이 말이 라반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부를 때 늘 그렇게 부르니까 라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5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면서 라반의 조상이죠. 야곱이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라반도 뭘 모르고 따라하는 겁니다. 조금 고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 이름이 언제 그렇게 바뀌었느냐고 그러실지 모르죠. 라반의 이 말은 분명히 야곱이 하는 말을 어설프게 따라한 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대충 믿는 사람이고 라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 없지만 야곱이 저렇게 부르니 자기도 대충 꿰맞춰서 부르는 이름이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은 나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라반이 야곱의 표현을 보고 흉내를 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라반과 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어설프게 흉내만 내거나 열심을 내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절에서 삼천배를 했는데도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다니기로 한 그 날부터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새벽기도 한 번 나오시는 분과 첫날부터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분 중에 어느 분이 신앙이 좋아요? 어느 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겁니까? 어려워요?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어째서 첫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오셔서 그렇게 잘 나오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분 대답이 "내가 돌부처에게도 목욕재계하고 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돌부처에게도 목욕재계하던 내가 하나님에게 나오는데 뭐 어려운 점이 있겠느냐? 부처 앞에서 열심내던 분이 교회를 나오면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절에서 냈던 열심이 그대로 교회에 옮겨져 왔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빨리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만 내고 있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절에 시주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교회오면 여전히 헌금을 잘 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교회가서 하는 헌금이나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해와 달보고 빌던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전히 와서 잘 빕니다. 그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평소에 보고 빌던 해와 달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내용도,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기도의 흉내만 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 분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분을 알려는 노력없이 그저 열심만 내는 것은 절에 가서 빌다가 교회와서 열심히 비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어버릴 위험이 높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정성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성이 중요하지요.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정성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정성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하다 못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얻었으니, 얻고 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헌금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서 *"아깝지 않습니까?"* 하고 누가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 분 대답이 *"점쟁이 만나도 복채 내고, 아니 극장에도 입장료 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그런 분들은 통도 커서 액수도 큽니다. 잘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보다 정성보다 왜 헌금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지 않고 정성만 부지런히 드린다면 라반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핵심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목회자가 미국 목사 중에 *49%*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걸 안 믿는 목사가 *49%*라는 겁니다. 일반 성도는 *91%*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국민일보 한쪽에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91%*라는 겁니다. 뭐하러 교회 다녀요? 무엇 때문에 열심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고... 라반과 같은 사람이죠. 라반과 같은 사람이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제멋대로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라반이 생겼냐 말이에요. 야곱 때문에 생겼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 어설픈 신앙인들 때문에 이 엉터리 같은, 라반 같은 사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 분이 뜻하는 대로 섬기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왜 헌금하는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생각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라반하고 야곱만 득실거리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야곱에게 제일 편한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생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야곱보다 더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라반이지요. 라반은 나름대로 돈 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야곱에게 이겼던 사람입니다. 야곱을 속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두 부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에게 많이 속고 나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속죠. 자기 자식들을 빼고 나면 잔머리의 대가인 야곱을 속였던 유일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여러 번 속였습니다. 그 때마다 이겼죠. 치우기*(옛날 표현으로)* 어려운 딸도 치웠죠. 모든 경우에 라반이 이겼지만 마지막 한 번은 졌습니다. 마지막 한 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 한번의 짐으로 라반은 결국 야곱에게 완전히 진 셈이죠. 다 뺏긴 셈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람사람 라반의 결과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잔머리에서 위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없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꾀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잔머리의 표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이 비록 잔머리를 많이 굴리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납니다.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에 자기 이름을 올립니다. 더구나 위대한 신앙고백을 나중에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장자가 되고 상속자가 될 것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겁니다. 그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야곱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기막힌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한 번 봅시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야곱이 막판에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여기까지는 전과 동일하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가 얼마나 험난하고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기르셨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도대체 인간 될 것 같지 않은 나를, 잔머리나 굴려가며 앉아 있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구나'라는 고백을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하는 겁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정말 험악했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계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굴린다는 것이 결국은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왜 고향을 떠나서 삼촌집에 갔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맏이가 받아야 할 복을 자기가 받겠다고 나섰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얍복강가에서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야곱에게 '네 이름이 야곱이 뭐냐? 비겁하고 약삭빠르고...'

우리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초잡스러운 그런 이름을 달고 어떻게 살거냐?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아니냐?' 그렇게 살라고 이름까지 바꾸어 줬는데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형님에게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 준 그 뜻만 알았어도 그 형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끝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형님을 두려워하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편한 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나마 죽기 전에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알아차린 것만 해도 큰 복이죠. 아니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라반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걸 빼앗겨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따르지 못해서 고생만 죽도록 하고 난 다음에 막판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길러 주셨습니까 감격하게 될 겁니다. 진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런 고생 안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평탄하고 행복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감을 뒤집어 쓴 투명인간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개역, 요한일서 1:1~10]*

요즘은 투명인간이란 얘기를 별로 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투명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투명인간이라면 뭘 제일 먼저 해 보고 싶습니까? 좋은 일 하고 싶어요? 나쁜 일 하고 싶어요? 웃는 분들은 좋은 일보다는 우선 나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해 보고 싶은 멋진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물감을 뒤집어 썼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포기하는 걸까요? 다른 투명인간 친구가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돌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해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얼마 만큼 큰 것을 포기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날 따라 엠프도 가고 제 목소리도 가는 바람에 뒤에서는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못 알아 들으면서도 못 알아 듣겠다는 티를 안 내고 그냥 계셨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안 들려도 그냥 점잖게 앉아 있어도 된다면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별 관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잘 안 들렸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휘황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셨던 분인데 아담을 만들었고 에덴동산에서는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없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형편이 너무 나빠져 버린 겁니다. 그런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올 수도,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구름이 가득찬 그 가운데에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임재하셨어도 구름과 흑암으로 둘러싸인 그 속에만 계셨고 자신의 모습을 결코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걸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억지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창조된 본래의 인간의 모습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꺼지지 않는 불인데 범죄한 이후에는 시커먼 숯덩이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이 숯덩이가 비록 숯덩이로나마 존재할 수 있으려면 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이 가까이 와서 숯덩이에 옮겨버리는 순간에 잠시 타겠지만 깨끗이 재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선뜻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려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그 앞에 믿는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

원역사를 통해서 처음의 영광스러웠던, 아니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물을 회복하려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감안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티만 내시면서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는 세계 3대 성인 중의 한 분?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 티만 내셨는데 그것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거나 혹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거나 혹은 특별한 사람에게 꿈과 환상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큰 사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의 3대 성인이라면 예수님이 꼭 들어가죠? 예수님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예수쟁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가리켜 성인이라니까 예수는 참으로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난 위대한 성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대하다고 말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사양을 좀 해야죠. 사양은커녕 베드로에게 얼마나 칭찬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분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인이라고 칭송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단순히 안식일을 범하고 계명을 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한 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봅시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1절에 예수를 어떻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이라고 말하죠. 이 둘을 합치면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런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거꾸로 해 봅시다. 영원하다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란 뜻이고,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영원하면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존재란 달리 말하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존재. 말하자면 아무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그 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자'라고 합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분이십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3년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자고 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6)'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옥에 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예입니다마는 도마가 그걸 안 믿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살아난 후에도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 아주 귀한 말씀 한마디 들었죠. 도마에게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한복음 20:29)'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셨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분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분을 향해서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 분을 어떻게 보고 듣고 만지고 했느냐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한은 스스로 우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생각없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곰곰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각은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여러분의 시력은 몇 *Km*까지 볼 수 있나요*?* 얼마나 떨어진 걸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너무 커도 못 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도 하고 너무나 작으시기도 합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 분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 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적당히 어두운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시죠*?* 이 손바닥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면 병균이 잔뜩 붙어 있죠.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 손으로 뭘 집어 먹기도 하는 거죠. 보인다면 못 삽니다. 공중에 많이 떠돌아 다니는 것 보이세요*?* 이것은 이희근 집사님 입에서 나온 거네*!* 이건 누구 콧구멍에서 나온 거네*!*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입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이 다 보인다면... 안 보이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 눈은 많은 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극히 적은 부분만 볼 수 있는, 감각의 범위가 아주 좁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들어오실 분이 아닙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가요*?*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것은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 아닌가 싶어요.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려요*?* 공중에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소리를 찾아서 들을 수 있기는 합니다. 공중에 무수히 떠도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커도 못 듣고 작아도 못 듣고, 아주 적은 부분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범위만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이 우주가 너무나 넓은지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중의 하나인 토성에 십수년 걸려서 겨우 우주선 하나 보내어서 사진 좀 찍어 보낸 걸 가지고 온 지구가 들썩들썩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옆 동네 사진 몇 장 찍어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르는 이 거대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좁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 중에서도 개구리일지 모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모여서 '오늘도 참 시끄럽구나'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소리는 아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아닐까요*?* 물방울 하나씩 뚝뚝 떨어지면 참 소리가 크구나 하는데 어쩌다 우물 밖에서 돌맹이가 하나 날아와서 우물 안에 떨어졌습니다. 천재지변이겠지요. 천둥벼락소리가 났다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 속에 저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던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도 빼고 부리도 빼고 발톱도 뗀 채로 우물 안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개구리들이 구박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하고 콕콕 쥐어박는데 어쩌면 우리의 감각 속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분이 원래 어떤 분인지

도 모르고 때리고 치고 박고 해서 십자가에 못박았단 말이에요. 그와 흡사하고도 재미난 표현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분노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든지 세상의 군왕들이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아 무너져서 나를 덮어다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분노가 뭐예요? 어린 양이 무서워요? 힘없고 연약한 양인줄 알고 이 놈도 집적, 저 놈도 집적거렸죠. 진짜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어린 양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분이, 우리의 감각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분이 우리의 감각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불가사의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냥 읽어보면 별 것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합니다. 뭐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얼마만한 변화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영원한 존재가 아주 일시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단어가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질이요 부패입니다. 굉장히 나빠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실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성경의 표현은 '생령'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었는데 질이 떨어져서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신이 함께 거할 수 없다 이것이 홍수의 원인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함께 거할 수 없는 질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육체가 되었구나' 이 탄식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비유를 든다면 '그 놈이 인간인줄 알았더니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구나' 이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하겠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그 비참한 육체의 모습을 스스로 입으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싶어서 이 궁리 저 궁리 해 보았습니다. 투명인간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만약 물감을 뒤집어 쓰고 자신을 드러내 버렸다면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포기한 셈인가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질적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를 몇 가지 더 생각해봅시다. 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보지 않는 책이라도 방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책이 없어지면 보지 않을지언정 어떻게든 구해다가 책꽂이에 꽂아놔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책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게를 달아서 파는 경우가 있죠. 더구나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을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무게만 달아서 처분한다면, 내용으로 평가해야 할 책을 무게로 평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질적으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옷을 봅시다. 옷값을 무슨 근거로 매겨요? 천의 질이 어떤 것이며 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으며 패션도 따져야죠. 또 누가 만들었냐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옷은 무게를 달아서 팝니다. 만약에 그 옷이 인격이 있고 말할 입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전에 얼마짜리 옷이었든간에 무게를 달아 팔면 이것은 엄청난 질적저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본질적으로 그 영광스럽던 모습을 버리고 천하디 천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몸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효리나 이승엽이 엄청나게 몸값이 비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몸값 비싼 사람을 무게로 달아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제일 원통할까요? 내 몸값이 얼마인데 무게로 팔아 넘겨버리면 아마 속이 터져 나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며 나는 몸값이 얼마나 될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납치범들이,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나를 잡아가서 가둬놓고 우리 집에 "몸값으로 한 천만원 준비하세요." 이러면 우리집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해요. "다행이다. 어디 가서 천만원 구해올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랑 몸값이 천만원밖에 안된단 말이가? 기분 나빠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더 올려라!" 혹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뭘로 평가하겠어요 몸값을요? 몸값으로 몇 만원만 내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 같으면 안 나갈 것 같아요.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사고 치지 말아라. 여기서 사고치고 죽으면 개 한 마리 값밖에 안 나온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교관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개 한 마리 값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훈련소에서 죽으면 안돼요. 글자 그대로 개 한 마리 값보다 못한 돈 나오고 끝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그렇게 헐값에 처분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괴롭겠어요? 하나님이셨던 그 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변질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좋은 사진 많이 찍어서 현상소에 맡겼는데 현상소에서 실수를 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를 변상해 주나요? 얼마를 물려줄까요? 한 집사님은 '필름 몇 통값' 하시는데 아주 인심이 후한 현상소입니다. 몇 통도 아니에요. 동일한 새 필름으로 보상해 줍니다. 혹시 현상소에 가시거든 보세요. 신혼여행 가서 찍은 필름 한 통하고 새 필름 한 통하고 맞바꿀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새 필름 한 통 받아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막상 당하면 너무나 가슴이 터지고 분통터질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런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27*번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첫째 탄생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탄생하신 건 낮아진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하겠지만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은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겪으실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자초하셨습니까? 캄캄한 데 계시면서 나타나지 않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않고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3*절 중간쯤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주 목적이 인간과의 사귐을 위한 겁니다. 교제를 위한 겁니다. 그걸 아담이 깨어버렸단 말이에요. 깨어버리고 떠나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 오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집을 떠나간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아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아버지가 오히려 거지꼴이 되어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이러고 있어서는 안된다'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하게 계실 아버지께서 거지꼴이 되어 찾아와서 '이 더러운 곳에서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돌아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방법이 오늘 우리 읽은 *7*절 본문에 보시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합니까?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과 그 뒤 *9*절에 보시면 죄를 자백하는 것과는 같은 의미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에서 거하라는 말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게을러서 실수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근원적

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를 믿는 것 외에 내게 달리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백해야 하는 *1*번 죄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걸 믿지 않는 죄입니다. 비록 하는 짓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바보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큰 죄는 해결한 셈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봤다

요한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봤는데요' 하면 아주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이건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듣고 만지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믿으라는 얘기죠. '믿으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보가 좀 품위가 있어야 하고 점잖아야 죠*?* 제목이 도대체 이게 뭐냐*?* 원래 점잖게 붙인 제목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야 지난 번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과 짝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미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단순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기억을 오래 하도록 하려면 좀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바꾼 겁니다. 죄송합니다. 품위가 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기억은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 제목 앞에 한 단어를 붙였다가 너무 길다 싶어서 떼었습니다. 추가시켜 보십시다. 어느 단어를 앞에 추가시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부합할까요*?* 의미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 앞에 한 단어만 붙이세요. 투명인간이 실수로 물감을 덮어쓴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물감을 덮어쓴 투명인간'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스스로 물감을 덮어쓰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까지 낮추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이만큼 낮추셨다면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자신을 좀 낮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좀 낮춥시다. 낮추어서 형제를 사귀고, 이웃을 사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귀는 방법이고 이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고 낮추어 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악착같이 거부한다면 참 큰 죄입니다. '밥 먹으라'고 옆에 숟가락까지 다 챙겨 놨는데도 안 먹겠다고 버티면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다 챙겨 놓고 숟가락까지 챙긴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퍼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죠.

우리 처가에 성질이 좀 센사람이 있습니다. 먹으라고 챙겨 놓았는데 안 먹죠, 그냥 냄비째 들어서 머리에 덮어씌워 버렸답니다. 냄비를 머리에 덮어씌운 채 세워 놓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먹더랍니다. 너무 그래도 안되겠지만 '이렇게까지 챙겨 놓았는데 안 먹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음을 전해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냐 싶어요. 닭 중에도 가끔 머리 나쁜 닭이 있어요. 모이 먹으라고 뿌려 놓았는데 한사코 뿌려 놓은 모이는 안 먹고 그 옆의 돌만 콕콕 쪼아대는 닭은 머리가 나쁜 닭인지 어떤 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나타나실 수 없는 분이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믿노라 하고 한마디 고백하는 것 그걸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수고 많이 했죠*?*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과 귀한 사귐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개역, 사도행전 11:19~26]*

불타는 세상이 보고 싶어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냐*?*'고 한다면 여러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누가복음 12:49)*'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얼 태우시려고요*?* 예수님께서 태우시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온 세상을 불태우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불타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는 것을 즐긴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구요. 네로 황제가 그랬나요*?* 네로 황제만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며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소원도 온 세상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불은 타도 타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아무리 타도 꺼지지 않는 불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유혹할 때 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불이 나면 한참 타다가 꺼지든지 번지든지 해야 하는데 모세가 산 밑에서 보니까 불이 꺼지지도 번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고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고 싶은 불은 태우고 없어지는 불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를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드는 바로 그 불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이 불로 태우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타는 세상은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긴긴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성령이 제자들을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서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불로 태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그것이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것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곳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스라엘 경내에만 계셨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기껏해야 예루살렘에 작은 불 하나만 던져 두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이 차츰차츰 옆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더욱 확대되지요. 두둘기니까 꺼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번져가는데 그렇게 번져가다가 안디옥 쪽에 큰 불이 하나 떨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은 거의 불바다가 되는 셈이죠.

누가 세상에 불을 지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신 그 불이 온 세상을 뒤덮어가기 시작하는데 누가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소원을 누가 이루어 드렸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 당시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원을 바울이 들어주었다고 해서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제자들이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상대였으니까요.. 믿을 수도 없었고요..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들에게 소개시켜 주어 한 형제로 교제할 수 있게 해 준 인물이 바

나바입니다. 바울이 고향에 돌아가 있을 때 다시 불러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혼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뒷받침을 해 주지 않았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바울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이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퀴즈할 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기지 역할을 했던 그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앞장 서서 실천한 교회가 어쩌면 로마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요*?* 바울은 로마교회의 소식을 듣고 가고 싶어했지 로마교회가 설 때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고 싶다고 할 때 이미 거기에 멋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섰던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으며 세계 선교기지였던 로마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계복음화를 바울이 이루었다고만 생각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촌놈들이 불장난을*!*

본문 *19*절에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때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고 하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베니게는 요즘 말로 하면 페니키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조금 올라가면 두로, 시돈이란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을 페니키아, 성경은 베니게라고 합니다.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바닷가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이름이 구브로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피난을 간 겁니다.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피난을 가서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박해받고 도망가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역사를 하신다는 건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라는 말입니다. 이건 대형사고입니다. 어떻게 인간축에 들어갈 수 없는 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브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안디옥 맞은 편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구브로 사람들, 즉 섬 사람이죠.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섬 사람요*?* 제주도 사람... 제주도도 가 보니까 포항보다 훨씬 크던데 괄세할 것도 아닌데 '제주도 사람이 포항까지 왔으면 출세했네' 하고 폼 잡는 사람이 가끔 있죠*?* 섬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교회에도 섬사람이 적지 않던데 '섬 사람이 육지에 와서 출세 했다'고 놀리곤 하죠. 좌우간 섬 하면 좀 작고 촌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사람들도 좀 까무잡잡할 테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왜 지고 간지 아세요*?* 자기가 지고 싶어 지고 간 것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속으로 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오늘 재수 정말 없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야*?*' 잘은 모르겠지만 짐작은 갑니다. 여러 사람 중에 시꺼멓고 힘도 있어 보이니까 '자네 이리 와 봐' 그렇게 된 것 아닐까요*?*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간단하게 세 글자로 줄이면 '촌놈들'입니다. 이 촌놈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고였더라는 겁니

다. 베드로가 언젠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에서 금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올라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꿈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싶은데 또 내려온 거죠. 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였습니다. 이런 환상을 세 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꿈에서 깨면 해석은 잘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환상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별로 고민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하다고 했으니까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 손님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가이사랴에 백부장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분은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욥바 피장의 집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같이 가셔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되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과 찾아온 사람들과 연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전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되는데 성령님이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따라갑니다. 그 집에 가니까 백부장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 오시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그 때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모를까요*?* 상상이 안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까*?* 환상을 보았을 때*?* 자기를 부르러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그 집에 가서 보니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때였죠*?* 그 본문으로 말씀드린 설교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설교제목이 바로 답입니다. '말씀이 생각났더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야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11*장 *15*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같이 하더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후에야 아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교제를 하며 거기서 숙식을 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라고 책망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질을 하나도 안 냅니다. 차근차근 지금까지 된 일들을 다 설명합니다. 원래 성질 같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먼 곳에 가서 몇 밤을 지내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 감히 이럴 수 있느냐*?*' 이럴 것 같은데도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합니다.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난 유대인들의 반응이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함이라'**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잠잠히 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찬양하며 환호하며 얼마나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는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촌놈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전한 것을 사고쳤다고 말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진지하고도 조심스럽게 하는 일을 저 촌놈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앞서 베드로

가 이 일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그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말로 치리감입니다. 모가지감입니다. 어떻게 겁도 없이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런데도 괜찮았던 것은 바로 그 전에 베드로가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촌놈들은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해두었는지도 모르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을 미리 했으니 무사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이 촌놈들이 사고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게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그들에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특별히 세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가서 교회를 짓고 성도들을 모으고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이미 섰는데 필요하니까 나중에 목사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잘 가르치고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바나바가 혼자서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문뜩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십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짜 선수 등장*!*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용감무쌍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바울만 둘러 비춘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싸워서 못 이기면 그 다음에는 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 다니면서 얼마나 큰 소동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짐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절의 주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더니, 자기 절이 저기 있는데 여기서 집회한다고 쳐 보세요. 절에 다니던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도 소란스러우니까 '당분간 고향에 가 있으세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곳입니다. 고향에서 천막깁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만 하고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다소 근처에 교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바울이 고향에 가서 십 수년 동안 일을 하면서 주변에 여러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다소에 오래 머무르고 있을 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해서 함께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이 교회를 잘 키워나갑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죠,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두고 두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떠나긴 떠나자. 그런데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바나바가 말했습니다. '내 고향인 구브로로 가자.' 사고는 구브로 사람들이 많이 쳤는데 알고 보니까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나바의 사촌동생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여행은 간단합니다.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섬에 갔습니다. 이 섬에서 큰 결실을 맺고 다시 바다를 건너 육지로 갑니다.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앉은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앉은뱅이를 바울이 세워버립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자 갑자기 사람들이 '신이 나타났다'고 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덤볐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해서 제사를 말렸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붙들어서 돌로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죽었다고 밖에 내다버렸는데 깨어나더니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여행은 비교적 짧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랬는데 이때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와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두 사람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다투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처음 갔던 코스대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바울도 웬만하면 '같이 갑시다' 하고 따라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도 성질이 고약했던가 봐요. 같이 안 갑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쪽, 즉 *1*차 여행과 반대쪽으로 돌아서 처음에 갔던 곳으로 갑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아시아 지역이란 우리가 말하는 한국이나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이 잘 안되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는데 일이 잘 안되어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꿈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곧바로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바다 건너에 있고 유럽입니다. 그 이전에 바울이 다니던 곳은 전부 아시아입니다. 복음이 막 유럽으로 건너가는 셈이죠.

빌립보로 건너가서 어떤 여자아이가 귀신에게 잡혀서 점치고 주인이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여자 아이를 고쳐버리죠. 그 일로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혀서 찬송부르다가 옥터가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수가 뛰어왔는데 자결하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뢰아를 거쳐서 쭉 내려가면 아테네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죠.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간 것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 비하면 *2*차 전도여행은 아주 범위가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덴에 갔을 때 열심히 선교했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덴 시내 곳곳에 우상들이 서 있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는 신상도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근거로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도여행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세 번째 전도여행을 또 떠납니다. 코스를 비교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좋은데,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가고 싶어했지만 못 갔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2*년동안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도 에베소를 중심해서 빙 둘러가면서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바울이 열심히 가서 세운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2*년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거기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그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보지 못한 데가 많아요.

에베소에서 *2*년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점치는 사람들이 점치는 책을 다 가져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소용되던 모든 것,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에 붙여 놓았던 부적 따위를 전부 가져와서 불 태워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그 값이 은 *5*만이었다고 합니다. 종 하나를 사고 파는데 은 *30*이면 됩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러니 은 *5*만이면 대충 계산으로도 종을 천 육백명, 천 칠백명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종을 천 칠백명 살 돈이라면 얼마나 막대한 분량의 서적이 불에 탔는지 우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전체가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평양에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평양시내에 주일이면 가게가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을 지켰나요*?* 장사가 안되는 걸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럼 문제가 일어나죠*?* 에베소의 큰 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 먹던 장사꾼들이 장사가 안되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의 전각을 만들고 팔아서 먹고 살던 이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광장에 모여서 몇 시간동안 난동을 부리는데 간신히 이 난동이 끝난 후에 바울이 '이만큼 가르쳤으면 이제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처음에 갔던 고린도 지역까지 쭉 순회를 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으

로 빨리 돌아오는 방법은 *2*차 전도여행 때처럼 배를 타고 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독이 올라 항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배만 타라. 바울이 배만 타면 배 안에서야 제가 무슨 수로 도망을 가겠느냐*?* 물에 빠쳐서 죽여버리겠다'고 작심을 하고 있는 바람에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다시 거꾸로 걸어서 돌아옵니다. 빌립보까지 육로로 돌아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오면 드로아라는 항구인데 거기서 재미난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아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거기 모여서 *1*박 *2*일이나 아니면 무박 *2*일 부흥회를 한 모양입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자고 모여서 밤새도록 설교를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한 청년이 창가에 걸터앉았다가 떨어집니다. 그 청년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3*층에서 떨어졌으니 분명히 죽었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드로아 교회가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체포되고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는 예언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와서 체포되고 *2*년간 또 갇혀 지내게 되죠. 갇혀 있는 동안 고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3*차 전도여행 때 생겨난 꿈 '로마까지 가야겠구나'라는 꿈대로 결국은 로마로 갑니다.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지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고 로마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온 세상으로 번져간 불

예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의 불을 붙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촌놈들이 사고쳤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라났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고 결국 이들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 일을 바울이 마무리를 멋지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바울의 공을 우리는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베드로가 바탕을 잘 닦아 주었고 또 바나바가 그를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름도 없는 촌 사람 몇이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까*?* 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일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질렀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큰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를 복음화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들이 일을 저질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불을 붙이겠노라고 작심하고 덤벼들었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름없는 성도들이 친족들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엉뚱한 생각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웠습니다.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할 때 '내 고향사람들에게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간 겁니다. 온 세상을*?*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줬는데도 천막이나 깁고...*?* 천막을 깁고 있었을망정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이들이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렇게 멀리 갈 줄을 몰랐습니다. '가까운데 한 번 가봅시다. 갔다 온 곳을 한 번 더 가봅시다.' 이러면서 차츰차츰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추측컨대 로마에서 석방이 되고서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까지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때에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왜 왔겠습니까*?* 그 중에는 생계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돈 벌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나니 돈 문제가 아니라 내 고향 내 친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각자 돌아가서 고향에다 교회를 세웠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싸여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온 세상이 복음화 되어 갔다는 얘깁니다. 로마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틀림없다 해서 아마 베드로에게 배웠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세우지

않았을까 추측정도만 합니다.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교회가 많아요. 무조건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여야겠다고 하다보니 너무나 조그마하고 초라하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커지긴 커졌는데 누가 시작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좋은 걸 어떡해*?*

작은 순종, 작은 열심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초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의 사고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제일 먼저 시동을 걸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으면 숨어 있을 생각은 않고 거기서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어울리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은 크게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 때문에...라고 할 수 있어야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 기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가고 난 따라갈 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이고 그러한 작은 순종이 나중에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이 '내가 그래도 교회의 이 정도 직책을 맡았고 또 다른 사람 눈도 있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앞장서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실천해 가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고치세요. 무슨 사고요*?* 구브로 몇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일 하지 마라고 그래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다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노라 하면서 '하고 싶어서, 예배 가고 싶어서, 헌금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일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예수 믿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고 싶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기쁨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예배, 기쁜 헌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개역, 신명기 14:22~27]*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에 오시면서 즐거워서 일찌감치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꼭 가야 되나?' 하고 아슬아슬하게 시간 맞춰 오셨습니까?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있다면 일찍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찍 오면 뭐 하는데요? 꼭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즐거운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쁜데 이렇게 시간 맞춰 오는 것만 해도 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나와서 느긋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도 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의 하나입니다.

4, 5월이 되면 또 선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 누가 나온다 하면 흔히 요즘 들리는 말로는 "나오기만 해 봐라 누가 찍어주나?" 합니다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날이 기쁩니까, 짜증스럽습니까? 원래 굉장히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국회의원은 그렇다 치고 대통령 선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 여러분, 이거 기뻐해야 될 날입니까 아니면 짜증내고 욕해야 될 날입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랏님을 내 손으로 뽑는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가령, 조선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투표하는 것을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욕을 하며 투덜거리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뜻이죠. 북한을 탈출해서 온 어떤 귀순용사가 투표날 투표하러 가면서 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감격하며 투표하러 갔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격이 없는 일인지 몰라도 이전에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비치겠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대단한 기쁨이어야 하는데 눈 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 놈이나 그 놈이나, 내가 찍는다고 되고 내가 안 찍는다고 안되나?" 이러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시민이 투표권을 얻느라고 싸우고 싸우고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국도 여자들에게는 쉽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영국이 훨씬 늦게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준 겁니다. 우리가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일제 때 고생했던 사람들이 해방되던 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감격이 평생을 가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예가 참 많아요.

학생들 중에 교칙을 즐거워하는 학생을 보셨습니까?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도 잘 안 나지요? 기억하나 안 하나 교칙을 즐거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교칙을 왜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입시철이 되면 전국이 중병을 앓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면 두툼한 인쇄물을 받아옵니다. 요즘은 공납금 고지서를 찾아오지도 않아요. 우리 때는 합격자 발표나면 학교에서 두툼한 것을 받아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목돈을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고 내려오는 기분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렇게 입학하고서는 얼마 안 가서 학교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공납금 비싸다고...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요즘은 학생들이 공납금 투쟁도 열심히 하더군요. 갈 곳 없다고 이 학교 저 학교 기웃거리며 원서를 몇 군데나 넣던 그 때 심정을 잊지 않으면 어느 대학을 가든지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합격하고 들어가면 그 때 그 마음은 흔적도 없는 것 같아

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런 식이 아닌지 한번쯤 돌아보면서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뭘 즐거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교칙을 좋아하는 학생과 똑같은 것 아니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요일 예배 가야 되는구나*!"* 이게 즐겁느냐는 말입니다. 주일에는 *"*하루 종일 고생깨나 하겠구나*!"*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일을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성경에 즐거워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십일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십일조도 부담스러운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분을 위하여 십일조 규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십일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여기보다는 민수기 *18*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가까이 아니하는 대신 레위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18*장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말하였노라'**고 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분배하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를 전부 레위인들에게 주었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일조의 본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십일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나오는 십일조를 자세히 보시면 앞에서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십일조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십일조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한 번 보세요. *22*절에는 십일조를 드리라고 했지만 *23*절에는 십일조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십일조를 먹어요*?* 십일조를 먹으며 십일조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가지 십일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민수기에 나온 것이고 여기에는 또 다른 십일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십일조를 드리고 난 다음 또 나머지에서 십분의 일을 떼어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즐기는 겁니다. 유월절 축제를 벌였다는 이야기죠. 십일조를 유월절 축제 비용으로 썼습니다. 먹고 즐기는데 썼다는 거죠. 물론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에 쓰는 비용도 여기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여기 또 십분의 일을 낸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3*년 끝에라는 것은 *1*년 *2*년에는 먹는 십일조를 드렸고, 먹는 십일조라니까 이상합니다마는 제*2*의 십일조를 첫 해와 두 번째 해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세 번째 해에는 같은 십일조를 그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객을 위해서, 말하자면 구제하는데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분의 이를 드린 셈이죠. 두 가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일조를 드리는 분위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내는 십일조를 굉장히 경이로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연말 정산할 때 그 액수를 기록하게 되지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이렇게 교회 다 바치고 뭘 먹고 삽니까*?"* 이러는 거죠. 제가 했던 답변 중에 제일 걸작품은 *"*내가 교회에 아무리 많이 갖다줘도 너희들이 술집에 갖다주는 것보다 적다. 너희는 술집에 그렇게 갖다 주고 뭘 먹고 사냐*?"* 내가 그렇게 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믿는 우리에게도 십일조가 대단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일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되겠네요.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니라**' 십일조 드리는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잔치 분위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온 권속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십일조 드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심이 많으셔서 소산이 워낙 풍족해서 먼길 가기가 어렵고 번거롭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필요한 것을 바꿔 유월절에 참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편의를 다 잘 보아주었는데도 그 편의를 악용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위기는 먹고 즐기며 잔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얘기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축제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라고 한 것 중에 이해 안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뭡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잘 안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은 눈이 번쩍 뜨일 수도 있을 겁니다. *26*절을 자세히 보세요. 사라고 한 것 중에 이건 도저히 용도를 모르겠다는 것 있습니까*?* 아직도 안 보이시는 분은 아주 경건한 분이실테고요 그게 잘 보이는 분들은... 유월절을 즐기기 위해 사라는 품목 중에 독주가 들어있습니다. 왜 들어있을까요*?* 독주 가지고 무엇을 하게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 보면 어디 앉아서 얘들아 놀아라 하면 안 놉니다. 모처럼 나왔는데 놀아라 그러면 안 놀아요. 선생님이 자리를 잠깐 비켜줘야 노는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잠시 비켜주면 잘 놉니다. 잠시 비켜준 사이에 저희들끼리, 선생님 몰래 홀짝홀짝 한잔씩 하고 그 다음부터 잘 놀아요. 술이 한잔씩 들어가면 좌우간 흥이 나는 모양입니다. 왜 유월절 잔치에 독주가 들었냐 말이예요*?* 너무 즐기지 마시고, 이런 구절에 너무 은혜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월절 잔치를 정말 흥겹게 지내기 위해서 독주를 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술 먹으라는 구절 있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술 먹는 이야기와는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십시다. '**네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소산을 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많은 것을 뿌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소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레위인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것도 십일조를 드리라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떼어 보면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23*절 제일 끝에 보면 '**네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합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걸 드리면서, 이걸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레위인을 기억하는 것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내가 받은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근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십일조를 드리는데 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싫으나 좋으나 십일조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은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오래 전에 제 친구가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본인도 주변 사람도 사업이 참 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원금을 따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 돌고 있으니까 많이 벌고 있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실상은 벌기는커녕 원금을 까먹고 있었던 거지요. 한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남은 것이 얼마인가라는 계산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봉급받는 분들은 십일조 하기가 그래도 쉽습니다마는 고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진짜 십일조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집을 고치고 보일러 놓는 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십일조를 제대로 할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한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십일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걸 면밀하게

살피고 있으면 자기 사업도 안정됩니다.

특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 가정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망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십일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하노라면 이런 위험이 예방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 마음이 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애써서 십일조를 드려서 교회가 잘 자라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 재정을 온당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거기에 있게 마련입니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또 돈을 나쁜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지 돈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돈을 경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믿음만 좋으면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멀리 있을 때 그런 말 하다가도 막상 가까이 일이 닥치면 믿음보다 돈에 눈이 더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왜요? 그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 자체를 경시하거나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이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드리면 정기적으로 내 마음도 거기 가 있을 터이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레위인들에게 분깃이나 기업, 말하자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으면서도 레위인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을 잘 돌봐주라는 얘기죠. 아니 땅을 주지 않을 때는 언제고 잘 돌봐주라는 것은 뭡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레위인을 돌아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레위인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부 우상을 섬기면서 십일조를 전혀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성전에서 사는 레위인이 죽어 나가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뭘 기억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레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십일조를 정확하게 지킴으로 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실 거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방편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십일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에게 십일조를 챙기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에서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십일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금붕어 아이큐가 3초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큐는 뭐 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성품 아닙니까? 그나마 한판 하고 난 다음에 속이 상해 있는데 수요일이네? 그러면 예배가 우리의 화를 길게 끌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는지 생각하고 돌아보시

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설교하는 이 강도사에게 있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죄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몇날 며칠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끙끙 앓아야 합니다. 그건 제가 할 일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다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본문만 보면 우리 강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이제는 감이 잡히네요." 하시더군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죠. 이런 제목으로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면 뻔한 이야기? 맞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제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뻔한 이야기를 참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이 음악회에 열을 냅니다. 누가 와서 연주한다고 하더라 아는 사람이 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가서 좁니다. 아는 사람이 갑니다. 진짜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보았던 영화를 정기적으로 또 봅니다. 이런 사람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뻔한 이야기라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희생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요? 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평생에 즐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듣고 듣고 또 들어야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수도 없이 나누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즐기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제 친구 한 녀석이 여학생을 사귀었나 봐요. 어느 날 품에 편지 하나 품고 자다가 들켰습니다. 다른 구절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편지 속에 한 대목이 기억 납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 친구가 그 구절을 외우며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유행가 가사였대요. 그런데도 그게 무어라고 날마다 품고 자더군요. 다 읽었으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읽고 버리는 건가? 날마다 날마다 가슴에 품고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나 그거 알아!" 하고 한번 읽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즐겁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운동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 "탁구가 운동이 되냐?" 그랬습니다. 탁구 그거 운동됩니까? 맨날 공 주우러 다니고 허리만 아프죠? 그러나 좀 칠 줄 아는 사람이 탁구를 하다가 숨이 차서 쓰러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 됩니다. 누구에게 운동이 됩니까? 아는 사람에게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즐거운 거예요. 운동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운동이 되고, 아는 사람에게는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다음 주가 되면 우리교회 평신도 신학교도 개강하고 또 제가 인도하는 성경공부도 개강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배워가면 하나님께 대해서 느끼는 감이 전혀 다릅니다. 배우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호모라는 말이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됩니다마는 원래 호모라는 말이 나쁜 뜻은 아닙니다. 호모라는 말이 붙어 있는 유명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지성을 가진 사고한다는 뜻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사고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걸어 다니는 인간이라고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뜻에서 '호모 에쿠노미쿠스'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의 특징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죠. 사람은 도구를 써서 물건을 만드는 존재라고 '호모 파베르'. 참 어려운 말 중에 '호모 루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용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간입니까? 이게 원래 라틴어를 연결시켜야 말이 되는데 제가 라틴어를 잘 몰라서 우리말과 짬뽕시켜 봅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모 예배',

예배하는 인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어떤 면에서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뜻에서 호모예배 해 놓고 저 혼자 참 많이 웃었습니다. 예배만 할거냐? 호모 십일조, 호모 성경공부, 호모 기도,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라는 뜻에서 '예배하는 인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사고하는 것 중요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인간, 이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존재를 설명하는 말 아닐까요?

예배하는 인간! 수요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참으로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전해주셨거든요. 날마다 애인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든 그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즐거운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가 즐겁고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가 즐거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기쁨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즐거움으로 넘쳐 나기를 바랍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드리는데 이걸 못 드리는 사람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갈 수만 있다면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 편은 동북을, 한 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개역, 사도행전 27:9~26]*

바울은 한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예수를 만난 후 바로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꿈이 조그맣게 싹이 나서 점점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소망, 작은 꿈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면 엄청난 꿈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개종하자마자 유대인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굴복시키는 일에 앞장 섰습니다. 워낙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안디옥 옆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적어도 *10*여년을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젊은이가 꿈을 다 접어놓고 고향에서 천막이나 짓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텐트 메이커라면 문자적으로는 천막 짓는 사람이겠지만 '자비량 선교사'란 뜻으로 씁니다. 바울이 이 기술을 가지고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고향에서 텐트만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짐작이지만 그럴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주변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라는 꿈, 안디옥으로!

고향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동안에 바울의 꿈이 차츰차츰 자라납니다. 텐트를 만들며 지내던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바나바입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바나바가 어느 날 바울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헬라파 유대인들이 택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나바 자신이 파송을 받아 여러 해 동안 노력한 결과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니까 바울이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파묻힌 바울을 밝은 세상으로 끌어낸 셈입니다. 작은 꿈이 생긴 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둘이 함께 *2*년 동안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날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선교사역을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선교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세워놓으니까 선교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바나바의 고향을 거쳐서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가졌던 꿈이란 것이 안디옥에서 조금

떨어진 아시아*(*현재의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입니다.

자라는 꿈, 아시아로*!*

얼마 후에 '지난 번 우리가 가서 세운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나서려다가 마가 문제로 크게 싸우고 헤어집니다. 바나바가 먼저 떠나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좋은 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번 갔던 곳과 반대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기 고향 다소를 지나갔습니다.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를 둘러보았다는 것은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그 지역에다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선교사들이 가장 가까운 동료와 싸우고 헤어진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그 아픔을 잠시 묻어둔 채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라는 꿈, 마게도냐로*!*

이 때 바울이 가졌던 소원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아시아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됐습니다. 성령이 막았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돼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빌립보가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바울이 이 때 작은 바다를 건너간 것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의 꿈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이리저리 돌아서 아테네를 거치고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에베소의 부흥*!*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세 번 다녔는데 그 코스라도 기억해 두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얼마 후에 또 세 번째 여행을 갑니다. 이유는 지난 번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번째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로 직행합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배운 그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결과로 점치는 자들과 우상 섬기는 자들의 책을 전부 불에 태웠는데 은 오만에 해당되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은 오만이란 액수는 지금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종을 천칠백 명이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결과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바울의 머리 속에는 '내가 다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을 둘러본 후에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라도 돌아보려던 작은 꿈이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면서 지난 번에 세웠던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길이 아주 단축됩니다.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뱃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만 타라 그러면 바울을 죽여 버리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전과 달리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되돌아옵니다. 과장한다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남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것처럼 먼 길을 돌아 옵니다.

귀로에 다시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왔을 때 그 유명한 유두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회를 너무 오래 했더니 유드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이를 살린 것 때문에 드로아의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1, 2, 3* 차 전도여행이 다 끝났습니다. 삼차에 걸친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지 열 이틀 만에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많이 두들겨 맞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다행스럽게 로마 병정들이 즉시 뛰어와서 바울을 체포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진 않았습니다마는 로마병영에 갇히게 됩니다.

전도여행의 상급*!*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삼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상금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억울하게 매 맞고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그 동안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준 대접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지 열 이틀 만에 갇혀서 *2*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잡혀오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과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병영 안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스라엘의 공회를 다 모아서 그 앞에서 복음을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공회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기관입니다. 그 높은신 분들을 다 모아 놓고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며 내가 전한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태까지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늘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왔지만 여기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더구나 다른 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맞아 죽을 일이지만 여기서는 천부장이 지켜줍니다. 심지어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천부장이 다 불러 모아주었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특히 결사대 사십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며 매복하고 바울이 이송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이래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을 빼돌리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빼돌릴 때 결사대 사십 명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호송하는데 로마군인이 몇 명이 동원됐는지 아십니까*?* 보병이 *200*명입니다. 마병이 *70*명, 창을 든 군사가 *200*명입니다. 바울 하나를 빼돌리기 위해서 동원된 군사가 *470*명이었다는 것은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고, 위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기등등한 분위기에서도 로마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2*년이나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그립바 왕과 그 부인들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갇혀 있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상류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은 무척이나 즐거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치기 전도사도 이런데...

신대원에서 어떤 젊은 전도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왔거든요. 전도사가 됐는데 설교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냐*?*"고 하니까 하고 싶어 죽겠데요. "교회에서 안 시켜줘*?*" 하니까 일년에 한번쯤 시켜 준답니다. 이해가 갑니까*?* 설교하고 싶어 죽겠는데 한번도 안 시켜주더라는 거에요. 큰 교회 같으면 목사님, 부목사님 쫙 있는데 금방 신학교 들어간 그 젊은 전도사에게 누가 설교를 시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고 싶어 못 견디겠더래요. 그런 젊은 전도사에게 어디서 누가 불러서 '설교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펄펄 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참으로 감사한 것이 젊은 전도사, 참, 젊은 전도사는 아니네요. 금방 신대원 들어간 전도사 불러놓고 매주 설교를 시켰다는 것이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 앞에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초등부 성경학교 하느라고 나갔다가

수요일 오후 *5*시쯤 도착해서 집에 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설교한다고 쫓아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오늘은 좀 쉬시던지 다른 분 보고 설교하라 그러시죠.*"* 하더군요. 제 답변은 *"*수련회 마치고 왔다고 내가 저 뒤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설교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했더니 *"*졌습니다.*"* 하데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설교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관리들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바울은 대단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바울에게 아무 상급이 없었던 듯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가장 좋아할, 상류층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쉬라고 해도 쉬지 않을 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어떤 면에서 죄없이 매 맞고 억울하게 갇혀서 *2*년이나 로마의 병영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여보내줬습니다. 바울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부대 안에서만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 지냈습니다. '갇혀 지내서 참 답답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너는 내어보내 놓으면 쉴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억지로라도 가둬놓지 않으면 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널 위해서 여기 좀 가둬 놓은 것이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내보내 놓으면 어디 가서 온천욕하고 누워 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가둬 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널 가둬 놓은 것이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들이 학교에 모이면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엄마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애가 잠을 안 자서 참 걱정입니다.*"* *"*애가 왜 잠을 안 자는데요*?"* *"*자라, 자라, 해도 공부밖에 안 해요.*"*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애는 그럴 만한 애입니다. 학교 아이들이 다 설쳐도 책을 안 놓는 아이거든요. 그러고도 남을 아이입니다. 그 애 이름이 송래인데 제가 그랬어요, *"*송래 엄마는 빨리 돌아가시고 다음부터 어머니회 한다고 그러면 학교 오지 마세요.*"* 어디 다른 엄마들 기죽일 일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 말이 맞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만하고 좀 쉬어라 해도 쉴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자유를 마음껏 주면서 *2*년 간이나 갇힌 것은 다음에 귀한 일을 하기 위한 강제휴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둬 놓지 않으면 도저히 쉬지도 않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휴식의 기간을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자라는 꿈, 수도 로마로*!*

어떤 면에서는 휴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휴식보다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열심이 더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휴식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 번이나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 온 바울에게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설교할 기회도 주시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선 답답함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이렇게 있느냐*?*' 총독이 바뀌어도 나갈 기미가 없자 결국은 '내가 무고하게 여기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한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간 항해를 해서 지중해의 섬 그레데에 닿았을 때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바울이 '여기에서 쉬고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누가 죄수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이나 선원들의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서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으니 거기 가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는 의견을 따라서 백부장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출항했습니다. 일개 죄수의 말을 들어줄 리는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큰 화근이었는지 곧 알게 됩니다. 행색은 초라해도 그렇게 무시해도 좋을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단 큰 바다로 나갔는데 처음에야 잘 나갔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바다는 거칠어지고 풍랑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돛이 찢어지고 배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게 되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분간도 못한 채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십사일간 고생을 하고 난 후에야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 걸 압니다. 바울은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와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 해도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안심하십시다' 이렇게 바울이 격려를 하였습니다. 일개 죄수였지만 그 죄수의 말을 듣는 게 옳았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물길이 점점 얕아지는데 바울의 눈이 참 밝았던 모양입니다. 선원들이 거룻배를, 지금 말로 하면 구명정을 내리는 걸 바울이 발견하고 백부장에게 고합니다. '저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자고 저렇게 도망가게 되면 우린 다 죽습니다. 당신도 살 수 없으니 알아서 처치하십시오.' 그래서 구명정 줄을 끊어버립니다. 단순하게 눈이 밝은 정도가 아니라 매사에 사려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일하려는 사람에게는 일거리가 보이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거리가 아예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육지에 다가가다가 배가 좌초되고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배가 깨어지기 전에 모두 육지로 올라가야 하는데 문제는 죄수들입니다. '죄수들은 전부 죽이고 가자'고 할 때 백부장이 죄수들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죄수들이 도망치면 병사들이 대신 죄를 져야 하니까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결국은 죄수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전원이 상륙하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불을 피우고 바울이 불에 나무를 넣었더니 거기서 뱀이 한 마리 튀어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틀림없이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늘이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하면서 지켜보았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툭툭 털어 버리자 '아!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장 아들의 병을 고쳐주고 다른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바람에, 이 원주민들이 다시 바울 일행이 먹을 것을 챙겨 주어서 다시 로마로 떠나게 되지요.

죄수라고?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번쩍 번쩍하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보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선장보다 더 권위가 있고 책임을 맡은 백부장보다 더 권위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비록 죄수였지만 그로 인해서 선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목숨을 구하는, 죄수는 죄수지만 특이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이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이 아니고 셋집이었습니다. 셋집을 얻어서 지냈는데 죄수를 지키는 방법이 죄수를 지키는 로마 병사 한 사람과 죄수를 같이 사슬로 묶어 놓는 겁니다. 누가 불편합니까? 저는 바울은 별로 불쌍하게 안 보이는데 바울을 지키는 로마 병사가 참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모습으로 바울은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옆에서 로마군인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활동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가운데 이년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야!

바울의 소원은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 죄수인들 어떠냐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갇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묘하지만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이를 전함으로 해서 바울이 얼마

나 힘들어 하겠느냐'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씀이 빌립보 *1*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던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의도로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던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수가 됐든, 개선장군처럼 가든,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요,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가 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기에 이런 고상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년 쯤 지난 다음에 재판을 받게 되고 무죄 판정으로 석방됩니다. 석방이 된 후에 바울은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스바냐 지역까지 전도여행을 다녔던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한번 더 투옥이 됐다가 나중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해진다면 비록 죄수의 신분이든 아니면 옥에 갇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내 자존심이 좀 깎이고 내가 좀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게 무슨 대수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복음만 전해진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 기준이 아닌 복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서 바울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유럽을 싣고 간 배처럼*!*

바울이 이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한 결과 세계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나아가 유럽이 복음화면서 오늘의 문명 세계의 주도권이 유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고대 *4*대 문명이 모두 아시아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세계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고 표현했답니다. 바울이란 죄수를 싣고 간 그 배는 단순하게 바울만 싣고 간 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싣고 갈 만큼 위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격적인 욕을 얻어먹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짊어지고 가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회사가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야단을 듣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로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품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산다면 내가 좀 구겨지고 내 자존심 좀 상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만약 바울이 우리 곁에 살아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 죄수인들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로마로 갔던 바울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도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곳을 만듭시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요*?* 우리 교회만 해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도 부딪히는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잘 낫고 저 사람이 못 나서도 아니고, 저 사람하고 나 하고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마음 상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내가 욕 좀 얻어먹어서 교회가 산다면 욕 좀 얻어먹는 게 대수냐*?*' 이럴 정도로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게 뭐냐*?*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겨우 열 이틀 만에

옥에 갖히지 않았느냐*?* 애매하게 매 맞고, 그것도 억울하게 이년이나... 그렇게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에게 직접 그것을 물어보면 그 이년동안 어쩌면 참 행복했노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라도 휴식을 줘야만 휴식할 수 있었던 그 열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있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좋은 예를 보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작으나마 바울의 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참고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 이 작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귀한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귀한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퍅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개역, 출애굽기 14:13~28]*

흔들리는 상식

어떤 텔레비전 퀴즈대회 도중에 답을 모르면 *ARS*청취를 선택하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네요. 출연자가 답을 잘 모를 경우에 *ARS*청취를 선택하면 방송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답이 몇 번이라고 가르쳐 준대요. 청취자들의 답을 보고 출연자가 답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마침 질문이 '음식물이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디냐?'였고 보기는 *1*번 식도, *2*번 위, *3*번 소장, *4*번이었답니다. 이 분이 자신이 없었는지 *ARS*청취를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몇 번 같습니까?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열심히 전화를 걸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위'였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자신있게 '위' 하고 *2*번을 했는데 틀렸더랍니다. 정답은 소장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경우도 있더랍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는 경우가 적잖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을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뭘 타고 올라갔죠? 예상되는 답변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탓인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운 탓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회오리바람을 타고 날려 올라갔으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날아 가다가 틀림없이 저 산 넘어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시체 찾으러 산을 넘어 갑니다.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병거는 왜 등장하지요? 불병거와 불말은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지 않고 한사코 따라붙으니까 이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고 벌어진 그 틈에 회오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을 했답니다. 쉬운 것을 하나 더 해봅시다.

동방박사 몇 사람이 찾아왔죠? 이 때는 세 사람이라고 해야죠? '묻는 거 보니 아닌 거 같다' 하시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찬송가에 '동방박사 세~사람~...'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동방박사 그림도 다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드린 예물이 세 가지니까 짐작컨대 세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일 뿐이지 정확하게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예를 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모세는 홍해를 어떻게 갈랐을까요? 지팡이로 홍해를 쳤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장면을 머리 속에 그려보시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더 보아야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고 되어있습니다. 세 군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소리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다야 갈라져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보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옵니다.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이 병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OX*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병거가 달리지 못하게 해서...' 맞나요? 그럴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퀴를 벗겨서 병거가 못 달리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빠져나간 후에 이 병거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바퀴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시야를 막아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구름이 사라지니까 병거들이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 때 하나님이 바퀴를 벗겨버리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작은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냅니다. 애굽에 재앙이 떨어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솜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손을 들고... *8*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고 하는데 원문으로 한다면 '높은 손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이겼다'고 외치듯 이런 감격으로 애굽을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곳은 바다가 앞을 가로막는 곳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저 바보같은 놈들을 내가 내어보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추격해오는 것이지요.

어쩌면 앞이 바다로 막힌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바로를 유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백성이 바닷가에서 진치고 있을 때 병거부대를 보고 모세에게 원망할 때에 모세의 답변이 참 놀랍습니다. '**너희는 두려워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모세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은 백성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애씀도 없이 걱정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 맡기고 처분을 기다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 하고 모세는 뭘 했을까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했지만 모세 자신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쓸데없이 우왕좌왕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로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시죠?

앞으로 나가면 어딥니까? 바다입니다. 백성들이 쉽게 따라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받으면서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이해가 안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바다로 들어가라 하고 본인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구름기둥이 뒤로 이동해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전부 막아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죠.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다 건너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으시다가,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는 바다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들어오니까 다시 바닷물을 덮어서 그들을 다 수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전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가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혼이 나고도 여호와인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험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분간하느냐?'는 얘기죠. '꼭 맞아봐야 아픈 줄을 아냐?'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이 딱 그 짝입니다. 진짜 맞아서 다 죽는 꼴이 나야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작은 순종, 큰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두번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야 합니다. 꼭 징계를 받아야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게 애굽 사람입니다. 믿는 성도가 절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애굽인들은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민 건 뭘까요? 홍해를 가른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어민 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했는데 만약에 모세가 내밀지 않았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뻔한 질문이지만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기 전에 모세가 손을 내미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실 때 꼭 우리에게 뭔가 작은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나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앞부분을 조금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노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노라'는 표현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내가 도저히 갈 수 없으니 저기 가까운 성 소알로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천사가 '그리로 급히 도망하라' 하면서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노라' 하신 거죠. 그럼 열심히 도망칠 필요 없네요? 중요한 것은 롯이 도망칠 때까지는 하나님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깁니다. 소돔성에 불이 쏟아진 건 언제입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꼭 이런 과정,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은 롯이 행위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더러 들으라고 하시는 거겠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음성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말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7년간의 기나긴 전쟁을 합니다. 싸우는 족족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기지 못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기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 있나요?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기기 어렵겠다 싶어서 싸우지 않아서 졌습니다. 쫓아내야 할 적과 싸우지 않으면 비긴 것이 아니라 진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도 붙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다 멸하기까지 해와 달이 중천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도 백성들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면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셔도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홍해를 가를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다 하셔도 모세가 손 내미는 일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없어서 못 보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이사야의 입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러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시작은 나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하실 때도 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를 누구에겐가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의 신호탄으로 쓰시더란 말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부터 사르밧 과부의 양식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노력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도 내가 행하는 작은 순종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단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뛰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가야 되나? 조금만 더 보고... 수요일 저녁엔 드라마 없죠? 시계 쳐다보면서 조금만 더 보고... 그러다가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온다는 감격을 누리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서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순종도 연습해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밀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손을 내어밀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만 그 작은 순종도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끌려 다니면서 이리저리 해 보았던 그 경험, 체험이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때로는 작은 일에서부터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덜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훈련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지 살글살금 재미를 느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법입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복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한번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연습되고 체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평소에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어렵습니다.

강도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것이 즐거운 일일까요? 고역일까요? 제가 지금 좋아서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까? 고역을 치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참 즐거운 일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계십시오.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머리 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아이들에게 *1*시간을 가르치려면 준비하는 시간이 *8*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놀라시더라구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것인데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학에 나오는 이야깁니다.

아이들을 *1*시간 가르치려면 *8*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10*분 가르치려면? *80*분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죠.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그것보다 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생각하고 짜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인데 힘든 이 훈련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쉬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가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게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데요? 여러분, 우리 삶을 조용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과연 빛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요? 소금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아니라면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들려오는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무리 큰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든 괜찮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너, 그 성질 좀 고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려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고치려고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서 고독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 '그리스도인이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싶다면 그 다음부터 형제들을 만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남들에겐 아무 일도 아니지만 자기 성격이 그럴 때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이야깁니다. 우리 사촌누나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사흘을 지내다 갔다는데 제가 입 떼는 걸 한번도 못 봤답니다. 제가 대학교 일 학년 때는 친구들이 제가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에 없답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쳐 보겠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맘이 내키지 않으면 저는 떠들고 웃고 지내는 것보다는 혼자 앉아서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편합니다. 단지, 믿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릇을 고치는 것이나 생각을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고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작지만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홍해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민 모세의 순종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 위로 손 내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

학 후배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초년 시절에 저하고 같이 밤을 지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새벽에 잘 일어나는 편이라 괜찮은데 이 목사님이 툴툴대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새벽기도만 아니면 나도 목사노릇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더군요. 옛날 이야깁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 사십일만 한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던 사람이 일어나려고 한번 마음먹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억지순종이라도 한번 해보자란 생각이 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재미가!

좀 뚱딴지 같지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그 후에 바다만 보면 지팡이를 내밀어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게 예수믿는 재미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또 그런 기회가 없냐 하고 찾게 됩니다. 그런 재미도 없이 무슨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고 그런 체험을 즐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피묻은 복장을 불에 사르는 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멘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묻은 복장이 불에 섶 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개역, 이사야 8:16~9:7]*

이번 주에 우리 국회는 피튀는 것 이상으로 험하게 싸웠습니다. 실제로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선혈이 낭자한 전투보다 더 험하게 싸운 셈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유례가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분들이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아마도 국민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된 입장에서 '그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 결정으로 좀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좀더 나은 민주사회로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쯤이면 이들 정치인들이 피묻은 전투복을 불에 사르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날이 올까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사는 날이 올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날이 언제 올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걸 내 백성이라고...

악한 왕 아하스 시대에 적군이 여러 번 침공하여 나라가 쑥대밭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거절하고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제 고집대로 하는 왕과, 우상 숭배에 열심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이사야 1:2~4)*',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이사야 5: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탄식을 뱉으며 극도의 실망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가장 큰 실망은 어떤 것입니까? 별로 겪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시죠? 대학교 합격 발표장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떨어진 것을 보고는, 정작 당사자는 멀뚱멀뚱한데, 아버지가 땅에 퍼져 앉아서 울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고3 학부형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큰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까? '온갖 짜증과 힘든 것을 다 참아가며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망감이 겨우 이 정도 아닐까요? 하나님의 실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경험이라도 비교해 보아야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하실까요*?*

야단을 맞기는 좀 맞아야지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 않으니 *16*절에,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하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의,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외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들려줄 필요도 없으니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덮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러시겠습니까*?* 혹시, '잘 삐지는*(*삐치는*)* 우리 신랑 닮았네*!*'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성질이 고약해서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삐쳐서 며칠씩 말을 안 하는 신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해도 해도 안되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한 아하스와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는 말씀은 끔찍한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다린다구요*?* 바로 앞의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이란 말을 잘라내면 안됩니다.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서운 심판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우시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따르지 않고 한 문장만 떼어내서 감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떤 가정에 걸려 있는 액자에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가정이나 교회의 부흥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요마는 성경 본문의 문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하박국 *3:2)*' 부흥을 말하면서 왜 '진노 중에라도' 하며,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까*?* 여기서 부흥케 해야 할 주의 일은 심판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와중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주의 일을 부흥케 하라구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우시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것은, 선지자의 자녀 중에 '마헬살랄하스바스'란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의 이름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뜻은 '노략이 속함' 입니다. 이 이름처럼 앗수르가 곧 침입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결과적으로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득세합니다 *(19-20).* 그러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마련입니다.

죽은 자에게 산 자가 묻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19)*? 삶은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빙긋이 웃는 돼지라야 더 효력이 있다더군요. 그러면 삶기 전에 옆구리라도 잘 간지럽혀야 하나요*?* 큰 나무나 큰 바위 앞에 복을 비는 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우리나라에도 점 집이 번창하고 점 광고가 많은 지면을 메우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문자를 보냈는데 못 봤느냐*?*'고 묻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미안, 하도 엉뚱한 것이 많이 오길래 잘 안봐, 그러다가 한꺼번에 지워버리거든...'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오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점친다는 광고지요. 문명이 발달하면 미신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과학이 발달해도 미신적인 풍토는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명의 이기를 미신이 먼저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보입니다.

기독교인을 상대로 하는 점쟁이가 나타난지도 꽤 됐습니다. 점쟁이가 '기독교인 환영'이란 간판을 걸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을 상대로 하는 점쟁이는 복채를 받지 않는답니다. 좋을 것 없어요. 대신에 헌금을 받는답니다. 마술사와 신접한 자가 득세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점쟁이도 머리가 좋아야

이런 점쟁이들이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19*절에,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말'**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족집게처럼 잘 맞추는 점쟁이도 있다구요*?* 확률 높은 주제를 잘 골라서 한 두개 맞히면 유명해집니다*!* 가끔은 적중률이 높다고 선전하기도 하고, 어떤 유명인사의 죽음을 예언했다고 떠들어대기도 하지만 적중률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면 틀린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표현대신 두리뭉실한 표현을 즐겨 씁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포항에서 점을 치려면 절대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동쪽은 바다인데 귀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땅으로 하여금 곤고하고 주리게 만들고야 말 것이며 애꿎게 자기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 입니다*(21).* 비열한 짓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대부분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이렇다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자신을 먼저 비난해야 할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는 말씀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22).*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고통하던 자에게 희망의 빛을*!*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일은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도 같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뒤이은 *2*절도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이들에게 비취는 빛이란 마태복음 *4:12-16*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해도 안되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되니 결국은 아들을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징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해도 결론은 항상 회복입니다. 설교 본문을 어중간 하게 *8*장 끝과 *9*장 앞부분으로 택한 것도 바로 징계와 회복의 관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8:1-7*은 회복을 말하는데 *8:8*절부터는 다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의 전개로 보아야 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취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 분에 대해서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한 아기가 탄생할 것입니다*(6).* 이 아기의 탄생은 제대로 된 왕의 탄생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수 많은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우리말 성경에는 다섯 가지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네 가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별개의 이름이 아니라 '모사의 기묘함'이란 뜻인데 굳이 동양식으로 말하면 '제갈공명의 꾀'라고 하면 비슷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왕은 지혜롭고, 전능하며, 영존할 것이며, 평강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없이 반항하던 이전 왕들과 비교하면 완벽한 왕의 탄생입니다.

'정사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란 영원히 다스릴 것을 뜻하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리란 것'은 나라가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영원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탓입니다*(7).*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항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완벽한 왕이 탄생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나라가 창성케 될 것입니다*(3).*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하면 거의 대부분이 수난의 역사입니다. 이웃 나라에 제대로 큰 소리 한번 쳐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지 않으면 나라가 창성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38*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휴전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남북이 통일되고 부강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미국*?*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고구려를 자기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북한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려는 전초전 아닐까요*?* 북한이 붕괴하거나 스스로 서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기네 영토에 편입시키려는 꿍꿍이 수작을 부리는 것 아닐까요*?* 우리 민족이 강대국 사이에 끼여서 스스로 서지 못하면 그것을 도와줄 강대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3).* 추수하는 즐거움이 더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농부라야 알지요. 대신에 아이들을 키우는 즐거움에 비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훗날 이 아이가 내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합니까*?* 자라는 그 자체가 신비로운 즐거움 아닙니까*?* 천안을 오르내릴 때 백 강도사님이 말도 잘 못하는 수찬이에게 전화를 자주 걸더라구요. 그러더니 어느 날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우리 수찬이 주어 동사가 연결됐다*!*"

그 전까지는 수찬이의 언어구사능력이 단편적인 단어의 나열에 그쳤는데 그 날은 드디어 주어와 동사가 연결된 모양입니다. 목적어도 없이 주어와 동사가 연결된 문장이 어떤 겁니까*?* 기껏해야 '나 잔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목적어까지 연결돼야 '나 밥 먹었다' 정도 되지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이 기르는 즐거움이란 게 바로 그런 거지요*!* 신비로움이고, 희열이고, 감격입니다. 추수의 즐거움이란 것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즐거움을 주신답니다.

또 추가된 즐거움은 전쟁의 승리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란 곧 전쟁의 승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겁게 멘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라는 말씀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어 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는 말씀은 미디안 족속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추수마저 굴에 숨어서 몰래 하던 시절에 기드온이 *300*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을 쳐부수었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 왕이 세울 나라는 달리 말하면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묻은 복장이 불에 섶 같이 살라지리니**'라고 합니다. 갑옷과 피묻은 복장을 왜 불에 사릅니까*?* 빨아서 다시 입지 않고*?*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사 *11:6-9*에는,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도무지 돌이킬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메시야가 웬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아하스와 백성들,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구나*!* 매를 들기고 하고, 탄식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아버지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실족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는 '정신차린 입양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해온 아들은 또 쫓겨날까 싶어서 양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말도 잘 듣는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대드는 것이 양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쁠 때가 있답니다. 재가 드디어 제 자리를 찾는구나 싶어서 기쁘답니다. 쫓겨날까 두려워하던 '입양아'에서 쫓겨날 염려를 털어버린 당당한 '아들'이 된 셈이지요.

둘째,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철든 아들' 아닐까요*?*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돈도 아껴쓰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면 아주 훌륭한 자녀입니다. 부모가 '우리가 너만 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더러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전혀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말에 감동을 받는 아이는 훌륭한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으셨는지 그 마음을 아는 성도는 훌륭한 성도입니다.

셋째, 혹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성숙한 아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한 자녀는 다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역을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우리가 이웃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역이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노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에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될 것인지 눈치만 보고 있는 입양 아들이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끼리라도

국회나 정치판의 피묻은 복장은 언제쯤 불에 사르게 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경우가 있다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가능하겠지만 아마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기 전에 우리끼리 피를 묻히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이웃이나, 성도 사이에 피를 튀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피를 뿌려야 피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속으로 미워하며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부부끼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부부끼리라도 피를 튀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만 피묻은 복장을 불에 사르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나의 기분, 감정이 우선이면 날마다 피를 튀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묻은 복장을 불에 사르는 것이 아니라 최신식 전자동 세탁기를 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날 아침에 애들 문제로 짜증을 부리다가 집 사람이 고함을 냅다 지르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퇴근 때가 되면 웃으며 들어옵니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피를 튀기며 살 수밖에 없다'고 원고를 정리하면서 몹시 가슴이 아프더군요.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화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사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별 일이 아니지만 이런 일로 전화를 건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점심시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수업 중이니 조금 있다 거세요' 하고는 똑 끊어버리잖아요. 조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그러는 통에 설교 준비가 잘 안되는 거에요?" 알기는 잘도 안다 싶어요. '어찌 됐거나 미안해요' 이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목요일이 당신 생일이니 뭐가 먹고 싶은지 그거나 생각해서 들어와요." 이러고 끊었지요. 그 정도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만큼의 머리는 돌아가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설교 준비하는 제 마음도 한결 편하더라구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 되도록 내 감정이나 고집, 기분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인생을 위하여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아는 사람만이 피묻은 복장을 불에 사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사실 것인지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하는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개역, 민수기 35:16~28]*

포항에는 전국에서도 몇 안되는 특이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다른 학교와 좀 다릅니다. 어업과, 가공과, 통신과, 기계과입니다. 특이한 과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맡은 선생님들은 이동이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은퇴할 때까지 그 학교에만 근무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지요. 더구나 소속도 일반 학교처럼 도교위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문교부 직속 고등학교입니다. 좀 특이한 학교죠. 그 학교에 제가 *1*년 반을 근무했었는데 어느 해에 교생이 왔습니다.

교생 아시죠*?* 선생 실습하러 나온 학생들, 수산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왔는데 제가 짓궂게 물었어요. *"*실습 마치면 자격증은 나오겠지만 발령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희망이 있지요*."* 하는 겁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죽어야 이 친구들이 발령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죽어야 발령이 날건데 그런 생각으로 실습을 마치고 돌아간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 저도 짓궂지만 대답한 그 친구도 어지간하다 싶어요.

누군가 죽어야 내가 덕을 보는 이런 직업도 때로는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의사 아니겠습니까*?* 장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하니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장의사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이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딘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병원이나 약국도 그렇습니다. *"*병원이 잘 되기를 빕니다*."* 하고 기도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병원에 오는 환자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습 왔던 그 학생이 언젠가 그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다시 왔다고 칩시다. *"*누군가 죽어야 가능성이 있지요*."* 했는데 발령을 받아 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라, 그래서 자기가 발령을 받아 왔다고 칩시다. 그 학교에 와서 좋아해야 합니까, 울어야 됩니까*?* 좋은 자리에 발령이 났다는 데에는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울런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먼저 가신 분에 대한 미안함을, 자기 탓은 아니라고 해도, 숨길 수는 없겠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해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처절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오시는 우리 교인들의 표정이 어떨까 해서 무척 궁금합니다. 예배를 즐거워해서 기쁨으로 나오시는지 아니면 '또 가야 되나*?*' 하고 나오시는지 유심히 바라봅니다. 아주 즐거워서 들어오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네요.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 뒤에는 우리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내신 분이 누구시죠*?* 오늘 본문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도피성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명동성당이 신성한 곳이죠? 요즘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 데모하다가 도망가면 경찰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현대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에 보면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범죄자가 도망가서 들어가 버리면 잡아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신성한 지역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성경에도 이런 신성한 지역이 있습니까? 명동성당이나 소도나 이런 지역은 어느 나라에든 다 있었습니다. 이런 신성한 지역이 성경에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얼핏 생각하시면 성전이 그런 곳 아니었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죽어야 할 죄인은 내 안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죽으려고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전의 제단을 쥐고 흔들어도 잡아다가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은 그런 면에서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신성한 지역이라는 곳이 성경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야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끝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버텼습니다. "못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아다가 끌어냈습니다. 성전 뿔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요압이 성전의 뿔을 잡고 "못나가겠다, 여기서 죽겠노라"고 버텼는데 결국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성스러운 장소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피성도 앞에서 말한 명동성당이나 과거에 나라마다 있었던 신성한 지역과 다릅니다. 도피성은 그렇게 신성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리 도피성에 도망을 갔다고 해도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수하는 자의 손에 넘겨서 그로 하여금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을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걸 용서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묘하고도 묘한 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제도가 있을는지 몰라도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제도는 성경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본문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상 *1*번 죄수, *2*번 죄수, *3*번 죄수라고 합시다. 이 세 종류의 죄수 중에 *1*번 죄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등장하는 고의로 살인한 자, 가령 철 연장을 들고 죽였거나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거나 어떤 경우였든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무조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왜 이렇게 중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끝에,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라고 합니다. 사람을 고의로 해한 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잡혀서 재판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할 때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고의로 해한 사람은 피를 보수해야 할 사람의 손에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 사람을 죽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살인한 자를 죽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을 죽이면 피를 보수하는 자가 반드시 생겨납니까? 사람을 죽이면 너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이 생겨나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어상으

로 '고엘'입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피를 보수하는 자', 다른 곳에서는 '근족', '가까운 친척'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이 일을 맡아야 된다는 뜻이죠. 또 '기업 무를 자'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근족, 기업 무를 자,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다양하게 번역이 된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기업 무를 자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아버리면 제일 가까운 친척*(근족)*이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줄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피를 보수한다는 뜻은 원한을 갚는다는 뜻인데 원한을 갚는 것과 땅을 다시 대물리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을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땅을 보존하고 기업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더라도 다시 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리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시는 듯합니다.

장기 둘 때 물리면 됩니까, 안됩니까*?* 물리면 안된다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일수불퇴' 한마디면 못 물립니다. 간신히 상대방의 말을 하나 잡았는데, *"*물리자*!"*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물리자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내 말에 먼저 손대지 않고 가만히 보다가 잡아먹고 싶은 상대방의 말을 먼저 싹 집어서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 말을 옮기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내 말에 먼저 손을 대면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자기 말을 치워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자 안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장기판에서도 물리자는 쪽이 치사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 말씀해 놓고도 자꾸 물리는 방법을 연구하시느냐 말입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이 그렇고 도피성이라는 것, 죽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지 않으려고 도피성 제도를 만드시는 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제사장이 죽었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죽어야 한다고 선언을 해 놓으시고도 자꾸 물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죠. 그러면 다 죽어야 하죠. 한번 하나님께서 선언했으면 다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서 안 죽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탄이 옆에 섰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못된 사탄이 하나님 옆에 서 있다가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뭡니까*?* 일수불퇴 아닙니까*?"* 장기 두는 사람이 일수불퇴 하면 손 못 댑니다. 게임이 치사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왜 안된다고 해 놓고, 죽는다고 해 놓고, 왜 자꾸 살립니까*?* 이거 물리는 것 아닙니까*?"* 합니다. 사탄의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옆에서 *"*일수불퇴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가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죽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1*번 죄수는 죽어야 하지만 *2*번 죄수는 죽지 않게 하려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어떤 죄수입니까*?* 고의성 없이 살인을 했지만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아니 죽여서는 안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출애굽기 표현을 빌리면 *"*나무하러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자루가 빠져서 옆의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우린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과실치사가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27*절 보세요, 도피성에 도망갔던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라고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들어갔던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와서 얼쩡거리다가 원한을 갚겠다고 숨어 있던 사람에게 잡혀서 죽으면 할

말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죽을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도피성으로 피하여 가라는 얘기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해도 죽을 죄인이지만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라는 얘깁니다.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은 살아날 길을 두 단계로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첫 단계가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에 도피성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살았고 서편에 아홉 지파 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여섯 개인데 이걸 어떻게 배분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인구비례로 가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거리를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의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도망치는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너무 멀어도 안되고 강을 건너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요단강 동편에 셋, 서편에 셋입니다. 거리를 감안해서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실수로 사고를 쳤다면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잡혀 죽기 전에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 전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따라와서 죽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가끔 머리 좋은 사람은 제일 가까운 도피성을 근족이 길목을 지킬까 싶어서 뺑 둘러서 먼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혹시 실수로 정말 친한 친구를 죽였다고 칩시다. 앞뒤 잴 것 없이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거기에서 몇 해를 지나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고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아내와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 도망쳐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두고 도망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내는 그렇다 치고 자식은? 고향산천 다 버려두고 어쩌면 직장도 버려두고 친구도 버려두고 기약 없이 그 도피성에 가서 살아야 할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조선시대 때 유배 가는 것도 이것보다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인사라도 하고, 간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남기고 갔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모든 걸 버려두고 사고 친 바로 그 순간에 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해서 성 밖에 나가면 안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성 밖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 노리는 보수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잡혀서 죽으면 할 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못 나갑니다. 성 안에 갇혀서 가끔 고향소식은 들을 수가 있겠죠. 가끔 누가 면회라도 오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2*번 죄수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음은 면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2*번 죄수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다 받으셨지요? 천국 가는 건 확실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까? 아니면 도피성에 갇혀서 하고 싶은 것 못해서 힘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힘들고 하고 싶은 것 못해서 짜증이 난다면 *2*번 죄수를 닮은 겁니다.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3*번 죄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수입니까?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중에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 죄인은 대제사장의 피가 묻은 죄인이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의 피가 묻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건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보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무죄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두 군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 **'피를 보수하시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여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28*절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방법이 두 단계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1*단계는 일단 도피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임시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가까운 친구를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여러 해를 지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채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장 바라고 있는 소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나이가 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너무 젊어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전혀 없네." 무척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혹시 무슨 사고로 돌아가시면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도피성에서 바라는 희망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젊은 대제사장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요? 글쎄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도피성과 관련된 표현을 빌린다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내가 해방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것은 그 분이 채찍을 맞고 그 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죄수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도피성 제도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과 같은 이야깁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그 도피성 안에서 기뻐 날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예요? 죄를 짓고 도피성에 들어와 있던 살인자들만 거기서 기뻐 날뛰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살인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고 지금 사순절입니다. 고난주간에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음을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적잖게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내가 받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원하심이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송스러우면서도 우리가 너무 아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제 설교 제목 중에 '죽은 새를 기리며 푸른 하늘을' 기억나시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새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야 합니다. 날면서 뭘 기억하느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잡혀 있다가 죽은 그 새를 기억합니다. 몸에 그 새의 피를 묻혀서 날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죽어 살며 늘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는 새여야 합니다. 단 몸에 피의 흔적을 남기고 날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잃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꺼이 맞아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당당한 아들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아들이 마을에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야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은 네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느냐?" 그럽니다.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면목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집에서 아들이라고 붙어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보따리 싸고 나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아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용서해준 아버지를 위해서 이웃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자기가 봐도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싶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따리 싸고 나간다면 이전에 재산 들고 나갔던 것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욕심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날 용서하신 아버지 때문에 나는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겁니다. 이웃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못난 놈이구나." 싶어도 밖에서 울며 자책할지라도 집에 들어올 때는 눈물 닦고 웃고 들어와야 합니다. 왜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힘들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며 나올 수 있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피성에 있던 이 죄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뻐 날뛰었겠지만 그 뒤에는 나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소도나 신성한 지역과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소도는 한 군데 있었지만 도피성은 어떻게든 도망가기 쉬우라고 여러 군데 설치해 놓았습니다. 소도에 도망간 죄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삽니다. 도피성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따집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가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더구나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의 죽음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혹시 사면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고 살펴보면 왕이 탄생하거나 대통령이 취임을 하거나 이럴 때면 사면을 하거나 죄를 용서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죽었다, 왕이 죽었다 이럴 때에 사면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보다도 중국에서는 왕이 죽을 때 왕이 데리고 있던 노예들을 한꺼번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걸 순장제도라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왕이 죽거나 아주 위대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기념하면서 사람을 살려준 예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로 인하여서 많은 죄수들이 죄를 용서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느냐는 얘깁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에 손상이 가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자꾸 물리려 하시며 죽이지 않고 살리려 애를 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판에서도 한 수 물리려면 얼마나 남사스러운지 모릅니다. 좀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죽을 죄인을 죽이지 않으려고 비난을 각오하고서라도 자꾸 물리려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졌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그럴 수 있다, 이놈아*!"* 왜요*? "*저 죄인들 대신에 내 아들이 대신 죽었지 않느냐*?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의 값과 하나님 독생자 한 분의 생명의 값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에 손상이 가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물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에 따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죽을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죽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든지 살려놓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수 중에 어떤 죄수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몇 번 죄수입니까*?* 여기 *1*번 죄인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반드시 죽을 죄인은 고의로 살인한 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은 성령을 배반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1*번 죄수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다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가 된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용서가 되어 도피성에서 나와 이제는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3*번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3*번 죄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행복한 기쁨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묻는 것은 예배가 즐거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런 행복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항상 누리며 즐기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면 엘리야처럼 한 방에?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찌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개역, 야고보서 5:13~18]*

세상에, 이런 편파 보도?

얼마 전에 이란과 우리나라와 축구시합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난 후 묘한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아나운서가 중계방송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란 전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만 이란과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되고 양쪽에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선수가 넣은 그 골 장면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규방송도 아니고 축구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하는 모습을 계속 방송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여당 대표의 말을 비꼬는 패러디 방송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란과의 시합에서 우리 선수가 한 골을 넣었지만 공평하게 다루어야 하는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넣은 그 한 골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지난번 탄핵 문제로 국회가 시끄러운 그 장면이 계속해서 방송되다보니 피해를 보는 쪽에서 '편파방송 아니냐? 왜 우리에게 불리한 장면을 계속 방송하느냐?' 해서 방송을 하느니 마느니 말이 많았는데 바로 그 장면을 빗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게 짜깁기를 해서 답답해하는 야당대표들을 비꼬았는지 머리가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편파방송인가에 대해선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사항은 아니지만 방송은 사람들이 많이 보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반드시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회의를 잘 하고 있을 때는 잘 안 보여 줍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은 잘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싸우는 꼴만 자꾸 방송하니 그 여당 대표가 얼마나 심정이 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총력을 다해 나라를 위해, 얼마나 고심하며 노력했는데 그것은 안 보여주고 문제는 국회에서 난리를 치는 모습만 방영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보라는 것은 안 보고

그러나 방송이든 사람 심리든 잘하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범생으로 커서 좋은 사람 만나서 착하게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연속극으로 만들면 아무도 안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비비 꼬고 꼬아서 극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TV드라마의 본질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장면보다는 뭔가 특이하고 삐딱하거나 아니면 그림이 잘 그려지는 장면만 기억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 해도 설교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설교 중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 특별히 재미있었던 부분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하셨다!" 그래서 웃고 끝내면 좋은데 제가 원래 짓궂은 질문을 잘 합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설교시간에 왜 했는데?" 물으면 잘 몰라요. 목사님이 우스운 이야기를 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을 안 하고 재미있었던 내용만 기억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왜 그런 싱거운 소리를 했는데?" 물었더니 대답 중에 제일 걸작품은 "조는 사람이 많아서! 잠 깨우려고!" 입니다. 그나마 모르는 것보다 낫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문장을 하나 만드셨죠? '자나 깨나 애 조심'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왜 하

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자나 깨나 애 조심'이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그 애가 누구인지 그런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해야 하지 특별히 재미난 장면이나 특이한 장면만 기억한다면 제대로 잘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오늘은 야고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안 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나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나 '엘리야가 기도한 것'도 생각나실 것이고 유명한 구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부분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책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 할 것이요'**라고 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고 하죠. 찬송도 감사기도지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은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라는 것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란 뜻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굳이 장로들이 갈 필요가 없네요*?*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16*절에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의인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의 의인은 믿음의 성도를 말합니다. 앞의 '너희'가 '의인'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니 서로 고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언급한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장황하게 이야기 했지만 한마디로 너희 모든 성도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잘 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 부탁을 해야 하고 또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기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즐거워도, 병이 들어도,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나 즐거워하는 자들은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합니다. 병든 자가 장로들을 청하여야 하는 것은 장로들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병든 원인이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본문은 죄와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로 인한 병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병 낫기도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로를 청하여 죄를 서로 고하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든 자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할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다른 일 하다가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칩시다. 존경스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병문안을 와서 '함께 기도 합시다' 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찔리겠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청

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기도할 수 없거나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런 장로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에서 앞뒤를 잘라버리고 보면 의인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문맥을 훑어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며 교회 전체를 상대로 하시는 말씀으로 의인을 특별히 찾아다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은사 받은 분을 찾아서 그 분에게 기도를 받아야 병이 나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특별하게 있지만 여기 본문의 의미는 믿는 성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서로 함께 죄를 고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병든 자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것과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라고 요약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서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

결론은 그렇게 내려놓고 추가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이란 이 표현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 옆에 열왕기상 *17*장*~19*장이라고 기록을 해놓았는데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기도입니다. 본문에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라고 하는데 열왕기상에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랐던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인용하는 것은 비가 다시 오기를 기도한 장면입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 사환을 시켜서 하늘에 무엇이 떴는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이 기도를 일곱 번이나 하죠. '참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기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아합 왕에게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타고 가라'고 보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것인가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에는 엘리야의 기도가 네 번 정도 나와 있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기도하면서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엘리야의 열심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갈멜산의 기도도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부르짖었으나 엘리야는 한 *2~3*분 잠깐 기도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짐승의 각을 떠서 올리고 물을 엄청나게 가져다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제단을 다 태울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것이니 그리하라고 하

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 때문입니까*?* 열심보다, 간절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할 때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기도하는 열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학생이 하나님께 장학금을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번에 장학금을 꼭 타야겠습니다*!*' 하고 몇날 며칠을 기도했겠지요. 그러다 문득 '내가 꼭 장학금을 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을 보니 자기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있더랍니다.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하나님, 장학금은 저 친구가 받아야 합니다. 저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세요*!*'로 기도가 바뀌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위의 친구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기도할 때는 내가 타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니 '진짜 장학금을 받아야 할 친구는 내가 아니라 저 친구구나. 저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세요'로 기도가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남이 알 수 없고 본인만 압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생각되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온통 내 욕심만 부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어떤 기도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심만 앞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앞에 서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근거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조상들에게 절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소위 신이라고 하는 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속에서 나온 것을 그저 올려 보내기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하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드렸던 그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짧은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길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에게 넘어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관계없는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는 불신자들의 기도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열심과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과 간절함이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열심과 간절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기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 주셔야지요*!* 덜렁 일 저지르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핑계로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적잖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엘리야의 기도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만 나를 데려 가십시오'라며 누워있었는데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음식을 마련해 주셨죠. 먹고 천사의 마사지를 받고 또 드러누웠어요. 천사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두 번이나 누웠습니다. 실컷 먹여놓고 피로 회복시켜 놓았는데 드러누운 건 반항이죠*?*

그 후에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셨을 때 엘리야가 같은 답을 두 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는 답을 두 번합니다. 반항이다 싶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만하시고 내 생명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네가 왜 여기 있으며 왜 이 모양이냐고 달래고 얼르고 위로하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끝에만 조금 달라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구하기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했건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단순하게 열심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둔 기도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됩니다.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큰 복을 받은 것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입니다. 유학 다녀온 어떤 분이 미국 가서 성경을 제대로 많이 배워 볼 것이라고 갔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하더랍니다. 도대체 성경공부를 하는 곳 자체가 없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새겨듣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르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 있어서 빚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답답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믿음의 시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슨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꾸준하게 교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들만 많이 있는 집안은 집안 분위기가 조금 삭막합니다. 우리 형제가 다섯인데 저희들끼리 모여 놀 때는 잘 놀아요. 잘 놀다가도 아버지가 오시면 조용해지고 각자 책상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말이 없어요.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형제들이 모이면 아버지와는 대화가 그렇게 잦지 않습니다. 잘 아는 분이 자매지간인데 한 분은 말이 너무 많고 한 사람은 입이 너무 무거워요. 자형 두 분이 만나서 어느 쪽이 더 견디기가 어려우냐라는 문제로 가끔 싸워요. 실랑이 하더니 결론은 시끄러운 건 견딜 수 있는데 입

안 떼는 것은 못 견디겠더랍니다. 차라리 시끄러운 것이 나아요. 우리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공부한다고 멀리 나가 있는 아들이 집에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니 엄마가 마음이 몹시 상하더랍니다. 전화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 어떨 땐 속이 터지겠더랍니다. 병이 들더랍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어도 전화해서 잘 있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니 엄마가 병이 나서 못 견디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멀리 공부하러 간 뒤에 전화가 가끔 오길래 할머니한테도 한 번씩 전화하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 다시 전화가 와서 할머니가 받았는데 평소에는 음성이 나지막하신 분이 손자 전화를 받더니 톤이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구요.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무척 서운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기껏해야 밥은 잘 먹는지 힘들지는 않는지 그런 내용일 텐데 그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가끔 별 일이 없어도 전화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전화 자주 드립시다.

헛되지 않은 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좋은 점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보는 장치가 있어서 되돌아 볼 수 있다면 아찔했던 순간이 무척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을 그대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위험을 자신도 모른 채 피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는 그런 위험을 피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의 체험으로 남기신 말이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한 방울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시편 56:8)*'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많은 눈물을 흘렸을 텐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께서 모두 병에 담아 놓으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방울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복을 많이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가 참 힘드는 것입니다. 거저 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 이상으로 많은 복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새벽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되니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말씀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또 서로서로 함께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기도를 합시다. 늘 하던 기도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려고 하시는 방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을 보고 친구라니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개역, 요한복음 15:9~17]*

출세한 고향 친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경원대학교라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 대학의 학장 되시는 분이 예전에 포항에서 연주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주회에 갔다가 좀 뜻밖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전세 버스를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포항 시내에 계신 분도 그런 음악회에 잘 가지 않는데 웬 시골 사람들이 전세버스로 왔나 싶어 가만 생각해보니 그 분의 고향이 이곳 시골 영덕인데 읍내도 아니고 복사꽃 많이 핀 그곳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던 분이 무엇 하러 전세버스를 타고 이곳 연주회까지 왔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이 포항에 연주하러 가니 고향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봐야죠.

음악가라는 삶은 좀 화려한 편이죠. 외국 유학도 다녀와야 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분이 고향 가까이 오게 되면 고향에서 농사짓고 힘들게 사는 고향 사람들을 잊지 않고 친구로 대우하는 것을 보면서 음악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왠지 모르게 더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면서도 아마 '서울 가면 나도 이런 친구 있다'는 자부심이나 감격을 누리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어설픈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시골 사람들을 깔보거나 폼 재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불고 있네!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친구가 서울에 있단 말이야!' 하는 자부심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원래 그 분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왠지 더 끌리더라고요.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도무지 상종할 수 없을 만큼 출세했으면서도 고향에 있는 보잘 것 없는 나를 잊지 않고 친구로 대해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겐 있나요?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삼고 이제부터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하셨는데 웬만한 일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이런 훌륭한 친구를 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희 동기 중엔 그렇게 출세한 인물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출세해서 서울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우연찮게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를 서울에서 만나고 내려와서는 동기회에서 말하기를 "걔는 이제 우리 친구 아니더라! 얘기하는 것이 달라서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더라. 잠깐 만났는데 전화가 국세청장한테서 오고 무슨 장관한테서도 오는데 거기 앉아서 친구란 소리 못하겠더라!" 그런데도 그 친구가 자기를 친구로 대접해준 것이 뿌듯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친구라고 말 못하겠더라' 하지만 사실은 기분이 좋았다는 뜻이고 어디 나가서는 좋은 친구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리 쉽게 좌절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고 자기를 비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친구가 아닌데...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종보다 못할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친구는 좀 비슷해야 친구가 됩니다. 가끔씩 아이가 잘못해서 엄마가 학교에 불려오면 하는 말이 "선생님, 원래 우리 아이는 이렇게 나쁜 아이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쩌다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자면 왜 친구를 잘못 만나나요? 잘못된 친구와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으니까 그런 친구를 만났고 같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원래 친구는 비슷한 모습이 있어야 친구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고 급수가 다르면 친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할 때 그 친구는, 급수가 너무 달라서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들을 '너희가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빌레몬서를 들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은 잡히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바울의 심복이 된 후에 바울의 부탁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빌레몬은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종을 영접하고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형제로 대우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갈 때의 마음과 바울의 편지 한통을 들고 돌아갔을 때 그 주인이 자기를 형제로 받아주었을 때의 그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에게 돌아오는 오네시모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무엇이라 하면서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휴, 재수 없게!"라고 했을 것을 오네시모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굴에 온갖 웃음을 띠면서 일어났을 거예요.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아니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친구로 받아주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친구로 삼을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친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루 이틀 믿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도무지 친구로 삼을 수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자기 형상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의 친구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냐 할 때 돈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분이 내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쉽게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부가 잘 안된다고요? 공부를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공부 참 잘하겠다'는 그런 어려운 말을 왜 그리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가 잘 안되고 좀 불편한 것이 많이 있고 사람이 좀 못났다 싶어도 우리에게 이런 놀랍고 위대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렇게 쉽게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과 같은 급수로 뛰어오르긴 어렵습니다. 종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려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려두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뜻으로 '바로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사이십니까? 친구 맞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라 하시니 친구가 맞긴 맞는데 그러나 별로 친밀하진 못한 모양이죠. 겨우 안면만

있는 정도의 친구가 되시나요? 종은 주인에게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삽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하는 행동이 몇 십 년 전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 사이란 늘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나요? 아니면 이런 친밀감을 느끼고 사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면 겁나나요? 예수님은 친구라 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종노릇 하며 살려 할까요?

어떻게 이런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하나요?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명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12*절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17*절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이란 표현을 씁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과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많이 맺으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데 어느 것이 제일 쉽나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어느 것이 제일 쉬울 것 같나요? '하나도 어려운데 도대체 몇 개야?' 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러 말씀은 전부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분명히 같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이 데려오는 것이란 생각이 들죠? 그것도 예수 믿는 열매고 좋은 과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의 과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6*절 중간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는데 기도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된다는 말을 전부 하나로 종합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너희를 내 친구로 삼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못할 친구 - 나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친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잊지 못할 친구가 더러 있지요? 어떤 친구가 잊지 못할 친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옛날에 학비로 쓰려고 아르바이트 해서 모아놓은 돈을 조금만 빌려 달라 해놓고 영원히 갚지 않는 친구더라고요. 미운 것은 아닌데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자기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와준 친구가 잘 안 잊혀져요. 예수님은 조금 도와준 친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신 친구입니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몇 해 전인가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을 구하고 죽은 한국 청년 있지요. 그때 살아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나를 위해서 한국에서 유학 온 젊은 청년이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구해줬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참 궁금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인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수로 죽으셨나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답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증거를 찾으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 죽을 곳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번 유월절에 죽으셔야 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리는데도 가신다니 도마가 용감하게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말하고 따라 내려옵니다. 죽을 줄 알

고 죽을 길로 가셨습니다. 죽을 장소에 오셔서는, 예수님께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하지만, 죽으려고 약을 씁니다. 성전에 매일같이 가서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엎기도 하셨고 거기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죽으려고요. 제사장들이 이번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뒷감당을 못하게 되니 죽이지 않으려 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어야겠다고 약을 쓰신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지 알고 계셨음에도 '유다야*!* 가서 네 할 일을 하라'고 보냅니다. 체포되어서 그날 밤에 재판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불리하면 대답을 않으셔도 되는데 꼭 불리한 답변만 하십니다. 자신에게 덕이 될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내가 죽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틀어버리셨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친구로 삼을 수 없는 그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본문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 분의 친구가 될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가 우리의 친구라면...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은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친구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잊지 못할 친구가 있었는데 연락은 끊어졌습니다만 그 친구와 처음 사귈 때, 많은 사람과 친분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제가 '친구가 많으냐*?*'라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은 많지요' 하고 답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생각이 깊은 좋은 친구를 하나를 얻었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그리 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몇 해 되었습니다만 한보 정회장이 재판을 받을 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회사의 재정관계자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추궁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모두 머슴 아니요. 머슴이 무엇을 압니까*?* 주인인 내가 알고 내 말이 맞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들었습니다. 머슴이나 종은 주인의 속을 모르지만 그 속을 다 아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분을 잘 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흉내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모양이라도 내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도무지 친구라 할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친구로 삼고 그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을까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로선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철이 들 무렵에 듣고 참 놀랐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명제 중의 하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야 하는데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부모님이 다정다감하신 말씀이라곤 할 줄을 모릅니다. 집에서 좋은 말 별로 못들은 것 같아요. 위로 나를 챙겨줄 만한 형님도 없었고 누나도 일찍이 나가 살았기 때문에 별로 받아보지 못한 것 같고...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오빠 소리를 못 들어 봤어요. 하다못해 친척 중에도 여동생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여동생이 따라왔다가 자기 오빠 친구니까 날 보고도 '오빠' 했는데 한 한달쯤 붕 떠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결혼하고도 그 생각이 나서 집사람 보고 '오빠' 해 보라고 했더니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끝내 안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자랐으니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고 어렵게 자랐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내가 앞으로 커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인데 그것을 못한다면 신앙인으로 살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고민하며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별 고민 다 했다 싶겠지만 제겐 매우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더군요. 그렇게 되고난 다음 다시 뒤를 돌아보니 그래도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더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사는 그때부터 내 형제,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꽁하고 한번 삐치면 오래갑니다. 남이 한마디 긁어놓으면 잘 못 잊어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참 좋지 못한 성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별로 싸우지 않고 별 문제없이 잘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옆의 잘난 형제 말고, 나에게 잘 해주고 나와 죽이 잘 맞는 형제 말고, 좀 안 보고 살 수 없나 싶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죽 친구가 없으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셨나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스스로 겪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속에 참 기쁨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my pleasur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만에'라는 표현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답변입니다. '천만에'보다 그대로 직역해서 '당신을 그렇게 돕는 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예수님 속에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길게 잡아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고민도 되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다가 강도사로 세워놓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고 미안한 것 딱 한 가지가 남의 기쁨을 빼앗아 간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와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새벽기도 인도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하셨답니다. "하라고 하면 다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설교 마치고 '설교 준비하느라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야기는 하면서도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더랍니다. 그것은 힘들지만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고 백 강도사도 오니 세 분이 동시에 비우는 일이 없어서 한 번씩 설교해야 하는 분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버린 것 같아 많이 미안합니다.

새벽기도 설교 부탁해 놓으면 미리 나오셔서 마이크 켜놓고 예행연습까지 하셨던 분도 계셨다더군요. 정말 기쁨이지요. 교회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이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 전하셨고 예수님 속에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꼭 교회 가서 설교하는 그것만 기쁨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이런 기쁨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길 원합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참된 기쁨은 항상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괴로움과 함께 옵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기쁨만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마약에 취해 있는 경우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자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기대한 답과는 조금 다른 답이 나왔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인가요? 고통인가요? 기쁨도 되고 고통도 되는 것이지요. 그 큰 기쁨이 고통을 수반하고 따라 오는데 그 속에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라고 합니다. 고난을 어찌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에 대해 투자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실망하거나 좌절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개를 왜 그렇게 좋아 하느냐? 제 생각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니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짐승에게 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며칠 전에 딸과 함께 가다가 강아지가 예쁘다고 야단스러워 하길래 "은영아! 강아지가 예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예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와 강도사하고 비슷합니다만 강아지가 예뻐요? 강도사가 예뻐요? 집에 있는 그렇게 예쁜 강아지와 지금 옆에 계신 성도 중에서 사람이 예뻐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사랑이 있으면 강아지에게 나누어 줘야죠.

예수님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고 목숨까지 버리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고 동시에 예수님 속에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잡히시기 전날 그 며칠 사이에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제자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야 할 이 시점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언을 두 번 하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유언은 승천하실 때 하신 두 번째 유언입니다. 첫 번째 유언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 이것을 첫 번째 유언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유언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혹시 사는 것이 싫고 사람이 미워지고 자신이 미워질 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들어 있는 이 긴 본문을 요약해서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다른 아무 일을 해도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을 전하는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의 설교 주제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평생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싫어지고 그렇게 예쁘던 남편도 아내도 싫어질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자신마저 싫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친구가 아닌 자를 친구라 하면서 목숨까지 다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술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흉내낼 때 우리 속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마!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개역, 마가복음 14:27~31]*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고난주간을 지나시느라 무척 피곤하시죠? 한편으로는 즐겁죠? 몹시 피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 한 편에서 들어있어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제대로 지내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새벽에 집을 나서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픔만 있다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아픔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입니다. '날마다'라는 복음송 마지막 줄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사랑스레...' 뭘 주세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하나님은 기쁨만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주시기에 저는 그 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참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픔과 기쁨을...' 그 다음에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평화와 안식만 바라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고하게 하시고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내고 오늘 오후쯤에 피곤해서 눈이 슬슬 감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해서 아무도 주무시지 않으면 좋겠지만 오늘만은 주무셔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주간답게 지내셨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이 기쁨이, 몸은 피곤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은대로 듣고, 보고 싶은대로 보고

사람은 듣는대로 듣는 게 아니고 흔히 자기가 듣고 싶은대로 듣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본다고 보는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좀 확대되면 자기 수준에 맞는 것만 보이고 자기 수준에 맞는 것만 들립니다. 수준이 비슷할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수준 차이가 날 때에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보는 경우에는 확실히 표가 납니다. 아이들 데리고 시내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이들 눈에는 시내 간판 중에 주로 먹는 것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내 나가면 무슨 간판이 잘 보이십니까? 주로 옷가게요? 우리교회 교인들은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뭐가 많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수준대로 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자기와 관련되거나 자기와 비슷한 쪽으로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학교에서 문제 아이들이 있어서 엄마나 혹은 아빠가 불려 와서 야단을 맞다가 보면 부자지간에 혹은 모자간에 싸우는 일을 가끔 보게 됩니다. 좀 심한 경우지만 "이 놈의 자식들아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냐?"고 부모가 자식 보고 그럽니다. 자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못된 자식은 "해준 게 뭔데요?" 이건 부모 속을 뒤집어 놓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부모는 해줄 만큼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해준 사람은 있는데 왜 받은 사람이 없나요?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말하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성경 본문을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본문도 안 읽고... 저도 제 정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본문을 읽고 다시 시작합시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고난주간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과 이 본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배반할 사람에게 미리 알린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밤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라는 이 표현은 개역성경 난하주에 보면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원어쪽에 더 가깝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말이 바로 원어로 '스캔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캔달을 일으키게 되리라'는 말이지요. 무얼 스캔달이라고 합니까*?* 스캔달에 걸렸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회복 불가능한 일에 휘말렸다'라는 뜻인데 '실족하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배교' '배도' '배반하리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가 오늘 나를 배반하리라'가 되고,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가 되고 '너희가 실족하리라'가 되는 거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배반은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배반합니까*?* 배반이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반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2*번은 누구죠*?*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선생님 한 분이 무척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날은 덥고 아이들은 수업하기 싫어서 주리를 틉니다, "선생님요, 연애시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무리 졸라대도 선생님은 "시끄러워*!*" 하고 계속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전 원래 수업 시간에 잡소리를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놀아도 좋고 공부를 해도 좋은데...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데 선생님은 어떻게든 고집을 부리고... 할 수 없이 저도 한마디 거들었죠. "선생님, 오늘은 마 좀 쉽시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저를 쳐다보면서 "순관이, 너 마저..." 이러더니 책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 선생님의 이 말이 어디에서 빌려온 건지 아시죠*?* 이 선생님께서 지금 누구 흉내를 내는 겁니까*?* '부르터스, 너 마저*?*' 시이저가 한 말입니다. 암살자들이 칼을 들고 찌를 때 다른 사람들이 찌른 것은 이해하는데 '부르터스, 너마저 이러느냐*?*'는 거지요.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칼을 들고 다가설 때 시이저가 남겼다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시더니 수업 않고 다른 이야기,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이 유명해지는 바람에 부르터스는 배신의 *2*인자가 된 셈입니다. '부르터스 너마저...'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까*?*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배신을 간결하고도 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배반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은 당신이 나를 제일 좋다 어떻다 하지만 제일 먼저 배반할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는 게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겠어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우리를 향해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튀어나갈 가능성이 많은 말입니다.

이런 투의 어법은 절대로 쓰시면 안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류의 말을 쓰면 안됩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너희들 뒷바라지 하지만 다 크고 장가 가봐라. 자기 마누라 챙기느라고 부모도 알아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있죠.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말 쓰시면 안됩

니다.

목사님께 잘 하려고 애쓰는 성도를 보고 '저런 사람이 배신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훨씬 더 험한 말입니다. 어쩌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반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거세게 나갑니다. 절대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더라도 그럴 수 없노라고 거칠게 말하는데 이게 일종의 반발입니다.

해서는 안될 말인데...

예수님께서 어쩌시려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런 말만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려고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겠어요? 우리는 내 수준대로 들리고, 내가 보고 싶은대로 보고, 나하고 제일 관련이 있는 게 잘 들립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거기서 다시 만나자. 혹시 네가 나를 배반하고 도망갔을지라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제자들은 당연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부정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는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거든요 제자들은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제자들의 진심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따라갈 만한 능력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호강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죠?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그건 진짜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젊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젊은 부인이 그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 살자더니 나는 어쩌라고...' 하는데 제가 웃었겠습니까, 울었겠습니까? 하, 그거 곤란하대요. 결혼할 때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잘 살자고 한 것이야 누구나 하는 얘기죠. 마음은 다 그렇죠. 문제는 그때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차 살 능력도 없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야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게 좋지요. 능력도 없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일을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면 할 말이 다 없어져요. '결혼하면 내가 호강시켜 주겠습니다' 이 말도 능력을 따져보면 할 수 없는 말이 되죠?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하고 싶지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것도 안되겠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우린 할 말이 하나도 없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력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주고 받아야죠. 자신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문제일 뿐 '내게 능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이런 말을 쓰긴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능력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의 고향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많이 가셨습니다. 그 분들은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뼈를 묻은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해 나갈 만한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아무데나 뼈를 묻겠다고 말할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여기에 뼈를 묻겠고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고백이 옳다는 얘기죠.

아주 좋은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같은 존재가 내일 우리가 뭘 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함부로 그런 소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고려는 전혀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마음만 가지고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이 자기 마음만 갖고 열심을 내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정말 자신감이 넘치죠? 성급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 혼자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미가 급해서 좀 빨리 말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충성경쟁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열심히 자기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능력을 살펴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생각없이, 내 능력으로, 내 기분대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목적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너희가 오늘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보다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을 기억했어야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일러줍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리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자연스럽겠습니까? '너희가 배신해서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되어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갈릴리에서 기다리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얘기가 다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거기 가서 내가 죽어야 하노라. 가자'고 하면서 떠나온 곳이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떠나온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주로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과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며 힘든 일을 하셨던 곳,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추억이 다 깃들어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았던 곳도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면 앞으로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어쩌면 청운의 꿈을 품고 예수를 따라 다녔던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다시 만나자는 것은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들립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자'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이혼하기 직전에 있는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 곳을 한 번 찾아

보자' 그래서 연애했던 곳, 신혼여행 갔던 곳들을 쭉 훑어가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면 이혼하려고 갔다가 좋은 결과가 생기는 수도 있죠. 옛날의 즐거웠던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동안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살펴보게 되고 결국은 이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더라는 드라마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추억이 깃든 그곳에서 다시 만나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 '그래 나를 버리고 너희가 다 도망가서 얼마나 슬퍼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것인가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서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반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아서 목자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곳은 사실은 갈릴리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지금껏 살아왔던 그들이 갈 곳이라고는 여전히 갈릴리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3년 동안이나 헛고생만 했다는 생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만나서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해야 합니까? '너희가 오늘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배반하고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을지라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겠노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특별히 잘난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도 일이 잘못되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좌절하고 실의에 빠진 너 자신을 보지 말고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생각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이 자신감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깨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드셨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깨어 버리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 짓을 왜 합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나 의지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 하나 꺾거나, 자기 주장 하나 취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고집, 내 생각을 깨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깨고 내 뜻과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으며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절망이 되거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갈릴리에서 기다렸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겪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그런데 너희는 어디 앉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내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랴? 그러면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찾아 올 것이냐?' 그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이 하고 싶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대신 고난 겪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런 나를 다시 불러 갈릴리로 오라 하십니까?' 감사하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일은 달리 없습니다.

배반할 줄 알았다면 미리 막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막는 것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절대로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은 배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배반하고 좌절하고 흩어져 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다 깨어버리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이런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본래 의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확실한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들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족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가는 것은 제자들의 일입니다. 이들을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까? 믿어도 여전히 실망스럽고 좌절 투성이고 '믿는다는 내가 성질이 왜 이러냐?'는 불만이 항상 있습니까? 예전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있는 것도 정상입니다. 예전보다는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일입니다. 이런 우리를 붙들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고쳐놓으려고 내가 이 고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변해가야 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변하는 것처럼 변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무엇을 더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기다리며 제자로 세우겠노라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시더니 정말 족집게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소리 듣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나 자신의 모습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나와 관계된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 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우며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이걸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끝난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막상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이란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하고, 용서 정도가 아니라 배반에 대해서는 언급도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제 2의 갈릴리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배반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기르며 그들을 세우던 그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 2,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머무를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다시 그리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상 못했던 기쁨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상상을 초월하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고 낙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아니냐*?*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용기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그걸 기대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끼의 간을 키우는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화 있을진저 앗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쪅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질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 찌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훼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앗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찌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쪅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같이 하실 것이라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개역, 이사야 10:5~27]*

혼돈스런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는 자녀와 부모 사이,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위치나 나의 한계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다보니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교육부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격적인 지도라는 것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조차 가르쳐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라 온 아이들이니 간이 커져 버립니다. 간 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앗수르의 등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정말 간 큰 도끼가 하나 나옵니다. 도끼가 자기를 들고 있는 주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간이 부은 짓을 할까요*? 15*절에 나와 있는 이 도끼는 앗수르를 가리킵니다. 앗수르라는 나라가 왜 등장하며 등장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며 결국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앗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버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그 힘이 뻗쳐 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니 *10*장 *5*절에 **'화 있을 진저 앗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여기서 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특히 유다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

자면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가하십니까*?* 이유는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계속 나열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말씀하시면서 단락의 끝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가하시는데도 백성들이 쉽게 돌이키지 않을 것이며 징계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10*장 *1*절을 봅시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앗수르를 들어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도무지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이방인에게 매를 맞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매를 맞고 야단을 맞는 장면은 없어야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무지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지만 그들이 범죄 했을 때 사람 같지도 않게 여겼던 그들에게 오히려 매를 맞고 비난을 듣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을 때 그 배에 탔던 이방인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요나는 그래도 '나는 히브리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은 것이 요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말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잖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감수해야겠지만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내 잘못 때문에 앗수르가 생겨나고 내 잘못 때문에 폭풍이 닥쳐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런 폭풍이 몰아치고 간 큰 도끼들이 날 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아들인 왕자가 사고를 치면 왕자보다 그 주변에 난리가 나고 엄청난 일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여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우리 주변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간 큰 도끼들이 설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는 별 관계가 없지만 성격이 모가 나서 찬바람을 일으키며 다니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주변은 나로 인해서 항상 평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벌한 분위기에도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위기가 좋은데 나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거나 내가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저도 성질이 좋다는 말은 별로 못 들었습니다. 못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편인데 그래도 그런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런 점들이 많이 묻혀졌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느 때 어떤 못된 성질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멋있고 온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해서 내가 가는 곳의 분위기를 온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와 실제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치고 약탈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나라가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메소보타미아 지역 북쪽에는 앗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바벨론이 있어서 두 민족 간에 한쪽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욕심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앗수르가 이웃나라를 치고 이스라엘까지 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듯싶어 보이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자기 주관 하에 두시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먼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쯤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야 합니다. 당시의 로마황제가 온 제국에 호적령을 내리는 바람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황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금문제와 통치상의 목적을 이유로 그런 령을 내렸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메시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더란 말입니다. 세상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어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앗수르는 자기 나름대로 이웃나라를 치고 점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매와 자식

앗수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사용하셨지만 *12*절에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살찐 자는 앗수르를 가리킵니다. 불에 태워 소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앗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망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를 징계하기 위해 동원한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매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매는 어떻게 하나요*?* 이놈 때문에 우리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싶어 소중하게 보관하나요*?* 그것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징계할 때는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징계가 끝나고 자녀가 제대로 돌아섰을 때에 매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해가는 앗수르와 정복당해서 망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는 '매'이고 하나는 '자녀'입니다. 비록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매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끔은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의 역할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유의 도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매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그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저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도구였던 앗수르는 상은커녕 징계를 받고 맙니다.

간 큰 도끼

앗수르가 왜 징계를 받게 됩니까*?*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8*절을 봅시다. 앗수르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짓밟으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고 합니다. 나의 방백들, 내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나 장관급쯤 되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보낸다면 전부 왕과 맞먹는 것 아니냐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9*절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둘씩 짝을 지어 놓았는데 전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나라들입니다. 둘 중에 앞쪽에 있는 나라가 나중에 점령을 당합니다. 조금 의역을 한다면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점령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마리아도 다메섹처럼 다 망하지 않았는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 망하지 않을 나라가 있겠느냐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고 하는데 여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신상이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조각한 신상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상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이스라엘의 그 신상, 하나님보다 더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고대 전쟁들은 전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신이 상대방 나라의 신을 이긴 것으로 생각했으니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만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치고 이긴 것이 마치 새알을 줍는 것과 같이 거저 알을 줍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어느 누가 대항한 적이라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앗수르를 이렇게 세우고 계셨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오만스러운 말을 내뱉으며 온 나라를 점령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끼 중에도 간 큰 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계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이렇게 큰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앗수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모른 것이 죄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간 큰 도끼의 처음과 나중

앗수르가 이렇게 간 큰 짓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이렇게 들어 쓰셨고 결과적으로는 앗수르가 이렇게 간 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앗수르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비난을 하게 됐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만한 앗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너는 도끼 아니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너는 도끼일 뿐이라 내 손에 잡혀 있지 않느냐 너는 톱이라 내 손에 잡혀 있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아무리 도끼와 톱이 힘이 세고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 잡은 손이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17*절 *18*절입니다. 앗수르가 마치 병든 사람이 쇠약하여 지듯이 혹은 삼림이 불에 타듯이 깨끗이 타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가까운 곳에 산불이 났습니다. 오후에 헬기가 떨어져서 조종사와 몇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후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불이 우리 집과 관련이 있길래 저도 한밤중에 불이 난 곳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불이 어디로 번질지 살펴보고 산꼭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밤중의 산불은 감당 못합니다.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좀 잔잔해지기를 바라고 불길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큰 도로가에 사람들이 작대기나 삽을 들고 일렬로 섰습니다. 불이 날아오면 근처에 떨어지지 않도록 두들기지만 큰 불덩어리가 날아서 저 뒤로 떨어지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산불을 끄러 서너 번 다닌 기억은 있습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앗수르가 그렇게 오만하고 건방지게 간 큰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삼림에 불이 붙

어서 타는 것같이 깨끗이 태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 *19*절에 '**그 삼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손가락 열개까지는 헤아리더라고요. 아이라도 헤아릴 수 있으리라는 것은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남았다는 이야깁니다. 혹시 머리가 좋으면 발가락까지 셀 수 있어서 스무 개까지는 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빽빽하던 삼림이 불에 다 타버리고 군데군데 하나씩 남는 것처럼 앗수르가 그렇게 불에 타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다가 결국은 이 앗수르마저 징계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이 땅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만한 백성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못난 자식을 징계하고 야단치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들이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끝내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메시야를 보내서 그 메시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징계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하다가도 반드시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싶은데 가만히 보면 이사야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간 큰 도끼가

이사야 시대에 앗수르가 하나님의 징계를 맡았던 도끼 역할을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도끼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의 환란이라고 불렸던 것이 *IMF*입니다. 발음도 잘 안되는 이 *IMF*가 어느 나라 이름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이길래 건국 이래 최대의 환란으로 몰아넣느냐 말입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라 은행이라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놓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 기죽을 필요 없지만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는 사람은 기가 죽는 법이지요. *IMF*에 기가 죽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돈을 누가 썼나요*?* 정치가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IMF*가 터졌다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누구 때문인지 생각해 봅시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일본에서는 독도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독도가 너희 땅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돈 빌리러 왜 왔냐*?*'고 나왔습니다. 힘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한때는 방송 금지곡이었습니다. 자기 노래가 방송 금지되니 그 가수는 우리나라에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2, 3*년 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어느 장관이 독도에 행사가 있어서 가려 했는데 안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로 이런 고생을 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 아니 지금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외국에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일본 다녀오는 관광객들의 손에 밥솥이 하나씩 들려오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IMF* 터지기 전에 외국 한번 안 다녀온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시골 아줌마들도 계돈 모아서 일본이든 어디든 다녀왔습니다. 오죽하면 한국말을 못해도 관광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외국에 돈을 갖다 바쳤으니...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비디오, 만화책이 거의 다 일제입니다. 그렇게 돈을 가져다 줘놓고 돈 떨어지니 이런 꼴 당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모두가 거기에 동참해서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좀 살만하게 되었다 싶으니까 온갖 거드름을 다 피우며 사치와 방탕과 교만 속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 좀 벌게 되었다고 얼마나 오만한 짓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천추의 한을 품고 돌아간 외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그러지 않았다 해도 우리

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 교회도 그런 풍조에 앞장서서 거들먹거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최면에 취해서 거들먹거렸던 한국사회,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도끼였다는 이야깁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보다는 돈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세나요, 돈이 세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보다도 여전히 돈이 더 위력적입니다. 장사를 해도 제대로 하려면 어중간하게 하면 안됩니다. 정말 싼 저가의 물건을 팔든지 아니면 아주 비싼 고급품을 팔든지 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싼 고급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안락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취해 세상의 아름다움에 동조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난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따라가려 한다면 우리로 인해서 이런 도끼가 날아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리이까*?*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얼마든지 국회의원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됐으면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내가 간 큰 도끼가 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징계의 표시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 남발이 원인이라고, *IMF*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카드를 남발한 것 아니냐고 비난을 해댑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정책을 쓴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세상의 그런 풍조에 무심코 따라가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가 정말 말씀에 꼬꾸라지다시피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앗수르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물밀 듯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조건 엎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간 큰 도끼들이 설치게 됩니다. 누가 이 도끼의 간을 그렇게 키워 놓았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사람들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IMF*나 정치이야기나 경제문제가 우리와는 별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의 뷔페식당에 갔었습니다. 한 바퀴 돌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과일바구니가 있었는데 오렌지를 썰 때 균일하게 썰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오렌지가 균일하게 썰어지지 않아서 제가 갔을 때는 큰 껍데기에 속살이 조금 붙은 것들만 소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껍질이 적고 속살이 많이 붙은 것은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속살이 많이 붙은 것 하나, 껍데기 많이 붙은 것 하나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입니다. 전부 내 형제라면 그런 배려를 할 수 없을까요*?* 혹시 밥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러면 '먼저 가서 빨리 먹어야지' 하나요*?* 매사에 우리는 형제에 대한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해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천주교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탓이요*!*'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당신 탓이요' 한다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 탓이요' 했을 때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아쉬운 것은 '내 탓이요' 딱지를 차 앞에 붙여야 하는데 차 뒤에다 붙인 점입니다. 그럼 누구 탓이 되나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의 '내 탓이요'가 되니 결국은 '네 탓이요'가 되어서 참 좋은 취지인데 그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모든 문제가 내게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만 우리 주변에 이 간 큰 도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삽시다. '나 하나 말씀대로 산다고 뭐 그리 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미워도 자식인 걸

자식에 대한 징계는 아무리 혹독해도 결국은 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도 있고 앗수르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징계는 결국은 다르게 끝이 납니다.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앗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찌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는 곧 그치겠다는 이야기이고 반면에 앗수르에 대한 분은 그치지 않습니다.

앗수르는 징계 그 자체로 끝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남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 죽은 것 같아도 거기에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징계가 혹독하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게 될 것이며 미디안 백성들을 쳤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맛보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26*절에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같이'**를 쉽게 말하면 기드온이 용사 삼백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나갔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같이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은 애굽을 징계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낸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라고 해서 같은 징계가 아닙니다. 앗수르의 징계는 그것으로 끝이 되어버릴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징계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얼마 후에 산헤립이 엄청난 군사를 몰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옵니다. 고대의 *18*만 *5*천이란 병사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시이저가 갈리아 지역을 점령하려 갈 때 겨우 *4*개 군단, *1*개 군단을 *8*천, *9*천으로 잡으면 사만도 되지 않는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독일 쪽을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18*만 *5*천이란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끌고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지만 한번 만에 거기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꼼짝없이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징계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앗수르는 단순히 하나님 손에 들린 매였을 뿐이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이 역설이 그리도인들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싶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술 안 먹고도 출세할 수 있나 싶어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출세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다 주고도 먹고 살 수 있느냐고요*?* 삽니다. 매사에 양보하고 매사에 지고 마는데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겠나 싶어도 다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바로 이 암담한 시절, 앗수르가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부흥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해오는 이 암담한 시절에 이사야가, '어쩌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려움과 환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환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놀라운 광경은 *11*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날을 기대하며 이사야는 눈앞에 닥친 그 어려운 현실을 넘어 갑니다. 선지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그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이냐고 젊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사람 좋으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라고 합니다. 멀리 있을 때는 신앙 좋은 것이 좋다지만 막상 다가가면 직장이 좋아야 하고 벌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풍조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굴복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 말고 돈 줘!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개역, 창세기 *28:10~22]*

조그마한 꼬마가 우리 목사님께 세배하러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뱃돈으로 만원짜리를 줬는데 이 꼬마가 한 말이 "아니, 이거 말고 돈 줘!" 했답니다. 걔가 말하는 돈이 뭘까요? 오백원짜리 동전을 가리킵니다. 걔 입장에서 만원짜리는 돈이 아니에요. 오백원짜리 동전을 달라는 겁니다. 오백원짜리 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고래밥도 오백원이고 새우깡도 오백원입니다. 귀엽죠? 애가 그러면 귀엽고 예쁩니다. 다 커서 그러면요? 그건 바보죠.

성경에서 누가 그러냐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딱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야곱은 너무나 야곱답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야곱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철없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피난 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이 받을 복을 가로챕니다. 분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머나먼 외삼촌댁으로 피난을 가지요. 어머니 치마폭에 싸여서 부엌에서만 살던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홀로 먼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 중에는 평지로 가는 비교적 평탄한 길이 있는데도 야곱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 정상적이라면 가지 않을 산길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험한 산길로 올라갔다가 벧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평탄한 길로 간 것 같습니다. 왜 험한 길을 걸어서 벧엘로 갔을까요?

벧엘은 과거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외롭고 먼 길을 가야 하기에 옛날 할아버지 생각도 하고 아버지 생각도 하면서, 어쩌면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같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게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했지만 야곱은 그 놀라운 약속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이 행한 서원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13*절부터 한 번 보십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

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주겠단 얘깁니까? 첫째는 땅입니다. 이 땅을 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후손이 얼마나 많아질 것이라고요? 땅의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복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기에서 야곱에게 처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얘기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했던 명령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노아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난 후에 노아에게 했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셔서 약속하실 때도 여전히 동일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계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난 듯이 불쑥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그 때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구원역사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요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동문서답

이런 놀라운 복을 주마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이 서원하며 요구한 것이 뭡니까?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무얼 달라고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복을 이야기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당장 급한 것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 세상을 위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이 당장 필요한 것은 내 한 몸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과 야곱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만원짜리와 오백원짜리 차이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혹시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야곱이 이런 걸 요구했어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를 돌아보시며 야곱이 요구한 것만 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날마다 오백원짜리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야곱처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끌어 주겠다는 것은 인도하겠다는 얘기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든든한 빽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이 닥쳐와도 괴로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빽이 있는데도?

큰 빽 아니라도,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 구역이 식사 당번이 되었는데 무얼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누구만 생각하면 고민이 싹 없어져요? 이번 행사 때 연극을 해야 되는데 복이 있는 구역은 누구만 생각하면 고민이 하나도 없어지는 구역이 있어요. 어떤 구역은 어느 집사님만 잡고 얘기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구역이 있어요. 그것도 든든한 빽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는 구역은 대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해야 되나 저것 해야 되나...? 우리 구역은 빠지자? 빠지자니 못된 사회자가 준비하지 않은 구역도 나오세요 할 거란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창피를 주어 다음에는 꼭 나오도록 하니까 이거 고역입니다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고역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빽입니다.

정치권에 높은 사람이 있는 것만 빽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도 얼마나 든든한 빽인지 모릅니다. 지휘자가 앞에 서서 지휘하려고 섰을 때도 어느 한 사람이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한 파트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자리를 딱 지켜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거 빽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키며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약속을 다 이루겠다 약속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빽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야곱이 이 약속을 잘 기억합니까?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올 때, 외삼촌이 거짓말로 그렇게 속였을 때, 외삼촌의 아들들이 '우리 재산을 야곱이 다 훔쳐간다'고 하며 얼굴빛이 좋지 않을 때 야곱은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도망쳐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떼어 놓았습니다. 뒤의 위험을 떼어내고 보니까 앞에 형님이 보이거든요. 이 형님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밤새 강가에서 헤매며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한꺼번에 가면 몰살당하겠다 싶어서 가족을 쪼갭니다. 형님이 와서 이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가족을 쪼개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제일 사랑하고 이뻤던 부인은 제일 뒤쪽에, 조금 덜 이뻤던 부인은 그 앞에... 이런 식으로 가족을 네 조각 내고 있는 이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든든한 빽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야곱은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을 또 봅시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야곱은 '만약에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이러고 있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야곱은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이라고 조건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니까 대꾸를 안 해서 그렇지 저 같이 성깔이 좀 있는 분은 대번에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야, 똑바로 들어라. 내가 말한 것을 못 알아 듣냐?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도 그대로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많이 겪게 되었죠.

야곱은 야곱답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13*절에, '**나는 여호와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그 이후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께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네게 이런 복을 주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은 안하셔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후 오랜 동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몇 십년이 흘러가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불러줄 때까지 야곱을 향하여서 나는 네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건부로 나를 여기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21*절 끝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야곱은 나를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부자지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는 것은 핀트가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야곱은 야곱답고 하나님은 하나님답습니다.

철없는 야곱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이 말을 또 다른 각도에서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은 잘 기억을 하는데 귀로 들은 것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기억을 하는데 그 분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야곱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 구원 얻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무얼 요구하셨고 자녀된 내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다는 기억은 있는데 그 분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야곱도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만났으니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지가 언제이며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한 때가 언제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때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다면 야곱처럼 어린아이 짓을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더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시급한 현실

또 한 가지는 야곱에게 급한 것은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에 야곱에게 주어질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과 나중에 되어질 놀라운 복을 이야기 하십니다. 반면에 야곱은 눈 앞에 보이는 현실, 즉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후일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눈이 더 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라는 책자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는 생선을 달라하는 아이에게 생선 대신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지요. 배고파 징징거리는 아이에게 언제 낚시터에 데려가서 낚시대를 쥐어주고 고기를 잡게 합니까? 빨리 먹이고 치우죠. 자식이 배고파 징징거리고 있는데 낚시대를 들고 강가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온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배고파 징징거려도 현실보다는 다음날을 내다보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혹은 집에서 공부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학교 가서 배울 걸 미리 배웁니다. 학원에 가서 미리 배우고 학교 가서 또 배웁니다. 두 번 하니까 잘 하겠죠? 한 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미리 가르치냔 말입니다. 괜히 이런 말했다고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그냥 듣고 끝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리 가르쳐서 학교 가서 또 배우게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이게 나쁜 영향을 주면 학원에 가서 잘 안 들어요. 내일 학교가면 또 할 건데 뭐. 학교 가서는 학원에서 배웠는데 뭐. 아이가 이런 식으로 여러 해를 지나게 되면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당장 치르는 시험 점수에 매여서 생기는 현상 아닐까 싶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장 좀 배고프고, 당장에 좀 힘들

고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의 영광

우리 아버님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기 한 평에 *5*원짜리도 있었고 *10*원짜리 땅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제가 아버지더러 *"10*원하고 *5*원할 때 그 때 좀 사 놓지 그랬어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밥 먹기조차 어려울 때 *5*원, *10*원이 어디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와서 저 땅이 금싸라기가 될 줄 알았으면 그 때 밥 못 먹더라도 사 놓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하실 때 포항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백 있는데 거기가 포항시의 끝입니다. 대백에서 위로 쭉 올라오면 갈대밭이고 논입니다. 중앙교회가 서 있는 곳도 조그만 배가 다니던 곳입니다. 그 갈대밭이 얼마나 했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변할 것을 알았더라면 못 먹어도 좀 사 놓았을 겁니다. 조금만 사 놓았더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 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훗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머리 속에 늘 그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런 꿈이 없는 사람과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죠*?*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의 가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참 성경적인 노래죠*?* 아닙니다. 그 나그네 길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오리무중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여기서 잠시 어려운 시절을 지내지만 끝내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우리의 나그네 길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툭 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툭 하면 쫓기고 야단맞고 비난 받고 고생 고생하던 그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 앞에 보이는 당장 먹을 양식, 입을 옷 여기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야곱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입을 옷과 먹을 양식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 자격이 없다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든지 야곱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설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달리 바꾸어 보면 아이들의 특징이 이거죠. 남이야 뭐라 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듣고 싶은대로 듣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엄마, 전에 약속했잖아*?"* 하고 우기거든 싸우지 마세요. 난 약속한 적이 없는데 싶어도 아이는 '내가 이 말 하면 엄마가 사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는 엄마가 뭐라고 하든 듣고 싶은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시든지 야곱은 자기 생각만,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별 관심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자기 말만 하고 오는 사람도 적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리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하나님께 내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 기울여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풀이해 주시는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만 열심히 한다면 어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따라오면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

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것 꼭 끝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 주세요' 나쁜 말로 해서 '하나님, 내 뒤를 좀 봐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어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 성숙할 뿐만 아니라 내가 편한 길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시고 내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거의 평생을 자기가 앞장 서고 하나님께서 뒤따라 오면서 돌봐 주시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죽을 때 다 되어서야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면 알수록 고생을 적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철없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요구한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평안히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야곱의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돌아오는 것 이것들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감당하기 어려운 복을 주셨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하나님의 복

돌아올 때의 야곱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네 명이죠*?* 자식이 열 둘이나 되죠. 이 열 둘, 참 많은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 비하면 별 것 아니지만 왜 많은 겁니까*?* 자기 할아버지는 백 년만에 하나, 자기 아버지는 결혼한 지 *20*년만에 겨우 쌍둥이. 손이 정말 귀한 집안입니다. 이 귀한 집안에 자기 대에 아들이 열 둘이면 어마어마하죠. 재산은 얼마나 되었어요*?* 잘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귀향하게 됩니다. 그가 요구했던 건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나름대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머리를 얼마나 굴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머리 굴린 것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 전부 잔머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잔머리 잘 굴려서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욕심내지 말고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힘들고 어렵게 살 각오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집사람이 고민스러운가 봐요. 우리 집사람이 좀 현실적이거든요. "여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도 신랑이 엉뚱한 소리한다고 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집에서 며칠 전에 질문한 건데 이제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만한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적인 복만 따라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도 따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삽니다. 좋은 학교에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요. 공부 못하고 좀 죄송합니다마는 질이 떨어지는 학교일수록 예수 믿는 아이들의 비율이 낮습니다. 학교를 많이 돌아다녀 본 제가 보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비중이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잘 산다는 동네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복도 더 누린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도무지 이해 안되시면 책 한권 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노라'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다는 고백을 기록한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사 보셔요. 책값 만원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 볼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그렇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런 글이 아니라도 분명히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 필요 없습니다. 책이 싫은 건 아닙니다.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땅을 정복하라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동산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이 땅, 돈 되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후손을 번성케 하라*?* 무슨 후손, 누구의 후손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번성케 하라는 것입니다.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우리의 복은 나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를 통해서 내 이웃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세상적인 복도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접어 두고, 이 땅에서도 야곱처럼 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으면 이 많은 재물을 어디다 쓰시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져서 흥청망청 그렇게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다 부자 되세요. 승진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승진하세요. 일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재물이나 많은 복도 꼬마의 표현을 빌리면 오백원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진짜 누렸던 복은 그 많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복,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이 주어져 있었고 그것이 야곱의 진짜 복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슈퍼마켓 들려서 새우깡 두 봉지와 고래밥 다섯 봉지 사 가지고 왔습니다. 새우깡은 다른 애들이 빼앗아 먹으려고 할 때 수비용으로 쓸려고요. 새우깡도 오백원, 고래밥도 오백원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갔다 줄까 아니면 저기 넣어 놓았다가 만날 때마다 하나씩 줄까*?* 왜요*?* '이거 말고 돈 줘' 하던 그 말 한마디가 생각날 때마다 이 놈이 이뻐요. 더군다나 그래서 설교 제목까지 하나 주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때마다 좋아하는 고래밥 오백원짜리 한 봉지씩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다가 저기다 수북히 갖다 놓았습니다.

'강도사님 고래밥' 하면 하나씩 주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왜 즐겁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잊어버리고 앉아서 오백원짜리 하고 있을 때 '아이고 이 철딱서니 없는 놈아' 이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실 거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 하면 얼마나 잘 합니까*?*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누구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고 비록 어설픈 짓을 해도, 철없는 짓을 해도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늘 철없는 어린아이로만 남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면 철없는 야곱이 아니라 다 자란 귀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뭘 안다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개역, 에스라 10:1~4]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울고 있는 이 장면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른들이 울며 통곡하는 이 자리에 아이들이 왜 함께 있었으며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됨과 귀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랍고 이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고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우상숭배 하는 일을 거듭거듭 계속했습니다. 수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망해버리게 됩니다. 망할 때도 단번에 망한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 순간에 망하지 않고 차례차례 포로로 잡혀갔다면 한 두 번 침공을 받았을 때 잡혀가고 남은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텐데 끝까지 다 잡혀갑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 갑니다. 표현하기가 뭣합니다만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반항할 힘도 없는, 땅만 파먹고 살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도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향하여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해도 또 데려와서 그 민족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다 찼다는 것을 알고서 그 때부터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70년 만에 스룹바벨의 인도 하에 약 5만명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성전을 세웁니다. 허물어져 버린 그 성전 터에 약소하나마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웁니다. 포로생활에서 돌아와서 거기 하나님의 전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전 이 장소에 어떤 성전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울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데 무너진 그 자리에 정말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성전이 선 것입니다. 예전 모습을 알 리 없는 다른 사람들은 성전이 섰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면 그 옛날 영화로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슬피 울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성전재건의 감격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조상이 범죄하므로 잡혀갔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돌아왔고 이제 성전을 다시 세웠으므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70년간 포로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70년이란 세월은 거기서 나름대로 정착해서 살도록 생활기반도 다 닦을 수 있는 기간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 땅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고향이라고 돌아온 것입니다. 완전히 개척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온갖 박해를 받아가면서 간신히 성전을 지어놓고 감격에 차서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그 후에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우리 눈과 마음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나 우리의 현실이나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산가족이 만난 뒷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몇 십년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다가 만나서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을 보여 줍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갈까요*?* 들리는 말로는 그렇게 울고불고 감격해 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합니다. 몇 십년 만에 만난 그 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더라는 이야깁니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 하나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나요*?* 들어가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며 간신이 들어갔지만 그 감격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학교가 뭐 이러냐면서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멋진 신랑, 혹은 신부를 만나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까*?* 결혼할 때는 꿈만 같았을 테지만 그것이 몇 년을 갑니까*?*

처음에 누렸던 그 감격,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잊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지만 그 기쁨도 가만히 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식어버립니다. 가만히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에 있지만 구약에서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당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잊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장치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절기를 많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죽을 뻔 했던 너희가 이렇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특이한 행사를 계속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절기들이 다 그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주어진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 가장 자주 오는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일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물을 참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 가운데서 돌을 옮겨다가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강물 밖에 있는 돌을 옮겨다 강물 안에 또 세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일에 후손들이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희 조상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기념비, 기념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다 사람을 기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념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뜻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성경 끝에 가서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기뻐할 이유

유대인에게는 이런 기념물, 기념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기념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이 어쩌면 고난일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고 말합니다. 또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고난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으므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으니 그 문제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가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괴로움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가시로 인한 괴로움보다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유익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허겁지겁 뛰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 즐거워서 뛰어오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 괴로움이 되시더라도 그런 괴로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라 기억하시면 그 고난마저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실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무릅써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시간에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낮 예배 때 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저녁에 만나 "일하느라 고생하셨지요*?*" 하면 "예배도 못 나왔는데요." 하십니다. 집사가 예배에 참석 못하고 회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면 사실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주일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게 노력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 주일이 나를 지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했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격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짓을 하면서 또 몇 십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어느새 그 벅찬 감격을 잊어버린 채 다시 원위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도 잊어버리고 다시 제멋대로 살고 있을 때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해서 돌아왔던 것과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시기적으로 *8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세우고도 적어도 *5~60*년 정도 간격이 있은 다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곳으로 찾아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얼마 되지 않아 어떤 방백들이 찾아와서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나가 있는지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이 되지 않고 다른 민족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혼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에스라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똑같이 살고 있다는 표현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누구누구와 똑같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듣게 된다면 굉장한 충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에서 '교회 다닌다면서 아주 이기적이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무감각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9*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수염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수염이 있는 사람이 수염을 다 뜯고 기가 막혀 앉았다고 말합니다. *4*절 뒤편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두 번이나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6*절도 보십시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한 일로 뭐 그리 그러십니까*?* 할지도 모르겠지만 에스라 입장에선 도무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스라가 먼 고국을 그리워하며 찾아 왔는데 먼저 귀환했던 형제들이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커녕 기가 막힐 짓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무슨 꼴이냐는 말입니다.

시집보낸 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가봤더니 날마다 두들겨 맞아가며 살고 있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코미디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즐겁게 하던 사람입니까*?* 또 행복하게 산다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가며 살았답니다. 꼭 녹화하러 가기 전에 멍이 들거나 찢어놓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화장으로 감추고 녹화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이 상해서 눈빛이 이상해져서 치료용 콘텍트 렌즈로 감추고 녹화를 하기도 했는데 더 이상 못살겠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서 남의 일이지만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 *3*자 입장에서 그러하거늘 하물며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낯을 못 들겠으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우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본문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울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얼마나 울고 울었길래 많은 사람, 많은 아이들이 통곡하며 함께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 때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9*장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서 저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적은 무리지만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이곳에서 명맥을 이어가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범죄를 했습니다'는 내용입니다.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에서 '이렇게'는 '우리의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 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울며불며 통곡을 하는데 무슨 죄입니까*?* 에스라가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잘못도 없는 에스라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에스라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고 울었던 에스라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울어야

우리도 좀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맘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

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동족을 생각하며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누구 죄 때문인지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돈 문제이고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돈, 돈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돈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돈이 가장 위력이 있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조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설령 나는 그것이 아무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동족의 이런 세태를 바라보며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대신 속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울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울어야 할 이유가 없더라도 우리 주변, 우리 이웃,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형제들을 보면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울자는 것은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천참사가 우리와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이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건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이웃의 아픔과 이웃들의 죄를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나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아는 학사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당시 페르시아 왕의 명을 받고 유대를 찾아 온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명을 받고 찾아 올 때 에스라에게 주어진 권한이 사법권이었습니다. 재판을 해서 형을 선고할 권한을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는데 재판장의 권한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적어도 그 지역의 총독 아니면 왕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성전 뜰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며불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울고 있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의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어른이 울고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라가 울며불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며 그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안건을 내 놓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가 해결책을 찾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린이 날이니 울며불며 매달리는 이 집회에 참석한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는 어른들, 따라 우는 아이들

통곡하는 어른들 사이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웬 아이들일까요? 어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집회하는데 아이들을 왜 데려왔을까요? 아이를 집에 두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돌봐주거나 집을 보려고 남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거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대표로 기도하고 올 테니 집에서 아이 보며 집 보고 있으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모두 그 집회에 와버리니 아이들도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울며불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이 아이들이 거기서 무엇을 배우기나 할까요? 아이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6살인 수찬이와 신대원을 수석으로 입학한 우리 백 강도사님이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수찬이요? 설마? 그러나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수찬이가 이길 것입니다. 5살, 6살 난 아이들도 아주 잘 외웁니다. 억지로 외우게 시키질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그대로 습득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배웁니다. 부모의 실력과 생각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4년 동안 음악공부를 한 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가서보니 고3 수준밖에 안되더랍니

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나라 어른들은 음악을 잘 몰라요. 악보를 주면 읽는 분이 잘 없어요.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악보를 우리가 글을 읽듯이 아주 간단하게 읽습니다. 슈베르트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악을 공부하려는데 교장이었던 아버지가 절대 안된다고 말려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학교의 국어선생으로 주저 앉아버렸답니다. 교장선생님이 순찰을 하다 보니 자기 아들 국어시간에 노랫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분명히 국어시간인데 웬 음악소리가 들리나 싶어서 가서 보니 세상에 국어선생님인 자기 아들이 칠판에 악보를 생각나는 대로 그려나가고 앉아 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합창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본 악보를 보고 그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칠판에 그려나가는 악보를 보고 즉석에서 합창을 하고 있었으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동네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부모들이 그런 수준이면 아이들은 저절로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 되어 버립니다.

아이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철이 없는 것 같아도 부모들의 생각을 저절로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우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생각을,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이들은 저절로 압니다. 말은 하나님 우선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실제로 그런가 아닌가 안다는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해도 아*!* 우리 아빠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존경 받는 아빠라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렇게 울며불며 매달리는 그 부모들 옆에 멋모르고 앉아서 떠들고 돌아다녔을 그 아이들이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고신 교단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는 일제시대 때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울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배며 기도회에 모일 때마다 엎드려 울었습니다. 날마다 우는 부모들의 눈물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자리 잡게 되고 그들 가운데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움직인 것이 결국은 학생신앙운동이라는 놀라운 자생력 갖춘 단체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이 울면 아이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른 채 그냥 따라 웁니다. 그런데 뜻도 모르고 우는 이 아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에스라와 그 어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살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반드시 그렇게 따라옵니다.

아이들이 뭘 안다고*?*

어린이날을 맞을 때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도 해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행동하는 대로 큽니다. 가르치는 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정말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Sunday* 크리스천*'*처럼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일만 지나면 또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식으로 살고 있으면 아이들이 먼저 압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라고 고함을 쳐도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엄마 체면 때문에 하라고 하는지를 압니다. 영특한 아이들은 '엄마 체면을 위해서 공부해주지'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교회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존경 받는 어른들 중에 그 집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경우가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나 어른들 사이에선 참 존경 받는 분이지만 집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은 금방 알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존경 받는데 집에서는 존

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속이며 이중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주일 낮 바깥은 거의 전쟁터입니다. 차에 올라가서 미끄럼 타는 아이들, 자동차 배기구에 돌멩이 집어넣는 아이들... 기상천외한 장난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별의별 장난도 치고 행동도 가지각색인데 왜 데려오나요*?* 그래도 데려와야 합니다. 장난을 치건 사고를 치건 어쨌든 교회 와서 함께 지내는 가운데에서 아이가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교회에서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안되겠으니 당신은 집에서 애나 봐라' 하면서 대표로 온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부모에게도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끄럽고 장난을 쳐도 아이를 품에 안고라도 나와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일 바쁜 아줌마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손에 시장바구니를 들고 껌씹으며 담배 피우는 아줌마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줌마 참 바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아름다운 장면은 아이를 등에 업고 바이올린을 켜는 분입니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얼마나 섬세한 악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악기도 기분이 나쁘다고 소리를 냅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교수 앞에서 시험 삼아 켰더니 '한국에서 가르치시던 분이 왼쪽 다리를 좀 절지요*?*' 하더랍니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그렇게 섬세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가대 연습 시간에 등에 애기를 업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

성가대며 교사며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 아이는 밖에서 흙이며 옷이며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봉사해야 합니까*?* 아이가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잠깐이고 씻으면 되고 혹시 좀 다쳐도 별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체득하게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날인데 어른들*(?)* 모시고 고생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랍니다. 집에서 잘 놀다가 저녁예배 시간이라고 가자고 끌고 나오면 아이가 울지는 몰라도 예배의 소중함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이 아이는 나중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지켜줍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만들어 가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도 장가들고 싶데요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개역, 호세아 2:14~20]*

공갈이라고?

결혼식에서 늘 듣는 말,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는 이 말씀을 어떤 분이 '공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을까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겪을 수 있는 쓴맛, 단맛을 다 극복해 가면서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충고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것이 공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분은 결혼을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우리나라 유교적 관습에 의하면 한 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죠. 그런 것도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교훈은 공갈이고 옛날부터 지켜왔던 것은 고리타분해서 믿을 수 없다면 이런 분들은 도대체 결혼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고 싫으면 헤어지는 것이지 누가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주 그럴 듯한 말이지만 이것은 독입니다. 이런 사상이 많이 번져 나가니 결국 이혼이 자꾸 늘어갈 수밖에 없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그래서?

신문에 '아동보호 시설마다 이혼 고아가 넘친다'는 제목이 있더군요. 세상에! '이혼 고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면서 아이를 버린다고 합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워낙 허약한 상태니 조그마한 충격에도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교적 관습을 따라 일단 결혼하면 남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 쉽게 갈라서고 아이들만 버려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성경적인 기초 위에 가정을 튼튼히 꾸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 무엇이며 이것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를 한번 더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람난 마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남편도 아이도 버리고 집 나간 여자와 같다고 합니다. 원래 바람기가 있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까지 낳고 잘 살던 부인이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만 예전에 애인이 군에 갔는데 남아있는 애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리는 경우를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군에 가 있는 남자가 탈영하는 일이 아주 잦았습니다. 총 메고 나와서 다방이나 역전에서 총을 쏘아 대면서 하는 말이 누구 누구 불러줘! 그러죠. 그러면 주로 엄마나 누나가 잘 불려옵니다. 그렇게 해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애시절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잘 살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처가로 칼 들고 총 들고 찾아가서 내 놓으라고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거의 제정신이 아니더라구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자식 낳아서 잘 살고 있던 부인이 집을 나간 현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 나간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잡히면?

*13*절에 **'저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집 나간 아내를 찾아서 벌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벌인지 *7*절을 보십시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어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자 정신없이 날 뛰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자 고생고생하다 보니 아하*!*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본 남편에게로 가는 것이 옳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벌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줄도 모른 상태로 지내는데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통만 남게 되면 본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내를 잡아다가 다리를 하나 분질러 놓겠다든가 머리를 밀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돌아오면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라고 말하는데 '개유'라는 말은 '좋은 말로 달래서 마음을 열게 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안되겠구나 돌아가야겠구나' 싶어 돌아오는 아내를 아주 좋은 말로 설득하고 달래서 결국은 다시 아내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저가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내로 삼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인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거친 들로 가서

성경에서 광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도 광야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던 곳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훈련받던 곳도 광야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아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아내를, 그래도 돌아오면 부드러운 말로 달래서 거친 들로 이끌고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 거친 들은 그 전에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놀아나던 화려한 곳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지나간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아무 것도 없는 거친 들에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전과 같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15*절에,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고 합니다. 찬송가에도 나오는 아골 골짜기의 '아골'은 환란이란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옛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훔쳤다가 그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그 골짜기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율법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것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였던 그 곳을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환란의 골짜기일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가 거기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고 있던 부인이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서 완전히 몸과 마음을 망치고 돌아 온 그 여자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겠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이라는 것은 민족이 처음 시작하던 때,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란한 여자와 그 순하고 순한 어린아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를 찾아와서 다시 함께 산 남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들었는데 이 동네에

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남긴 말이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해도 어차피 중고품일 텐데 이래도 저래도 중고품이라면 아이들에게는 자기 엄마가 더 낫지 않겠나. 그냥 데리고 살지 뭐' 하시면서 살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의 말투가 '그래도 그 남자 참 너그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갔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중고품 쓰듯이 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과거의 그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장가가는 일?

우리나라 말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집 나갔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재혼? 결혼? 재결합? 여기에 적합한 용어가 없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시는지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19*절 끝에 보면 **'네게 장가들며'**라고 말합니다. 예전 그 여자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전에 나를 떠나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 살았던 그 일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상태에서 내가 네게 다시 장가들겠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장가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대상이 아름답고 순전한 처녀가 아닙니다. 집을 나가 떠돌아 다니던 그 여자를 불러다가 들로 나가서 개유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장가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건 어떠한 죄가 있었건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잊어버리고 깨끗한 신분으로 우리를 다시 맞이하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고 음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오래도록 집을 나가서 멋대로 놀다가 다시 돌아와 한 집에 살면 남편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나를 가리켜서 '내 남편'이라 부르지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여기의 바알은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바알은 전부 우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본래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내 바알'이라고 한 것은 다시는 나를 가리켜서 내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는 말입니다. '주인님'이라 부르는 관계가 아니고 '당신은 남편 나는 아내'라는 관계로 회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집집마다 너무 달라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주인이라 부르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종관계인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부부가 주종관계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와 주종관계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데려와서 내가 너와 결혼하게 되면 부부관계이지 더 이상 주종관계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관계가 되면 *18*절 끝에 **'평안히 눕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관계가 되면 참으로 평안한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20*절 끝에 보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관계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 평안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주종관계는 두려움이 바탕이 되지만 부부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잘 알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관계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18*절에,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대상이 사람 외에도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사람 뿐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언약을 세우셨지 다른 짐승에게 언약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짐승과 언약을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저희를 위하여' 평안히 눕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과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저희를 위하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언약을 세우고 공중의 새와도 언약을 세운 것은 그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뜻에서의 언약입니다. 들짐승과 새와 뒤에 나오는 활이나 칼, 전쟁은 내 아내가 나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때에 징계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징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내 아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에서 이 짐승들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웠다는 그 언약과는 내용이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다시는 이런 징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하고자 하면 혼수가 좀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혼수는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이것이 하나님의 혼수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우리를 대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 의와 공변됨, 은총과 긍휼히 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결혼하는 아내가 가질 혼수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불쌍한 몸으로 돌아온 것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우리 편에서 무언가 드려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이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왜 결혼제도를 만드셨을까요?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장가들겠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의 결혼이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손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이 많이 몰려있는 구조가 더 낫지 않을까요? 짐승들이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수벌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꽃이 피고 꿀을 뜰 때가 되면 벌들이 많아집니다. 벌통에 들어있는 벌들이 한통에 *8*만마리에서 *10*만마리 정도 있는데 거의 모두 암벌이고 수벌은 한쪽 귀퉁이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몸집은 암벌보다 조금 큽니다. 수벌이 나와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라곤 여왕벌이 새로 나와서 처녀비행을 할 때 한 마리만 따라가서 교미를 하고 그 외엔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벌통 안에서 일도 안 하고 양식만 축낸다고 사람들이 꿀 뜰 때쯤 되면 수벌 집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걸 보면 사람으로 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에서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결혼에 비유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생활을 잘 이루어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교훈을 줍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31*절 이후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찌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방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장가들면 결과가 *2*장 *20*절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만이 족한 것은 아닙니다. 믿었으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과정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기적인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며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과 결혼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 간략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결혼했느냐고 물으면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언제 결혼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결혼식을 이야기 합니다. 결혼식과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하셨나요?" "아 예, 식은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결혼은 언제 할까요?

왜 결혼식과 결혼을 구분하라고 하느냐 하면 결혼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혼식이 끝이 됩니다. 연애시절에 애타하다가 드디어 결혼식을 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저런 약속을 다 해놓고 결혼식을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입니다. 그 때부터 제대로 된 결혼, 하나가 되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혼한지 오래되신 분들은 언제쯤 정말 두 분이 진짜 한 몸이 되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결혼식은 했을망정 완전히 한 몸이 되기까지 서로가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식과 결혼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야 이런 저런 약속도 할 수 있고 과장도 하지만 결혼식만 올리면 끝이라 생각하니까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연애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성경적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에 관심이 많다

왜 우리가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사회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분장할 때 특별히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대통령 각하께서 한 말씀 하셨으면 그것이 이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각하의 관심사항이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은 각하의 관심사항입니다'라는 말은 엄청난 무게를 지닌 말이라서 압력을 행사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관심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제도이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던 명령이나 제도 중에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바뀐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 먹는 것, 정결, 제사문제 등등.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고 하시면서 많이 바꾸셨습니다.

십계명도 다시 정돈하시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 것이 결혼관계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진 것이 거의 없는데 결혼문제는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저는 한 번도 주례를 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별 가능성은 없다 싶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에서 후보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크면 아마도 주례를 하게 될 거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지 많이 연구는 해 놓았습니다. '최소한 결혼 전에 신랑과 같이 와서 교육을 한 열 번 정도는 받아야 할 것이다. 결혼이란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하셨으며 이런 저런 문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살래 안 살래 확인한 다음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주례를 서 줘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례를 선다는 것은 나중에 *A/S*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일 년에 적어도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례 설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생각만 많습니다만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여야 하고 자라는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라, 하나 되라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둘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돈을 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부모를 떠나지 않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적은 부모를 떠나는데 있다기보다는 부모를 떠나야 그 다음 아내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닐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진하면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꼭 따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살더라도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입장에서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걸까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 집사님들은 외우지 마세요. 도저히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버려서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데 이불 개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라는데 양말 펴서 내놓는 것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라는 것은 쉽나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존경하지' 그 말도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할 때 그것을 모르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나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도 사랑하라는 것이고 도저히 따라가서는 안될 것 같다 싶어도 남편이라면 복종해야 하나가 됩니다.

철없는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백마 탄 기사가 나타나서 행복의 나라로 데려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평생 사랑해 줄 것이라고요*?* 빨리 깨세요. 길어야 *3*년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집니다.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이런 관계라고 말하지만 에베소서 뒷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결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네 형편이 나보다 낫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살면서 아내나 남편이나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적잖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다니 도저히 돌아서지는 못하겠고 속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런 사람

하고 한 번 살아보십시오. 내 심정을 알 것입니다'라고 때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답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얘야, 그래도 네 마누라는 집 나가지는 않았잖느냐? 네 처지가 내 처지보다 낫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아담이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는 감격적인 말을 했음에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라는 기막힌 답변을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이 아닙니까?라는 거지요. 아담이 이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었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인류 역사가 크게 달라졌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뭣하러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집 아줌마를 보면 가슴이 뛰는데

남편을 볼 때마다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것도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보면 가슴이 좀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저놈의 웬수 또 왔나? 이러면 이건 큰 죄입니다. 이웃집 아줌마를 보면 가슴이 뛰는데 자기 아내를 보면 있던 긴장마저 쏙 빠져 버린다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면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짝을 주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혹시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무래도 짝을 잘못 만났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 처지가 내 처지보다 훨씬 낫단다 하실 것입니다. 집을 나가 다른 남자 품에 있던 여자를 다시 불러서 달래서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 장가들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의 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이 유익이 많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해도 해도 잘 안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떨 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 달라서 접근하기 어려운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빨리 인식하고 그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남자는 여자가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마음씨를 가졌는지를 보기보다 우선은 겉모습이 아름다운지를 먼저 봅니다. 반면에 여자는 잘 생겼다고 따라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생기긴 못생겼다 해도 어딘가 모르게 믿음직한 구석이 보이면 그것에 끌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예쁜 여자들과 못난 남자들이 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남자는 돈이 좀 많아야 감격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도 잘 감격합니다. 돈이 없고 별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내를 감격시킬 수가 있다는 것은 돈 없고 힘 없는 남자들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다른 차이점을 발견해서 서로가 노력하면 유익이 많은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차이점 때문에 매일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싸울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치약얘기인데 한 사람은 밑에서부터 말아 올려놓는데 한 사람은 옆구리 쿡 눌러 짭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비단 치약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이 자리에 뭐 떨어져 있었는데 퇴근해서 오니 아직 있네. 청소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 눈에는 잘 보여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아마 평생에 잘 안 고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다르구나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보면 해법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뭇꾼과 선녀, 임금님의 사위

제가 잘 쓰는 말은 '나무꾼과 선녀'입니다. 옛날 아이들 동화에 나무꾼과 선녀가 있는데 아이들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의 동화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가끔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나무꾼이지' 합니다. '당신은 선녀니까 선녀답게 살고 나는 나무꾼이니 나무꾼답게 살자. 어차피 나무꾼이 선녀 되긴 글렀으니 선녀가 나무꾼 곁에 있어주면 안되는가?' 잘 안되더라고요. 선녀를 나무꾼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도저히 못 날아가도록 감동을 시키든지 수를 내야 하는데 쉽진 않지만 이 차이를 알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남편이 시인인데 아내를 데리고 들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시를 한 수 읊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내는 '그 놈 잡아서 구워먹으면 참 맛있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해설이 참 재미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시를 읊고 앉아 있으면 둘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시를 읊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둘 다 산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잘 인식만 하면 그것이 서로를 위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사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수양이 많이 되었답니다. 아내인 공주를 데리고 살면 신경질이 많이 나지만 신경질 난다고 성질을 낼까요? 야단을 칠까요? 쫓아 보낼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겠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 혼자만 그랬겠습니까? 저는 제 얘기밖에 모르지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맞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집사람에게 "내가 당신이 예뻐서 좋아한 것 아니잖아!"라는 소리를 했다가 *10*년을 볶였습니다. 내가 말한 의도는 '당신은 외모보다는 내면이 훨씬 아름다운 여자다'라고 한 말인데 본인은 '당신이 나 보고 못났다고 했잖아'라고 들어버린 것입니다. 못났다고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10*년을 가더라고요. 그 후로는 절대로 여자들 보고 그렇게 고차원적인 소리를 하면 안된다고 명심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남녀의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나 만나서 아무렇게 결혼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느 누가 조건 없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결혼을 온전히 이루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존경스러워지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옛날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변한 것이 없는데도 예뻐 보일 것입니다. 변한 것이 없는데도 남편이 존경스러워질 것입니다. 변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존경스러워지고 아내가 아름다워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정말 남편이 존경스러워지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된 가정들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진정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개역, 이사야 10:33~11:1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정은 물론, 목숨까지도 초개같이 버린 사람들은 그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적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한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더라도 내 후손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런 소망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노동조건이 열악할 때에 "나는 이렇게 있더라도 우리 후배들을 이렇게 고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방법은 극렬했을지라도 열악한 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는 열사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 후배, 우리 자손,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희생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비교적 우리는 좋은 곳에 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면 어느 정도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정도 되면 될까요? 미국에는 자살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노후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노르웨이나 스웨덴입니다. 안락한 나라들이며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선조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지면 어느 정도 나아질까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은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할 때가 있지요. 굳이 북한 아니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아니 복음을 들어도 지하에서 숨어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이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굶어죽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더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기 전에 우리 위해서 고생했던 선조들에게 먼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그 때에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채 지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은 먼 훗날에 있을 진짜 아름다운 그 세상을 위해서 입니다.

그 세상이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조금 나을 수 있는 세상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먼 훗날 있을 아름다운 세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 드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좀 이상한지 제게 글자를 잘못 쓴 것 아니냐고 물었던 분도 계십니다. '누가 도끼의 간을 키웠는가?' 맞습니다. "이거 도끼입니까, 토끼입니까?" 하더라고요. 토끼의 간을 키워서 뭐 할 거예요? 도끼가 간이 얼마나 커졌는지, 도끼가 설치고 다닌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웬 도끼인지 복습을 간단히 하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가하시게 됩니다. 비유컨대 벌목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다 베고 났더니 나무 벨 때 썼던 도끼하고 톱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나무를 다 벤 걸로 알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쳤다. 예루살렘이 별 거냐 말이죠. "예루살렘 나와 봐! 예루살렘에 신이 있다고? 나와 봐! 나같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며 나보다 총명한 자가 누구냐? 어느 나라고 간에 나한테 걸리면 견뎌나지를 못한다. 예루살렘? 버틸 수 있냐? 예루살렘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앗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변 모든 나라를 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도달합니다.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톱, 도끼에 지나지 않는데도 얼마나 교만하게 큰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아주 쉬운 일을 가리켜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러죠? 실제로 먹어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앗수르는 주변 나라 치는 것을 마치 둥지에 버려져 있는 새알을 줍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떠벌립니다. '새알 줍듯이 한 알 한 알 주었지만 감히 내 앞에서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예루살렘도 나와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었더니 도끼가 주인을 향하여서 대드는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가할 때에 마음이 몹시 아프셨습니다. 그러면서 쳤단 말예요. 그랬는데 도끼마저 이 모양이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이 뒤집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도 말 안 듣고 그를 징계한다고 다른 민족을 좀 썼더니 이 민족마저도 말썽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간 큰 도끼가 생깁니다. 이 간 큰 건방진 도끼가 교회를 향하여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소리를 질러 댑니다. 가끔 "교회가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장사꾼과 다를 게 뭐냐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난을 당할 때 앗수르가 왜 이렇게 기고만장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고만장해 있는 앗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도끼고 나는 나무를 찍는 자다. 너는 톱이고 나는 켜는 자다. 네가 막대기라면 나는 막대기를 드는 자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앗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33*절과 *34*절이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칼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자기가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모독하는 앗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앗수르의 산헤립이 군대 *18*만 *5*천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쌉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70*만 되니까 *18*만 *5*천하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모독

하다가 하루 저녁에 전부 시체로 변해버린 사건이 *37*장에 나옵니다.

앗수르가 그렇게 건방진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을 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앗수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입니다. 감히 앗수르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은 앗수르가 철저하게 베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도끼인줄 모르고 오히려 도끼를 든 주인에게 간 큰 소리를 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했던 앗수르는 나무가 완전히 베어지듯, 작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11*장 *1*절을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앗수르는 작벌을 당하여 완전히 베어져 버릴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새로운 싹이 날 것이고 그 싹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싹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모략도 있고 지능도 있습니다. 이 싹이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싹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비유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말은 이새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왕이 출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건방진 소리를 해대는 앗수르는 싹쓸이 되어 사라지겠지만 오히려 앗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셨던 그 이스라엘은 그 날에 위대한 왕이 탄생해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새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의 아버지가 두 살이에요*?*" 하는 겁니다. 애들이 다윗은 잘 알면서 이새는 왜 잘 모를까요*?*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하려면 '다윗왕의 가문에서...' 이래야 빛이 날텐데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하필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 왕의 출신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남들이 우러러 볼만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곧 위대한 왕이 탄생하겠지만 그 왕의 출신은 미천하고 그리 화려하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 봐야 그 줄기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녀린 싹입니다. 그 싹이 위대한 왕으로 자라나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용비어천가 아시죠*?* 학교 다닐 때는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죠. 태조 이성계가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분의 조상들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대 조상들까지 용에 비유해서 얼마나 위대한 조상들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가급적이면 조상을 위대하고 화려하게 드러내려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날 위대한 왕은 이새의 뿌리에서 작은 싹처럼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가문에서 대단한 가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싹이 나서 크게 결실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싹의 특징은,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합니다. 작은 싹이 하나 나서 결실하게 되는데 이 싹이 자라나서 온전하게 결실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몽고는 별로 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한 때 몽고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위력이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한 사람, 징기스칸 때문입니다. 위대한 왕이 서고 이 왕이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는 나라를 제대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로마 역사를 훑어보다가 시이저나 아우구스투스의 역할을 보고 참 탄복을 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 로마를 그렇게 키운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세운 업적을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죠. 이 왕들이 세운 기초 위에 얼마나 태평스런 세월이 오래 유지되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이 놀라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십시다.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 나라의 통치대상은 빈핍한 자와

겸손한 자입니다. 빈핍한 자는 아시겠지만 겸손한 자가 조금 이상하죠? 겸손한 자의 본래 의미는 천하다는 뜻입니다. 영어에 겸손과 천하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자는 빈핍한 자와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들이 누구를 상대로 정치합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누구를 위해서 정치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백성요? 법이 만들어지고 통치가 될 때에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마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는 잘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스리는, 진정으로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이 뭡니까? *4*절 뒤편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은 전부 무력입니다.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입술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말씀으로 다 되는 나라입니다.

오래 전입니다마는 참 골치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첫 날에 애를 하나 만났는데 예삿내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좋지 않은 일로 붙들려 왔는데 매를 많이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 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야, 너는 매 가지고는 인간 안되겠네?" 하니까 이놈이 씩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예, 저는 매는 겁 안 납니다."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매는 겁 안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로 하면 듣겠냐?" 그러니까 "말로는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애만은 매를 안 댔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는데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어쩌나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주로 교련 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 혹은 체육 선생님들이 나가서 애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겁도 주곤 하는데 전혀 먹혀들지가 않아요.

멀리서 지켜보니까 *1*학년짜리 그 놈이 *3*학년을 충동질해서 데모를 일으킨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그 애를 불렀습니다. "말로 하자, 이거 중지시켜라." 그 때문에 데모가 중지되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덩치 크고 무서운 선생님들이 아무리 공갈쳐도 꼼짝도 않던 녀석들이 조그마한 영어 선생님 한마디에 다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기억 중의 하나입니다. 걔가 워낙 사고를 치고 덩치도 좋으니까 일만 생기면 얻어터지면서 살아왔는데 세상에 선생님이 "말로 하면 되겠느냐?"고 대해준 게 태어나고 처음입니다. '말로 하면 되겠느냐?'는 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말로 하자, 일단 멈춰라, 뒷일은 내가 어떻게 해볼 게." 이랬는데 그 말을 들어 준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는 나라입니다.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가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착착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말씀만으로! 원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도 안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 시절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즉 위대한 왕이 출생하여 이루어질 그 나라의 통치 기준은 *5*절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합니다. 공의로운 나라요 성실하게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니 나오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다 갖다 바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성실하게 백성을 위합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법률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을 준비하고 그럽니까? 자기 당에 불리하다 싶으면 빨리 처리해야 될 것도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데서 온전하게 벗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위대한 왕이 출생하여 이루어질 그 나라는 그런 나라와 달리 정말로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 다른,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입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서 이 구절이 감동을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른 잔디가 짝 깔려있는 걸 쳐다 보면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지요? 아름답지만 거기 함부로 들어가서 눕지 마세요. 좋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밭에 가서 많이 뒹굴면 걸리는 병 있지요?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잔디밭에 누웠다가 걸리는 병입니다. 잔디가 아름답다 싶어도 눕지 마세요. 함부로 누울 곳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벌렁 누웠다가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개똥이 그리 많은지요. 사진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잔디밭에 들어가 보면 개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촌 풍경을 멀리서 보면 전원풍경이라고 그러죠. 참 좋아 보이죠? "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멀리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보따리 싸고 들어가 보세요. 며칠이나 버틸런가. 농촌에 고추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 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힘들다는 건 압니다. 시골 애들이 가출하는 이유 중에 "고추 따기 싫어서요."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추 따는 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시골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죠? 거기 들어가서 살아보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농촌에 가서 멋진 전원생활 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일찌감치 꿈 깨라는 얘기부터 해야 합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아니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사진에 잘 나오는 평화로운 모습 있죠? 새가 날고 꽃이 피는 그 곳에 카메라를 확대시켜 들여다 보면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자연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자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자연계의 현실입니다. 자연계만 그렇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도 생존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세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원래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했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저주 아래 놓여있는 세상입니다. 위대한 왕이 탄생하여 저주 아래 놓여 강한 놈은 잡아먹고 약한 놈은 잡아 먹혀야 하는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평화로운 나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는 얘기죠.

*6, 7, 8*절을 읽어보면 **'해됨도 상함도 없고 심지어 사자가 풀을 뜯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사자가 풀을 뜯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땅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나라에서 사자는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탄생하면 원래대로 아니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땅이 사람과 분리되고 부부가 분리되고 짐승과 사람이 분리되던 모습이 위대한 왕의 탄생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표범에게 어린 염소는 맛있는 먹이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친구 사이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연만물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완성시킬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의 답이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진정 아름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냔 말입니다. 염소가 이리와 같이 눕고 어린 양이 표범이 함께 눕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 나라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필수 조건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기는 우리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밥 안 먹고 잠 안 자도 즐거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으면 참 불행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있었다면 밥 안 먹고 잠 안 자도 즐거운 그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런 현상과 비교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어릴 때 소풍간다 수학여행간다 그래서 그 전날 밤 잠 못 자고 설레던 날이 있었습니까*?* 그때 기분, 그런 흥분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인이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날 때마다 가슴이 떨리던 그 가슴 떨림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즐거움을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가슴 떨리는 흥분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과학이 만들어 주는 세상은 한마디로 편한 세상입니다. 편리한 세상입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 가슴 떨리는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적인 얘기지만, 사람들의 머리가 계속 크니까 훗날 사람들이 진화해서 머리만 굵어지고 머리털도 좀 빠져버리고 손발은 조그마한 모습으로 그려놓기도 합니다.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살다보니 손과 발을 놀리는 일이 없고 쓴다는 것은 머리뿐이니 머리만 굵어지고 머리털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은 편리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신선의 세계를 말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상처럼 여겼던 신선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신선의 나라는 놀고먹는 세상입니다. 신선은 뭐 합니까*?*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둡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는 말이 뭡니까*?* 인간이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은 놀고먹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 그 가슴 떨리는 즐거움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것 잘 안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부부싸움하실 때 이런 얘기 잘 하시죠*?*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준 게 뭐고*?"* 많이 해 줬다는 얘깁니다. 뭐 해 줬지요*?* *"*월급 타다가 한 푼도 축 안내고 당신에게 다 줬잖아*!"* 얼마나 큰일입니까*?* 남편이 *"*내가 안 해준 게 뭐고*?"*라고 할 만하죠.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해준 건 뭔데*?"*라는 겁니다. 서로가 뭔가 안 맞는 겁니다.

부인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란 말이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돈만 갖다 주면 다냐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갖다 준 것은 전혀 해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몇 번째 즐거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없이 무조건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과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 경외를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좋은 향기를 맡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뜻이죠. 꽃밭에 가보면 가끔 향기나는 풀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코에 대어보면 향이 쏴하게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향을 맡아보고는 *"*야

아*!"* 하는 이런 느낌을 호흡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갈 때도, 직장에서도, 이웃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기 맡듯이 의식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까*?*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서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끝에 와서 보니 징계하려고 쓰셨던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여 없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은 다시 싹을 틔워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힘들든 어렵든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결과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를 맞아야 했던 이스라엘도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 어떤 복을 누릴 것인지 상상해 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기스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루어졌고 로마황제 몇 사람에 의해서 그 평화가 그렇게 오랫토록 지속되었다면 위대한 왕의 탄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힘쓰고 애써도 항상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비시는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학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개역, 스바냐 3:1~8]*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여러 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 폭군이 서로 사랑하는 두 남자끼리 싸움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라면 누가 이길까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기지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악독한 경우는 싸움을 시키면서 "이기는 사람은 십자가형이야." 하는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긴 사람은 십자가 처형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부부사이에 혹은 가장 친한 사람과 그런 상황에 몰렸다고 치고 누가 이길 건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지구를 향해서 유성이 돌진해옵니다. 부딪치면 지구가 박살납니다. 그 전에 특공대를 보내서 원자폭탄으로 깨부시는 영화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 사람이 남아서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로 남겠다고 우기다가 결국은 제비뽑기를 해서 젊은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 사람은 돌격대 대장의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딸은 아버지와 애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죽지요? 영화를 보신 분에게는 쉽지만... 더 쉬운 걸로 합시다.

부자지간에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겨요? 지금까지 드린 문제의 답은 다 같은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하면 이 네 가지 질문에 다 답이 됩니까? 정답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져요? 져 주는 거죠. 왜 져 주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져 주는 겁니다. 이기는 놈은 십자가 처형이라는데 누가 이깁니까? 살아남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옆에 있는 성도라도 좋고 옆에 있는 신랑 각시도 좋습니다.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누가 죽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깁니까? 이기시는 분이 덜 사랑하는 분입니다. 믿는 성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싸우면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 자기 백성을 향하여 빌고 빌며 사정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통사정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더 답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답답해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우린 철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랑이 크시거든요.

밥 안 먹고 도망가면서 "내가 밥 안 먹으면 누가 답답한지 보자!" 하더군요. 밥은 자기가 안 먹는데 왜 엄마가 답답합니까? 엄마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답답해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답답해하고 사정하고 빌고 계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몹시 노를 발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노를 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까요*?*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요시야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시대였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은 여덟 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2*년간 통치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시대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므낫세 왕입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단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독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전설이긴 합니다마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자그마치 *5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였으니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본문 *3*장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것 흉악하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죠.

*3*절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것이 방백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자가 부르짖으며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힘없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고압적인 태도로 약자를 억눌러서 먹이를 탈취한다는 말입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라고 합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할텐데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어야 할 이들이 간사하고 경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을 차렸다는 얘기죠. 가장 무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듭니까,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를 만듭니까*?* 좋은 목사님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목사는 어디서 납니까*?* 좋은 교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좋은 목사를 길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훗날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 속에서 좋은 목사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깁니다만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시끄러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우리 선배들이 공부 잘 하면 법대나 의대가고, 그 다음은... 신학교에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래 놓으니 세월 지난 다음에 교회들마다 목회자로 인한 문제가 많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뛰어나고 신실한 아이들을 좋은 목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없이 나중에 어디 가서 좋은 목사 붙들어 오면 됩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죄를 짓지 왜 제사장이 성소를 더럽힙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있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담당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여기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누가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위인이나 내가 맡아 있는 이곳에서 작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일합니다. "누구는 정치한답시고 몇 천억씩 거둬먹고 말이야*!*" 이런 욕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몇 천억이겠지만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다른 곳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이들은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교회 일도 별로 하지 않지만 죄도 별로 안 지어요. 바람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바람피우는 사람은 좋다는 것은 다 골라 먹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7*절 끝에,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죠. *5*절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공의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큰일났구나*!"* 해야 하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범죄한 사람에게 전혀 에누리 없이 벌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음으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열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가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너희 차례다는 말입니다. 너희 차례지만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도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으니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저녁 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절에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이라고 합니다. 아침은 태양이 밝은 빛을 발하며 떠오르는 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침 태양같이 밝게 비치고 있는데 재판관들은 컴컴한 데서 이리처럼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가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모든 진노를 다 쏟아놓겠다는 것이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를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모든 나라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끝나야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징계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면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테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니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말씀 한마디로 없애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창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불러, 배를 만들고 홍수를 동원해서 그 난리를 치고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회개하라, 만약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러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하더라도 끝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셨으면 끝내야지 왜 이러시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면서 반복해서 사정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백만원짜리 물건을 여러분은 얼마쯤 깎아줄 수 있습니까*?* 정말 처지가 딱해 보이면 얼마나 깎아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삼십만 원만 내라면서 깎아줬습니다. 삼십만 원도 없는데요*?* 얼마까지 깎아줬는지 아십니까*?* 만원까지 깎아줬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레위기에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소 한 마리 값을 오백만원이라 합시다. 그런데 형편이 딱해서 소를 드릴 수 없거든 양이나 염소도 된답니다. 양이나 염소가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지만 삼십만원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되거든 집비둘기 새끼나 아니면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라는 겁니다. 산비둘기 값은 후하게 쳐서 통닭 한 마리로 치면 안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양보인지 짐작이 가시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생축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정성 드려 기른 것 말이예요. 정성 드려 기르고 흠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도 없고 돈도 없거든 산비둘기, 이건 생축이 아닙니다, 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놈이라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양보를 해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양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빌고 비는 겁니다. 형편이 안되거든 이렇게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양보를 해가면서 빌고 빕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면 따먹는 즉시 죽여 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아옵니다.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왜 자꾸 물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따먹었느냐?" 할 때 아담이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런 고생을 안 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물었겠어요? 그래도 아담이든 하와든 용서를 빌기를 바랐기 때문에 묻지 않았을까요?

뱀에게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안 묻습니다. 뱀은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바로 선고를 내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아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며 제물을 요구하셨음에도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깎을 수 있는 데까지 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오십 명에서 시작해서 왜 열 명에서 멈추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내려가지... 좀 더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들어주셨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더 못 깎았을 겁니다. 징계를 하시면서도 어떻게든 징계하지 않으려 하시고, 징계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몹시 잘못해서 엄마에게 좀 맞았습니다. 그런 다음 엄마가 "얘야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단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미워!" 이러잖아요. 애들은 자기가 맞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철든 아이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엄마가 나 잘 되라고 때렸지." 이 정도만 되어도 철이 다 든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경우는 "엄마는 나를 때리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 한번 때려 봐야 아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생각이 드시면 우리 수준이 "엄마 미워!" 하는 그 애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참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게 시련을 주시겠지요? 이것은 철든 아이입니다. 아니 이 정도만 되어도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느라고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읽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8*절 끝에 보세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질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말 잘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질투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남자가 질투해도 좀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얼핏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도 또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얘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질이 고약해서 애 먹이는 사람은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부부사이요? 날 때부터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질투해서 애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고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당장 죽일 것같이 난리를 쳐도 사랑 때문이요 질투 때문이라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쌍둥이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몰라요. 하는 짓이라도 예쁘면 좋은데 못생긴 아이 둘이 하는 짓이 왜 그렇게 나쁜지 몰라요. 공부도 꼴찌하네요. 이 둘이 하도 애를 먹여서, 매를 안 들고 잘 해보려고 달래고 달래도 안되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붙들어서 매를 대었거든요. 매 맞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매 맞고 왜 잘 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제가 그때 크게 깨닫고 배운 겁니다. 애들은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무지 잘 하는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곤 애 먹이는 것밖에 없죠. 그런 아이들이 매 맞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면서 "선생님이 나를 아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스스로 매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때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 이런 저런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잘 건드려 주면 그대로 돌

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책망하지마는 본심은 '제발 잘못했다 하고 돌아와 다오!' 하는 겁니다. 그 때 우리가 조금만 돌아서면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얘깁니다. 말하자면 징계나 심판이나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빌고 비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징계를 선포한 선지자치고 끝 부분에 하나님의 회복 얘기를 하지 않은 선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끝에 붙어 있는 그 회복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다시 그를 찾겠느냐?' 집 나갔던 부인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다시 받아주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나는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3*장 *2*절에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저 산을 보라, 저 산에서 너의 행음치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너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저 산에서 빈틈이 없을 정도로 행음하였을지라도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너희들,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라는 이 말씀을 어떤 성경에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고 번역했습니다. 배역하고 집을 떠나서 너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나는 너와 결혼하였고 취소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고백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죽도록 결투를 시키면 누가 질까요? 더 사랑하는 자가 집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는 사람은 십자가 처형이야! 더 사랑하는 자가 집니다. 부자지간에 싸우면 누가 이기죠? 반드시 아들이 이기는 것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이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자지간에 싸워도 아들이 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할 때 아들이 지는 수가 있어요. 부부사이에는 누가 집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졌다. 제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좀 지고 삽시다. 우리가 좀 빌며 살자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질 수 있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좀 지고 삽시다. 잘못해서 비는 것 말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졌다' 말할 수 있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빌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3*장 *16*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형제들, 혹은 우리 이웃들에게 지고 살면서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손을 축 늘어뜨려서 맥없이 사느냔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징계를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늘어뜨려서 맥없이 그렇게 너덜너덜 살 것이 아닙니다. 더 빌고 더 사정하며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나, 하나님과 친한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브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개역, 신명기 4:1~9]*

오래 전에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 중에 좀 독특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선생님하실 것 같은 분은 아닌데 사정이 있어서 잠시 학교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은 거주하는 방도 없었고, 살림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 근처에 시장이 있었는데 식사는 주로 시장에 가서 싼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돈이라곤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큰 빚을 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도 백 원, 이백 원짜리로 때우시는 이 분이 어느 날 전화요금만 몇 십만 원 나왔습니다.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서 쓰는 전화기가 사라진지 몇 해 안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몇 십만 원 하면 요금이 엄청난 건데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분이 쓴 겁니다. 이 분이 전화통을 잡으면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우리가 모른 척 하기는 하는데 대화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성질이 나면, "무슨 무슨 장관하고 잘 아는 사이라고 해라." 합니다.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으면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어요. '사돈에 팔촌에 이웃집이 된다고 하지 뭐 그리 말이 많나?' 이렇게 고함을 질러요.

무슨 소송문제 걸려서 열심히 싸우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함을 지르는 장면을 더러 본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우습긴 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돈의 팔촌 형님 옆집 사람이라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우리 현실인데 어쩝니까? 혈연이나 지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아는 사이라면 힘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상고출신 대통령이 나오자 상고 나온 사람 찾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아는 척 하고 좀 더 친한 척 하려고 합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누가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한 티를 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친한 티를 내야 합니까? 누가 답답한데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터인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그만큼 철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조금 있으면 또 아이들 시험 치르는 계절이 다가오죠? 중학교 갓 들어간 아이들이 첫 시험을 치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시험 치르면 어른들이 아이 눈치를 살살 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 틀면 "아, 공부하는데 무슨 텔레비전이냐?" 그래서 텔레비전 못 틀고 조용히 있다가 생각해 낸 것이 "소리 안 나게 텔레비전 보면 될 것 아냐?" 그래서 텔레비전 트는 순간에 소리 안 나게 볼륨을 줄여버립니다. 소리 안 나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다네요. 하나는 낚시고 다른 하나는 바둑입니다.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아이의 신경을 거스를까 싶어서 소리 팍 줄여놓고 낚시 들여다 보고 바둑 봅니다. 그러다가 "아는 공부한다고 저러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한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빠, 시험은 내가 치르는 거니까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텔레비전도 보고,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시험은 내가 치잖아요?" 이런 애들 어디 없나요? 꿈같은 얘깁니까? 어느 집에서는 "도움이 안되니까 아예 시험기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다네요. 누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꼴랑 공부 좀 한다고 부모들이 설설 매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철이 없는 탓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친한 티를 자꾸 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던 제목이 '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고함이나 지르고 징벌하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애원하고 사정하며 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한 티를 자꾸 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공부하는 아이의 눈치 보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다닌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간 *4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되풀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벌을 아주 심하게 주었습니다. 얼마쯤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 이렇게 혼나고 또 이런 짓 하면 완전히 쫓겨나갈 거야?" 이러죠?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아빠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것 아니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여러분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혹시 "너희 조상이 이렇게 말 듣지 않고 이러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 꼴 날 테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그리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책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너희가 본 것을 제발 잊지 말라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3*절의 바알브올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싯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함께 우상숭배 하다가 약 이만 사천 명이 죽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바알브올에게 절을 하면서 히브리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에게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음란이요 우상숭배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남자들이 잘 놀면 한량이라, 풍류가 있다고 그랬죠. 한량, 풍류, 잘 논다, 다 좋은 말이죠. 이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음란이고 방종이고 방탕한 일입니다. 모압 여인들의 초청에 응했다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그 일을 부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여기 음성의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듣고 있던 백성들이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온 산에 불이 붙고 검은 연기가 가득 차고 쳐다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광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신신당부 합니다.

사람의 건망증은 정말 심각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 건망증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좋았던 기억도 세월이 지나면 점차 흐려집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대로 견딜 수 있어요. 이런 인간의 속성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많은 기념일을 제정하시고 기념물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광경을 절대 잊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놀라운 광경을 친히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니까 잊지 말고 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두 가지 사건을 회상하면서 당부를 한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핵심은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네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6*절도 봅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신당부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준행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1*절 뒷부분에 '너희가 땅을 얻는다'고 말하고 '너희가 살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고 땅을 얻고 지혜와 지식을 얻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가서 싸워야 합니까*?* 땅을 얻으려면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열심히 싸워서 차지한다 해도 그것이 땅을 제대로 차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땅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돈만 왕창 쏟아지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이 많이 주어지면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땅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지켜내야 할 힘도 있어야 하고 그 땅을 잘 관리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땅을 얻을 것이요,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그 땅을 얻어서 잘 사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사는 것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한없이 오래 잘 살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승승장구해서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오래 갈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살며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하는 듯 하면서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예는 잘 사는 동네에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요.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수록 예수 믿는 비율이 높아요. 반면에 고생하며 어렵게 사는 동네나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 모아놓으면 예수 믿는 아이들 비율이 아주 낮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 현실적이지 못하고 곧이곧대로 살면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듯싶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있다는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적응하지 못해서 신학교나 갈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망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6*절에,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열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희를 향하여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고 탄성을 금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직원을 세울 때에 교회 내에서만 투표할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추천도 받아서 투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자기가 잘 나서 위대하게 된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다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리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민족이 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9-10*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지 열심히 연구해 보고 내린 결론이 교육의 힘이라는 겁니다. 탈무드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위대해졌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탈무드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토라에서 탈무드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토라는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친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학자들은 꼭 그렇게는 말을 안 하네요.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의 지혜를 가르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까? 영어 한 과목 가르치려면 중고등학교 동안에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수학요? 국어는 무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국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을 읽혀야만 합니다. 그런 일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맞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을 끼워주면 안되나요? 아니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밀어 넣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면서 동시에 너희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꼭 그 말씀대로 살고 꼭 그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선포나 엄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하게 생각하셔서 친한 티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주시고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규정들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혹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당장 망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삼가라, 지켜라라는 것은 히브리말로 동일한 말입니다. 울타리를 치라는 뜻입니다. 규정을 잘 지키고 행동을 삼가라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울타리를 잘 치라는 뜻입니다. 울타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 내 행동을 제약하는 역할도 합니다.

스스로 쳐놓은 가시울타리에 하루에 한 번씩 찢기는 양이 있으면 양이 잘못입니까, 울타리가 잘못입니까? 양이 머리가 나쁜 탓이지 울타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예배시간 가야 되나? 또 행사 있나?" 아픕니까? 예배 오늘 처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늘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픕니까? 그게 아프다면 하루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찔리는 양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행동을 삼가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쳐 놓은 울타리 그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일 찔리는 것은 거기에 찔리는 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와 규정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친근한 표를 내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혼을 내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친근하게 대하기 때문에 당부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예수 믿은지 오래 되었는데 여전히 그러하다면 그 규정이나 그 규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아직도 불편한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없이 제 멋대로 사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철없는 아이들이 '나도 부모 간섭 없는데서 살아보았으면' 합니다. 부모 없는 아이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이게 행복이죠? 부모 없는 아이의 행복입니다. 그걸 부러워하는 것은 한마디로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만 안 다니고 하나님만 안 믿으면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해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혹 드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것은 부모 없는 아이의 행복입니다. 행복 같고 자유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도 자유도 아

니라 불행입니다.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공의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많이 달라요.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 먹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포도나 이삭을 얼마든지 따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 광주리에 담아서는 안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의 곡식 이삭은 얼마든지 비벼먹어도 괜찮습니다. 단 낫을 대서는 안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종이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종과 전적으로 달라요. 종이라고 주인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거의 가족같이 취급합니다. 영구히 종으로 둘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전부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줘서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장가간 새신랑은 일 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말고 오로지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갓 결혼한 신부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군대도 보내지 말고 숙직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여인을 데려왔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새로 장가들어 버리면 이 여자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럴 때 의식주가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 식 외에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출 *21:1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얼마나 인간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찬찬히 들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근하게 대하기 때문에 주신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합니까, 아니면 열심히 배우려 하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루에 몇 번이나 다짐을 하시나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가진 가장 나쁜 태도가 *"*으레껏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목사님은 으레 그렇게 말하는 것 아냐*?*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꼭 돌아가나 세상 물정 잘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래서 말씀 듣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 참 위험합니다. 하루에 단 한번이라도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이네*?* 고민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땅을 얻는 길이요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이 어떠할까요*?* *4*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헤매며 살아남은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이 표현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연애하는 아이들은 떼어 놓아도 떼어 놓아도 들러붙지요*?* 바싹 달라붙어 가지고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옆에서 지켜보면 눈꼴시립지요*?*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들어가기 무섭게 또 전화기 들어요. 뭔 얘기합니까*?* 하나도 쓸 만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게 여기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아니한' 이란 말과 비슷합니다. 이 말이 나중에 '혼인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던 너희는 다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친밀함을 드러낼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니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애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행과 아픔이 자주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흔히 '이래서 어떻게 살겠느냐*?*'는 비탄조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 내가 이럴 수 있느냐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번쩍번쩍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 바울이 지위가 높았

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아무 것도 없던 때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바울이 폼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만으로 행복에 넘쳤던 사람입니다. 주위에 잘 사는 사람을 보거든 칭찬해 주세요. 복 많이 받았네요*!*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웃 사람들이 받은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친하게 여기셔서 친한 티를 내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무슨 장관의 사돈의 팔촌 형님 옆집에 사는 것도 빽이라고 내세우는 판에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큰 빽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누군가를 몹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들 못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지혜롭게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하고 친근한 티를 내는 내가 아니냐*?*"고 말하세요. 내가 누구냐고요*?* 나 이래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야*!*

얼마 전에는 홍명보하고 같은 아파트 산다고 자랑 되게 하대요. 목욕탕 가서 홍명보 만났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홍명보 환영행사 한다고 아파트 입구를 막아서 주민들 외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고 하대요. 거기 갔다 온 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친한 사이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야 할까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된 규례와 법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벧엘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벧엘로 내려가니 벧엘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오십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개역, 열왕기하 2:1~14]*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두 사람만 뽑으라면 누구를 뽑고 싶습니까? 모세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타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점에서 중요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나 사역들은 어떻게 보면 불을 뿜는 것 같은 면을 보여줍니다.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엘리야의 별명을 '불의 사자 엘리야'라고 했는데 썩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태웠던 장면도 있고, 높은 산 위에 있을 때 그를 잡으러 오던 병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 죽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백성들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좀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면 그 현장에 나타나서 불을 뿜듯이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옆으로 빠져나갈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태산을 뒤흔들듯이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혹은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지적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언뜻 보기에 좀 조용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스승이었던 엘리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과 떨어져 있다가 가끔 나타나서 무섭게 책망하곤 한 반면에 엘리사는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백성들 속에 살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백성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비유컨대 엘리야를 고생고생하며 개척교회를 세운 목사님에 비유한다면 엘리사는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충실하게 잘 키워 놓은 목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혹 어떤 교회는 목회자 세습이라 해서 비난도 많이 받곤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

오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시작했던 일을 엘리사에게 잘 넘겨주었고 엘리사가 그 뒷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엘리사가 이렇게 멋진 사역을 감당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비슷하게나마 엘리야와 엘리사의 본을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사역이 너무나 위대한 사역이라서 감히 우리가 닮아가자고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저 흉내라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대답을 틀리게 하는 이유는 찬송가 때문입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찬송가도 중요하지만 성경 본문을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도 중요하지만 영화보다 성경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느냐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윗돌에 새겨서 줬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냐고 물었더니 '영화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판에 새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은혜를 받고 본문을 자세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회리바람, 요즈음 말로 하면 회오리바람입니다. 그러면 불병거와 불말은 뭐 하러 나타났습니까? 엘리사가 떨어지지 않으려니까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고 나타난 겁니다. 불병거와 불말이 두 사람을 떼어 놓고 데리고 가기는 회오리바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얼마나 단단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떼어 놓으려고 불말과 불병거까지 동원돼야 했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정말 진드기같이 달라붙었던 것 같아요. 진드기와 찐득찐득하다는 말이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드기, 아주 괴로운 겁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에게 달라붙었으면 그걸 떼어 놓으려고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겠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것을 알고서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한 말이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2*절 뒤편에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는 얘기를 몇 번 합니까? 세 번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따라 붙는 것은 몇 번 합니까? 동일하게 세 번이죠. 우리는 이럴 때 주로 어떤 말을 씁니까?

"야, 여기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따라갑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죽는 한이 있어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호와의 사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죽더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당신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살아 있는 한 난 당신하고 안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죽으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으면 떨어질까 그렇지 않으면 못 떨어집니다. 지독한 얘깁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하나 더 붙었네요!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이건 또 뭔 얘기예요? 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죽을 수 있어도 엘리야의 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혼이 죽는다면 내가 떨어지겠습니다. 이 정도면 진드기입니까? 진드기보다 한 수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드기보다 더 질기게 달라붙는 게 뭐 있어요?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서 피를 빨면 때려도 안 떨어지고 잡아 당겨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떨어뜨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배부르면 떨어지겠죠. 얼마나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기에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떼어야 떨어질 정도였느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끈질긴 진드기, 찰거머리는 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른 선지자 생도들이 나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무시하고 '나도 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 하고 따라 붙습니다. 이 생도들하고 엘리사가 절대적으로 다른 점은 어떤 말로 남아 있으라고 해도 따라간 것입니다. 반

면에 다른 선지자 생도들은 자기 선생님이 오늘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7절에 '**선지자의 생도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 오십 명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뭐해요?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와 다른 생도들의 차이점은 엘리사는 죽어라고 따라붙고 다른 생도들은 멀리 서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엘리야의 관심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엘리사의 관심은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가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하는데 저렇게 열심이지요, 이웃나라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그 악한 아합 왕은 죽었지만 그 아들 여호람이 그대로 있고 이세벨이 건재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때에 선생님이 그냥 가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민족을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애국자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그냥 두고 가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입니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무슨 해결책은 전해주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그 해결책이 뭡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던 그 능력을, 그 능력의 갑절을 내게 주고 가십시오. 그게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엘리야를 지독하게 따라붙는 엘리사와 얌전하게 남아 있는 생도들과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말이라면 잘 듣는 경우와 지독하게 안 듣는 경우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물으나마나 잘 듣는 게 좋지요. 그런데 부모 말을 너무 잘 듣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기 주장이 분명해서 부모 말도 안 듣고 우기는 아이들을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사고 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보다 훨씬 뛰어난 아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 말씀을 독하게 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말 안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설명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면서 그냥 야단치면 듣고 그냥 그렇게 지났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저희 아버님께서 "네가 그 때 내 말 안 듣기를 정말 잘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못되서 안 듣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 이해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외고집, 이런 고집이 있어서 말 안 듣는 것은 힘들더라도 "야, 이놈이 큰 인물 되겠구나!" 격려를 하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말려도 막무가내로 따라붙습니다. 말 잘 듣고 멀리서 바라보는 생도 오십 명은 훗날 희미한 선지자가 되었겠지요. 부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뜻이 정해지거든 엘리사처럼 고집 피우고 따라붙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지 생도들도 자기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들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서도 구경밖에 안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선생님이 가졌던 능력을 나라도 받아서 이 일을 해야겠다"고 달라붙은 이것이 엘리사의 위대함입니다.

어느 정도로 엘리야에게 달라붙고 요구를 했는가 하면 어떻게 감히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요구하냐는 말입니다. 좀 건방지다 그죠? "선생님 능력의 절반만이라도 저에게 주고 가셔야지요?" 이래야 될 텐데 참 통이 큰 건지 간이 큰 건지... 좌우간 선생님보다 갑절을... 지금 엘리사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욕심은 항상 칭찬을 듣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몫을 나누어 줄 때에 장자는 갑절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걸 감안해 보면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이 '나를 선생님의 후계자로 삼아 주십사'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두 배라는 의미보다는 나를 후계자로 삼고 당신의 능력, 당신의 사역들을 전부 나에게 넘겨주십사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달라붙는 것, 무리하다 싶은 이 요구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자기를 후계자로 삼아 주시고 가서야 됩니다고 달라붙었는데 사실은 오래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너는 너 대신에 엘리사를 취하여다가 선지자로 삼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역할을 생각해서 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엘리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 있지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있지만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오후 늦게 와서 한 시간 딱 일하고 하루 일당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마치 마지막에 온 일꾼들처럼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루 일당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주신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도 있지요*?* 불쌍한 양을 이유 없이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남아 있는 아흔아홉 마리 양을 돌보는 것이 더 소중할지 모르는데 집 나간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것은 계산상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면, 어설픈 장학금 받아서 신난다고 쓰고 보니까 장학금보다 더 많이 썼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비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말하죠*?*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이 얼마나 허약한 곳이기에 그냥 쳐들어가서 공격하면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듯이 덤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녁에 와서 조금 일해도 하루 일당 다 준다고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을 공격하듯이 노력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값비싼 진주 얘기도 하죠. 아주 멋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이걸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상반된 내용인데 성경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러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믿는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이 작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꼭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결단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결단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고 난 후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열심, 사모함의 문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결단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그 노력과 열심과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 열심히 뛸 필요가 없습니다. 고백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달라붙어야 합니다. 진드기를 생각하시든지 찰거머리를 생각하시든지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달라붙었으면 불말과 불병거가 와야 떼어졌느냐 말입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어느 날 능력의 종이 될 것이라' 하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베드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 있던 훌륭한 장점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으면 답변을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맞춘 때도 있지만 엉뚱한 소리 했다가 야단도 제일 많이 맞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맞고 틀리고 간에 우선 답변부터 하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어때요? 전 바울을 열혈남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자식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 내가 잘못되었네!' 라고 아는 순간에 곧바로 획 돌아서서 거꾸로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피가 펄펄 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빌 때 "너, 이 자식 까불고 있어?" 누가 그랬습니까? "너, 이 놈 전쟁터 놀러 왔지, 구경하러 왔지?" 하고 잔소리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님들의 잔소리를 극복하고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하고 성질이 나서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점령하기 어려운 험한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가서 점령하고 전쟁을 끝내버렸던 갈렙이 그 때 나이가 팔십오세였습니다. 팔십오세 노인요? 어림없는 말씀 마세요. 팔십오세의 피 끓는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사십세에 팍삭 늙은 노인이 있습니까? 겨우 사십대에 "요즘 기억력도 없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러면 사십대 햇노인 아닙니까? 갈렙은 팔십오세의 열혈청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성경구절 하나 고쳐서 외웁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참 좋은 구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구절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을 조금 고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외우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이 좋은 구절 놓아두고 만날 잠잘 궁리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노력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꼭 사모하는 자,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 봉사하려고 하는 자, 희생하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일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더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간단한 고백 하나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정성, 나의 결단, 곧 나의 사모함을 통해서, 나의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과 작은 정성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진다." 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용돈 타가는 것과 비교해 봅시다. 가끔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일부러 안 줘요. 정해 놓은 용돈이니까 달라고 하든 안 하든 주기야 주지요. 그렇긴 하지만 주지 않는데도 '언제 줘도 주겠지' 이러면서 아무 말 안 하면 미워요. 그런데 달라고 떼쓰는 놈에게는 '돈 맡겨 놨냐?' 하면서 못 이긴 척 주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게 일종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네가 작은 것 내 놓을 때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고 합니다. 겉옷을 벗어 강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강물이 갈라지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본문에는 '육지'입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는 '마른 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심지어 '사막'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강물을 가를 때는 젖은 땅이 아닙니다. 마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으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나 홍해가 갈라질 때나 전부 마른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참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화끈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습니까? 지혜 외에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대로 들어주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 이상하다? 우리 생각 같으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러면 자연스러운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 평화로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행복을 주실 것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한 대로 주시리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때가 되어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과 떨어져 지내서 신비롭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기도 했고 아람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미리 알고 막아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민족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나만이라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겠다는 이 간절한 열심, 이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말 잘 듣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전부 월급쟁이가 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월급쟁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착하고 공부 잘 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은 전부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 잘 되면 교수하더라... 그런데 공부는 조금 못하지만 욕심 많은 놈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뭐 하나 하더라. 어른이 된 후에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아도 욕심을 좀 내는 아이들이 가르치기도 쉽고 뭐 하나 해도 합니다. 욕심 좀 냅시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 "조금만 욕심을 내면 잘할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지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 아닐까요? "쟤가 열심을 조금만 내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열심을 안 내나?"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을까요? 차면 찬 대로 시원한 냉수 얼마나 좋습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다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화끈하게 믿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 믿는 재미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거하는 이 땅을 유업으로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브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개역, 창세기 28:1~9]*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럽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가 너희가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전에 불리던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가사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그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한 것은 같은 얘깁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뭐가 가장 다를까요*?*

우리 가요의 나그네 길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떠도는 구름처럼 바람이 불면 떠내려가는 구름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갈 곳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온 곳이 어디며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급이 있음을 아는 나그네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은 그 현실의 어려움을 잘 견뎌 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한 세상 살다가 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의 길을 걷는 우리는 명백하게 사는 자세도 다르고 사는 이유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며 평생을 살아야 할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 에서에게 축복해주려는 것을 알아차린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들킬 뻔 했지만 어쨌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아들이 눈 어두운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것을 알아차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해놓고 오락실에서 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조금 심해지면 집에 있는 돈을 몰래 훔쳐다가 제 마음대로 써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크는 과정에서 한번쯤 그러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이 비싼 컴퓨터 가지고 공부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엉뚱한 짓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공부를 하다가도 화면이 음란물로 싹 바뀌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막상 목격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이삭의 입장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이 어둡다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이 놈의 자식이 나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다니*?*'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떨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속았음을 알고도 결코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책망은커녕 오히려 그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분노한 것은 그 형입니다. 복을 빼앗겨버린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동생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있을 때에 이삭은 작은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켜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입니다.

참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왜 자기가 속았음을 알고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속인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까? 그러면서 *1*절에,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하라'**는 당부를 합니다. 또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서 보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주목할 것은 *4*절 끝부분의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입니다. 우거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거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우거하는 이 땅이란 나그네로, 또는 외국인으로서 잠시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절대로 자신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네 유업'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너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노라' 이런 당부를 하고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거하는 이 땅을 너의 유산으로?

외국에서 이 땅에 돈을 벌겠다고 찾아온 외국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국에 오면 돈을 많이 법니까? 돈 때문에 여기 와서 돈을 벌어 간 분도 더러 있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회환의 눈물을 뿌리며 돌아간 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약점을 쥐고 이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돈을 벌어봤자 우리 입장에서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 고생을 하는데 "당신 꿈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 땅을 전부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옆의 사람들이 '그게 될 성 싶은 꿈이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나가서 경제권을 다 틀어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서 큰 영향력을 끼치듯이 화교들이 동남아시아는 다 주름잡고 있는 셈입니다. 맥을 못 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화교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법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규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거꾸로 우리는 다른 외국인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외국인이 여기서 '언젠가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꿈, 허망한 꿈이냐는 말입니다.

야곱을 향하여서 '우거하는 이 땅을 너의 유산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가끔 입지전적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에, 가령 어느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들을 더러 하지요? 그게 있을 법한지는 몰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속인 아들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보내면서 자기 땅도 아닌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을 합니까? 자기 땅도 아닌 곳에 잠시 우거해 있으면서 그것도 아버지와 형님에게 죄를 짓고 외삼촌 집으로 쫓겨 가는 야곱을 향해서 말도 안되는 복을 비는 것을 그 땅의 원주민이 들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 잘 쓰는 표현을 빌리면 '놀고 있네!' 아닐까요? 누구 땅인데? 그리고 무슨 능력으로? 도무지 말이 안되는, 어찌 보면 허황된 꿈을 아버지와 아들이 꾸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는 땅 한 평도 없는 이삭이 아들에게 이런 소망을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소망을 품고 있는 이들의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외삼촌 집으로 피해서 당분간이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 이삭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먼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낯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위험을 피해서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전부 나그네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고 감격합니다. 사도 바울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싶거든 잘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원망하고 싶으면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이삭이 받아서 다시 야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자가 아니 자기의 아들이 애굽에 가서 온 세상을 호령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엄청난 기적을 쏟아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도 도무지 상상이 안되는 일입니다만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또 다시 세월이 흘러 다윗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대로 확장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일어나리라고는 이삭도 야곱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거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주시리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가끔 좋은 꿈꾸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돼지꿈이나 용꿈을 꾸고 '정말 좋은 꿈 꿨다 그래서 나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복권 당첨되고 횡재수 터지면 그게 용꿈이고 돼지꿈입니까? 돼지꿈, 용꿈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꿈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 헌신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이 꿈을 꾼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가보다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교회를 더욱더 잘 섬겨야겠다." 꾸려면 그런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은 잠자다가 꾸는 것 아네요. 기도하다가 꾸는 꿈입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꾸는 꿈이란 말이예요. 이런 꿈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이 땅에서 반드시 바보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그네 같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318*명이라?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조카를 떠나보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삭은 가난했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쫓겨 갔던 야곱은 재산이 많았나요? 자기 형님에게 엄청난 뇌물을 쏟아 부을 만큼 재산이 많았습니다. 에서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은 필수가 아니고 그냥 보너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것마저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재물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문에 박사부부와 의사부부가 자살한 얘기를 코멘트 해 놓았더군요. 박사가 될 때까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또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사가 된 부부가 두 살짜리 애기와 함께 왜 자살을 합니까? 마흔 다섯 살 먹은 의사라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돈 문

제로 죽었습니다. 오로지 돈과 재물에만 집착하고 살다가 당할 수 있는 비극이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더 값어치 있고, 인생을 걸만한 것이 따로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땅의 주인공은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라가 살고 우리 때문에 민족이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놀아도 내 아이만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이 나라를 튼튼히 지켜야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우리 때문에 이 민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이 회사의 말단이라 해도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장이 되고 우리 모두가 땅의 주인이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자기들이 그 땅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진정한 땅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소중한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은 복권 당첨되거나 봉급 올라가는 것보다 좀 못하지요? 우리의 소망을 조금은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던 야곱이 밧단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동안 복을 받지 못했던 에서는 세일 산을 중심으로 크게 번성합니다. 열두 방백이 그 후손에서 나타납니다. 왜 복 받은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저렇게 종살이 하다시피 하는데 복을 못 받은 에서는 왜 이렇게 번성하고 있습니까? 잠시 그렇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크게 번성할 때에 에서의 후손은 슬프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 같고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예는 부자동네로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높은 자리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생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동네에 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기독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록 일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해도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는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달리 말하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야곱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에서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잘난 인물입니다.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에 둘러싸여서 집안에서 소꿉장난이나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저 넓은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동생이 돌아올 때에 에서는 사백 명의 부하를 이끌고 위세 좋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에서의 삶은 제 잘난 맛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나게 뛰다가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슬픈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비록 좀 못나 보이고 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야곱의 삶이 복된 길입니다.

현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현실의 참된 주인공은 나다'는 사실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양반들은 체면을 중시해서 비가 와도 뛰지 않았

답니다. 양반 체면에 어떻게 방방 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대추 한 알 먹고 배부른 시늉을 했답니다.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면 이 땅을 상속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작은 일에 웃고 울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양반보다 체신이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오늘 먹고 오늘 즐기자 하며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확실하게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좀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말고, 혹시 태산이 무너지더라도 무게를 좀 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정신없이 흔들리고 뛰어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없이 남은 생을 살아가십시다.

폼생폼사, 복생복사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 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 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 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립바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뢸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개역, 사도행전 25:13~27]*

어느 대학 근처에서 길을 찾다가 폼생폼사라는 간판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폼생폼사였으면 무슨 가게였겠어요? 이 말은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닙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학교대항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어떤 선생님이 응원하면서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호전웃통'이라 하는데 무슨 말이겠어요? 호랑이 앞에 웃통 벗고 덤빈다는 말입니다. 한자식 표현과 순우리말이 섞인 기묘한 말인데 폼생폼사가 딱 그 짝입니다. 폼은 영어같고 그러니까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뜻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세대가 되었구나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폼에 살고 폼에 죽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살고 무엇에 죽겠습니까?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어요? '복음을 위하여 죽고 복음을 위하여 살자'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 본 말이 '복생복사'입니다. 억지로 만든 이 말이 우리 기억 속에 오래 갈런지 아니면 오늘 듣고 내일 잊어버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폼생폼사라고 떠드는 이 시대에 복생복사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대학생들이 취직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영어입니다. 영어를 하지 않고는 취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마다 토플이나 토익 점수가 일정한 범위를 넘어야 졸업을 시킨다니까 필리핀으로 원정을 간답니다. 필리핀에서 토익시험을 치는데 수험생의 *80%*가 한국 사람이랍니다. 영어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얼굴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세상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 탄광이 무너져서 *20*일 가까이 갇혀 있다가 구출된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오줌을 그냥 누지 않았고 물이 없으면 죽을까 싶어서 오줌을 싸도 다시 마셨지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짓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삼풍백화점 내려앉았을 때 여러 날 갇혀 있던 아가씨가 구출 대원들이 발견하고 안에 불을 비췄을 때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비추지 마세요."였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담요부터 들여보내 주세요." 했습니다.

오랜 동안 갇혀 있다 구출된 젊은 사람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줌을 마셨다 이런 얘기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까지 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폼이라는 생각이 머

릿속에 있으니까 폼 안 나는 짓은 안 하는 겁니다. 장가를 잘 가려면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답니다. 차가 좋아야 여자들이 따라온다네요. 이게 참 머리 아픈 이야기입니다.

폼이 전부 나쁜 건 아닙니다. 운동을 배울 때는 폼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폼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폼만 잡는 게 문제지 제대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폼도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도 공주가 더러 있어요. 달리 공주가 아니고 밥그릇도 예뻐야 하고 밥 담는 모양도 예뻐야 하고 그리고 반찬도 제일 예쁜 그릇에 예쁘게 담아야 먹었다는데 결혼하고 애들 키우면 그렇게 못하지요. 옛날에 그랬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차려준 음식은 맛이 있고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은 모양이 좋다는 겁니다.

맛하고 모양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음식은 맛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맛도 좋고 모양도 좋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옛날 촌 흉내를 많이 내지요. 그래서 일부러 촌집을 만들고 옛날에 먹던 고향의 음식들을 마련해 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가끔 실수하는 수도 있더군요. 집은 촌 모양을 냈는데 맛은 옛날 맛을 못내는 경우는 식당이 안됩니다. 빨리 문 닫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지요. 이젠 바꾸어야 합니다. 요즘은 비싸도 다홍치마입니다. 이렇게 폼이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바울의 모습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에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합니다. 아주 폼 나게 차려 입은 높은 사람들이 쫙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주인공인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으리으리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 앞에 죄수의 모습으로 선 바울이 기가 죽었을까요, 짜증이 났을까요*?* 아니면 기쁨에 넘쳤을까요*?* 배경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유대인의 모함으로 체포되어 *2*년 동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전임 총독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소신껏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고 상부의 눈치도 보느라고 *2*년을 허송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달려들었지만 바울은 잘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새 총독이 부임했는데 베스도입니다.

전임 총독이 소신도 없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었지만 로마의 법은 지키고 있었기에 바울이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갇혀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요즘말로 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시민권자였던 바울에게는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한 이상 반드시 황제에게 데려가야만 하는 것이 총독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부임을 하자마자 참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전임자가 가두어 놓고 갔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나오니까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문제는 황제에게 갈만한 사건이 안된단 말이에요. 가서 재판해봐야 뻔한 결과인 것을 알면서 보냈다가 황제가 *"*이런 것까지 나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결국은 자기가 무능한 총독으로 찍힐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전임자를 잘못 만나 상당히 머리 아픈 고민을 하나 하게 된 셈이죠.

베스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나*?* 황제에게 보내긴 보내야 되겠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석방시켜 버리면 일을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그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신대로 일을 처리하면 될 것을 소신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합니다. 바울에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 심문을 받겠느냐*?"*고 거꾸로 묻는 거죠. 재판하는 사람이 죄수에게 물어보는 법이 어디 있나요*?* 자꾸 눈치를 보니까 이런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죠.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냥 보내서 될 일은 아니니 황제에게 설명해야 할 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아그립바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아그립바는 유대 법과 유대 풍습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아그립바에게 심문을 맡

긴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당시에 내로라하는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있었고 총독 베스도가 있었고 천부장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재판의 중심에는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총독을 보내서 직할 통치를 했지만 갈릴리와 이스라엘 북쪽은 아그립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 함께 온 버니게는 아그립바 왕의 여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는 결혼을 세 번이나 했고 애인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13*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자기 삼촌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도 일찍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 훗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디도 장군의 연인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말로 연인이죠.

그런 와중에 집에 돌아와 있을 때 오빠인 왕과 사이가 좀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오빠하고 여동생 사이가 좀 수상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화려한 남성편력을 지닌 여자인 셈이죠. 이런 여자니까 공개석상에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크게 위의를 베풀고' 했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fantastic,* 환상적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앞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겁니다. 환상적인 모습으로 폼을 잡고 있는 그 앞에 죄수의 몸으로 나타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심문을 받을 때마다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 해왔습니다. 바울이 심문을 받을 때마다 자기가 왜 체포되었고,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가리켜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초라한 죄수의 몸이지만 갇히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답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멋지게 복음을 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장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폼은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바울이 제일 못합니다. 아니 폼이라고 할 것도 없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란답니다. 폼은 형편없을런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갇혀 있기 때문에 답답함도 있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갇힌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변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음으로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무료하게 *2*년이나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에게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바울은 밖에 내어 놓으면 쉴 사람이 아닙니다. 죽자 살자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녔던 바울입니다. 이렇게 가두어 놓아야 좀 쉬기라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몸도 좀 회복한 후에 다시 로마로 세계 끝까지 복음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붙들어 놓은 것 같아요.

꿈같은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공부 좀 그만하고 자거라 자거라 하는데도 공부만 하는 아이가 혹 있습니까*?* 꿈같은 얘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라고 해도 공부해야 된다고 책을 붙들고 있으니 책을 빼앗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다 *2*년간 가두어 두는 것이 이런 일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면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저 놈 좀 가둬놓아야 쉬겠구나 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부하는 것 보면 소원이 없겠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한번쯤은 꿈꿔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흉내내기에는 너무 높은 나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죽자 살자 살아가기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내라도 좀 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그가 진

정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복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행복한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척, 행복한 척 그렇게 폼만 잡지 말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죠*?*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것 다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너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하고 난 후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거기 와서 감사제를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뭘 감사하다고 합니까*?* 출애굽 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해 내셔서 이 땅에 불러주셨기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혹은 맥추절에 감사하면서 농사지어서 얻은 수확을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추수한 것이 살짝 붙어있을 뿐입니다.

자녀 건강에 대해서 감사헌금도 해보셨을테고 승진하고 취직한 것을 감사해 보셨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헌금을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밑바탕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작은 감사가 아이들 말로 꼽사리 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폼 나게 살아야 합니다. 일부러 거지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거지같이 살고 죄수같이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다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지도 않으면서 거지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맛이 없으면 모양이라도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라건대 맛도 좋고 모양도 좋으면 더 좋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초라한 바울의 모습과 그를 둘러싸고 으리으리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누가 폼이 더 납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무게 잡고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이 못생긴 친구가 한참 얘기하더니 끝에 가서 모두가 자기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돌았나 하고 욕을 했을 수 있고, 제대로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울이 모양은 그렇지만 진짜 폼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풍기 새것 하고 헌것 하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쓸 일이 있으면 어느 것을 쓰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헌 것을 쓰더라고요. 새것은 포장해서 잘 보관해 두고 헌 것 쓰다가 못 쓸 형편이 되어야 새것을 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헌것만 쓰는 거예요. 아끼려고 그러는 거죠.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폼 나는 겁니다. 새것 좋아하는 것도 잘 하는 겁니다. 아끼는 것은 더 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껴서 내가 뭘 했는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가장 잘 한 것입니다.

애들이 볼펜을 *20, 30*자루씩 묶어다녀요. 쓰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는지 물었더니 *"*예쁘잖아요*!* 폼나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야, 그것보다는 차라리 공부하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잉크가 다 닳도록 쓴 볼펜이 몇 개다. 이걸 자랑해라*"* 그럽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지요. 어른들도 비슷해요. *"*이번에 보너스를 얼마 받았다.*"* 이건 자랑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 기죽잖아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다면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얼마를 썼다 이런 걸 자랑하세요.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얼마를 썼다 이것도 좋죠. 아끼는 것도, 자랑도 좋지만 아껴서 이런 일에 썼다는 자랑이 정말 폼 나는 일 아니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폼 말고 남이 알 수 없는 속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삽시다.

새벽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지켜보면 참 즐거워요.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새벽에 와서 본 모습과

낮에 본 모습이 너무 다르다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변장을 많이 하고 다니는구나!" 이러십니까? 새벽기도에 오느라고 화장 안 하고 오면 어때요? 치장 덜하고 후다닥 거리고 뛰어오느라고 본색이 다 드러나면 어때요?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기도하겠다고 나오는 모습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형편없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생각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나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대로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나설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퇴하더라도 보람있게 살아야 할 기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을 감당할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이나, 여러분들의 취미가 선교에 보탬이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할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참해서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반드시 하시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폼생폼사에 기죽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폼을 참 많이 잽니다. 가령 애인이 몇 명 있다, 말이 좋아서 애인이지 내용을 따져 보면 애인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이 무슨 애인입니까? 가만히 따져 보면 웃기는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뭘 자랑합니까? 필름이 몇 번 끊어졌다고 자랑합니다. 그 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사도바울이 남겨준 '말이 많거나 적거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폼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이 기쁨을 잊지 않은 채 이 땅에서 폼 나게 사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멋지게 차려 입고 유람 다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려 봉사하며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이리저리 불려 다니고 비난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은 망치들고 집짓느라고 다니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전직 대통령은 돈 없다 하면서도 비싼 성형수술을 해서 *10*년을 젊어 보이게 해놓고 잘 있습니다. 참 폼나게 살아요. 어느 쪽이 진짜 폼나는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겉모습, 이 엉터리 폼 말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버틸 테냐?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 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질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섶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주리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푸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개역, 이사야 9:8-10:4]*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개역, 이사야 12:1-6]*

사람들마다 참 어려운 시절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들이 나아갈 길을 잘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이럴 때에도 성도들은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답답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경제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소비가 미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써서 물건을 소비시켜 줘야 공장이 돌아가고 장사하는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돈을 쓰면 돈이 돈 많은 사람들 주머니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부자 주머니 채우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갑니까, 아니면 차를 타고서라도 큰 대형 상점에 갑니까? 책을 사러 시내를 나가려고 하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켜고 또닥거리면 책이 싼 가격에 집안까지 배달되어 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전화로 물건을 주문해 버립니다. 이러다보니 작은 동네가게들이 사라져 버리고 결국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염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도 더러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어려움을 견디어 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없는 사람들이 부자를 증오하게 되고 또 쉽게 좌절에 빠지다보니 또 다른 비극이 오기도 합니다.

*IMF*가 주는 교훈이 뭔가를 깨닫고 정신차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라도 빛과 소금의 구실을 잘 감당해야 할텐데 그렇게 희망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나마

희망을 가져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육이 아시다시피 사람 키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계시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넉넉하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비교적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우리교회 아이들도 좀 자란 뒤에 물어보면 도대체 주일학교 다니면서 뭐 배웠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중요한 것을 배우겠습니까*?* 나라의 장래를 기댈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절망스럽고 힘들어 보이는 이런 시대가 오늘 현재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어디에도 이런 저런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해법을 찾아보려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 어디를 뒤져도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걱정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쇠퇴하는데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바로 이웃하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로 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 망하고 맙니다. 형제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튼튼하게 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는 *"*계속 이러면 외적이 침략해 온다*."*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수없이 말을 했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삼아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해도 *"*됐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할 것 없고 방벽은 튼튼하게 쌓았고 적이 와서 포위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로도 완성하였으니 그렇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했더니 앗수르가 큰소리를 쳐 댑니다. 하나님께서 *"*야, 넌 도끼고 도끼를 들고 있는 건 난데 도끼가 어떻게 도끼든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큰소리 치고 교만할 수 있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도끼가 왜 이렇게 간 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기댈 수 없고 징계하기 위해 다른 백성을 불러봐도 낙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쯤되면 포기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잘라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 묻은 복장, 즉 군복을 불에 사르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판국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거기에는 군복이 필요 없을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 안 듣고 버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야 맙니다.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 넣고, 사자가 송아지와 같이 뒹구는 세상을 만드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세상' 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반드시 세우고야 말겠다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외쳤습니다. 외쳐도 소용없는 이 일을 이사야는 왜 계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꼭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아무리 제 멋대로 돌아간다 싶어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뒤에서 차곡차곡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9*장 *8*절을 먼저 봅시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셨은즉'**이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과 그것을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보내도 때로는 그 말이 전혀 보탬이 되지 않거나 보내봐야 소용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을 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릇되게 전해지는 경우도 절대로 없습니다.

오래 전에 제가 영해고등학교 근무할 때에 어떤 선생님이 발령을 받아오셨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그 분의 친구 분이 미리 전화를 해서 그 선생님이 다방 출입이 잦으니까 다방에 잘 못 가도록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을 얻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나가기 어려운 곳에다 방을 구해다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원래 와야 되는 선생님보다 한 분이 더 왔는데 누가 더 온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때는 선생님들의 이동 명령이 신문에, 근무하던 학교 이름과 가는 학교 이름, 그리고 본인 이름밖에 없습니다. '홍해고'를 잘못 써서 '영해고'라 한 탓에 그렇게 된 건데 저쪽 학교에서는 선생님 한 분이 안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겨우 글자 한 자가 틀렸어요. 이 분은 삼일 만에 보따리를 다시 싸고 홍해로 내려왔습니다. 인사발령에서 글자 한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한 위력을 지닌 공문서도 때로는 그렇게 헛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이 왔으면 좋겠는데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다 찍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6*차에 걸쳐서 혹은 *5*차에 걸쳐서 징계가 시행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12*절에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외적들이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14*절에도,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사이에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지도자들을 전부 징계해 버리겠다는 것이죠. 불로 태우듯이 모든 걸 불살라 버린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9*장 끝에는 **'굶주림으로 자기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징계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는 얘기죠.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이 징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 끝에는 항상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12*절 뒤편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징계가 임하였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얘깁니다. *17*절 뒤에 또 있습니다. *21*절 끝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의 살을 파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징계가 쏟아지고 쏟아져도 하나님의 노가 사그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지만 징계가 시작되면 철저하게 시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일단 시작하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10*절을 보면 심판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벽돌로 지은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뽕나무들이 찍히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할 그들이 '백향목으로 다시 심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 불순종을 넘어서 교만이고 반항이고 고집입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집은 빨리 꺾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고생을 덜 하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 할수록 더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가운데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13*절에,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징계하면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견딜 수 없거든 하나님을 찾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징계가 철회되고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 지도자들부터 징계를 해버립니다. *15*절에,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 지도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별히 찔리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도 "선생님이 그러면 되냐*?*" 그럽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 더 더욱 곤란한 일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권력이나 재물에 붙어서 하나님을 파는 행위를 일삼는다면 바로 꼬리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퍼부어도 이스라엘은 용감하게도 계속 버티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온 민족이 사로잡혀 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 중에서도 이것이 참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 징계를 받아서 더 이상 낙이 없다고 할 때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말이 있노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12*장 말씀입니다.

간혹 숙제를 안 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예 만성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방학 내내 고생할 게 뭐 있냐*?* 개학해서 몸으로 때우면 되지. 개학해서 한 며칠 두들겨 맞으면 될 일을 뭐 하러 방학 내내 숙제하느라 고생하느냐*?*"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아이가 하나 걸렸습니다. 그런 애들은 표가 납니다. "몸으로 때우겠다 그 말이지*?* 그럼 한번 때워봐*!*" 그래서 팼습니다. *1*주일 기한을 주고 토요일마다 불렀습니다. 여름 방학숙제를 겨울방학 직전에 끝냈습니다. 걔도 이렇게 지독한 선생님을 난생 처음 보았을 겁니다. "너만 지독한 것이 아니라 나도 지독하다, 임마, 한번 해 볼래*?*"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겨울방학 숙제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 안 하려고 작심한 놈 붙들고 씨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독하게 버티는 아이보다 선생님이 더 힘들어요. 매맞는 놈보다 패는 사람이 더 힘들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애를 포기하고 그만두면 당장 편한데 그러지 않으려면 지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지독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고자 하는 구원역사는 이루고야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에,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반항하고 말 안 듣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아서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절망할 그 때에 이 노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터질대로 터져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느낄 그 때에 부를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터지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고생 안 하는 것이 어떨까요*?*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갈 때 그 때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병이 안 들도록 미리 기도하는 것이 잘 하는 겁니다. 왜 예방 쪽에 신경을 안 쓰고 꼭 다 죽어갈 때 치료받아야 은혜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세상 재미에 빠져 돌아다녔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아무런 고생없이 즐겁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더 좋은 얘깁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죠. 부디 여러분들에게 기막힌 간증거리가 별로 없기를 바랍니다.

*2*절을 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찬양에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제일 처음 나온 데는 어디일까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애굽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홍해에 수장되는 일이 또 다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춤추며 노래했던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쁨을 뭘로 표현합니까*?*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그 기쁨을 우물에서 물 긷는 것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 긷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인 모양입니다. 옛날 온 마을에 텔레비전이 한 대밖에 없을 때 텔레비전이 있는 집의 아이의 기쁨이 그렇지 않겠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너는 내하고 친하니까 여기 앉고 넌 오늘 개구리 한 마리도 잡았으니까 저기 앉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저 문간에 가서 앉아" 텔레비전 한 대가 얼마나 위력이 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우물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그런 우물의 물을 긷는 즐거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아이들 기말고사 다 끝났나요*?* 일등하면 기분 좋죠*?* 이등해도 좋지요*?* 아이들 일, 이등하는 것 너무 바라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학교 일등은 하나 뿐입니다. 막말로 일등하라고 하는 엄마 아빠는 일등 해 보았나요*?* 내가 일등을 했어도 우리 아이가 일등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보다 못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밀어 올려서 보내놓으면 거기 가서 또 고생합니다. 자기 수준하고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적에 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등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은 그것보다 분명히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신 이 기쁨이 등수 좀 떨어졌다고 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얼마나 기분 좋고 가슴 뿌듯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더 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쌓여 있어야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고백 때문입니다. *5*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알게 해야 할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게 뭡니까*?* 여전히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버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야를 보내신 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널리 전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시며'** 이것은 전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름이 높다 하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이사야가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의 결론이 일단 *12*장에서 끝납니다. *13*장부터 한 참동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야말로 외로운 사역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해졌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징계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반항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쉽사리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편만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 땅에 편만해지도록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에게 현실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욱 아파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뿐이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 넘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험한 나그네길이라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작별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사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개역, 민수기 25:1-15]*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가끔 후진하는 차량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 옆에 가만히 붙어 섰다가 다른 차가 지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후진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가야 할 길로 나가지 못하고 조금 지나치는 바람에 생기는 일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선후배지간에 어울려서 영천에 모여서 산만 타서 은해사에서 동화사까지 가기로 계획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나섰는데 일행이 이리저리 헤어졌다가 중간쯤 되는 어느 산꼭대기에서 간신히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한참 웃고 떠들다가 "자, 동화사를 향하여 출발!" 그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왔는데 절에 들어가보니 낯이 익어요. 알고보니 출발했던 은해사였습니다.

은해사에서 출발해서 중간 지점까지 갔다가 내려간다고 갔는데 은해사로 돌아온 거지요.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지나온 모든 수고가 헛일이 되는 겁니다. 등산이야 웃고 끝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이 모양이라면 예삿일이 아닙니다. 정말 먼 길을 간다고 갔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거나, 실컷 갔더니 원위치더라? 얼마나 허무할까요? 한번 잘못 들면 엄청나게 멀리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첫 부인 레아에게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처음에 아들을 낳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보라 아들을 낳았도다' 하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내 아픔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생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야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레위라고 붙였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셋이나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낳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런 세 아들이 나중에 다 사고를 칩니다. 보통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아들 낳은 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낳은 것도 감사하지만 잘 키우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곱게 잘 자라준다면 이건 더더욱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은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곱게 자라는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사고 친 세 아들 중에 첫째는 제쳐놓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둘은 한 어머니가 낳았으니 특별히 절친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사고도 함께 칩니다. 제일 큰 사고는 세겜성에서 저질렀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추행을 당한 후에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의 집과 약조를 맺고 그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 이 두 아들이 쳐들어가서 그 성의 남자들을 전부 죽여 버립니다. 이 일로 해서 야곱이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혼이 났던 야곱이 죽기 직전에 열 두 아들의 장래사를 얘기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예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예언합니다.

이들이 젊은 날에, 물론 화가 나고 성질날 일이었겠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예언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두 형제가 동일한 일에서 동일한 예언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역사를 보면 너무나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레위는 열두 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각지파의 영역 속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 자체로는 야곱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흩어지는 건 분명히 흩어졌는데 아주 귀한 일을 맡았습니다. 시므온은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유다가 얻은 땅이 너무 넓으니 그 일부를 시므온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은 한 지파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비극을 맞고 맙니다.

똑같이 흩어졌는데도 레위 지파는 참으로 복된 흩어짐이요 시므온 지파는 땅을 주었음에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저질렀고 동일한 예언을 받았음에도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동일한 예언임에도 왜 한 사람에게는 복이 되었고 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렸느냐는 말입니다. 동일한 예언을 받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랑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던 때입니다.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선지자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신 사건이 바로 *24*장입니다.

발람이 돌아가면서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계책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계시록 *2*장에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한 바알 제사에 동참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가르쳐 줬던 모양이죠.

*25*장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우리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지내자, 함께 즐기자"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축제에 참석해서 즐겁게 지냈는데 문제는 바알을 숭배하는 방법이 먹고 마시고 자연스럽게 음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난잡한 혼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난잡한 혼음이란 바알을 섬기는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바알을 섬기는 방법을 비교해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음행이나 간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력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음행에 빠진 사람이 남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통회 자복하고 있을 그 때에 버젓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눈이 머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빠져들면 하나님도 버리고 나라마저 사람마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홍수심판의 주원인이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해야 했던 주원인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쫓겨나야 했던 주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음란과 관계 되

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보다 다른 부인이 더 예뻐 보인다? 이건 음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결혼만 하면 다가 아니고 결혼했으면 어느 누구보다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이 가장 예쁘고 가장 멋져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다. 모압왕이 그렇게 작전을 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보기 좋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긴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유혹적이고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너무 자신을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에 빠져서 바알에게 부속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명하셨습니다. 바알을 섬긴 백성들의 두령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염병이 임하여서 이만사천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만삼천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공개적으로 처형했던 사람이 한 천명이 되고 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이만삼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는 그 때에 버젓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비느하스가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가서 아주 참혹하게 그 남녀를 죽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 죽은 남자 이름이 시므리인데 시므온 족속입니다. 반면에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했는지 절묘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가 흉내 낼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모세나 아론도 레위 지파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비느하스도 레위 지파입니다. 거꾸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만 섬기고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따로 모여라, 가서 네 형제라도 금송아지에게 절한 사람은 모두 처형하라'고 했을 때 칼 차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전부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전부 레위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여기 시므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못을 저지르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과 *26*장 사이에는 약 *4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인구와 사십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때의 인구입니다. 그 사십년 사이에 약 육십만 중에서 *1,820*명이 줄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광야생활하면서 다 죽었음에도 수치가 별로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시므온 지파 숫자가 *59,000*명이었습니다. 이 *25*장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은 그 다음 장에 인구 조사한 수치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입니다. *59,000*에서 *22,200*으로 줄었습니다. 전체는 별로 줄지 않았는데 시므온 지파만 이렇게 줄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거의 대부분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으로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만사천명이 죽었는데 시므온 지파의 감소한 수가 삼만칠천명이니까 기록되지 아니한 또 다른 참혹한 일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넘쳐났던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느는 것이 복이라고 하던 그 시절에 인구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예언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흩어지면서도 흩어진 그 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그와 그 자손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하였음이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복되게 흩어졌지만 반면에 시므온은 동일한 예언을 받고도 지파의 모습조차 꾸려가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레위는 복되게 흩어졌고

시므온은 저주 받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겜에서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고 동일한 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 것인지는 자기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런 저주를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언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의 문제는 자기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예언은 어떤 의미에서 중립입니다.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전혀 없었던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세월가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일 터지면 나와서 '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든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간에 그것은 복으로 화하게 됩니다.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돈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돈은 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집 나간 탕자에게 재산이 많았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도 명예도 승진도 모든 것이 심지어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그 욕조차도 복으로 변화합니다. 내게 닥쳐오는 모든 것을 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문제도 우리의 행함과 관계있느냐고 질문할까 싶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예언할 때 형제 중에 나누이리라고 했습니다. 형제 중에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에 불타는 이 사람이야 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사주팔자가 더럽거나 궁합이 맞지 않거나, 가계에 저주가 있어서 아무리 해도 일이 안 풀린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니 점쟁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점쟁이 말대로 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말입니다.

점쟁이가 가령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사십 넘기기 어렵겠네요."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자신만 아는 이기심으로 가득찬 나를 사십이 되기 전에 깨끗이 죽이고 사십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거듭났더라? 점쟁이 말이 멋지게 이루어진 거죠? 그 점쟁이 찾아가서 당신 말이 틀리지 않았느냐고 따져보세요.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 믿는 바람에 팔자가 바뀌었네요 할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건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혹시 우리 조상 중에 이런 못된 조상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뭐로 살기는 글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무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창을 들고 나섰던 그 비느하스의 열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 같은 예언을 받았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가졌던 그 레위가 결국은 그 말씀대로 흩어졌지만 얼마나 귀한 직분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가 나를 향하여 저주를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보고 즐기면 됩니다.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너한테 가는 거야." 이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었다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모함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게 내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속상해 할 필요 없고 잠 못 이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말을 했거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 그것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못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막말로 우리 조상의 핏속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슴에 품는 아이들로 키워 놓으면 이 아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복으로 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제쳐놓고 무얼 그렇게 많이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실컷 고생하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바보짓을 하지 않으려면,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위험한 짓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이들의 노력을 복으로 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 나를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참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 교회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 저 스스로 많은 은혜가 됩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가 말이에요. 요즘은 직장마다 휴가가 많은 듯 해 보이는데 아주 옛날에는 일 년에 휴가가 며칠 안돼요. 며칠 안되는 그 휴가 받아 가지고 애들 수련회 봉사하느라고 다 서버렸어요. 그 다음날 "수고했으니 바람이라도 좀 쐬러 나가자." 해도 못 간대요. 휴가가 그 날로 끝이래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자신이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이 작은 교회지만 참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해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닷없는 바벨론 멸망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가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취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쳐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 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개역, 이사야 13:1~22]*

이사야를 오늘의 한국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남한 사람입니다. 남한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지탱하겠느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 저 북한을 보라.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저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조만간 중국에게 먹히고 말 것이다. 남한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 하고 목청을 높인 것과 비슷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쪽 유대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웃시야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북한보다 형편이 더 나쁩니다. 날만 새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웃시야 시절에 북쪽은 왕이 다섯 명이나 교체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망해 버립니다. 지금 같으면 중국에 잡아먹혀 버린 셈이죠. 그 때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 삼킨 나라가 앗수르입니다. 그런 일이 조만간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남쪽 유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하고야 만다고 경고를 했지만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듣지 않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전하고 해도 남쪽 유대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경고와 심판을 말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야의 나라, 훗날 이 땅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문득문득 보여줍니다.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한 쪽이 툭 터지면서 햇살이 비추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속에 끼워둔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구원역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2*장까지 그렇게 야단을 치고 심판을 이야기해도 유대가 꼼짝을 안 합니다. 해도 해도 안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만 해야죠? 그래서 *13*장부터 얘기가 바뀝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을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불러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게 합니다. 나무를 찍기 위해서 도끼를 사용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도끼가 자기

를 든 주인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간 큰 도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앗수르입니다. 이사야가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할 때에 제일 먼저 언급한 나라는 앗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북한을 집어삼키는 중국이 아니고 몽고라는 점입니다.

지금 형편에 몽고가 북한을 집어 삼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나라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고를 향하여서 경고를 발합니다. 유대 왕이 듣기에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신빙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사야가 이방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강대국으로 위협을 가하는 앗수르에 대한 언급을 제쳐놓고 바벨론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 이것이 *13*장을 볼 때에 주목해야 할 배경입니다.

우선 *1*절을 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정작 이사야가 경고를 발해야 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고 앗수르여야 합니다. 강대국 앗수르가 지금 북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앗수르보다 훨씬 먼 곳에서 현재는 힘을 쓰지 못하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세력을 키워서 앗수르를 점령하고 유대를 쳐들어오는 것은 앞으로도 백 몇 십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바벨론은 지금의 몽고처럼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바벨론 이야기를 꺼내느냐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외치고 돌아서라고 해도 도무지 듣지 아니하니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정확했구나!" 하고 인정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바벨론이 언젠가 자라나서 이 나라를 칠 때가 옵니다. 훗날 이사야의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갈 때 그 때 이 메시지를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속에 메시야가 이 땅에 올 것이며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이라도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해도 안 들으니 정 안 듣겠다면 너희들 후손들에게 말씀을 하겠다는 뜻이죠.

앗수르를 제쳐두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먼저 꺼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최후 심판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가만히 보면 최후 심판의 양상과 아주 흡사한 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사라진 바벨론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날이라면 기쁨과 환희의 날이어야 할텐데 바벨론에게 여호와의 날이란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멸망의 날이요 애곡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아니하던 자들이 철저하게 이를 갈며 애곡할 그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어떤 분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혹한 일을 하실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 날, 모든 범죄를 심판하는 날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좋기만 한 무골호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독한 분이십니다. 한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고 맙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살을 베는 사람도 독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베는 사람은 더 지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구원역사를 이루겠다고 작심하시고 자기 자신을 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독하신 분입니다. 한다면 확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고 인내할 때는 끝없이 인내하시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하고 매를 드시면 정말 추호의 용서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바벨론에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서 바벨론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보세요. *9*절에 **'땅을 황무케 하며'**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그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왜 땅도 하늘도 해도 달도 별도 전부 흔들어서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지었지요. 그런데 이 천체는 왜 건드립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라고 말합니다. 천지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창조물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장을 천지창조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창조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면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판자를 사와서 하루 종일 못질을 하더니 마당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와서 넣어 놓았습니다. 이걸 보고 아들이 뭐라고 자랑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예쁜 개집을 만들었다? 우리도 집에 강아지가 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전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정해 두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사람은 보여도 천지 만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하여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된 땅과 하늘이, 해와 달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 왕조시대 때에 왕자가 사고를 치면 누가 죽어납니까? 그 왕자를 돌보아야 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초상이 납니다. 너무 먼 얘깁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면 누가 죽어납니까? 우리 집 애가 공부를 못하면 누가 죄인이 됩니까?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애 엄마가 죽어나더군요. 애 엄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가 잘못했는데 왜 엄마가 죽을상입니까? 요나가 잘못하니까 누가 죽어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니까 누가 죽어납니까? 자기도 고통스럽죠. 그러나 실제로 죽을 지경인 것은 누구예요? 그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요나에게 쏠려 있거든요. 요나가 잘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실수를 좀 했지요. "이러다가 마누라 빼앗길 것 같다." 너무 예쁜 마누라 두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빼앗길지 모르고 나도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은 나의 부인이라 하지 말고 그냥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런데 바로가 이 부인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선물을 많이 주고 데려갔지요. 바로가 잘못한 것 있습니까? 바로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 것 그게 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나는 사람은 바로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제발 사고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고를 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 왜 천체가 흔들리고 천체가 죽어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라고 해서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즐겨 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1*장은 인간창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천체가 죽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징계하려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9*절에,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사람이 희소하게 되리라'**고 말하죠?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는 것 뿐이죠. 바벨론의 징계를 말하면서 천체의 변동을 말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최후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후일에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천체에 대한 변동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캄캄한 데에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캄캄하고 어두웠던 곳에 빛을 비추신 것이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나가고 달이 떠나가고 별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최후 심판 때는 해와 달이 모두 사라집니다. 바벨론에 대한 징계가 그런 점에서도 최후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오만한 자의 거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교만과 강포라는 말을 씁니다. 오만이나 거만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것은 교만과 강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인간의 영광과 교만의 대명사로 묘사됩니다. 인간의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기적 가운데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제일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하려고 광야 사십 년 동안 너희를 낮추고 고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런 교만한 말을 할까 두려워하신 답니다.

기드온이 전쟁하러 갈 때 상대는 십삼만 오천 명쯤 됩니다. 모은 군사는 삼만 이천입니다. 하나님이 많대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삼백 명만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싫으셔서 삼백 명만 데리고 갑니까*?*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겼다*!*" 소리할까 싶어서 그게 싫어서 삼백 명만 데려가라는 겁니다. 삼백 명은 싸워서 이길 숫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군사만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전차를 수백 대 노획을 했습니다. 그걸 외국에 팔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의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말이 뛰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병거는 전부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철병거를 믿고 용기내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기만 싸우면 내가 이기게 해 준다는데 철병거 믿고 "우리가 철병거 때문에 이겼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전부 폐기처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 분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다 큰 아들에게 차를 한대 사주고 싶었대요. 아들이 거절했습니다.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그 동안 공부시킨다고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지요. 아버지 기분이 어땠을까요*?* 능력 없는 아버지에게 "차 사주세요*!*" 하면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어요. 사주고 싶은데 "마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죠*!*" 이러니까 그 아버지 말이 기분 나쁘더라는 겁니다. 저는 거절하는 아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능력의 차이죠*?* 철병거를 의지하거나 군대의 머릿수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는 셈이죠.

능력있는 아버지는 "아버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런 아들이 미워요. 여러분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제가 어디 할 줄 압니까*?*" 그러고 매달리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이런 생각은 조금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말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가 잠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런데 "이만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심판 날이 되면 바벨론의 모습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루 뛰는 것 혹 보셨나요*?* 참 잘 달립니다. 바벨론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많은 민족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부서지는 날에는 노루가 산지사방으로 뛰듯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양도 흩어지면 스스로는 못 모인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보이는 바벨론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이 임하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뇌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칠 때에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들어서 징계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뇌물이 통하지 않으면 죄인이 빠져나갈 최후의 길이 없는 셈이 됩니다. 훗날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가 바벨론을 치는 것은 전리품을 얻거나 영토를 확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과 메대 사이에 있었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복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 은을 갖다 바쳐도 당할 수밖에, 말하자면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이죠.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같이 되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노리개는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마는 여기 노리개라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소돔 고모라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홍수 이후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그 때부터 고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끝내 다리우스가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폐허가 되다시피한 그 바벨론을 훗날 알렉산더가 부흥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거기서 요절한 이후 잊혀진 도시가 되지요. 그게 나중에 또 살아납니다.

최근에 와서 그 쪽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죽었던 것 같은 저 나라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후세인의 목표가 바벨론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나라를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꿈을 꾸었죠. 그런 큰 꿈을 가졌으면 제대로 잘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자기 민족만 더 비참한 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때 갈대아인의 자랑스러웠던 바벨론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시점부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시 조금 힘을 쓰다가 저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져 갔는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20*절에, '**그 곳에 거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 사람이란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목축을 하던 유목민을 가리킵니다. 아무데나 천막을 치던 그 아라비아 사람들도 바벨론에는 천막을 치지 아니할 것이란 말은 철저하게 버려질 것이란 뜻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버려진 도시가 됩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후일에 되어질 일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 때 강성했던 나라는 앗수르입니다. 그러면 앗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저 먼 변방에 밀려나 있는 바벨론과 메대를 언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약 백오십년 후에 일어난 일을 아는 어느 사람이 쓴 것을 여기다 끼워 놓은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학자들은 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뭘 안 믿는 겁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땅에 메시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도 안 믿는 거죠. 그럼 뭘 믿어요*?* 아니 그러면서 성경은 왜 연구하고 왜 그 이름이 신학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징계와 책망을 거듭거듭 해도 듣지 않는 유대에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메시야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라도 믿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해도 안 들으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메시지는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을 하나의 소재로 삼아서 후 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메시야를 보내겠다는 최초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얼핏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만 뱀을 책망하는 말 속에 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 때 아담과 하와는 무얼하고 있었나요? 교실 풍경에 비유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저 쪽에 꿇어앉아 벌을 서고 있었습니다. 어떤 벌을 받아야 될지 몰라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로 하여금 여인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겠지만 그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렇게 책망하고 있지만 우리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야를 보내겠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안 하고 뱀에게 책망하는 말 속에 슬쩍 묻어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몹시 마음이 아프셨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저녁에 크게 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분이 안 풀렸어요. 남편이 출근을 해야 합니다. 밥을 해 줘요, 말아요? 밥은 해줘야지요. 그런데 "아침 먹고 출근하세요!" 이 소리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상을 차리면서 밥그릇을 꽝꽝 거리든지 아니면 애꿎게 애만 고함을 질러 불러댑니다. "알아서 먹고 가주라" 그 말 아닙니까? 못된 남편들이 가끔 안 먹고 그냥 갑니다. 저녁에 "밥 차려 놓았는데 왜 안 먹고 갔냐?"고 하면 "언제 밥 먹으라고 했냐?" 이건 아주 성질이... 그쯤 합시다. 부엌에서 밥그릇 소리가 덜그럭덜그럭 나면 "차려놓았다는 뜻인가보다" 가서 화해하고 위로하고 그런 다음 출근하면 좋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읽으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좋다 그러면 더 이상 너희에게 안 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얘기하고, 모압 얘기하고, 다른 민족의 심판 얘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심판 얘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여전히 내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대 우리가 잘못하고 사고치고 제대로 못 섬겨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야단을 쳐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딴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들어야 합니다. 아이를 향하여서 고함을 질러대도 "나를 보고 밥 먹어라" 하는 얘긴가보다, 화해하자는 뜻인가보다 그리 알아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셔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잡스럽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바벨론을 위시해서 주변국가의 심판얘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기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누가 나라를 쪼갰는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뽑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뽑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개역, 열왕기상 11:29~38]*

하나님의 예정, 인간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예정인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가도록 정해두셨을까*?*' 취직을 원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직장을 정해 두셨을까*?*' 궁금하게 여깁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짝이 누구일까*?*'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나면 왜 떨어졌다고 말합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입학시험에서 왜 떨어집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원서를 쓸 때 과도하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미뤄버립니다.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는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라고 믿고 결혼합니다. 얼마쯤 살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를 잘 알아서 대처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짝이 아닌 모양이다' 이럽니까*?*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 하면 좋은 선물을 사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일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아빠, 사 주기로 약속했지*?*' '돈은 있어*?*' 이러면 뭐하고 대답합니까*?* '임마, 네 할 일이나 해라' 하지 않을까요*?*

사 주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빠의 일입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도 아빠가 할 일입니다. 아이의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선물을 사 주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할 일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궁금한 사람은 이 철없는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라는 주제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분열 과정을 살피면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네 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끝내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쿠데타가 빈발하고 온갖 이방 세력이 맞부딪히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서 *400*년 넘게 한 왕조를 이어갔다는 것 자체가 범상한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원한 다윗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진정한 다윗의 나라는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의 다윗의 나라는 이 나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비록 그림자일망정 이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는가*?*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할 즈음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구 사항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대형 건축물을 세우느라고 부역을 많이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바람에 백성들이 고초를 겪었으니 이제 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모든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원로급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젊은 신하들, 자기와 함께 자란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왕의 위엄을 보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본 때를 보이라'는 말이지요. '아버지보다 더욱 강력한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느 말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누구 말이 더 화끈하게 보입니까*?*

신대원에 다닐 동안 젊은 전도사들이 제 전직이 선생이라는 걸 알고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잘못했다 해도 그렇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듣고 있던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 초보지*?*" 선생님들도 처음 교직에 나서면 아이들이 무례하거나 버릇없이 구는 행위를 노련하게 혹은 여유롭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과격해지기 쉽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조심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용감하게 들이미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유로운 운전에도 경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초보 선생님이나 초보 운전자가 저지르는 실수가 면책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막강한 왕의 권력을 차지한 르호보암이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안하무인의 태도가 백성들의 반발을 사고 분열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맙니다. 분열은 누구 때문입니까*?* 르호보암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왕상 *12:15*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스라엘의 분열이 르호보암 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탓입니까*?*

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기록되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징계를 당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열가지 재앙을 받은 것이 바로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했다는 표현과 바로가 마음을 강퍅케 했다는 표현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양쪽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이라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에 르호보암 외에 또 다른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까*?*

이 때 백성들의 대표로 나선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한 때 솔로몬에게 반역했다가 망명에서 돌아와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반역의 주동자가 된 여로보암 탓입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이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선지자 아히야 탓입니까*?*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예정이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분열이 전적으로 하나님 탓입니까*?*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찾아봅시다.

솔로몬의 망령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 흉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때이기도 합니다. 평생토록 헌신한 어떤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아서 실수한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이 많은 솔로몬에게 부인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나이 많은 분에게 무슨 부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탈이 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어요.

이 부인들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분명히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복을 빼앗길 것이냐*?*'는 것은 분명히 솔로몬의 처신에서 나온 결과입니

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언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 대에 가서 나라를 빼앗습니까*?* 솔로몬이 잘못했으면 솔로몬이 당해야지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반역의 주동자가 되었던 여로보암을 봅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사람이기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란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여로보암이 선택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솔로몬 시절에 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11:28).* 요셉 지파의 감독이라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반역할 만한 힘과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권력지향의 인물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히야의 말을 듣고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만, 후일에는 선지자들의 무서운 책망에도 북이스라엘 내에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기게 합니다. 악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그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반역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빼앗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르흐보암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그것밖에 되지 않음을 아시고 르호보암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과욕, 르호보암의 오만

이스라엘의 분열이 누구 탓입니까*?* 솔로몬이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망령이 이런 비극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때에 나라를 쪼개지 않고 르호보암 때입니까*?* 르호보암의 안하무인,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기계처럼 조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잘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잘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다가 중지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시다가도 모세의 기도에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라를 쪼개는 것이 목적이라면 솔로몬 시대엔들 못하시겠습니까마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점을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 것 뿐입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다고 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손해가 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권력지향적이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도둑질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충동질한다고 아무나 함부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도구로 쓰일지, 심판의 도구로 쓰일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말함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인간을 그런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의 도구로 쓰이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인간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쪼개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고 여로보암의 욕심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 각자가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처럼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그만큼 사람의 뜻을 존중하며 교제하시며 동역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셔서 뜻을 돌이키신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점을 가장 기분나빠 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멸하겠다고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나 모든 것

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주시고 그 선택을 근거로 역사하시되 책임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다 정해두신 대로 하실 것이니 나는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르호보암이 안하무인으로 백성을 다룬 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려두심으로 징계를 시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에 앞장서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도 자신의 권력을 향한 욕심 탓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할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을 들으면서도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쪼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욕심에 따른 생각을 좇아서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복이든, 화든 여로보암이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실천했으나 왕권을 지키려는 욕심에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르호보암도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큰 행복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시고, 반역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어느 인간이 막을 수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복과 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받았습니다. 고생길로 들어설 것인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궁금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작은 복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번 주간에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임종례 집사입니다. 등뼈 *5*마디를 잘라내고 인공뼈로 갈아넣고 누워있는 남편 곁에서 너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복은 그렇게 오는 모양입니다. 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 행복해 하고 있었습니다. 농담삼아 "병실에서 너무 웃지 마세요. 누가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는데..." 했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그래야 되느냐*?*"기에 "마음껏 웃으세요." 했습니다. 누가 그 행복을 알까요*?* '이제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멀쩡한 등뼈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이보다 더 행복합니까*?*

지난 주간에는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헤롱헤롱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이 무더운 날에 에어콘 틀어놓고 수박 먹어가며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운 것이 행복입니까*?* 예, 그것도 행복이지요. 작은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고 믿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잠이 모자라서 머리만 갖다대면 아무데서나 잠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을 자꾸 들먹이지 말고 우리가 할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비록 제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귀한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은 제쳐두고 아빠의 얼굴이나 지갑만 쳐다보는 철없는 아이 노릇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희생을 각오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나 어떤 일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좌절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선의 길을 찾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왕도 부럽지 않은 여인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칠년을 우거하다가 칠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 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 들었더니 혹 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사십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앎이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어치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대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개역, 열왕기하 8:1-15]*

주위에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가 둘러보세요.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무엇이 부러운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점에서는 부러운 게 전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러운 것이 더러 있습니다. 가령 큰 집이 참 부럽죠? 집들이 비슷비슷한 동네에 살면 괜찮지만 크기가 차이가 나는 동네에 살면 예삿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파트 평수끼리 모여서 논답니다. 그러면 적은 평수에 사는 사람의 소원이 큰 평수일 수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이사하기 전에 가슴이 설레서 잠 못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잠 못 드는 가슴 설렘이 며칠간 계속 되던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괜찮았는데 우리 형제가 워낙 많아서 명절 때만 되면 화장실 가는 게 전쟁이라서 결국 옮겼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집에 의논할 일이 있어서 다시 갔는데 왜 그렇게 천정이 낮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싶었어요. 사람 눈이 그렇게 간사하더라고요. 저런 집에 살면 소원이 없겠다 싶지만 그런 집에 살면 얼마 안 가서 다른 큰 집이 또 부러워집니다. 이게 끝이 없는 욕심입니다.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 하면 부럽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니까 이 교회에 계속 다녀서는 안되겠다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구요. 뭔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 제철고등학교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공부 잘 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백명 다니는 학교에 일등이 몇 명 나옵니까? 오백명 중에 하나면 그게 비정상이지 어떻게 자꾸 흉내를 내려고 합니까? 십등을 해도 대단한 겁니다. 참 욕심들이 지나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소리를 하니까 자기 아이가 그렇게 되어봐라 그러는가 했는데 이제는 제가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중간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탈 없이 커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이 확실히 지나칩니

다. 제가 학교에 오래 있어본 경험에서 하는 얘긴데 공부 욕심 너무 내지 마십시오. 잘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어중간한 아이가 정상입니다. 공부 못한다 싶으면 애 탓하지 말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얼마만큼 했는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맞아요.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을 부러워하면서 힘들어 하는 분들이 워낙 많더군요. 그럼에도 공부 잘 하는 것이 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월급 많이 받는 것도 부럽죠? 저는 제가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주 있는 사람들은 남의 월급까지 잘 알더군요.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의 수입까지 계산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월급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월급은 아무리 많아도 늘 모자라는 법입니다. 월급이 곱으로 늘어도 얼마 안 가서 또 모자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보셨어요? 숨이라도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생각하면 숨을 편하게 쉰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묘한 병에 걸려 있어요. 뭔가 부러워하기 전에 내게 있는 것이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내게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8*장에 여섯 명의 왕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8*장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이 여인은 그 뒤에 등장하는 여섯 명의 왕을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여섯 왕들이 오히려 이 여인을 부러워해야 할 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람 왕은 벤하닷입니다. 벤하닷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하루 밤에 군사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몸만 간신히 건져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과정이 분명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뭔가 일을 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후에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벤하닷이 그 일로 인해서 아마 화병이 든 게 아닐까요?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혼나게 했던 유다의 선지자가 온다니까 신하를 보내서 "내가 살겠나 못 살겠나?" 물어보았습니다. 그 신하인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벤하닷에게는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 주라 그러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귀띔을 합니다. 하사엘이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자기의 상관이었던 벤하닷을 죽여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한 말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대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장차 이런 저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일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하사엘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엄청난 고난을 안기게 되지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가룟유다가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가끔은 이런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엘리사가 예언을 해주었지만 그리 영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비극적인 도구로 사용될 하사엘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도,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 요람 제 오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기에 일단 주목할 말씀은 여호사밧이 위에 있을 때에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는 함부로 내 놓는 게 아닙니다. 간혹 사극에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임금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만 하야하겠노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아들이 쫓아와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다가는 대역죄에 걸립니다. 모든 신하들이 무슨 수를 쓰든 눈물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한사코 말려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죽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멀쩡하게 있을 때에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중대한 병이 들었거나 도저히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그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도 역시 고통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 덕분에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왕자가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별일 아니죠?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의 아들이 천민의 딸과 결혼하는 일은 연속극에나 나오지 실제론 잘 없습니다. 큰회사의 회장 아들이 말단 직원의 딸과 결혼하는 일은 연속극에나 있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족은 귀족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늘 그런 법입니다.

여호람이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아무리 공주지만 '그 아버지가 아합이다' 이러면 '아, 이건 더 볼 것 없이 불행한 사건이 뒤를 잇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공주와 결혼했으면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호람이 왕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주변 속국들이 다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어디 감히 독립을 하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가 보았지만 처절하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여호람은 불행한 왕의 자리를 근근이 이어갑니다. *18*절에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아주 못된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람이 이 모양이지만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의 집과 어울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합니다.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다가 하사엘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손으로 북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요람과 아하시야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달랴가 왕이냐 아니냐 참 골치 아픕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된지 일년 만에 죽고 난 후에 왕의 자리를 이을 자기 손자들을 전부 죽여 버리고 아달랴가 왕노릇을 합니다. 육년이나 칠년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갓난아이가 한 명 살아서 빠져나갔다가 이 아이가 다시 여섯 살 즈음에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지요. 그 때 백성들의 손에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도 왕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마는 이 사람을 빼고도 여섯 왕이 나옵니다.

이 여섯 왕 중에 한 사람도 부러워할 만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보다 이 여인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중간쯤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년 동안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칠년 기근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은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을 잠시 피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특별대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일을 하실 터이니 너는 미리 피해 있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 이건 보통 특별대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고향을 떠나서 칠년을 블레셋 지역에 가서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칠년 사이에 땅이나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때에 게하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어떤 아들이기에 선지자가 살려주었냐?" 하고 왕이 호기심을 보일 바로 그 때에 이 여인과 아들이 왕에게 갔던 겁니다. 이 여인이 호소하는 것을 왕이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땅을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관리 하나를 붙여 주었고 그 일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한 명 세워서 잃은 걸 다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단 말입니다.

청와대에 민원을 올려도 제대로 된 답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하나를 특별히 딸려서 일을 다 해결해 주도록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이 여인의 행위를 괘씸하게 여겼더라면? "기근이 온다고 혼자 고향을 떠나 살다가 돌아왔으니 마음대로 해 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나오면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의 집안과 다른 왕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 집은 되는 집안입니다. 왕들의 집안은 안되는 집안입니다. 어떤 집은 저절로 되고 어떤 집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의 집안이 어떻게 해서 되는 집안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을 든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인줄 알고 늘 식사대접을 강권하며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긴 겁니다.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식사만 할 것이 아니라 쉬어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방만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그 방에 침상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촛불을 켜도록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서 뒤를 돌봐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랬느냐 말이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를 세밀하게 살펴주었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사를 그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 아니고 그가 귀한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그렇게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집안이 되는 집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최선을 다 했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섬기는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여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집안이 되는 집안입니다. 이미 큰 복을 받았으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너무 예뻐서입니다. 전 그게 싫습니다. 다 너무 잘 살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들이 너무 좋아요, 그거 쳐다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쳐다보다가 신랑 한번 쳐다보니까... 마음에 드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여자 탤런트 쳐다보면서 참 예쁘다고 하다가 자기 마누라 쳐다보니까 시원치 않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부인이 텔레비전에 나온 저 탤런트만큼 예뻤으면 여러분 몫이 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안 돌아 옵니다. 저만큼 예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그만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무런 고통 없이 숨 쉬는 것마저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그저 평범합니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게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공부는커녕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기근이 닥칠 것이니까 피하라고 그럽니다. 당연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롯의 사위들입니다. 심판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하고 피하자고 해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정상일지 모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모두 멸망할 거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방주에 올라탄 사람이 노아 식구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온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이방으로까지 이동해 간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저도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질병 중에 딱 하나만, 천식 하나만 고칠 수 있어도 우리 집 사람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워낙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은사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병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 놓는 은사보다 아예 병 걸리지 않게 하는 은사가 더 큰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하는 은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번 강화도에 갔을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많이 자랑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천 명이 넘는 우리 교인들 중에 병원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사니까 아픈 사람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꼭 그것만 복이겠습니까마는 그것이 그 교회가 받고 있는 복의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아픈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말입니다.

제게 동생들이 많은데 어느 가정이나 할 것 없이 문제가 생겨요.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교회가 어떠냐?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우냐?" 하고 물어보면 "형님, 기대할 것 없습니다." 이러면 저로서는 답답하죠.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교회가 은혜로우면 가정에 문제가 좀 있어도 해결이 됩니다.

오래 전의 일입니다마는 시숙이라는 사람이 제수씨를 앉혀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걸 들어서 압니다마는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가서 그나마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으니 고맙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숙 말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제수씨가 인정을 하니까 문제가 풀려지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닥칠 때 이 가정에도 기근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사형통이라 해도 이런 어려움들은 닥쳐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서 더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닥쳐왔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선하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또 다른 기쁨을 주시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것이 되는 집안이에요. 반면에 안되는 집안이 여럿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만 꼽아 봅시다.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아합의 아들이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후에게 당해서 결국은 멸족되고 맙니다. 조상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너무나 조상 탓을 쉽게 합니다마는 본인이 달라지면 복을 받습니다.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어때요? 장가를 잘 가야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아합의 딸, 공주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재산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사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공주 아니냐, 부자 아니냐, 재산 많고 인물 좋지 않으냐 이건 나중에 여호람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쳐오게 된 것이 결국 여호사밧 때문인데 그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통틀어서 선한 왕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앙은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합의 집과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면서 그 집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덕분에 이 유다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달랴가 손자들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 왕권을 틀어잡고 몇 년을 버틴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크게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여호사밧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던 아합집과 가깝게 지낸 결과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만 좋으면 저절로 다 됩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저절로 올라갑니까? 이건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

닐 때 시험치를 때만 되면 이불 보따리 싸들고 예배실로 가는 분을 보았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시험 칠 때가 되면 밤잠을 못 자고 새벽기도 빼먹어 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목사될 사람들이 시험 치른다고 새벽기도 빼 먹어가면서 하면 됩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무조건 이불보따리를 싸서 예배당으로 갑니다. 모르긴 해도 그 분이 은혜로 졸업은 했을 것 같아요. 설교를 잘 하고 계실까 걱정이 됩니다.

신앙이 좋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시작해서 개업예배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했는데 한 달도 안되어서 문 닫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신앙적인 자세로 장사를 하겠다는 각오 위에 하나 더 추가해야지요.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목사님한테요? 목사님이 그것까지 잘 알아서 해 주면 좋겠지만 장사에 밝은 사람에게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가게만 열어놓고 예배만 드리고 버티고 있으면 손님이 절로 옵니까? 신앙은 좋을는지 몰라도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좋은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게 전혀 없어요. 구원은 막말로 공짜로 얻은 겁니다. 끝났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까? 구원은 거저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려니까 죽겠다' 이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좀 미안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계속 얘기해서요. 그러나 그 터지는 속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다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 문제는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피나는 노력이 결국은 우리 집안을 되는 집안으로 만들어 갑니다.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안되는 집안으로 살고 고생은 더 하는 겁니다.

*26, 27*절을 보십시다. 여전히 안되는 집안의 예입니다.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이세라'** 참 좋은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일년을 치리하니라'** 왕 노릇을 일년밖에 못했다고 그러네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모친의 이름이 아달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라는 얘깁니다. 이십이 세에 왕이 되어서 신났겠지마는 **'어머니가 아달랴요 아합의 딸이더라'**는 그 범위를 못 벗어나면 아무리 한창 때에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일년밖에 못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라도 그가 그 관계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일년 뒤에 북쪽 왕 요람, 자기에게는 외삼촌이 됩니다. 이 두 왕이 하사엘과 전쟁하러 갔다가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왕족도 좋고 왕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집안과 합세해서 왕이 되고 출세한들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안되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열왕기는 문자대로 하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왜 끼어들어옵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배경이고 이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것이 열왕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왕이 여섯 명, 일곱 명이 나와도 그 왕들의 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왕들이 이 모양이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염두에 둔다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예 이것을 미리 막

는 역할을 합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도 참 큰 것입니다마는 예방하는 것은 더 큰 은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 부모 말도 안 듣는데요? 어느 천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집 아이도 제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래 내 말은 안 들어도 좋다. 예배는 출석해야 한다." 이런 원칙 하나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기 전에 원인을 찾아보면 본인에게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아합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악연은 끊어집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의 피가 흐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호리기 위한 무속적인 말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큰 집, 좋은 겁니다. 좋은 차,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으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야렛은 일백 육십 이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팔백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 육십 이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육십 오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삼백 육십 오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개역, 창세기 5:18~24]*

'육십세 넘은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몸서리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참 부럽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삼백년을 지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참 행복하겠다'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고생깨나 했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까? 에녹이 삼백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는 것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만 드렸을까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나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분들의 평균 연령이 구백세를 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천년씩이나 살았을까? 이 문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과연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창조 이후 세상이 크게 두 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변화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죽지 않으면 안되도록 지구가 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겨우 천년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언제 지금처럼 줄어 버립니까? 노아 홍수 이후의 일입니다.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사람의 수명이 백 몇 세까지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천년을 살던 사람이 기껏해야 백년 정도 밖에는 살 수 없도록 지구가 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제는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땀이 흐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변화인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겨우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다 죽고 조금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육식을 허락할까요? 그전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아도 천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지구 환경이 그럴 수 없는 상태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잘 읽어 보시면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무지개도 그런 예 중의 하나입니다. 없던 무지개가 갑자기 왜 생깁니까? 홍수 이후에 대기가 변하면서 무지개가 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구가 엄청나게 변화를 겪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무리 살아도 백년을 못 사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 그 옛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말도 안된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신혼부부가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게 삽니다. 그 옆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 때는 그렇지. 한 오년 살아봐라. 그 때도 그런가 보자!" 누구 얘깁니까? 자기 얘깁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도 한 때 그래 봤다고 그러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십년 지나고 이십년이 지나도 연애할 때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들 그러려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가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열심히 쏟아내는 깨는 덜 익은 깨입니다. 십년 이십년 묵어가면서 말씀대로 이룬 아름다운 가정에서 쏟아지는 깨는 아주 잘 익은 깨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잘 사는 부부를 보면서 '한 때 그러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결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겨우 백년밖에 살지 못하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에 그 때 사람들은 천년 가까이 살았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지 말자는 얘깁니다.

*"*백년 사는 것도 이 고생인데 천년이나 살았으면 참 고생깨나 했고 지겨웠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우리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의 수명이 우리보다 열 배가 길었으면 살면서 받는 기쁨도 우리보다 열 배는 더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좋아지면 엔진성능만 좋아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엔진 성능이 좋아지면 다른 부속들도 성능이 좋아져야 합니다. 엔진은 성능이 아주 좋아졌는데 브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아지면 사고내기 딱 알맞죠.

덮어놓고 천년 가까이 살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좋은 세상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홍수 심판 때 또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과거에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과 다릅니다. 지구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현재는 과거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현재 지표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옛날 지구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지구는 과거의 지구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지구과학의 토대를 이루는 가정입니다. 만약 과거의 지구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겪었다면 현재의 지구과학은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 성경 바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류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말한 것을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만약에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현대인은 칠십 세이면서 오십 세 이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시대의 흔적이 나타나면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지구에 불가사의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많나요*?*

땅 속에 있는 저 많은 기름의 원재료가 동물의 유기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시체입니다. 그런데 땅 속에 묻혀 있는 저 원유의 양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승용차 한 대가 소모시키는 기름이 짐승의 시체에서 뽑을 수 있는 기름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집 티코도 대충 잡아 *100Kg*이 넘는 돼지로 약 열댓 마리는 먹이치울 걸요*?* 포항시내 차가 십만 대 넘어가는데 일년에 돼지 몇 마리 태워 없앱니까*?* 한 대당 열다섯 마리로 잡으면 한 해에 백오십만 마리입니다. 십년간 태우면요*?* 십년만 태우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이 묻혔을까요*?* 원유 뽑아서 자동차만 씁니까*?* 동물의 시체가 땅에 묻혀서 기름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언제 어떻게 그 많은 짐승이 묻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책에는 동물의 유기체로부터 원유가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만 전문적인 깊이가 있는 백과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항상 끝에 '...추정한다'는 말로 맺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그 많은 짐승이 땅 속에 한꺼번에 묻혔는지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원유 추정량이 천오백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혀 감이 안 잡히죠*?* 홍수 때 그 만큼의 사람이 묻혔다고 가정을 하면 수율 *100%*로 잡아도 이조 오천 만 명입니다. 이조 오천 만 명이면 *60*억이나 되는 인구를 사백 번이나 갖다 묻어야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원유 추정량이 일 년에 *1.2%*씩 늘어왔대요. 그거 얼마 되겠냐 싶지만 *60*억 인구를 네 번이나 갖다 묻어야 되는 양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원유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에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생물이 존재했는데 그 생물을 한꺼번에 묻어서 이렇게 많은 원유가 만들어졌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구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은 생물이 묻혔다는 걸 상상할 수 없기에 생물의 유기체로 되어졌다고 추정할 따름입니다. 아이들한테는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천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홍수 이전 이 땅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과 생물과 짐승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 그들이 땅에 전부 매몰됩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노아 홍수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열 배나 오래 살았으니 그만큼 몸집도 크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 많은 원유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수 이전 세상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사람과 많은 짐승과 덩치 큰 생물들이 있었는데 홍수 때에 한꺼번에 매몰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홍수 이전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 어렴풋이나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원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의 추정량은 원유보다 *13*배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이 안되니까 할 수 없이 '...라고 추정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맘모스(매머드)가 얼음에 갇혀서 뱃속에 먹은 풀이 삭지 않고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몇 분 만에 얼어붙어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언제 맘모스들이 얼음에 갇혔나요? 중고등학교 실력으로는 빙하기가 갑자기 닥쳐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 년에 지구의 온도가 일도씩 올라가면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십년에 십도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빙하기가 급속하게 다가왔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느린 겁니다. 빙하기가 그렇게 급속하게 도래해서는 맘모스 뱃속에 풀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맘모스가 그렇게 얼음 속에 갇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빠른 속도의 변화,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험하게 파괴되고 부서진 상태가 오늘의 지구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툭 하면 아파요, 툭 하면 병원가야 합니다. 조금 한눈팔면 엄청난 사고가 들이닥칩니다. 깨어지고 비틀어진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성경에 언뜻 언뜻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평생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수명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몇 년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평생에 그렇게 술을 퍼 마시면 삼년 정도 영향을 받는답니다. 담배가 한 오년쯤 영향을 준다던가요? 꼴랑 백년 사는데 삼 년, 오 년 가지고 그 난리를 칩니까? 삼 년이나 오 년 줄어드는 것 가지고 그 난리라면 구백 이상 살던 사람의 수명이 팔십, 구십 세로 줄었습니다.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성경에, 특히 *5*장의 나이 이야기를 '성경은 으레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옛날 얘기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느라고 수도원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산 사람도 있었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둥 위에서 살았습니다. 두레박으로 빵과 물을 기둥 위로 들어 올려서 먹고 살았답니다. 루터가 베드로 성당의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에녹은 육십 오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말합니다. 집 떠난 게 아니네요. 기둥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철야만 하고 예배만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성스러운 일입니까, 버릇없는 일입니까, 보기 싫은 일입니까?

갓난아이가 예배시간에 똥을 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합니까? 아이들은 언제 똥을 잘 쌉니까? 꼭 밥 먹을 때 쌉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면 밥맛 없어 못 드시지요? 아이

를 키운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스럽지 못한, 버릇없는 행동이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에녹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흔히 "일 좀 하셔야지요*?*" 하면 아이 다 키워놓고 해야지요*?* 아이 언제 다 키웁니까*?* "아이 다 키워놓고 하지요" 하는 사람은 교회 봉사든 사회 봉사든 거의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옷도, 머리도 제대로 손보지 못하고 교회 일한다고 뛰어오는 분들을 보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스럽습니다. 엄마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아이가 다리에 자꾸 매달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때문에 못 하겠다 하고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여름 교사 수련회에서 본 엄마는 아이가 옆에서 다리를 붙드니까 차 버리더라고요. 아이가 붙들고 난리치는데도 찬양을 인도하는 엄마가 제 눈에도 참 성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이뻐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애기 업고 바이올린 켜는 것 보셨어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얼마나 예민한 악기인지 모릅니다. 기분이 조금 나쁘면 바이올린이 기분 나쁘다는 소리를 내요. 그만큼 예민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아기 들춰 업고 연습하고 연주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은 저런 모습을 얼마나 예쁘다고 하실까 싶어요.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엄마' 하고 뛰어왔습니다. 입장 곤란하지요*?* 엄마야 입장 곤란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라도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애 다 키워놓고 하지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부관계도 끊고 자녀들도 버려두고 그저 기도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낳고라는 말 속에 부부의 육체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부의 육체관계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있어서 결단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은 않겠습니다. 미성년자 불가쯤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 말은 밖에 가서 돈 많이 벌어오라, 생활비 잘 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특별히 육체관계에 한정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내 몸이 내 몸 아니라는 얘깁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해서 사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참고하십시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안 일도, 직장 일도, 부부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나 직장에 충성하는 것이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생각이 들면 순교할 각오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고 '여기 순교자로 파송 받았다'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순교한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한 행위와 거룩하지 못한 행위를 나누는 버릇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분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요*?* 그런데 군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신성한 얘기 하던가요*?* 남자들이 하는 군대 이야기가 그렇게 신성하던가요*?* 실수하고 사고친 게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형성된 군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애기 낳는 것 굉장히 성스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스러운 일입니까*?* 신성한 겁니다. 그러면 애기 낳은 얘기는 얼마나 신성해요*?*

하나 하나를 보면 도무지 신성해 보인다 싶은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으로 신성한 일입니다. 아이 기르는 일, 집안일 돌보는 것이 도무지 신성해 보이지 않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신성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만 사는 것이라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철야기도 하는데 자꾸 배가 아파요. 화장실 가면 오늘 기도 다 망친 거죠? 우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런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버릇도 없이 기도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냐?'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부부가 아닌 상대와 몰래 딴 짓을 하고 싶으면 불신앙이 되고 퇴폐도 되고 세속이 되고 정욕이 되지요. 그러나 올바른 관계에서의 육체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선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내가 주의 것이요 그 일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만 두고 나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버리고 굶어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충성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 보면 병 걸리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받기 쉽다는 얘기죠.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함으로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 푹 주무셔야 합니다. 무조건 안 자고 버티는 것이 잘 하는 게 아니고 자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삼백년 동안 동행했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어떠했을 것 같아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삼백년 동안 다함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 에녹이 삼백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고 일을 하든지 자녀를 낳든지 부부간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거나 하나님 잠시 눈 좀 감아주면 내가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행복이 있지요. 무슨 행복입니까? 부모 없는 고아의 행복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정신없는 소리해요.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아이 집에 갖다 와서 "나도 엄마 없이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걔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며칠 지내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되지요. 우리 형편을 잘 알아서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에녹은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낳고 일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인이 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밖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집에서도 하나님

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신랑 보고 고함을 쳐댈 때도, 남편이 아내를 향해 고함을 쳐댈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까? 잠깐 돌아서서 옆에 계실 겁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교회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심지어 성질나서 남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못살지요. 답답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알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일을 죽자고 해도 피로는 덜 느낍니다. 열심히 하는 데도 병이 잘 안 들어요. 되는 집안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저 집이 '일이 참 잘 된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삼백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에녹이 누렸던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빨리 멸하시지 않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내가 보매 어린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세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세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네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네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개역, 요한계시록 6:1~17]*

요즘 뉴스, 들을 만하죠? 모르긴 몰라도 기분 좋은 일이 그리 없을 겁니다. 웬 폭풍이 그리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태풍소식은 다행입니다. 요즘 테러소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요. 소련에 또 엄청난 테러가 있었고, 좀더 거슬러 가 보면 인질로 잡혀서 처참하게 죽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뉴스를 듣지 않는 것이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뉴스가 그렇습니다.

요즘 가정주부가 가출하는 숫자가 하루에 *33*명쯤 된답니다. 가출사유가 참 안타깝습니다. 남편의 무능력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남편이 경제적으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가족을 다 팽개치고 가정주부가 가출한다는 것, 과거에는 참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한 달에 근 천 명꼴이라고 하니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학자금 대란 얘기 들어보셨죠?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하기가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기분이 좋았어요? 분통터진 한국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판이 잘못했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금메달 하나 뺏겼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고친다는 겁니다. 체조도 그랬지만 축구도 그랬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답답한 것이 많은 게 어쩌면 이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쳐다보면 어떠세요? 신문하고 대통령하고 안 싸우면 안될까요? 어느 신문인지 유심히 보세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과 싸우는 제목만 붙어 있더라구요. 참 질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이 현재만 그러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선거구호 중에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더니 상대당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한 쪽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니 저쪽 당에서 '구관이 명관이다' 했답니다. 오늘 우리 정치 현실 뿐만 아니라 그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현실이 왜 이 모양이냐고 가슴 아파 하고 힘들어 할 때 어쩌면 이것보다 더한 아픔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해 하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모양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험한 말로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이 빨리 망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서 이런 세상 욕만 하고 있을 것이냐는 말입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되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읽으란 말입니까? 뜻도 모른다고 하기 전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으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은 읽으면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읽으면서 은혜받는 대로 이 말씀을 지키면 요한계시록은 복이 되는 책입니다.

성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인용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지요. 계시록의 무시무시한 구절만 인용해서 겁을 준다는 생각이 들면 성분이 좋지 못한 부류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일부 구절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겁을 줘서 재산까지 팔아서 헌납하도록 하는 것은 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끔 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써 놓은 암호문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을 컴퓨터에 넣어서 어느 특정한 문자만 찾아보니 비밀스러운 말씀이 숨어 있더라고 발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계시록의 의도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반드시'와 '속히 될 일'입니다. 먼 훗날 *2000*년 후에 되어질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글을 읽고 이 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말씀을 읽는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그 말씀이 주어진 당사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었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았을지 먼저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은 밧모섬에 귀양을 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얼마만큼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는 절박한 때에 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옥에 던져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겁을 주거나 무슨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희생을 받아야 하고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장,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일곱 초대교회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장, *5*장에서 요한이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인봉된 책을 발견합니다. 인봉된 책의 인을 하나씩 떼어 이 책이 펼쳐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어린양이 나와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양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갑니다. 첫째 내용이 *6*장입니다.

인을 뗄 때마다 어린양을 찬양하던 네 생물들이 큰 소리로 '오라' 하고 고함을 지르면 말이 한 마리씩 튀어나와서 온 세상을 휘젓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네 번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

다.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말이나 그 말을 탄 자는 모두 상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은 네 마리의 말을 탄 자들이 휘젓고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이 누구에 의해서 등장합니까? 어린양이 인을 뗄 때에 어린양을 찬양하던 네 생물 중의 한 생물이 고함을 지릅니다. 우뢰같은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 한 마리씩 나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데 세 짐승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일 애매한 것이 첫 번째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 묘사된 세상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첫 번째 나온 흰 말도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첫 번 말이 나와서 휘젓고 다니는 전쟁이 있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말은 큰 칼을 들고 나와서 화평을 제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큰 칼을 들고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려는 두 번째 말탄 자가 설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는 정말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탄 자 노릇은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웃간에, 성도간에, 가정에 화평이 깨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어린양의 허락을 받은 상태로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기 위해서 설치는 말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하나 들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라는 말이 들립니다. 여기에 한 되라는 것은 당시의 표현으로 한 사람의 하루분 식량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가지고 혼자서 세끼 먹을 양식을 사면 끝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다른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일당으로 혼자 먹을 양밖에 사지 못한다고 보면 밀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깁니다.

그런 다음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석 되'**랍니다. 하루 벌어서 보리를 산다면 세 사람은 먹을 수 있겠네요. 혹독한 기근으로 곡물값이 몹시 비싸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왜 저울을 들고 다녀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풍년이 들면 인심이 후해져서 풍성하게 줍니다마는 좀 어려워지면 싹싹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눌 때 누구 하나 조금 더 가면 안됩니다. 이러니까 저울이 필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말합니다.

밀과 보리는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주식에 해당되지만 감람유와 포도주는 부자들의 기호식품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부자들은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부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그냥 두라는 겁니다.

요즘 서울에는 주로 명품을 취급하는 백화점들이 잘 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 *1%*만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돈 있는 *1%*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지 못한 사람은 오지도 마라는 백화점이 늘어가는 거죠. 서민들은 다 어려워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름값 올리면 돈 없는 사람이 운전을 좀 안 하겠지요. 길이 좀 한산해지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니기 좋구나 하고 잘 다닐런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곤란한데 있는 사람은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밀과 보리는 이렇게 비싼데 포도주와 감람유는 해치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거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일은 더욱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세상을 휘젓고 다니기에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말의 색깔이 청황색 그러니까 누르스름한 녹색이죠. 누르스름한 녹색은 어떻게 보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이 말이 설치고 다니면서 하는 일은 *8*절 보니까 이름은 사망인데 음

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마치 사망이라는 자식이 음부라는 그물을 끌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데, 그가 휘두르고 있는 것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입니다.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닥치면 죽어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듯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제일 끝에 땅의 짐승으로 죽이리라는 이 말씀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오래 전 사진입니다마는 혹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굶주린 소년이 먹을 것을 찾아서 마을로 가는데 비척거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뒤를 독수리 한 마리가 따라가는 사진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진이어서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진기자가 최고의 사진기자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결국은 사진 기자로서의 삶을 포기합니다. 찬사도 많이 받았지만 비난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진기자지만 독수리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독수리를 쫓아내야지 거기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고 있었느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럴지라도 사진기자로서 사진을 찍어서 이런 참상을 알리는 것이 도리다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양 쪽에서 하도 많이 듣다보니까 도저히 사진기자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짐승이 사람을 해치려 드는 때는 참으로 어렵고 참혹한 때입니다. 땅이 심히 황폐화 되고 살기가 몹시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첫 번째 인은 과거의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그 훗날 것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난다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출산할 때까지 어느 때가 가장 힘듭니까? 출산할 때 다 되어서 배가 남산만 하면 옆에서 보기가 참 안스러워요. 참 힘들겠다 싶은데 그 때는 덜 힘들다고 그래요. 보기는 그렇지만 차라리 그 때는 덜 힘들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어느 젊은 여집사님께 인사를 했더니 인사도 안 받고 인상을 푹 쓰고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저 집에 무슨 큰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걱정이 되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살짜기 물어 보았더니 "강도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는 병입니다." 이러더라구요.

"아니 그렇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강도사가 인사를 하는데 인상만 푹 쓰고 인사도 안 받고 지나가는 법이 어디있냐?"고 하니까 '지금 입덧이 하도 심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중'이래요. 어떤 분은 겉으로는 아무 표도 안 나는데도 입덧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기도 해요. 아기를 잉태하고 낳을 때까지, 아니 잉태하기 전부터 조심해야죠. 얼마나 몸조심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낳을 때까지 아니, 낳고도 몸조심을 해야죠. 얼마나 몸조심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리해도 안되고 무거운 것을 들어서도 안되고 차 많이 타서도 안되고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한 여인이 잉태하고 몸조심을 해야 하는 그 기간과 비교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힘들 때도 있고 조심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편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나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힘든 기간을 열달 동안이나 버텨야 합니까? 새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답변 중의 하나가 좀 쉬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기다리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왜 참아야 합니까? 옥동자보다 더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생명이 태어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생

명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고비를 참고 지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며 어려운 이 땅의 삶을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시대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겪었고 그 다음 세대도 겪었고 앞으로 강도는 변할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걸치고 난 후에 참으로 아름다운 새 생명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말들이 설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전부 어린양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생물의 오라는 명령이 나야 나옵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설치고 다녀도 어린양의 손 안에 들어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말들이 설치고 다니는 장면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 뒤에 보이지 않는 장면, 즉 어린양을 찬양하던 네 생물에 의해서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십니까'**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공의를 실현시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할 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좀 쉬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동무들을 위하여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좀 기다려 달라는 얘기죠.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그 분이 우리에게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주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역사가 조금 더 진행되어야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다리란 말입니까*?* 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냐*?* 그 말씀이죠*?*

비록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은 성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마저 당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병이 들든 건강하든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어야 선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되어야 선한 하나님이시냐는 말이죠. 내가 병들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더 당당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시내 어느 학교가 봄에 보경사에 소풍을 갔다가 아이가 실족해서 죽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교장과 서무과장이 벌금을 많이 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몇 백만원씩 내서 보충해준 예도 있습니다. 소풍을 갔다가 죽었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들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임선생님이든 교장선생님이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분이 포항제일교회 집사였다고 하던가요*?* 자식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건지 그건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일찍 간다고 하더라도 그 곳이 더 아름다운 곳임을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좀 안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맞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믿고서 거룩한 성도의 수가 차야 하니까 좀 참아달라고 좀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이 아픔을 견디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간 우리 친구들,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지나면 진짜 심판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참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천체가 떠나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5*절 봅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자가 굴과 산과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낯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이렇게 고함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누굽니까*?* 왕족과 임금에게 무슨 원한이 그리 많아요*?* 단순한 왕족과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유로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들에게 명확하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 중에 종이 하나 끼여 있습니다. 여기 왜 종이 끼여 있나요*?* 성도를 핍박할 때 임금이 직접 핍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 명령을 집행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부자들의 집에 있는 종, 임금에게 딸려 있는 그 종들이 위세를 떨쳤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 종까지 다 포함시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하죠.

참 재미있는 표현 중의 하나가 어린양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양이 그것도 어린양이 진노하면 어떻겠어요*?* 귀엽겠지요*!* 참 귀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힘없고 여리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랬단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진노*?* 귀엽겠죠. 그러나 이 어린양이 그런 어린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어린양의 진노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곧 그 날이 올 것이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도들이 참고 견디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희망을 가지고 어디에서 용기를 얻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린양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역사의 키는 이 어린양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도 짐승을 탄 자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지마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는 그 뜻에서 이 역사는 좀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믿는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없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어린양의 진노가 임할 때 이 모든 원한들은 일거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6*장을 정돈해 본다면 온 세상을 말탄 자들이 휘젓고 다니겠지만 이 모든 일은 어린양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박해가 일어나고 경제난에 질병에 죽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앞서간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계시며 결국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어 가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이 네 마리의 말탄 자들이 휘젓고 다니는 세상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말탄 자들의 소행이지만 우리는 그들 너머에 있는 어린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밑에서 그 어린양을 찬양하는 네 생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 어린양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다들 건강해 보이시죠*?* 조금만 자세히 보세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

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저 집은 왜 그렇게 잘 사는지 부럽습니까? 한번 들여다 보세요. 걱정 없고 고민거리 없는 집이 없어요. 애 먹이던 남편이 요즘은 조금 정신이 들었나 싶어서 기뻐했더니 웬걸? 또 아이들이 애를 먹이기 시작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애먹이는 사람이 없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들이 또 어느 이웃이 어떻게 애를 먹일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것은 그들에게서 그걸 보고 용기를 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볼 때마다 어렵고 이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 따져 올라가면 욕 먹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뒤틀린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양이 역사의 키를 잡고 인을 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신 그 분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땅이 참으로 힘들고 아픈 세상이었겠지만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오면 모든 아픔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계시록이 말씀해 줍니다.

이 계시록이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현실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기어코 복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어차피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불합리하고 어려운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 맞은 하나님의 종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개역, 요한계시록 7:1~8]*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상에 엎드려서 총소리가 나면서부터 결승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숨을 몇 번 쉴까요*?* 안 쉰다고요*?* 그렇게 빨리 뛰는데 숨도 안 쉬고 뛰어요*?* 맞습니다. 안 쉽니다. 기껏해야 몇 초죠. 준비하는 시간까지 해서 한 *12, 3*초만에 끝나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숨쉴 겨를이 없습니다. 숨을 딱 멈춘 채 끝까지 가 버립니다. 그렇게 뛰면서 뒤나 옆은 몇 번이나 돌아 봅니까*?* 뒤나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오직 테이프밖에 없습니다. 숨도 멈춘 채, 좌우를 돌아 볼 생각도 안한 채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돌진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좀 닮아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고 생각이 들면 *200m*선수가 되세요. 숨도 쉬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살펴가면서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힘들면 *400m*선수처럼 뛰어보십시오. 여유가 좀 있습니까*?* 그것도 힘들면 *1000m*도 좋고 *1500m*도 좋지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앞만 보고 가야지 이것저것 많이 살피면 꼭 사고 납니다. 간혹 어떤 분이 어디를 갖다 왔는데 '거기 가다보면 어디 이런 것 있잖아*?*' 하고 묻는 분이 더러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은 경치 볼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앞만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옆에 볼 게 많이 있습니다. 흘깃흘깃 보면서 지나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옆으로 눈길을 조금만 돌리면 보아야 할 것, 관심 써야 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 걱정이 참 많습니다.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잘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잘 안됩니다. 참 어려운 때인 것이 맞습니다. *6*장에서 본 대로 밀과 보리는 가격이 폭등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과는 별 관계없는, 부자들의 기호식품으로나 쓸만한 고급 식품들은 그리 안 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걱정됩니다.

저는 교육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어쩌겠어요*?* 교회일도 알면 알수록 머리가 아픕니다. 교단들이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들리지만 걱정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염려하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는 틀림없지만 너무 자세히 들여다 보고 걱정하지 마십시다. 차창 밖의 풍경은 대충 보고 지나가고, 또 못 보았다고 너무 애달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합니다. 이틀 후는 아니지요*?* *6*장의 인을 떼는 장면을 본 후에 요한이 다른 장면을 목격합니다. *6*장은 이 땅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반면에 *8*장은 이 세상에 쏟아지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장은 네 마리의 말을 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8*장에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7*장이 바로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7*장을 유심히 보시면 세상에는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겠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 뒤에 보시면 땅 사방으로 불 바람이 등장합니다. 사방에 부는 바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불어닥칠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6*장에서도 말탄 자들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7*장에서는 사방으로 불어대는 바람으로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후일에 되어질 이야기라고 하는데 왜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망라하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임산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 때부터 힘든 일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어느 시기에 더 힘든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아주 몸이 안 좋으면 몇 달 동안을 가만히 누워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어려울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고통의 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이 된 이후에 이런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징계 하에 있는 이 땅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수술이 필요한 아들이 주사를 아무리 안 맞겠다 해도 맞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턱 근처가 찢어져서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얼마나 설쳐 대는지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네 명이 달려 들어서 꼼짝 못하게 해 놓고 의사가 마취도 없이 생살을 꿰매어 버렸습니다. 아파 죽는다고 해도 팔 다리를 꽉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남은 거라고는 입뿐입니다. 고함을 지르다가 안되니까 의사보고 침을 뱉지만 그래도 꿰매야 하지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생살을 기울 때는 기워야 합니다.

오래 전에 병원에 잠시 입원해 있었는데 주사 놓는 간호사가, 정식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 실습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혈관을 잘 못찾는 겁니다. 바늘을 꼭 찌르더니 "아니네?" 하고 뽑아서 그 옆에 다시 찌르는 거예요. 제가 주사 잘 맞는 편인데도 두 세번 하고 나면 몸이 저려옵니다. "아, 오늘 고생 좀 했다" 이러고 말지요. 그 다음날 그 아가씨가 또 오는 거예요. 아무리 주사를 잘 맞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 날 또 두 번, 세 번 찌르다가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어쩌겠어요?

다른 아가씨 오라고 고함을 지를 정도는 아니니 한마디 했죠. "아가씨 이번에 실험 실습비 나오거든 나한테 좀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아무런 대꾸도 안해요. 자기도 미안할텐데 "예, 조금 나눠드리죠 뭐" 이러거나 "차나 한 잔 사지요" 이러면 괜찮을텐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몇 번 찌르다가 갔어요. 그 다음날 제가 또 그랬죠. "아가씨 실험실습비 나오면..." 그러니까 "아저씨 그만해요" 자기가 성을 내더라구요. 나는 본인이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 할까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자기대로 힘드는데 놀리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주사 바늘은 찔러야 합니다. 치료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했더니 *6*장 *12*절에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성도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힘들겠지만 좀 참을 수 없겠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왜 고난이 닥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위대한 것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욥기 1:22)*'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욥은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죠. 욥은 죽은 자식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다 없어진 재물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한꺼번에 죽

었는데,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는데요? 뭘 보고 있습니까?

자식을 주었다가 데려가신 분이, 재물을 있게 했다가 가져가신 그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쳐 오는지 모릅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어 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바람이 임의대로 불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이것을 뒤에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대뜸 생각하는 것이 믿는 우리는 병에 걸리지도 않고 애쓰면 돈도 잘 벌어지고 또 노력하면 승진도 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집 앞에 데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그걸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입니다." 했을 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한 것이 그 당시 정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 기도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안 가질 때가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 선생님을 구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놀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신앙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갇혀서 목베임을 당했죠? 베드로가 또 갇혔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라도 굴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바울의 예를 한번 보세요. 사도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당부했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많이 당부했지만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건강하도록, 다른 이유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부한 것은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예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로마서 8:35)*' 그런 것이 온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는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병들지 아니하고 출세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사고도 안 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사형통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그만큼 우리가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제목이라는 것이 대체로 개인적이고 이 땅에서 고통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저렇게 호강스럽게 하나님을 믿어 뭐가 되겠느냐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께

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땅을 해하는 천사들 마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핍박이나 이 모든 어려움들도 모두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우리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너무나 배부른 신앙이라고 핀잔을 주지 않을까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불 구덩이에 던져 넣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내실거라'고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적이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간 우리 선조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이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는 상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상급이 *16*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주리고 목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찌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해나 그 뜨거움에 몸이 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 혹은 이 땅의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등지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라는 것이죠.

이렇게 쏟아지는 재앙 가운데서도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생각은 요한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예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출애굽 하기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두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렸지만 세 번째부터는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리는데도 고센 땅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의 피바른 문지방 안에 있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이 먹통을 차고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고통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힘들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로 표시합니다. 바로 그 뒤를 죽음의 천사가 따라가면서 먹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려 놓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으로 찍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뒤에 유명한 십사만 사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십사만 사천이라는 말씀이 요즘은 조용합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쯤에 이 말이 공갈치는데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사이비들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십사만사천 안에 들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지파별로

만이천명씩 합쳐서 십사만 사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하게 다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 지파별로 만이천입니까?

성경에 *12*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시록을 받아 보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열두 지파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전달 될 그 때에 계시록을 받아 읽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할 때 열 지파는 지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파가 없는 겁니다. 다 잡혀가고 남은 사람은 그 지방에 새로 이주당한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서 무슨 지파인지 모릅니다. 열 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때 지파 개념은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열두지파가 또 나오느냐 말입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열두지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단 사이비처럼 "오늘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 않으면 십사만사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자기들이 등장하기까지 계시록이 주어졌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십사만 사천은 믿는 성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열두 지파는 구약이 말하는 열두 지파와 좀 다릅니다. 이 열두 지파를 구약과 비교해 보면 단 지파가 빠지고 없습니다. 구약에 가끔 요셉 지파라는 말이 등장하긴 합니다마는 정식 지파 명칭은 아닙니다. 요셉 지파는 열두 지파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정상이죠. 요셉 지파라고 말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대신 요셉 지파라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는데 므낫세 지파라는 말이 들어오면 중복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상합니다. 혈육을 통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영적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표현으로 만이천에 만이천, 그래서 십사만 사천이란 표현을 쓰신 겁니다. 이게 만약 실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면 지파별로 숫자가 꼭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파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 어떤 지파는 작아요. 심지어 절반도 안되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고르게 만이천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상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일찍 예수 믿은 사람들은 십사만 사천에 들고 늦게 믿은 사람은 "우리는 혹시 자리 없는 게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리를 늘려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이 장면에서 어떤 내용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장면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은 십사만 사천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십사만 사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있는 천사입니다. 아니 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천사의 손에 들려 있는 인입니다. 아니면 이마에 인을 잘 그린 내 모습을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사만 사천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끼여 있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진 내 모습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가들이 참 무섭습니다. 어느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릴 때에 동양화같이 풍경이 잘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 두루미인지 학인지 새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객기가 동해서 한마디 했지요. "저기 학이 몇 마리인지 아세요?" "글쎄요, 쉰 마리나 될까?" "저거요? 틀림없이 백 마리입니다." "그래요?" "세어보나 마나 백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모일 때마다 그거 헤아리는 게 재미였습니다. 구십팔도 나오고, 구십구도 나오고, 백세 마리도 나왔는데 백 마리는 안 나왔어요, 전 한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화가들이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으면, 풍성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백 마리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백 마리를 그립니다. 두

마리가 나란히 날아가는데 언뜻 보면 한 마리인데 자세히 보아야 두 마리인 것을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슴프레하게라도 숫자를 채웁니다. 전 화가들의 그런 성깔을 알기 때문에 안 헤아려 보고도 백 마리일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투로 한마디 했는데 좌우간 구역예배 모일 때마다 심심하면 헤아려요.

어떤 화가가 이 본문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십사만 사천의 숫자를 헤아려서 채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물게 잘 그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거 십사만 사천이 뭐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께는 인박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화가는 성깔이 있어서 악착같이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입니다.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다른 교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너희 교회는 교인 몇 명? 올해 목표가 얼마?" 우리도 목표가 커야 할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너 하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단체로 "너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고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교인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 맞은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점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재앙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6*장에서 말을 잠시 끊고 그 속에 '내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리라'는 얘기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 땅에 부는 사방의 바람은 박해도 되고 가난도 되고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는 이 어려운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입니다. 흘깃보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내 몸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인, 이게 뭡니까? 내 몸에 묻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분의 그 희생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눈여겨 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불어대는 바람에 너무 눈 돌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의 모습,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의 희생,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수들이 뛰어가듯이, 운전하는 사람이 앞만 보고 운전해야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구경하는 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걱정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고난의 바람, 곤고의 바람, 걱정의 바람이 불테면 얼마든지 불어라. 아무리 그 바람이 거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어려움에 묻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개역, 이사야 11:10~16]*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절은 북 이스라엘은 거의 망해가고 남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무서운 징계가 예상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조만간 참혹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사야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 버렸으니 이사야는 북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유다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튼튼하게 보전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 앗수르 쪽으로 기울어질 거냐 애굽으로 갈 거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이사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그렇게 외쳤어도 유다는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들의 이름이 구약성경에서 제일 긴 마헬살랄하스바스 입니다. 그 이름 뜻이 '노략이 속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곧 외적이 침략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략을 당할 것이다, 이게 자기 아들 이름입니다. 이 아이 손을 잡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유다가 침략을 당해서 노략을 당할 거라'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사야가 서 있습니다. 이사야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입니다. 이 둘이 손 잡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셈이지만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에 켜임을 당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이 말이 이사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악독한 므낫세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전해 온답니다. 이사야가 이 어려운 시대에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과연 이사야는 무슨 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을까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참담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날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고통에 울부짖으며 죽었을까요, 기쁘게 죽었을까요*?*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는 그 기쁨이 머리가 깨지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넘어서지 않았을까요*?* 마치 마약을 맞은 사람처럼 아픔을 모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더 큰 기쁨이 눈에 보이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마약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번 빠져들면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혹시라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먼 데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이면 그걸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사야 앞 부분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그림이 겹쳐져 있는 듯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핵심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앞으로 징계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두 개의 그림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 뒤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의 회복이 겹쳐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장의 사진에 두 개의 그림이 겹쳐진 사진을 본 적 있습니까? 수동카메라는 조작을 잘하면 필름 한 장을 가지고 두 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특이한 사진이 나옵니다. 이 본문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다른 메시지도 늘 두 가지를 겹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훗날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또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회복이 구별이 잘 안돼요. 우리는 이 두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시기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분간이 되는데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둘 다 훗날의 것이기에 겹쳐져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디서 위로를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소망을 겁니다. *10*절을 보십시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박성빈 씨의 손녀딸이 고민이 많은 모양이던데 박성빈 씨의 손녀딸이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박성빈 씨의 아들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새가 유명합니까, 다윗이 유명합니까? '앞으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야가 오실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다윗을 놔두고 이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박근혜 씨를 가리켜 굳이 박성빈 씨의 손녀딸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는 쉬운 말이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왜 하필 이새라고 했냐? 다윗이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

우리교회 어느 집사님이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안 다니실 때에 어느 믿는 집에 갔더니 애 이름이 '사라'더랍니다. 애 이름이 왜 사라야? 무얼 생각하고 웃었는지 압니까? 속으로 수육 한 사라, 회 한 사라를 생각하고 있었으니 왜 애 이름이 사라인지 물어볼 순 없죠. 나중에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다보니 "아 그런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사라네" 늦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이새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이러면 "이 사이에 뭐가 끼였나?" 이런 소리가 나올지 모르죠.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야를 왜 하필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으로 묘사했을까요? 싹이라는 것은 연약한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야는 그렇게 화려한 메시야가 아닐 것이라는 얘깁니다. 이 땅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태몽을 이야기해서라도 큰 모습으로 과장을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어 등장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창하게 등장합니까?

박성빈 씨 아들이 데뷔할 때도 새까만 안경 딱 쓰고 무게를 얼마나 잡고 나타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메시야는 그렇게 무게잡고 폼잡고 위엄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작은 싹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도 주목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연약한 싹에게로 열방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일 것도 같습니다마는 유심히 살펴보면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 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작은 싹, 그 분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야가 그렇게 화려하고 위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화려하고 남에게 드러나는 자세로 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난 지고는 못 산다' 어떤 점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 좀 죽고, 자랑할 것도 포기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자랑하지 않고는 못살겠다 이런 정도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고향집에 돌아갈 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사는 것 봐라 그러고 싶으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몰고 고향 가는 것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못사는 게 좋은 차 뽑았는데 내가 기가 죽어서 못살겠다, 그래서 새 차 빼지는 말라는 겁니다. 좋은 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차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었는지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이것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좋은 건물을 가지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야가 그렇게 화려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야지만 이 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에서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현실은 참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 메시지의 첫 번 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을 봅시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지명이 많이 있어서 읽기가 다소 어려울 겁니다. 유다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큰 일이 난다'고 했지만 실제로 포로로 잡혀서 흩어지기까지는 아직도 백 몇 십 년이 지나야 생길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포로로 잡혀 갔습니까? 요약하면 두 군데입니다. 앗수르와 애굽입니다. 당시 강대국은 앗수르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드로스와 구스는 애굽의 속국이고 엘람과 시날과 하맛은 앗수르의 속국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바다 섬들과 지중해 섬들은 그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렇게 흩어질 것이지만 흩어진 곳에서 전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여전히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 갔지만 실제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백성도 많이 있었지만 잡혀간 그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흩어져서 돌아오지 아니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예언은 여전히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야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과 이 땅에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지파 중에서

시비를 잘 걸고 싸움을 잘 했던 지파였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 때 '누구 덕에 살았느냐?' 이러면 어깨에 힘 줄 지파가 둘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우리 아버지 덕분에 너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른 지파들과 자주 싸움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갈라질 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력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과 경쟁을 하지요. 38선을 막아놓고 북쪽에 있는 동포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은 것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것은 비슷합니다. '이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난 뭐야?' 그래서 왕래를 못하게 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쪽 이스라엘에 대한 투기입니다.

한 때 북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북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그렇게 유린해 버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다 왕을 갈아치워 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알력을 겪었던 것도 에브라임의 투기라는 말씀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깨끗이 사라지고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노래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흑백이 하나가 되고,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고, 사장과 종업원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신분의 장벽을 깨기란 불가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흑백이 평등합니까? 노예해방이 되었다고 외친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지금 완전히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신분 차이가 없지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양반 상놈 이런 구분은 없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격차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해서 물려줍니다. 돈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끼여 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구분이 점점 더 확연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70년대에 친구집에 놀러 갔더니 자기 평생에 먹어 보지 못한, 구경도 못한 누가바를 그 집 개가 먹고 있더랍니다. 돈 없어서 못 먹던 누가바였습니다. 그걸 개가 먹는 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아 같은 가방메고 같은 학교 다니지만 쟤는 나하고 다른 인종이구나!"라는 걸 그 때 알았답니다. 이런 경제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들에게 갖다 바쳐요. 가난한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부자들 배부르게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안에서는 이런 구조를 깰 수가 없습니다. 깰 수 있는 방법은 부자들이 스스로 주머니를 털지 않는한 어렵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끼리끼리 도울려고 애를 쓰지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주머니 털지 않습니다.

여러분, IMF 때 금 모으기 아시죠? 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마는 덩어리 금은 안 나왔습니다. 잔잔한 금은 있는대로 다 나왔습니다. 부자들이 숨겨놓은 금은 안 나옵니다. 아무리 흑백이 하나가 되고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나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형제 사이에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형제 사이를 구별하는 일들은 우리 속에서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 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족속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메시야를 보내줄 것이다, 포로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

서 이사야는 현실의 참담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뭘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해고는 바다의 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해고는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유브라데 강을 쳐서 일곱 갈래로 만들어 버린다네요. 그러면 신 신고 건넌대요. 신 신고 건너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거나 다리를 놓고 건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 바닥이 쫙 갈라져서 지나가거나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홍해를 말려버리고 유브라데 강을 신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다시 손을 폈다는 얘기는 언젠가 손을 폈다는 얘기죠*?* 홍해를 가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펴사 홍해도 말려버리고 유브라데스 강도 말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돌아오기 편하게 하나를 더 준비하십니다. *16*절 제일 끝에 보면, **'대로가 있게 하시되'** 강을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고속도로를 하나 닦아 놓겠다는 겁니다. 그 위로 백성들이 떼지어서 줄지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누렸던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라서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영화는 쳐다보면서 와 하시죠*?*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영화에서 홍해 갈라지는 장면을 보고 와 하시던 여러분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의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바다를 건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그 날에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날에' 하면 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이 그대로 연상이 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손을 펴사 홍해와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버리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사야가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감격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누렸던 그 감격보다 훨씬 더 큰 감격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만 말려버리셨지만 지금은 유브라테스 저 큰 강까지 다 말려버리시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대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있을 제*2*의 출애굽, 더 크게 확장된 출애굽,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된 출애굽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임을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현실은 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나야 잘 먹고 잘 살지만 내 형제를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끝내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만 그 현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희망에 사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험악한 소리를 내 뱉었습니까*?*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야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가 외쳤던 메시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왕도 듣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긴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란 말입니까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뭐 이사야쯤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겠지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루실 그 구원,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마음 속에 그리며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현실보다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본 것은 날아오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깨지고 터져나가는 자신을 본 게 아닙니다. 저 높은 하늘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서신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난 모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사야에게는 긴 말이 필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 '그 날' 이 말 한마디면 다 되었을 것 같아요. 너무 짧으면 한마디 더 붙입시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고 누렸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감격의 때가 그 날에 있을 것임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의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들이 묻거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개역, 신명기 6:16~25]*

이제 막 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꼬마가 아빠와 함께 청도에 갔다가 오면서 묻더랍니다. *"*아빠, 도소가 뭐야*?"*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은 앞뒤로 여러 글자가 있는데 얘 눈에는 자기가 아는 것만 보여서 그렇게 읽은 겁니다. 앞뒤로 몇 글자 보충해 보세요. '청 도 소 싸 움'이란 현수막이 있었는데 걔가 아는 글자만 읽은 겁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어른들을 즐겁게 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차츰 아이들의 질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러고 말아요*?* 어느 집사님 모양으로 대답하기 어려우면 *"*강도사님한테 물어봐라*"*해서 미루기도 하구요*?*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때로는 아이들로부터 기가 막히는 질문을 받고 우리 아이가 천재 아닐까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질문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안의 형편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집에는 왜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집에는 다 있던데*?"* 이런 질문은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애들은 학원 한 군데만 가는데 나는 도대체 몇 군데나 가야 하는 거야*?"* 이러면 극성스런 엄마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도 하지요. 우리 집 애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애들은 대이동에 무슨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더라*!"* 아마 친구들이 외식을 많이 다니는 모양입니다. 전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그건 자기 집 음식 맛이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야. 우리 집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어*?"*

아이들의 이런 질문이야 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신앙적인 질문이 꼭 나와야 합니다. 부모는,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애들은 다 해도 되는데 왜 나만 안돼*?"*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신앙교육을 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질문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행하는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본문 *20*절을 보세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네 아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주라고 친절하게 답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이 물을만한 일을 하게 하셨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대답을 해야 합니까*?*

*21*절의 **'너는 네 아들에게'**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곧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

앙교육을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부모가 해야 합니다*!* 덜 중요한 과목은 다른 이에게 맡겨도 진짜 중요한 과목은 부모가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두고 잊어버려도 됩니까*?* 곤란합니다. 우리네 학교가 진학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만 벌이는 통에 진짜 중요한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린지 오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안다면 부모가 해야 합니다.

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생 본인이 중요합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니오, 부모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압니까*?* 자녀들이 압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교육이 중요하다면 아이가 어릴 때 외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제일 나을지도 모릅니다. 열 두세 살이 넘으면 여러 언어를 자동으로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음악이나 체육의 대가 중에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극성스런 부모가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 각자 *2*과목씩 학원 다니면서 배워서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학원 다니는 시간을 벌려고 그랬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모라면 그럴 만도 하지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부모가 가르치든지 이끌든지 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못하면 간접으로라도 해서 부모의 의사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의 영향이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인성 교육보다는 지식 전달이나 진학지도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선택권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가능하다면 어느 학교에 보내서 어떤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지 부모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학원에 보내도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이라도 보고 부모가 결정해야 합니다.

2.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21=25)*

1)*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가르치라*: *21*절에,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생하던 시절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과거 고생하던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면 거저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살기 어렵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깨어지는 가정도 많은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견디지 못합니까*?*

점심을 한자로 쓸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것이 곧 점심*(*點心*)*입니다. 그러면 아침은 한자로 쓸 수 있습니까*?* 저녁은요*?* 아침, 저녁은 한자로 쓸 수 없습니다. 순우리말이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순우리말로 뭐라고 하지요*?* 없습니다. 왜 아침, 저녁은 순우리말인데 점심은 아닐까요*?* 우리 조상들에게는 점심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단어가 없었다는 것은 점심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루에 두 끼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간격이 너무 기니까 점이라도 하나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점심이란 게 생긴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30*년 됐을까요*?* 우리 나라 역사가 반만년이면 *4970*년 동안 하루 세끼를 제대로 못 먹다가 이제 겨우 먹는 걱정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살 수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잔소리' 내지는 '또 그 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말을 한풀이나 아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아껴 두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2)*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가르치라*: *22, 23*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합니다.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애굽 전역에 온갖 재앙이 떨어질 때 우리 조상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서

는 개가 혀도 놀리지 않고 있었단다' '특히 애굽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났단다'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군대 이야기를 잘 하지요? 참전 용사의 무용담이라면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신나기 마련입니다. 군대갔다온 이야기는 하도 뻥이 심해서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월남전 이야기를 좀 하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조금 아는 척 하면서 얘기를 먼저 꺼내 보세요. 발동이 걸리면 얼마나 열심히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겨우 3년 다녀온 군대 얘기는 그렇게 열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들려주어야 합니다. 정말 없으면 아이들이 더 자라기 전에 빨리 만드세요.

3)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24절 중간에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로 뒤의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라.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스럽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일요일이라고 등산도 가고 극장도 가는데 우리는 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만 살아요?" 아이들이 이런 류의 질문을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개인적인 간증을 들려주던지, 성경말씀을 들려주던지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부모가 자식에게 들려줄 게 없다면 부모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 은표가 언젠가 "아빠 내 이름 뜻이 뭐야?" 하더라구요. 언젠가 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다리던 참인데, '잘 됐다' 싶어서 우리 부부의 과거 얘기를 죽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설명하면서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라고 생각했단다."라고 설명했답니다. 그러자 은영이가 옆에서 "나는?" 하더라구요. "너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우니 좀 더 크거든 설명해줄게" 하고 미뤄뒀습니다. 제 이름은 우리 큰아버지께서 사주팔자와 음양오행설에 입각해서 잘(?) 지어놓은 이름입니다만 전혀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부모의 신앙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 대학 선배 중의 한 분은 성함이 '요섭'인데 군에 갈 때 '마음껏 타락해보고 오리라'고 작심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름 때문에 불가능하더랍니다. 아예 '저 놈은 예수쟁이구나' 하고 소위 타락이 될만한 일에는 끼워주지도 않더랍니다. 이름 뿐만 아니라 매사에 부모의 신앙이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기회가 되면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복된 기회를 주는 것이 될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고집을 부려서 대가가 되고 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 삼남매가 어머니를 위한 연주회를 열었더군요. 감사의 표시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잘 전해지도록 우리 부모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순결한 삶을 살라고 하면 고리타분하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인식을 미리 심어두어야 합니다. 고리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인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부모의 말이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도 불행해지고 부모들도 가슴에 못이 박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성경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일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의 구속사이기도 합니다. "아빠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단다.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단다."는 고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수 십년 믿었지만 고백할 게 없다면 무슨 낙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너무나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재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야 우리 자녀를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붙들고 앉아서 가르치는 것만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된 삶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서 "아빠는 드라마만 열심히 보면서?" 이런 말이 나오면 곤란합니다. 교육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부인이 "아빠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집에서는 저렇게 쉬셔도 돼!"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수긍한다면 집에서 그렇게 지나셔도 됩니다. 열심히 신앙인답게 살고,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 자체가 훌륭한 교육입니다. 아니, 이런 삶이 진짜 훌륭한 교육입니다.

3. 말씀대로 살아야

물으면 그렇게 가르칠 텐데 묻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질문이 나오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뭔가 다르게 사시는구나'라는 것이 보여야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질문은 제외하고, 철이 들면서 우리 부모의 가르침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질문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질문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왜 질문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묻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는 책임의 대부분은 선생님에게 있는 법입니다. 비슷한 이치로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부모가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애들은 다 이런 것 해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부모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뭔가 달라도 달아야 질문이 나옵니다! *16-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당부가 나옵니다.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맛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잠시 물이 떨어지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리로 인도하셨나?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지금까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은 철없는 짓을 한 곳이 맛사, 혹은 다른 말로 므리바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맹세하신 일이라면*(19)*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짓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반드시 협력하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역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일을 맡기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사도행전 9:15)*' 하셨습니다. 이미 훌륭한 사도들도 많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굳이 바울을 선택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럴 만

한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사도행전 9:16)*'

바울이 정말 귀한 사명을 받으면서 그가 본 것은 '많은 해'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여러 조건 중에는 이렇게 '많은 해'를 감당할만 하기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고를 감당했는지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아무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저 준 것이지만 구원 그 이후에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 것인지는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할 건덕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묻게 됩니다. 다른 애들은 다 놀러가도 되는데 왜 나는? 이런 말이 나오면 찬스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왜 달라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설득력이 있으려면 평소에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먼저 아이들로 하여금 묻게 하십시오. "아빠 도소가 뭐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도 글자라고 배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질문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서 적절한 질문이 나올 만큼 표 나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부모가 유도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하나님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입니다. 직접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예배나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면서 후일에 네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꼭 가르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예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개역, 히브리서 6:1~12]*

우리 아들이 고*3*이 되더니 "아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봐주었는데 고*3*은 주일에도 학교 가야 된답니다." 이래요. "이런 문제는 너 스스로 신앙적인 답을 내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 아빠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학교 가려거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아들에게 난 대학 등록금 대줄 마음이 없다."고 했죠. 얘가 다음 주일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담임선생님께 그대로 얘기했답니다. "주일에 제가 학교에 오면 저희 아빠가 등록금을 안 대준대요." "너희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하더랍니다. 효자제일교회 강도사라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랍니다.

아들이 주일에 교회 안 오고 학교 가면 정말 등록금을 안 대겠습니까*?* 안 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빤 한번 한다 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대학이라도 가려면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공갈에 넘어간 겁니까*?* 제 스스로 결정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괜찮더군요. 그 말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나오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만약에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여보, 아 등록금을 안 대주면 어떻게 되느냐*?*"고 달려들면 이것은 애도 버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모양새 구겨지는 겁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들이 이런 엄포를 놓은 때가 더러 있습니다. "공부를 이 따위로 하면 하숙비 못 보낸다." 정말 안 보냅니까*?* 보내야지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본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두고 그와 비슷한 질문을 더러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영원히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히브리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것인데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제목이 히브리서라고 붙은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글이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심해지고 특별히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게 되자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5*장에 오면 멜기세덱을 예로 들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뛰어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5*장 *11*절에서 갑자기 옆으로 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라고 설명하다가 걱정스러워서 옆으로 빠진 것이 *5*장 *1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전부입니다. *7*장부터는 다시 본론으로 이어져서 *13*장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는 *1*장에서 *13*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제사장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옆으로 살짝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벗어난 이야기가, *5*장 *12*절을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말하자면 너희가 아직까지 애기 짓을 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이 책망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애기 짓을 하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거죠. *6*장으로 넘어 오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아직도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죠. 그 초보 수준을 버리고 *2*절 끝에,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어린애 짓 그만하고 자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부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당부하고 당부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집요한 박해를 이겨내고 바로 서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른은 잘 넘어지지 않듯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이런 박해를 이겨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디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는 것은 성숙해지라는 말씀이죠.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나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순응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면 여전히 초보신앙인입니다.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닥쳐오는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완전한 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자신을 낮추어 고난을 이기신 바로 그 분이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자란 연단을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낸 자를 가리킵니다. 먹고 노는 것은 아이들도 잘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하는 게 먹고 노는 것밖에 없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먹고 노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합니다. 그런데 책임질 줄도 알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지 다 커도 먹고 노는 것밖에 모른다면 어른이라고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어요*?*

성질난다고 하고 싶은대로 내뱉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성질이 나지만 참을 줄도 알고 덕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자신을 다스릴 줄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고난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성숙한 데로 나아가라고 당부하죠. '내 없이 일 되나 한번 보자' 가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든 성숙한 데로 자라가라,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준비운동도 하고 물도 조금 끼얹은 후에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운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준비운동만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운동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만 하다가 돌아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초보시절에 배워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것만 계속하면 안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폼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계속 해선 안되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초보에서 벗어나라는 그 초보가 무엇인지 보세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1*절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 입니다.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네요. 지나간 잘못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날마다 회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했으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못된 짓만 하다가 오늘 또..." 회개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비록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 보려고 이런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발 뿐만 아니고 온 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합니다. 베드로다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느니라.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손발을 안 씻을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온 몸을 다 씻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깨끗이 용서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해서 회개를 하지만 그렇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는 건 곤란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인도 아네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도 안됩니다. 언제까지 출발선상에 그대로 있을 겁니까*?* 준비했으면 뛰어가야죠.

성도로서 출발점을 회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신앙과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허구헌날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질문만 하고 앉아 있으면 초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그 본문을 펴 놓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곳에 나타나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질문일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2000*년 전에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줬고 사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 가르쳐 준 것 아니냐*?* 그것도 모르고 교회 몇 년 다녔냐*?*" 이러면 뭐라 하실 거예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마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할 수준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모르겠다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언제까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이번에 대학을 잘 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출세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백 배 낫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때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어 놓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여태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고 책망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례들**'이라고 하지요*?* 구약시대에 히브리인들이 지켰던 여러가지 정결예식, 깨끗하게 씻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성도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내가 틀린 게 뭔데*?*" 이거 좋은 질문 아닙니다. 법에 자꾸 호소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은 이런 규정이나 법을 잘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으며 이웃에게 얼마나 덕을 끼쳤느냐를 생각해야지 어떤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초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나 부활이나 심판**'을 언급합니다. 지금도 부활에 별 관심 없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심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빨리 신앙의 출발점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넘어 갔어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고 책망하는 거죠. 거듭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초보란 말입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곡 면허증이 있다면서요*?* 면허증을 따긴 땄는데 오래 전에 따고서도 지곡 안에서만 뱅뱅 돈다는 거예요. 시내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면허증을 가리켜서 지곡 면허증이라고 하네요. 언제까지 여기만 뺑뺑 돌 겁니까*?* 나가 보면 별 것 아네요. 그게 겁이 나서 집에서 시장, 시장에서 집, 여기만 왔다갔다*?* 언제까지 그럴 거냔 말입니다. 초보 단계를 넘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운전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신앙에서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만 늦으면 안달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빨이 다 났던데 우리 아이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났노*?*" 그게 걱정거리입니까*?* 조금만 있으면 저절로 다 해결될 것인데도 애 키우는 엄마는 그게 걱정이 되나 봐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 나봐야 젖꼭지 물어뜯기만 하지 별 도움이 안돼요. 좀 천천히 나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돌이 지났는데 왜 못 걷노*?*" 너무 걱정 안 해

도 됩니다. 말이 좀 느리다고요*?* 말이 터져 나올 때가 되면 다 터져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될 것을 그렇게 안달하고 걱정하면서 신앙은 언제적 초보에 아직도 초보인데 아무 걱정 없이 태평스러운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네요*?* 예수 믿은 지 오래고 교회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초보생활 하고 있으면*?* 그런 성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 때에 제대로 크지 않는 아이를 보고 속이 터지는 부모 마음 아닐까요*?* 심지어 나이가 서른을 넘어가고 마흔을 넘어가도 장가를 안 가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요, 왜 안 가느냐고 물으니까 장가가서 처자식 먹여 살릴 자신이 없어 안 간답니다. 그게 남의 일이지만 참 답답해요. 부모가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눈에 뜨인 거예요. 답답해지면 말이 좀 거칠어집니다. 이렇게 거칠어진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본문과 뒤에 나오는 본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위대한 대제사장인가*?*' 그 말씀을 하다가 도중에 이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당시 상황이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연약한 자들이 혹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이렇게 과격한 말로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도 때로는 아이들에게 공갈을 칩니다. 때로는 공갈뿐 아니라 협박까지 일삼는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얘기를 하나 하지요. 어떤 아이가 결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침에 애가 안 보이면 다른 애들에게 물어봐요. 대충 수소문 해서 집에 전화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바로 뛰어가서 붙잡아와요. 점심먹고 와도 지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결석이 *60*일을 넘어갑니다. 제 발로 오는 날은 얼마 안되고 엄마 손에 붙들려서 오는 날은 지각으로 처리해도 그 정도니 대단한 아이죠. *"70*일을 넘으면 너 퇴학이다. 자 오늘 *61*일이다.*"* 카운트 다운을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결석을 *69*일이나 하고도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지각 세 번 하면 결석 한번으로 계산해서 결석 일수에 넣는다. 거짓말 입니다. 벌써 *60*일 넘었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법정 수업일보다 열흘 이상 수업을 더 하기 때문에 *73*일까지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결석한다고 제적은 아닙니다. 유급일 뿐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약과예요. *"*너 이런 짓 한 번만 더 하면 나도 더 이상 못 봐 준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재적이다.*"* 그 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재적 안 시켜요. 그러면서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선생님의 그런 노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인간 되겠냐*?"*는 말이나 *"*성숙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겠느냐*?"*는 말이나 비슷하게 들려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이 말썽꾸러기 붙들고 씨름하는 선생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 번 잘못 들어서면 인생을 망치는 거야.*"* 그 말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는 구절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다시는 회개해도 회복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짓 하면 너희 어머니 가슴에 못 박는 짓이야. 너 그러면 안돼*!"* 이런 말과 흡사한 말이 *6*절 중간쯤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만 잘 해 봐라. 너네 아버지가 무슨 소원을 안 들어 주겠느냐*?"*고 합니다. *7*절 끝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텐데 잘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것 같이 들려요.

*7*절에는 **'합당한 채소**'란 말이 나오고 *8*절에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합당한 채소가 나던 곳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은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합당한 채소를 냈고 복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성장하지 않고 초보에 머물러 있다가 복음을 저버리게 되면 바로 아담의 범죄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아마 히브리 기자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 제발 겁 먹고 내 말 가슴에 새겨다오' 이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운동장에서 혼자 가만히 서서 "난 뒤로 가는 건 아니야!" 이러면 말은 맞지요? 뒤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은 다 가고 없는데 혼자 가만히 서 있는 자체가 어쩌면 뒤로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출석해 주면 된다고요? 다른 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며 마음 속에 참 기쁨을 누리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을 때 혼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자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속에서 여전히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험한 말을 했겠습니까? 아주 험한 말입니다. 그래 놓고 본심이 *9*절부터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입니다.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진심은 따로 있다는 속내를 은근슬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장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커갈 때에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성도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조금만 더 자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가 될 텐데 하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는 격려합니다 "여태까지 참 잘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그렇게 잘 하리라고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간혹 몇 명을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대놓고 좀 험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모범생처럼 잘 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5*장 뒷부분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두 가지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한 쪽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는 반면에 *6*장 *9*절에서 *6*장 끝까지는 구원이 확실한 것이라고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보증까지 한 것이니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단순한 약속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덧붙여 놓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배교에 처할 위험에 있는 것 같아서 경고 삼아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직접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행간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숲에 가서 오줌 누면 뱀이 오줌 줄기를 타고 뱃속에 알을 깐다'는 말을 할머니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숲에서 놀다가도 소변이 마려우면 일단 집으로 쫓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뱀이 어떻게 사람의 뱃속에다가 알을 까?' 이거 말도 안된다. 다 큰 뒤에야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너무 오래 속았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 누군지는 모르겠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죠?

어쨌거나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숲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지 않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위험 때문에 낮이건 밤이건 숲에 들어가면 함부로 바지 내리면 안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별로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마세요. "너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학교 가서 공부하면 등록금 안 대준다." 이러는데 옆에서 "아이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이러면 뭐가 안 되는 집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절만 딱 잘라내서 "하나님께

서 인친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라야 될 성도가 미적거리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도전을 주는 거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상,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가끔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게으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태와 미성숙의 도구로 삼는 이런 사람에게는 히브리 기자가 책망하듯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도무지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나?" 이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멋진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특별하게 이상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책망의 말씀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더 든다면 "학비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어떤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집안 걱정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천하태평인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가 학비를 다 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겐 조금 험하긴 하지만 "그 따위로 하려면 학교 때려치우라."고 공갈을 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부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겠다 싶은, 걱정 되는 아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 이상한 놈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몇몇 아이들을 붙들고 "야, 이래서 되겠냐?" 이러고 있는데 옆에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쟤들 때문에 참 고생이 많구나. 쟤들 바르게 가르치려고 힘들어 하시는구나. 우리라도 좀 도와 드리자." 그래서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그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몇몇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해 가면서까지 격려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함부로 쓸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다시 신앙을 버리고 타락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보아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전체 줄거리가 그러한데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왜 히브리 기자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히브리 기자가 가졌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란 말입니까?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개역, 여호수아 5:1~6]*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고민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제대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고민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당연히 늘어나지요. 우리교회 목사님께서 손자를 얻었는데요 이 손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외손자라서 가끔 옵니다. 제가 물어볼 때는 "목사님, 어르신네 오셨습니까?" 해요. 가장 큰 어른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른께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참에 장로님 한 분이 손자를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짓궂게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 손자 안는 맛이 어떻습니까?" "안아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이 손자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못 차려요. 손자가 태어나고 그 손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랍니다.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조금 잘못되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남이 알지 못하는 큰 행복이 생겨납니다. 반면에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울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여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가 앞으로 엄청난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그가 쓴 글에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바울의 답변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못지 않은 고민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고민이나 걱정거리들은 대체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화를 북돋우기도 합니다. 참으면 안으로 터져서 고질병으로 번지는, 우리를 죽이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고민들이 사라지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동시에 말 못할 고민이 따라옵니다. 이게 어떤 고민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고민입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살리는 고민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민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고대에 강이 무슨 역할을 했나요? 가령 어떤 분이 '낙동강을 사수하라'는 책을 썼다면 보나마나 *6.25*전쟁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소장, 한강을 건너다' 신문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5.16* 혁명 얘깁니다. 한강을 건넜다는 것은 쿠데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성계 장군이 압록강을 건너가면 명나라와

전쟁입니다. 그런데 건너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화도회군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왔으면 끝났습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 돌아오면 혁명입니다. 고대의 강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 일곱 족속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강 건너 여러 족속들이 1절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인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적의 코 앞입니다. 할례는 요즘 아이들의 포경수술이나 마찬가지니까 간단한 문제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 모레 시험치는 아이에게 당장 급해보이지도 않는 수술을 굳이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적이 눈 앞에 있는데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수술 도구가 좋고 약이 좋아도 며칠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수술 도구가 부싯돌입니다. 무슨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꿰맬 도구가 있었겠어요? 대상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전원입니다. 두 사람만 빼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남자들은 그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고대의 할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남자들이 전부 할례받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야곱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할례하고 드러누워 있으면 겨우 두 사람이 쳐들어가도 다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험이 따르는데 남자들은 전부 할례을 받고 드러누우라는 겁니다. 적이 바로 저 건너편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하면 "하나님 우리더러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소리 안 했겠어요? 그걸 기꺼이 순종한단 말입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강 건너기 전에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수술하고 깨끗하게 나아서 강을 건너 와도 될텐데 하필이면? "하나님, 무슨 고약한 심사로 강을 건너서, 적이 바로 눈 앞에 있는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항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기게 하는 건 나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이기고 지는 것에 신경 쓸 게 아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갈 만큼 성결한지 않은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된 표를 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결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거하게 될 땅이면서 또한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할례를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례 받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 받았느냐는 것이죠! 형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깨끗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참으로 신앙이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할례를 행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다 받았다, 그런데 우린 왜 못 받았느냐? 광야를 계속 행진하느라 못 받았다. 그럼 할례 받았던 그 조상들은 어디 갔느냐? 다 죽었습니다. 왜요?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

었다. 그리고 그 때 어렸던 우리만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다. 여기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죽은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는 꼴이 될 것 아니냔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으며 무슨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죽으란 말입니까?"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고 다 드러누웠습니다. 아마 솜씨도 없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적어도 열흘이나 또 그 중에는 부작용이 생겨서 곪아 터진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스무날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전부 드러누웠습니다.

이 때 건너편 여리고에서 정신 나간 녀석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전부 두려워 떨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신없는 놈들이 있잖아요? 이런 녀석이 이스라엘 진에 살짜기 와 봤더니 "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서 그 소식이 여리고에 전해지면 이스라엘은 몰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과연 내 백성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고, "네가 나를 믿느냐?" 여기에 온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오늘 우리의 관심이 주로 돈 벌어야 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는 데에 쏠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우린 다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쪽으로 가 있으면 '죽으란 말입니까?'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참으로 어려울 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죠? 안의숙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본은 에스더의 말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는데 안 죽었습니다. 온 민족을 살려 냈습니다.

에스더도 이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누구에게서 빌려왔을까요? 이 말이 야곱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은 잔머리를 얼마나 굴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예요. 보험들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겠다고 움켜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또 일찍 죽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생각에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습니다. 이 아들만은 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참 짓궂게도 그 아들마저 내 놓으라고 하십니다.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음에 가서 다시 곡식을 사 오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건 말도 안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름다웠던 부인 일찍 잃어버렸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사자에게 찢겨 죽었는지 짐승에게 찢겨 죽어버렸지요? 그런데 하나 남은 베냐민마저 또 내 놓으라고 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창세기 42:36-37)***'** 그래서 보냅니까? 르우벤이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거든 내 아들을 죽이세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냈습니까? 안돼, 못 보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은 보낼 수 없다.

모두가 굶어죽을 판이었습니다. 맏이 르우벤의 말이 도무지 먹혀들지 않으니 유다가 아버지를 다시 설득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나서서 "정말 우리더러 죽으란 말입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드니 도리가 없잖아요? 야곱이 이 때 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창세기 43:14)***'**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와 **'죽으면 죽으리라'** 어느 것이 더 큰 고통입니까? 잃으면 잃으리라? 자식

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식을 죽음으로 내 모는 것과 자기가 죽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고통입니까? 틀림없이 자식입니다. '잃으면 잃으리라'는 말은 표현을 바꾸면 '자식이 죽게 되면 죽게 하리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놓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켜잡고 있던 베냐민을 보냈더니 돌아온 답변이 뭡니까?

잃어버릴 것이라고 포기하고 보냈던 베냐민이 멀쩡하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다 돌아옵니다. 거기에 보너스까지 따라옵니다. 죽었다고 20년동안 울며불며 고통스러워 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습니까? 온세상을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다 죽어가던 야곱이 벌떡 일어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다니 족하도다 내 빨리 가서 그를 만나 보리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17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 잃게 되면 잃으리라 하고 놓았더니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죠! "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셨구나!" 하는 걸 그 때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더러 죽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죽지 않으니 그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은혜를 받은 말이 뭐냐 하면 "강도사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야 죽을 뻔했는지 모르지만 전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구요. 이 어설픈 강도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살려고 했다가 죽을 뻔했다니요? 참 감동이 되어요. 그 때는 분명히 죽을 뻔했지만 그로 인해 그 분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들어야 하는데 그걸 안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구요.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뻔했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셨다는 얘기가 따라옵니다. 이것을 찬송가가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맘이 조려서 못 가네' 왜 못 갑니까?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때문에 바다에 못 들어 가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파도도 없어요. 찰싹거리는 파도만 지나가면 그 뒤에는 놀기 좋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곳이 펼쳐져 있는데 왜 못갑니까? 찰싹거리는 파도 때문에 겁을 내는 거죠. 죽을까 싶어서 발발 떨고 있으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놀라운 명령, 바로 적의 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기꺼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원이 드러누워서 열흘이나 스무날이나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여리고에 가셔서 기둥뿌리 다 빼놓고 오는 겁니다.

돈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어떤 분들은 여리고성이 고함질러서 무너졌대요. 고함을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심지어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 바퀴 쭉 돌고가니까 "아, 그자식들 이상하네 그런다고 뭐 될 것 같냐?" 그 다음날 또 돌아요. 아 그 다음날 또 도네. 차츰차츰 호기심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마다 성 위에 올라갔다네요. 마지막 날은 한 바퀴가 아니고 일곱 바퀴를 돕니다. 자꾸 도니까 "희한하네." 하고 다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함을 질러 버리니 놀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신학자 이야기입니다. 참 잘 놀고 계십니다.

소리 지른다고 그 튼튼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성벽 위를 마차가 다녔다는데 그게 무너집니까? 누가 무너뜨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워 있을 그 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기둥을 하나씩 하나씩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고함을 질렀을 때 마치 그 고함소리로 무너지는 것처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세 번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세 번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새로운 대장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 장군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를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해야 할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많이 갔다 주고 작전 지도를 주셨으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겁을 안 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죠.

전쟁하러 가야 하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면 전쟁 준비는 언제합니까*?* 장군이 고민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한다면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하기로 한다면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맨 정신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수많은 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거기서 한 *32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심산과 세겜산에 온 백성을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기서 부흥회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너희가 오늘날 이 말씀 앞에 맹세하고 선택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부흥회 아닙니까*?*

사방에 점령해야 할 적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가운데서 싸울 생각 안하고 부흥회 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죠.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 오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해가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거기 머물러라." 하니까 태양과 달이 제 자리에 서 버렸습니다. 해와 달이 중천에 떠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 우박, 참 신기한 우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적만 골라가며 때리는 우박입니다. 그 전쟁의 결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베푸십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순종 그리고 놀라운 기적,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가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지요.

하나님을 믿고 살기는 사는데 기쁨도 행복도 별로 없어요. 직장가고 사회에 나가면 예수쟁이라고 치입니다. 못할 것도 너무 많아요. 교회오면 예배는 지겨워 빠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예수쟁이라고 못하고 들어오면 별 낙도 없고 이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가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할려고 하는데 별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요*?* 참 염치없는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자기가 할 일은 안 하는 이런 사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구절은 잘라 먹어요. 대신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해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고 하시는데 왜 그 구절은 잘라 먹습니까*?* 순종도 없고 기적도 없으면 우리는 가련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안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부르짖으면 참 염치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칼을 들고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칼을 들고 덤벼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죽으라고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까보다는 어떻게 죽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 죽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질 죽이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고 체면 죽이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는 연습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더라는 책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늘 외적에게 침입을 당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렇게 구해주셨더라, 구해주면 오래 갑니까? 조금 살만하면 또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또 징계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미성년자가 읽어서는 곤란한 이야기들이 몇 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읽히지 마세요. 성경 열심히 읽는 아이 있거든 사사기를 건너뛰어라고 가르치십시오. 나쁜 얘기도 읽으면서 아 난 이래서 안되겠구나 하고 배울 수 있는 아이면 읽혀도 되겠습니다마는 안 좋고 불쌍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사기가 왜 그런 책입니까?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는 구절이 앞 뒤에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라는 것은 제멋대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뜻은 다 접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멋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면 사사기꼴이 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멋진 삶을 산다. 이 두 책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그 뒤에 어떤 복이 올런지요?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마지막까지 움켜 잡았던 베냐민을 놓았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잘 죽기 위해서는 참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내가 참지."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먼저 믿는 내가 참지." 이건 언제 쓰는 말입니까? 안 믿는 신랑을 온갖 감언이설로 교회 데리고 나왔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까? 날마다 생기죠. 그럴 때 쓰는 말이 뭡니까? "먼저 믿은 내가 참지."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신랑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아는 내가 참지, 언제요? 처음부터 안다는 것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누가 답답합니까? "너 가만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갈건데 너 위해서 지금 나오라는 거야." 누가 답답한 겁니까? 답답하기는 지가 답답해야 하는데 아는 내가 참을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서 사람 속을 긁어놓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내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참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쌓이고 병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삽니다. 내 이웃이 삽니다. 이런 말도 좀 씁시다. "잘 믿는 내가 참지." 교회 안에서 일이 좀 어렵게 되어가더라도 잘 믿는 여러분이 참으세요. 이렇게 참는 것이 곧 죽는 연습이고 그것이 곧 말씀대로 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줄지는 겪어본 뒤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해야 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도 계속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주일날 고*3*학생이 예배드리러 갈 때 흔히 듣는 말이 뭡니까? "교회는 대학간 다음에 다녀도 되잖아." 맞지요? 공부해야 되나? 예배가야 되나? 진급하려면 상사 눈에도 들어

야 하니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것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옆으로 셀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좋은 대학 가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급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떼돈 벌 찬스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런 고민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에서 순종하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순종은 어렵겠지만 한번이라도 순종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일에 살금살금 재미가 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 할례를 꼭 한번만 해야 됩니까*?* 또 한번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튼튼한 성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한번 더 하면 안될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을 다 하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할 수 없고 또 사회 형편이 주변 환경이 도저히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느껴질 때 과감하게 이 말씀대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설프게 고함을 질러도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놓겠습니다*!"* 하고 놓으면 죽었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다 죽어가던 내가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 정말 나 죽으란 말입니까*?"* 하고 죽어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으니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개역, 열왕기상 8:27~32]*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는 말이 결정적으로 돌에 맞는 원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돌에 맞기 전에 설교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도저히 살려 놓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행한 긴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전을 가리켜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놈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실질적으로 성전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할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죄로 삼는다면 솔로몬이 성전모독의 원조입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참으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근사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기 거할 분이 아님을 제가 압니다'는 고백이죠.

사실은 스데반이 이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놓고 여기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직전에 해 놓은 일이 성전건축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다 건축해 놓은 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참 길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가 아닐까요?

혹시 우리 백성이 훗날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여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길게 반복합니다. 참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에서 회막을 건축하게 한 이래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법궤는 제대로 거할 곳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적군의 손에 넘어가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아다니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도 저 산중 깊은 곳 뒷골방에 처박혀서 수십 년이 지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고 근 *400*여년을 지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는 중에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대충 길이가 *30m*정도고 폭이 *10m*정도에 높이가 *15m*정도 되는 건축물입니다. 크지는 않지요? 여기는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기껏해야 *1*년에 한번, 성소는 제사장이 향을 피우거나 떡을 갈아놓으려고 들어오는 것 외에는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90*평정도 되는 공간이 작은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이 방은 사방 천지가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석조건물입니다. 석조건물

안을 백향목으로 잘 치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금이 얼마쯤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역대하 *3*장 *8*절에 보면 정금 *600*달란트가 쓰였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약 *32Kg*를 넘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자그마치 *20*톤이 나옵니다. 순금이 *20*톤이나 들어간 황금의 집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물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바깥에서 보면 석조건물입니다. 내부를 들여다 보면 천정, 바닥 할 것 없이 전부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솔로몬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옛날 성전에 있던 곳에는 황금 돔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황금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왜 황금 돔 사원이라고 부르나요? 밖에서 보았을 때 돔이 누런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구리겠지요. 그래도 황금 돔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짓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느라고 바깥에 금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건물은 외부치장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바깥은 석조건물인데 내부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내부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보면 별 것 아닌데 들어가 보았더니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더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떨어져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냄새나고 허물이 많은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떨어져서 볼 때 "아! 사람 괜찮아 보이네,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더 멋지네!" 이런 감탄사가 나올 수 있을만큼 삽시다. 교회 안에도 사람 사는 냄새가 다 나더라?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설령 냄새가 안 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만은 어떻게든지 참을 걸 참고 바깥에서 볼 때보다 안에서 보는 것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비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참 대조적이죠? 우리는 언제 부르짖습니까? 무슨 일이 생겨야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아니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까? 꼭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잘 해 놓고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우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엄청난 일을 해 놓고도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아네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놓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꿇어 기도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그마한 것을 해 놓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우쭐대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 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어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리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였다는 뜻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27*절을 봅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성전도 용납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솔로몬이 잘 알고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부족한 집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분이 여기에 거하신다는 상징으로 건물을 지었을 뿐이지 이 건물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곳으로 이 곳을 허락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기 안 계시고 저 높은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가끔 원망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내가 내 뜻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감히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뭐 잘못해서 파출소 불려 가면요 파출소 순경한테도 원망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괜히 성질난다고 한번 했다가 더 애를 먹을까 싶어서 고분고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뜻에 좀 안 맞고 불만이 좀 있다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 좀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삐쳐서 '교회 안 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이웃 아저씨처럼 가볍게 여기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교회도 방학하고, 내 마음대로 개학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 집 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요. 동전을 넣으면 넣은 대로 툭 튀어나오는 거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시고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들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동판매기처럼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라면 내 뜻과 다른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분께 순복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욥입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욥이 한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놓고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픈 일, 힘든 일이 생겨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누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환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리라는 얘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도울 터인데 그 일로 인해서,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재수를 찾고, 팔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아는 솔로몬이었기에 엄청나고도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뭘 보고 지혜롭다고 하지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잘 인용합니다.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에 아이를 잘라서 서로 나눠줘라고 했던 재판 말입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것이지만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것이 훨씬 큰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집안 식구를 원망하거나 재수나 신세타령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 *29*절을 한번 더 봅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리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선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행하는 일이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지요.

성경을 잘 배우고 많이 읽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잘 깨달아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른 채 기도를 하면,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므로 굳이 특정한 곳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든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든지 혹은 병실에 누워있을 때에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유독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 백성들이 앞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성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거기에 두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할 터이니 기도를 들어주십사 하는 것이죠.

온 세상 어디라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곳을 지정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디에도 계시는 그 분이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임금들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려우니까 임금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신문고 제도라는 걸 만들었죠*?* 억울한 백성의 사정을 듣겠다는 겁니다. 임금이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한 성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고를 찾아가는데 비하면 교회를 찾아오는 길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길을 너무 쉽게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쉽게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한 고난을 겪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찾아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겠고 여기서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

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집중도 잘 안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고'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두 세 사람이 모인 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이 안방이나 골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뜻합니다. 다른 곳에서 모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교회에서 두 세 사람이라도 모여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조금 더 간추려서 동사만 골라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8*절에 끝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중간쯤의 뒤쪽에 보면 '**보옵시며**' 또 '**들으시옵소서**' 합니다. *30*절에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몹시 졸라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줘요. 빚쟁이가 빚 받으러 간 것처럼 하나님을 막 졸라대는 듯한 기도의 느낌을 줍니다.

솔로몬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전에 말씀하셨으니**'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의 공로나 내 열심 탓이나 내가 해 놓은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있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아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아들로 행세해야 합니다. 동네 나갔더니 이웃집 아저씨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와 있느냐?" 그 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 말 맞네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자격도 없는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하고 보따리 싸고 나가면 안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었으니 이웃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 집 못 나갑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체면과 아버지의 그 결정 때문에 이웃 아저씨들한테 나가서 큰소리 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잘 나서 자녀된 겁니까? 아니요 자격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았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아담이 잘못했다고 빈 적이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꿇어 엎드려 애원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조건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네가 요번에 공부 잘해서 점수 얼마 나오면 요거 사줄께." 이리 약속하잖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긴 문장은 잘 못 외웁니다. '사줄께'만 외웁니다. 그래서 공부는 안 해 놓고 '사준다'고 했잖아요? 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언제 사준다는 것도, 뭘 하면 사준다고 한 것도 기억 안 해요, 오로지 사줄께만 기억합니다. 애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달라고 졸라대면 못 이긴 척하고 사줘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밉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어설프고 말도 안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내가 잘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심방을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남의 집에 가서 강아지를 만지고 돌아오면 자기 집 강아지가 앞치마에다 오줌을 싸 버린답니다. 강아지가 밉다는 얘깁니까? 강아지 자랑이예요. 세상에 앞치마에 오줌 싸는 강아지 자랑하는 강아지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게 왜 사랑스럽습니까? 이 놈이 내가 다른 강아지 만졌다고 샘을 내? 오줌 싼 게 반가운 게 아니고 주인인 자기를 알아본다는 게 예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과 강아지 사이가 그러하거든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 하셨으니 제가 이러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솔로몬이 세워 놓았던 그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속은 어때요? 우리 속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까? 서로가 속을 다 들여다 볼 수 없기에 마주보고 점잖게 있지만 그 머릿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거할 수 없는 곳이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초라한 집일망정 청소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양이 목자라구요?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개역, 요한계시록 7:9~17]

대구에 있는 친구 부인이 가게를 여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강도사 1년차는 별 효험이 없을텐데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드려라." 했더니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좀 왔다 가면 좋겠다." 해서 억지로 갔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개업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부탁을 해도 안 올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해본 소린데 와 줘서 참으로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저로서는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6, 7년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가장 건장하고 또 충성스런 집사였는데 너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그 부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만약에 데려가려면 나를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김집사를 데려갈 수 있느냐?"고 해서 위로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지만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좋은 곳에 가서 편히 계시니 남은 식구들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알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힘들더라도 잘 이겨나가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먼 곳도 아닌데 자주 연락도 못한 마음의 짐이 있었던 차에 개업예배라고 하는 말에 주제 넘는 짓이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보다 더한 불행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에는 온갖 불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야 할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던 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내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은 6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중간에 끼어든 다른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 이 땅에 재난이 시작되고 8장에서는 재난이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 있는 7장은 이야기 도중에 잠시 옆으로 빠진 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끼워 넣었다고 말할 수 있죠.

7장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7장 앞 부분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많은 재난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끝부분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아름답고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가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면 7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혹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대강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찌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현재 주리고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나 뜨거운 곳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시기는 좀 달라도,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 *17*절 끝에,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말하지 아니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인지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깨끗이 씻어주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역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목마름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해나 뜨거움이 없도록 장막을 쫙 쳐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도 흘렸던 그 눈물을 깨끗이 닦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그 날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천국의 모습을 아주 일부분만 보여주지만 *21*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천국을 거대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보여줄 수가 없고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국을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기 알맞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왜 천국을 온갖 보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으로 묘사했을까요*?* 사람들이 보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달리 없으니 보석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보석을 보고 가슴이 설레이고, *"*아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천국은 그것보다 더 훨씬 크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진주가 얼마나 비쌉니까*?* 천국에 가시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열두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이 뭘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진주 한 알입니다. 그러면 천국문은 전부 동그랗나 봐요. 거대한 진주 하나가 문 한 짝입니다. 그러면 굴려서 밀겠네요. 진주를 굴리고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비싼 진주 때문에 고생을 해 보신 적이 있으면 그게 얼마만한 감격인지 짐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천국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 갔다 왔다는 사람마다 또 상상하는 사람마다 천국의 모습이 좀 달라요. 서양 사람이 갔다 왔다는 천국은 빌딩이 높이 서 있는 서양을 닮았고 한국 사람이 갔다 온 천국은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있는 목가적인 풍경이 잘 나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뭐부터 생각할까요*?* 내 집 크기가 얼마나 클 것인가 이걸 생각할 테고 이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땅에 있을 동안에 천국에 저축해 놓은 게 얼만데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 이러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천국보다는 우리 수준으로 이해한 천국이라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보여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최소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 가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보십시다.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수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는 곳, 그

곳이 천국입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는 곳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곳, 아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땅에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찌그러진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통에 찌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소리로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어린양께 찬양을 드리죠.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합니다.

요한이 귀양을 간 것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임금을 섬긴 것 때문이었는데 여기서도 로마 황제를 제쳐놓고 다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로마 황제가 알면 "야 뜨거운 맛을 더 봐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함께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헨델의 메시야를 아시죠*?* 그 곡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이 가사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곡을 보고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소개를 하고 짧은 부분만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12*절과 비교해 보세요.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님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양'

이 찬양이 천국에서 천사들이 불러지는 그 찬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 이 찬송을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바로 *12*절에 있는 이 가사 그대로 한 곡을 다 썼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또 어린양께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장면이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천국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어린양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돌려드리는 곳입니다. 누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9*절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라고 하는데 특징이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을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피가 어떤 피입니까*?* 이들이 입고 있는 이 흰옷 한 벌이 어떤 옷입니까*?* 이 한 벌의 옷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에 옷을 씻으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빨개지지 않습니까*?* 양피는 흽니까*?* 양의 피에 씻었는데 이것이 흰색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죠. 이 양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흰옷을 만들 수 있는 피는 오직 어린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죠. 예수 믿고 깨끗하게 되어진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천국가면 누구보다 넓은 방을 차지해야 되겠고 누구보다 좀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고 그동안 내가 저축해 놓은 게 얼만데 누구보다는 좀 상급이 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둡시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하면 *15*절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죠*?*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야 이거 행복하겠다' 싶습니까*?* 아니면 '좀 고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천국 가시면 뭐 하시렵니까*?*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잠이나 실컷 자 보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긴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설명하고 있

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책임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에 놓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걸 깨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게 된 인생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에 아무나 갈 수 있었습니까*?*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던 그 성전에 온 성도들이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과 밤낮없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더라*?* 우리로서는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성전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다는 것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밤낮으로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진 그 휘장*!*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았던 그 휘장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버림으로 찢으셔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홍길동이 왜 집을 나갔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요*?* 가난해서요*?* 왜 온 세상을 휘저어 놓습니까*?* 마지막에 길동이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용서하고 딱 한 가지를 허락합니다. 홍길동이 평생에 맺혔던 한이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그 한 때문에 그 난리를 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홍판서가 딱 한마디 하는 말이 "호형호부를 허하노라*!*"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것이 그렇게 한입니까*?* 우린 별로죠*?* 그러나 그 시절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밤낮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 '이거 꿈만 같다'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이대로 영원히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대로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때의 그 행복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은 언제 자고 놀기는 언제 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욕망이 전혀 없는 곳, 끊임없는 행복이 지속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라고 말합니다. 어린양이 목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양은 시력도 나쁘고 또 다른 적과 싸울 능력도 없어서 혼자는 못 산답니다. 그래서 꼭 목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양떼들은 누가 인도합니까*?* 어린양이요*!* 아니 양떼를 어린양이 인도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요 잘못하면 큰 일 나죠.

언젠가 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앞장 선 사람만 따라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러대요. 잘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 나오면 됩니까*?* 아니요.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가야 된다*?*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어린양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어린양은, 모습은 어린양인데 실제로는 어린양이 아닙니다. 실제는 보좌에 앉으신 그 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어린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 분이 우리 앞에 어린양으로 나타

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어릴 때 잠깐 알고 지냈던 다른 친구가 대학교수로 세미나 강의 도중에 지나가는 말로 "어, 저기 내 친구 있네*!*" 이 말 한 마디에 그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대학교수된 친구가 나를 보고 친구라고 불렀다." 그걸 그렇게 감격해 하더라니까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린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원래는 만왕의 왕이셨던 그 분이 어린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어린양을 쳐다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토실토실할테지요*?* 예쁠테죠*?* 귀여울테죠*?* 어떨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오셨는데*?*

좀 더 생각해보면 '저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단에서 죽임을 당했지*!*'라는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어린양은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 천국의 한 모습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어린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사자나 늑대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사자나 늑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거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를 어린양처럼 가꾸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저도 가끔 실수를 하는 편입니다마는 조금 잘못했다고 "강도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하더라구요. "아, 난 어린양인가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언제까지나 저는 여러분 앞에 어린양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한마디 꺼내려고 하니까 누구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겠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 분이 어린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자 노릇하고 늑대 노릇하겠느냐 말이에요.

어린양이 실제로 어린양이 아니듯이 여러분이 어린양처럼 살아도 여러분이 절대로 어린양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권대사, 하나님의 동역자, 아니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입니다. 내가 장차 세상을 다스릴 왕이기에 세상에서 어린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했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엄청나게 놀랄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처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집에 있는 종, 아무리 잘 나도 제깟놈이 종놈이지, 만만히 보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즐거운 상상으로 남깁시다. 어린양인 줄만 알았던 효자제일교회 모집사 모권사 알고 봤더니 세상을 다스릴 왕이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자리에 그냥 계시면서 "너 이리와, 이것 해*!*"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자기의 독생자를 어린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어 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린양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7*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욥이 한 말이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게 닥치는 행, 불행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좀 좋다고 웃고 좀 나쁘다고 성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했으면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 끝이구나' 할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7*장의 앞부분이고 *7*장 뒷부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니 그런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있기 마련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를 바라며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걷음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베를 걷어 말음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각근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개역, 이사야 38:9~20]*

사람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 현실이 정말 어려운 건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어렵다고 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뭘 가지고 어렵다고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 과외수업비가 없는 것이 고통이라서 거기에 인생을 거는 예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렇게 어려워할 게 아닌데도 생각이 잘못되어서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분이 세금을 조금 적게 내려고 세무서 직원이 실사를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가게를 늘였더니 전세금이 늘었고, 기구도 더 들어가 빚이 늘었고...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했더랍니다. 세금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장사하면 큰 일 납니다. 당연히 늘지요.

세무서 직원은 이 분의 투자비가 늘었으니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세금 좀 줄여 보려고 열심히 설명한 것은 세금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금 올리라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인지 몰라도 세무서 직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옛날 어떤 부잣집 아이가 그랬답니다. 가난에 대해서 작문을 해 오라 했더니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요리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운전사도 가난해요." 이런 식의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힘들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엉터리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뭣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집이 작아서요? 집이 없어서요? 좀 큰 차를 타고 싶은데 능력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통장에 돈을 이렇게 재어놓고 사는데 내 통장은 어째서 날마다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우리 어른이 통장에 마이너스란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통장에 돈이 많이 있네?" 하시더라고요. 앞에 옆으로 누운 작대기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빙긋이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까? 또는, 다른 애들은 다 공부 잘 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혹시 고통 아닙니까?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금 줄이려고 애쓰는 얘기나 어떤 부잣집 아이의 작문하고 비슷하지 않을지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고통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너무 찾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크게 보면서, 없는 것은 작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어려운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함부로 어렵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려움, 고통, 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 고통은 예수 믿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혹은 제도적인 결함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왔든 저런 경우에서 왔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 내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병이 걸렸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몰랐더라면 그냥 죽었을 텐데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해 주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후에 그가 병이 나았을 때에 부른 노래 중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올바른 고백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걸쳐서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주로 상대했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아니,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 하고 책망을 시작합니다. 그 책망을 들어야 했던 사람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했지만 주로 아하스 왕에게 해당되었습니다. 백성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예루살렘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버틴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고 버팁니다. 이미 물을 끌어들일 공사가 다 되었으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잠그고 들어앉아 있으면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전국이 초토화되는 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하스였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니 보증으로 이적을 하나 구해보십시오,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무슨 이적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할 때 아하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나이다." 표현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실상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제가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얘깁니다. 그랬던 아하스가 나중에 앗수르 왕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 하나님의 제단을 치우고 앗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참 이상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 파괴해 버리고 성전에 들여놓았던 앗수르 우상의 제단을 전부 철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다시피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짐작일 수밖에 없지만 이사야가 아하스를 향하여서 그렇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아하스는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큰 애 공부시키려고 가정교사를 데려다 놓고 시켜보면 정작 본인은 안합니다. 그런데 누가 배워요*?* 그 뒤에서 "너는 빠져라" 하며 구박받았던 애가 정작 가르친 애보다 더 잘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왕노릇을 시작했는지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고 합니다. 여러 유다왕들 중에 다른 왕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유다에도 선한 왕이 많지 않습니다. 겨우 다섯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히스기야가 들어갑니다.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나라를 통치하던 히스기야가 얼마 후에 애굽 군대를 의지했던 모양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되자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에 여기에 굴복

해서 성전에 있던 금을 벗겨내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주고 물러가게 합니다.

산헤립이 돌아가서 자기 실록에 자랑삼아 남겨놓은 글에 의하면, 지중해 연안을 전부 함락을 시키고 유다에서 *46*개의 지역과 요새들을 정복하고 약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가뒀노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금을 받고 돌아간 게 자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린 때가 이 사건 때의 일입니다. 연대를 맞추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가 떨어졌고 또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서 수명을 *15*년 연장 받은 셈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해 버리지 울긴 왜 우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끝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우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죽더라도 감사히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라크에서 젊은 친구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을 평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선교를 위해서 그리 갔고 그렇게 죽는 것이 순교일 것 같으면 그렇게 울며불며 살려 달라고 할 것 없이 깨끗하게 죽지 왜 그렇게 죽었느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왕 죽게 될 것 좀더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 한마디를 외치고 죽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만약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전혀 다르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평소에 다지고 연습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그 말에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던지 *11*절에 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죽으면 생존 세계에서는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안타까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말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11*절이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산헤립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으로 밤새도록 고통가운데 뒹굴었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슬피,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울었단 말입니다.

운다고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울음이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14*절 끝에, 여기서부터 희망이 보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면 내가 각근히 행하리이다'**라고 합니다. 각근히 행한다는 것은 걸음을 신중하게 걷겠다는 뜻인데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신중하게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는 뜻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매어달리는 것이 그가 살아나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후일에 산헤립이 다시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그와 맞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이사야가 찾아와서 격려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산헤립의 *18*만 군사가 깨끗하게 죽어버립니다. 산헤립이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마는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피살되고 맙니다. 산헤립이 지난번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 전과를 자기 실록에 얼마나 장황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온 얘기를 왜 기록했겠

습니까*?* 성경에만 있고 앗수르 기록에는 없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가 살아나고 나중에 그를 그렇게 위협하던 앗수르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남긴 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고통을 준 것은 원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그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한 눈 팔던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로 정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이 길로 갔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 나가던 히스기야가 한 눈을 팔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그대로 계속 가야 합니다. 왜 한 눈을 팝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유심히 보다가 거기에 재미를 들이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학생들 가르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그저 진급하는 데에만 관심을 둔다면 아이들을 참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쏟으면 참 추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끌려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쪽도 잘 안되고 이쪽도 잘 안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라디아서 *3:3)*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되리라'***(*고린도전서 *15:19).*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복보다 다음 세상에 있는 더 큰 복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의 복만 바란다면 얼마나 불쌍하냔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것을 제대로 못 누리고 저 세상에서 누릴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깨끗이 없앨 때는 정말 멋지게 해 냈습니다. 잘 해 나갔으면 끝까지 잘 해야 되는데 왜 옆으로 샜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승리라는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왔다갔다는 하는 사람이 간증을 하거든 그걸 들으면서 "아 그래야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구나*!*" 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꼭 왔다갔다 해야 하고, 후진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다보면 불리한 것이 남에게 간증할 것이 조금 없기는 없지요. 간증이라는 것이 한번쯤은 타락을 해서 이리저리 삐걱거리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재미가 있죠*?* 재미는 없을는지 몰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게 곧게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그렇게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히스기야도 또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면 무조건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요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를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살려주십사고 일주일을 금식하며 매달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때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로 인해서 나중에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주어집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란 뜻인데 언제 그렇게 사랑받을 짓을 했나요?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하나님이 치시긴 치시지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매어 달렸던 다윗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든지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무슨 큰 일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어 달렸더니 결국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아파서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참으로 크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예가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통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것이냐를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눈물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바울이 떼돈을 벌었습니까? 출세를 했습니까? 바울이 받은 복이 뭡니까? 우리는 복 하면 떼돈을 벌어야 복이고 출세를 해야 복이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유심히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그가 모든 사람을 부요케 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그 사람 이게 참된 복입니다. 떼돈 벌어서 숨겨놓고 이웃사람 하나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부자입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가슴을 쥐어뜯으며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도전적인 자세로 대들었던 그가 나중에 부른 노래가 뭐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에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박국만큼 기뻐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에 소가 많고 양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야 누구나 하지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그가 나중에 받은 그 행복 그 기쁨은 도무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여러분,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팔자타령이나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럽니까? 아니요 히스기야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내게 무슨 복을 주실려고?" 입니다. 이거 강도사가 해야 될 말인데 집사가 새치기를 해서 집사의 말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기느냐 그럴 때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운명 탓하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이 고백이 만만치 않은 고백입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또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고 체험들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을 즐길 여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려움이 닥치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길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대학 갈 때 첫 해에는 등록금이 없는데 떨어졌다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냥 떨어지면 창피한데 신체검사에서 떨어졌으니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 또 시험을 쳤는데 마침 그 해에 학자금 융자제도가 생겨서 은행에서 빌려서 일단 등록금은 해결했습니다. 대구로 가야 하는데 책 살 돈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있을 때 경찰서 간부집 아이의 공부를 좀 봐주고 있었는데 마침 그 분이 대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애 좀 봐 주면 안되겠나?" 해서 옷 가방 하나 들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제게 참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거기 가서 두 달 쯤 있었을 때에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포항에 있을 때는 주일에 공부를 안 가르쳐도 되었었는데 "이제는 주일에 공부 좀 가르쳐 주면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용기입니다. 갈 곳도 없는 주제에 "그러면 제가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고 해버렸습니다.

주일에 교회 일 외에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알레르기가 있을 만큼 다른 것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부닥치면 저는 길이 없다 싶어도 이쪽으로 갑니다. 재미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거할 곳을 찾다가 기막힌 곳을 찾았죠. 학교 안에 기독학생 회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기숙사인데 정원이 *22*명밖에 안돼요. 어찌어찌하다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것은 다른데 *10*년 있었던 것만큼이나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참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친구가 열 명쯤 되는데 우리 딸이 "아빠 친구들이 되게 빵빵하네?" 그래요. 좋은 친구들입니다. 귀한 친구들을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참 귀한 재산을 그 일로 얻은 셈이죠.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답답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한번쯤 들어가 보세요. 그 길이 답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캄캄할 뿐 그 너머에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늦게나마 신대원에 가려고 용기를 냈던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난 후에 제가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떼돈 벌었습니까? 크게 출세했습니까? 아니요, 제게 이 구절이 왜 가슴에 와 닿느냐 하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려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집적거리고 계시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일로 인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한 말이 맞는 말입니까? 원래는 잘못에 대한 징계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 왜 이렇게 바꾸어져 버렸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가 매를 들지 않습니까? 왜 맞았니? 지가 잘못해서 맞았죠. 그러나 부모자식 간에는 잘못해서 매를 맞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매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보상이 되는 법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징계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평안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열 번이나 바꾸어 가면서 그를 속였습니다. 자식에게 속습니다. 죽은 자식이라고 울며 지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저 큰 나라에서 총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자기 형님 에서를 만나게 되면 당장 죽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지마는 형님 만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왜 이런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그 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꾀로 사느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야곱이 나중에,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

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왜 그런 고통이 왔습니까? 자기가 먼저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 꾀로 살려다보니 온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과정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런 대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닌 이유가 뭡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 끝에 보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을 돌라고 해 놓고 여기 와서는 '다 너에게 복 주려고 그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왜 돌았느냐 하면 민수기에서는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0*년이 다 지나서 광야를 다 통과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다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느 것을 외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비록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징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이 어떻게 왔습니까? 너를 평안케 하려고 그랬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이 고백은 히스기야 왕에게 맞는 말입니다.

표현을 바꾸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자녀에게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런 복이 없습니다. 내 잘못으로 왔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왔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고통이 복으로 화할 것이며 그것이 평안을 주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어떤 고통일지라도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죽이 되었든 밥이 되었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개역, 사도행전 15:1-9]*

한국 사람들은 서열의식이 참으로 강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누가 나이가 많은지 탐색부터 하지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으로 짐작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형님 아우가 거꾸로 된 경우도 많이 있죠. 주민등록증 내 놓고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 때문에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잘 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조그마한 아이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이가 비슷해야 친구 사이가 되고 그나마 조금 지나면 누가 형님이냐고 늘 시비를 걸곤 합니다. 말을 놓아야 할지 높여야 할지 고민하느라고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군대에서 어떤 고참이 졸병을 몹시 괴롭혔던가 봅니다. 나중에 제철에 취직해서 보니까 그 졸병이 바로 자기 직속상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임이 있어도 절대로 안 간답니다. 누가 안 가겠어요? 군대 고참이 죽어도 안 갑니다. 웬만하면 사표 쓰고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서열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서열이 뒤집어지는 것을 참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는 이 서열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 서열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열 살 배기 아들 둔 집사가 구역장을 하고 사위를 둔 집사가 그 밑에서 권찰을 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장하던 사람이 이듬 해에 총무를 하기도 하고 지휘하던 사람이 성가대 대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서열을 무시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왜 서열이 무시될 수 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열이 변해 갔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이라는 참 특이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 이방인들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박해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고입니다. 철딱서니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고를 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놀래서 한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잘 키워나갔습니다. 그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여럿 있었음에도 또 사람이 필요해서 다소에 가서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아뇨, 좀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회심한 그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3년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붙어서 말씀으로 굴복시키던 그 사람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제자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했으며 이제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울이 헬라 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스데반으로 인해 일어났던 소동은 스데반이 죽고 잠잠해졌습니다. 몇 년 지났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싸우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또 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스데반 때처럼 또 박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사울을 잠시 피해 있으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향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간 것을 '***14*년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걸 봐서 고향에 거의 *10*년, 십여 년 고향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고향에 있던 사울을 다시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를 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이 대단한 분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의 교회로만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온 세계로 퍼뜨린 장본인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봅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다 묻어두고 고향에서 십여 년 동안 초야에 묻혀 있던 사람을 불러내서 교회의 교사로 삼았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몇 명입니까*?* 이름을 이렇게 써 놓아서 헤아리기가 좀 불편하죠*?* 헤아려 보시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중에, 교회라서 이런 일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서열을 매기면 사울이 몇 번째입니까*?* 여기 인물로만 따지면 꼴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주동 인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섬기고 가르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 년 동안 잘 가다가 나중에 사울을 불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서열이 실제로 꼴찌입니다. 선지자가 몇 명이고 교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선지자와 교사 합쳐서 사울이 말석입니다.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구제품을 전하러 가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나 그 후에도 거의 '**바나바와 바울**' 혹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먼저 언급됩니다.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외국에 선교를 나가도록 세웠습니다. *2*절 끝에 누구를 불러 세웠다고 말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선교단 단장이고 사울은 아마 총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는 섬이었는데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전히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훼방을 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분이 가득차서 튀어나온 사람이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가로되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엘루마를 꺾어 버립니다.

박수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회당과 관련이 전혀 없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도 회당과 교류를 했고 유대인들의 말씀을 배워서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기오 바울은 회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건 대단하고도 특이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건 바울이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당과 관계없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때는 바울이 예수를 만난 지 적어도 십 수 년이 지난 뒤입니다. 예수를 만난 직후에 개명을 한 것도, 이 때 새삼스럽게 개명을 한 것도 아닙니

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란 말은 원래 이름이 둘이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는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 사람과 만날 때 쓰는 이름은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언젠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한 때는 조다윗이라고 하기에 좋은 이름 놔두고 왜 저럴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외용이더군요. 두 나라 문화권에 어울려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흔한 일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그 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선교단체를 뭐라고 부르나 보세요.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선교팀장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갔는데 물론 다른 사람도 따라갔겠지요.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명을 따라서 선교사업을 시작할 때 앞장 선 사람은 분명히 바나바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교사업을 하다가 위기 상황에 부닥쳐 어려울 때에 과감하게 나선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 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성격이 좀 과격한 사람이 잘 하게 마련입니다. 바나바가 온순하게 있을 때에 사울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바나바보다 바울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들과 부딪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싸우는 데도 훨씬 유리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 바울은 새까만 후배입니다. 그가 교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선교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치면서 바나바가 앞장서는 것보다 바울이 앞장서는 것이 훨씬 낫더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이 그렇게 나서는 것이 기분이 나빴다거나 아니면 *"*나를 놔두고 지가 어떻게 앞장서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발목을 잡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13*절부터 두 사람을 표현할 때는 계속해서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바나바가 뒤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서열이 바뀌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에서도 이렇게 역할을 바꾸는 것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어느 조그만 교회에 유력한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재미있게 부흥이 되었던 모양이죠*?* 뒤늦게 들어온 어떤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르간을 한 대 사서 바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오래 계셨던 어느 권사님이 *"*하면 내가 하지 너희가 뭔데 이 오르간을 들여놓느냐*?"* 이래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깨어지는 겁니다. 그 권사님과 그 집에 함께 지내는 장로님 두 분만 남았답니다.

간신히 수습을 해 놓았더니 얼마 후에 또 일이 벌어졌다네요. 외지에 나갔던 딸을 불러다가 출석하게 했답니다. *"*우리 딸 외에 누가 피아노를 만지느냐*?"*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수습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내 교회인데 인제 들어온 것들이 뭘 한단 말이냐*?"* 이거 아닙니까*?* *"*뒤에 들어온 그 누가 나를 제치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없이 너희들이 아무리 해 봐라 일이 되는가*?"* 가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일은 안된다*."* 이런 분이 교회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있던 교인들마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켜줄 때는 비켜줘야 합니다. 꼭 자동차만 비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다.

며칠 전에 비켜줘야 할 때 비켜주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났대요. 고속버스와 카렌스가 언양에서부터 시비가 붙었답니다. 사고는 건천 휴게소에서 와서 났다고 하네요. 기어코 차 두 대가 길가에 섰던 모양이죠. 뒤에서 큰 트럭이 와서 받아버렸는데 고속버스 기사도 죽고, 카렌스 기사는 여자였다는데, 결국은 두 사람 다 죽었는데 얼마나 답답한 얘긴지 모릅니다.

자동차도 뒷차가 빨리 가려고 하거든 비켜줘야 합니다. 안 비켜주면 사고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

지입니다. 뒤에 온 사람이 앞에 나가서 일하려고 하면 비켜주세요. 아니면 자기가 나가서 하든지.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바나바가 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일이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뭐가 주인의식입니까*?* "새로 온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아 갈까봐 안돼*!*" 이러는 게 주인의식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유능한 사람이 왔을 때 언제든지 비켜줄 수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비켜 주세요. 그런데 이 유능한 사람이 때가 되어서 또 떠납니다. 나는 주인이니까 늘 여기 있습니다. 이 분이 떠나가면 그 자리를 내가 메웁니다. 그러다가 다른 분이 오면 또 물러설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의식입니다.

"나 외에 누가*?*" 좀 전의 그 권사님 표현을 빌리면 "내 딸 외에 누가 피아노를 만진단 말이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그릇된 주인의식입니다. 이건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그릇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비켜줘야 할 때 비켜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의식입니다. 바나바는 새까만 후배, 자기가 데려와서 키웠던 바울이 선교여행에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자리를 깨끗이 비워주고 오히려 보조역할을 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왔더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실컷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훼방을 놓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질의를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린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바울이 앞장서고 바나바가 뒤를 돌보아 주었는데 두 분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총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서열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15*장을 찬찬히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서열 *1*위는 아마 야고보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야고보가 내리거든요. 야고보 옆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서열 매기기 어려운 상대들이죠.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누가 앞입니까*?* 바나바가 앞이지요*?* 아니 여태까지 바울과 바나바라고 얘기하더니 여기 와서는 또 순서를 바꿔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일 때문에 그랬지만 총회에 올라가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게 맞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지만 총회에 들어가면 여전히 저 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서열이 밀렸느냐 하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으로 보낼 때에, *22*절에 끝에 보시면, 유다와 실라가 따라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증한 것이라고 보증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가 따라갑니다. 누가 더 권위가 있단 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난 것을 안디옥에 전합니다. 유다와 실라가 따라가서 그 말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누가 더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까*?* 유다와 실라가 더 있는 셈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름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의 서열은 끝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보다도 서열이 더 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되면 바울이 또 앞에 서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된 사도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도 중에 가장 큰 사도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권위 있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겨우 말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바나바가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뒤를 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열 얘기를 쭉 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총회나 바나바나 바울은 이런 서열 문제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심은, 복음 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누가 서열이 어떻고 이런 생각은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서열이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지 그 분들은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 문제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오래 믿었고, 누가 나이가 많고... 이런 걸 좀 덮어둬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관심이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에만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모릅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서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바울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바울이 실력이 있어서 그리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열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애꿎은 자존심요?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서? 돈이 좀 많아서?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좀 높은 자리에 앉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복음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만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열심을 다 하는 그 분이 교회 안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존심 센 사람요? 나 아니면 절대 안된다, 내가 반대하는데 그게 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나바의 양보를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나를 제치고 저럴 수 있나? 지가 앞장서서 저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나바가 물러서서 바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서열이 밀렸죠? 저는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중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그랬죠. 낮아진 사람이 높은 겁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겸손하게 바울을 앞세워 활동하도록 해준 것은 바나바의 서열이 떨어진 게 아니고 바나바는 겸손을 통해서 다시 위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열심을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위에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은 데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서열이 높은 겁니다. 절대로 서열이 떨어지거나 낮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높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이 두 사람은 아예 서열 따위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들을 키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서열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뒤집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구역장을 하고 나이 많은 분이 권찰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면 양보를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장 하다가 교사 하고 지휘 하다가 대원노릇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명색이 지휘하던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지휘 밑에 들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유익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서열이 높아지는 방법은 이 두 사람의 방식대로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함으로 앞으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겸손함으로, 겸손함이란 다른 말로 길을 비켜주는 겁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열 파괴에 선봉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내가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은, 먼저 되고, 높은 자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다 접어놓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서열이고 높은 자리고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

게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높은 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든지, 바나바가 되든지 하십시오. 실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성격이 좀 과격하고 도저히 얌전하게 앉아 있지 못하겠다 싶거든 바울이 되십시오. 조금 괴로울 겁니다. 앞에서 뭘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도 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일을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바나바가 되십시오. 겸손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자리에 앉을 자가 됩니다.

열정으로 바울이 되든지, 겸손함으로 바나바가 되든지 하십시오. 바나바도 아니요 바울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길 막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막는 것은 주로 자존심 때문인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존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하자는데 나 하나 때문에 안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옳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지만 나 혼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전체가 안 돌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바나바가 되고 바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길을 비켜주지 않고 갈 사람도 못 가게 하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열도 상관없고 높아지는 데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말석에 앉든지 다른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든지 인기가 없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중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떻게든지 노력하셔서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된 사람인데 열심히 뒤에서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줘야 될 상황이면 비켜주고 "난 힘없는 줄 아나?" 하고 더 빨리 갈 수 있으면 더 빨리 가야지요. 더 빨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생각은 다른데 다들 옳다고 한다면 내가 비켜줘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이 구절을 참 잘 외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러면서 자꾸 나를 쳐다봐요. "목표! 우리 강도사님." 저도 한마디 합니다. "목표를 참 잘 잡았긴 한데 너무 과한 목표는 이루기가 어려울 텐데? 어디 나는 가만히 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런 농담이 참 즐겁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열심과 겸손함으로, 모두가 높아지는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잘 했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개역*,* 마태복음 *25:14~30]*

제 동생 중 한명이 제철고등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학교가 처음 생겼으니 좋은 학교 만들려고 선생님들이 열심을 많이 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군에 갔다 오니까 *2*학년인가 다니고 있던데 학교에서 일찍이 나오라고 하는데 차편이 없었습니다. 육거리 근처에 살았는데 아침 일찍 역으로 갑니다. 역에 가면 *4*시 조금 지나서 부산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효자역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올라 갔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거의 *12*시쯤 되었거나 넘었지요.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중에 수능, 그 때는 학력고사라고 했는지 좌우간 괜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만하면 내 잘 했제*?*" 하고 은근히 자랑을 좀 합디다. 우리 어머니가 잘 했다고 칭찬하고 "수고했다." 그랬는데 본인에게는 안 그러는데 나중에 뒤에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 점수 절반은 내 거다." 그러시더라구요.

여러분, 고*3* 아이가 그렇게 다니며 공부한다고 고생 참 많이 했죠*?* 그런데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본인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시장엘 나가셨거든요. 채소장사라는 것이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낮에 채소장사 하시면서 밤 *12*시 넘어 들어오는 아이 잠시 자게 하고 깨워서 아침 해 먹이고 *4*시 좀 넘어 부산가는 기차 태워서 학교 보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안다면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엄마, 나 이만하면 잘 했지*?*"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말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지만 동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고생한 거는 알지 못하고 "이만하면 잘 했지*?*" 하고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까*?* 좋아하지요, 칭찬하지요. "오냐 잘 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애가 엄마가 고생한 걸 알고 "내가 이 점수 얻기까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엄마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 것 같습니다마는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를 감동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집안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짓을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내가 좀 노력한 것, 내가 좀 열심히 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고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면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25*장 *1*절을 보세요. '**그 때에 천국은**'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하고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 천국은**' 하고 *14*절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재산을 많이 맡겨놓고 타국에 왜 갑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압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왕의 직위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때로는 왕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왕의 직분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넓은 영토를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유대 지방을 넘겨주고 안티파스라는 아들에게 갈릴리 지방을 넘겨주고 또 다른 아들 빌립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물려 줬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남긴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당시 로마 황제가 허락해줘야 합니다.

황제의 허락을 받으려고 아들 삼형제가 로마로 갔습니다.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조금 손질을 하기는 했지만 헤롯이 유언한 대로 허락해 줍니다. 바로 그 때 유대 귀족들의 사절단이 그리로 가서, "헤롯 대왕이 악정을 했고 이 지역을 맡을 아켈라오가 포악한 인물이니 차라리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을 테니까 총독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절단의 요구를 황제가 받아들이면 아켈라오는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아켈라오가 일단 황제의 허락을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잡아서 내 앞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10*년쯤 지난 뒤에도 여전히 아켈라오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소환당해서 유배를 가고 유대지역에는 로마의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들은 로마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지어 바친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 즉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지어서 황제에게 바쳤다가는 큰일 나지요. 시설을 잘 갖추어서 황제의 도시로 바치곤 했습니다. 남쪽에도 하나 있고 북쪽에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황제를 기념하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디베랴 바다는 어느 바다를 가리킵니까*?* 훗날 갈릴리 해변 서편 아주 아름다운 곳에 멋진 도시가 하나 들어섭니다. 디베랴, 즉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때부터 앞에 있는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베랴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토록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 왕들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비록 선왕이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황제가 허락해 주기를 바라서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짧아도 수개월은 걸립니다. 오래 걸리면 몇 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끝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타국에 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황제의 허락을 제대로 못 받거나 황제가 오래 동안 출타해버리면 수년을 그냥 머무르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19*절에,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귀족이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일을 맡겨 놓고 떠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5*절에, '**떠나갈 때에 각각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달란트를 나눠주는 기준이 '**재능대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겨 놓고 갔다는 뜻이죠. "누구는 다섯 달란트나 주면서 왜 내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능력에 맞추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능력을 이 만큼 주시고 난 이것밖에 안되느냐*?*" 이럴 일이 아니라는 것

이죠. 그러므로 내가 달란트를 많이 받아서 많이 남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셨든 간에 충성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누구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두 달란트를 주고 그게 불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다섯 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한 칭찬의 말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두 달란트를 남겼는데 칭찬 받은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도 만약에 한 달란트를 남겨서 왔다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나 두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칭찬을 받았을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문제는 '많이 남겨라'가 아니고 재능대로 맡겼으니 자기 능력대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가장 흥미로운 것이 주인의 칭찬하는 말입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어디에 충성했다고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는데 그게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달란트 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달란트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금 한 달란트면 약 *34Kg*정도 됩니다. 약 *9*천 돈입니다. 요즘 금 한 돈에 얼마해요*?* 칠만 원에 *9*천돈이면 *6*억 *3*천이네요. 좀 깎아 줍시다. *6*억에 다섯 달란트면 *30*억입니다. 저는 *1*억까지는 감이 좀 잡히는데 *10*억 단위로 올라가면 그 돈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 종에게 지금 식으로 말하면 *30*억을 맡겼다는 얘깁니다. *30*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몇 년 만에 배로 늘렸단 말입니다. 그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 다섯 달란트는 많다치고 한 달란트요*?* *6*억 만져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 이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걸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주인의 목표는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맡겨봤을 뿐입니다. 재산을 늘리거나 돈을 많이 불리는 것은 충성한 결과로 나타날 뿐이지 주인에게는 이게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을 맡겨 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30*억을 가지고 *60*억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인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 했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60*억도 작다고 하시는 분이 앞으로 많은 것을 맡기시면 얼마나 맡기겠다는 얘깁니까*?* 이 주인이 말하는 '많은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맡을 일이라면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30*억이 되었든 *6*억이 되었든, 다섯 달란트건 한 달란트건 이것은 주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왕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이니까 이거 잘 맡아 있으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충성했더니 주인이 기뻐서 많은 것으로 맡기겠답니다. 이 종이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수년간 장사를 열심히 했으면 고생을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 못하겠다, 장사나 해야겠다*?* 장사는 쉽습니까*?* 속이 뒤집어져도 참아야 합니다. 손님이 안 오면 한가롭죠*?* 몸은 한가로울지 몰라도 죽을 지경입니다. 장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종이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보면 "작은 일 가지고 무슨 엄살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 주셨는데 교회 일도 마음먹고 하려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충성하십시오. '죽겠다'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입에 발린 게 죽겠다니까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려면 '죽겠다'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야, 야, 그거 작은 일이다. 그런데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했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참 기대가 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계산해 보세요, 대단할 겁니다. 주일 예배가 몇 번, 주일 밤 예배가 몇 번, 계산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헌금한 것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30*억도 작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어야 잘 했다고 하실까요*?* 그냥 열심으로 충성할 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은 어딘

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긴 종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었는지 봅시다.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으니 "네 달란트는 내가 갖고 한 달란트는 네가 해라."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다섯 달란트 남긴 종이 상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섭섭하게도 달란트 얘기는 없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이것이 충성한 종이 받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만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보다 현찰을 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준 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찰이 없어서 서운하다면 사실은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보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요 복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하기보다는 "한 달란트라도 떼어 주시면 그게 더 좋겠는데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요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은 '네가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종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된 것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땅에 묻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보물을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열심히 갈다가 발견하게 되지요. 땅에 파 묻어놓고 보관하는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비난받아야 하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주원인은 '네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아는 것이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 저런 신을 섬기지만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럽니다. 마치 산탄총하고 비슷해요.

산탄총은 자잘한 총알이 팍 뿌려져 나갑니다. 그러다 그 중에 하나가 대충 맞으면 됩니다. "에라, 여기도 가서 아는 체하고 저기도 가서 아는 체하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제대로 된 신이 있겠지*?*"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산탄총으로 참새는 맞출 수 있어도 호랑이는 잡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리하고 저리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분을 기쁘게 하고 그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천국에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참으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기도하면 내 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안다는 것은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통해서 그 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가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 하나만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그 은혜가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을 잘 몰라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주인 앞에서 *"*주인님, 이만하면 잘 했죠*?"* 이런 말을 하면 그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이만하면 잘 했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것, 왕의 지위를 받아서 무사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 종이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많은 것을 맡겨 놓고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끝내 안 돌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이 됩니까*?* 주인이 돌아오지 않거나, 주인이 추방을 당하거나 하면 그 밑에 있는 종들은 그 주인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무사히 돌아옴으로 자기 지위도 확실하고 주인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주인이 왕의 직위를 받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 달란트를 맡긴, 말하자면 나를 신임하는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나의 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인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게 나의 복입니다. 내가 달란트를 얼마나 늘렸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이 종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신임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인이 무사하게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장차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이만하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 하기 전에 그 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 분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걸 기다리고 감사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이 땅에서 충성해서 몇 달란트 더 남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해야 할 것은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을 맡긴 것입니다. *30*억이라는 자금을 대주면서 *"*이것 가지고 일 잘 하고 있어라*."* 하고 맡긴 주인과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키워놓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수고한 우리도 훌륭하지마는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사실 자체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합니다. *"*집사치고 이만큼 일한 사람 있겠냐*?"*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뒷전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십시오*!*

제 동생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 것도 모르고 *"*엄마 내 이만하면 잘 했지*?"* 하는 걸 엄마가 싫어합니까*?* *"*이 놈의 자식, 지 엄마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럽니까*?* 아니 일단 좋지요, 환영합니다. 마음 한쪽에 조금 섭섭함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래, 잘했다*."* 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제가 잘 하지 않았습니까*?* 집사치고 이만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앞에 괄호가 하나 붙을 것 같습니다.

괄호 열고, 철딱서니가 없기는 하지만, 괄호 닫고 *'*잘 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이 좀 없기는 하지만 자랑하면서 삽시다. 그러면서 잊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를 자녀로 삼고 귀한 일 맡기신 것에 비하면 우리의 열심은 작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 세 종류의 종들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 달란트 받아 가지고 땅에 묻어 놨다가 *"*아 이래선 안되는구나*!"* 싶어서 한참 뒤에 파내서 새로 장사를 시작하는 종쯤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땅에 파묻어 두는 짓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방법이 서투르고 열매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종도 여기에 계시고 두 달란트도 있고 한 달란트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달란트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맡겨 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폼 나고 그럴 듯한 것만이 달란트가 아니라 드러나지 아니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입니다. 안타까운 형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생각다 못해 전화 한통 하면 그 전화 한통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낙심해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에게 목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심방가도 쉽지 않죠*?* 그럴 때에 옆에서 전화해서 *"*언니야, 니 그럴 수 있나*?"* 한마디 집적거릴 때 오히려 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힘들어 하는 형제에게 전화 한마디 하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전화 한통 할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달란트입니다.

형제나 이웃에게 또 믿지 아니하는 불신 이웃들에게 '아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한 달란트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속이 뒤틀리기도 하고 *"*내가 뭐 답답해서 이러는 줄 아느냐*?"*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힘들지요. 그런데 그것을 작은 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위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노력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건 작은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이 작은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한 포도원지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질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숴진 횟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개역, 이사야 27:1~13]*

가장 소중한 것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얼핏 들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답은 '현재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답을 하더군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사람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참 잘 나갔었지'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고 '장차 내가 어떻게 되리라' 머리 속에 그리는 것도 잠시 접어놓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위치, 현재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좀 더 나은 내일,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게 아닐까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나 장차 이것보다 나아지리라는 소망없이 열심히 일하거나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 내가 맡아 있는 이 일, 내가 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현실에 최선을 다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좀 더 나은 내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내일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일도 내일 나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최선을 다 해서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는 그 내일은 인간이 만들어 가는 내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내일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는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고 계시는 그 내일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일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내일이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 있는 한평생 안에 있는 내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내일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내일도 포함되겠지만 이건 짧은 것이며,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내일은 이 땅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영원한 내일, 그것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일과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말하는 내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는 몇 년입니

까? 무한대입니다. 백년이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다음 세계와 비교해 보면 백년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요즘 백원짜리 하나로 사탕 하나는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백원짜리 사탕 한 개입니다.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 내일은 수십억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백원짜리 사탕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수십억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미래, 그리스도인들의 내일이 진짜 내일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진짜 내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에 충성하고 오늘에 헌신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감히 이 땅의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하루를 지내고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열이 지끈지끈나는 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기침을 하면서 앉아 계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힘이 드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내일에 대한 기대없이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잔칫날은 다가오는데 돼지에게 맛있는 것을 열심히 먹입니다. 돼지 역시 열심히 먹습니다. 살을 자꾸 찌웁니다. 며칠 뒤에 잔치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고 남보다 자기에게 더 주니까 감사하다고 열심히 먹는데 며칠 뒤에 잔칫날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앞에 차려놓은 그 음식이 그렇게 맛이 있겠습니까*?* 끔찍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행복 할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른 채 행복해 하는 것이 오히려 일시적이긴 하지만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잔칫날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잘 먹어서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 쳐다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짧은 생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아름답고 영광스런 그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이 땅에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심초사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곡 주택단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상한 차들이 참 많이 보이더군요. 차가 다 검은 색인데 처음 보는 차들이 많더군요. 자세히 보니까 차마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더군요. 기사딸린 검은 색 승용차*!*

알고 보니 오늘 박태준 명예회장의 출판 기념회를 했더군요. 내려오면서 차의 꽁지를 보니까 무슨 차인지 조금 알겠더군요. 이름은 들었지만 못 봤던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더라구요. 서민들의 집보다 더 비싼 차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충성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삽시다. 아니 이 땅에서도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됩니다. 그 너머에 이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당부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그 고생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바울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수로 있으면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죠.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만 제외하고 모

두가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죄수라서 불행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는 사람은 깊은 즐거움, 진정 행복한 즐거움은 맛보지 못한 채 말초적인 즐거움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아까워서 어떻게 떠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외세를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라를 보고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망할 텐데...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서야 이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는 경고를 하던 이사야가 갑자기 '그 날에'라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22*장 *12*절, 그리고 *24*장 *31*절에 보면 또 '그 날에'란 말을 하죠. *25*장 *9*절, *26*장 *1*절, *27*장 *1*절, *2*절에도 '그날에'라고 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오던 이사야가 그 날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말씀했던 그 날 무슨 날이며 왜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앗수르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든다면, **'대저 악행은 불 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질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섶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주리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이사야 9:18-20)*' 얼마나 굶주리면 자기 팔을 뜯어먹을 것이라고 합니까? 이사야의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이런 혹독한 날이 올 것이라고 반복,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징계를 예고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렇게 살려 놓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던 이사야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그 날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가 말한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사야의 말대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볼까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러면 지금은 뿌리가 박히지 않고 땅에서 뽑혔다는 이야기죠.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하나님께서 치긴 치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을 죽이자고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셨겠느냐고 하는 것은 어쨌건 치셨다는 이야깁니다. 나무가 뽑혀 나가고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살육을 당하였은들 하는 것은 일단 살육은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잡혀가고 이 땅에서 완전히 뽑혀서 다 흩어져 버렸을지라도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메시지죠.

그 날에 *2*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뱀을 징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더라도 꼭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왜 하나님께서 뱀을 징계하실까요? 이 뱀이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뱀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이 뱀이 타락하게 만든 온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뱀도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사탄의 하수인인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는 말씀은 곧 사탄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훗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에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이 포도원을 향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이 포도원을 지키겠노라는 말씀을 보면 '어*?*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나야 합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무슨 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것이 무슨 노래예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닙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노래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어떻게 들포도가 맺혔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른 노래였습니다.

포도원지기의 변심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했었는데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포도원을 깨끗이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포도원지기와 오늘 우리가 보는 *27*장의 포도원지기는 다른 분입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포도나무가 바뀌었나요*?* 어떻게 비통한 심정으로 통탄하던 그 포도원지기가 여기서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전부 부숴버리고 뽑아버리겠다고 했던 그 포도원지기가 여기서는 때때로 물을 주며 이 포도원을 잘 간수하겠다고 말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누가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아무도 바꾸어 놓은 분이 없습니다. 포도원지기 자신이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한번 뱉은 말은 절대 바꾸지 않고 밀고나가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한번 한 말은 절대 못 고치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한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 주겠노라 그 한마디에 평생토록 노력하는 남편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 분 더러 있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있어요. 사람도 한번 뱉은 말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왕도 스스로 찍은 어인을 자기가 못 고칩니다. 인간 나라의 법도 그렇게 엄격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사랑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겨요*?* 오늘 아들이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약점이 잡히면 안되는데...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대충 맞아요.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을 붙들어다가 싸움을 시킵니다. 이기면 십자가 처형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로마 검투사가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정말 존경하는 지도자와 그를 위하여 헌신하며 따랐던 제자 두 사람이 한꺼번에 잡힌 거죠.

둘을 그냥 안 죽입니다. '붙어*!* 이기는 놈이 십자가다*!*' 이기는 게 편합니까*?* 지는 게 편합니까*?* 져서 칼에 죽는 게 편한 겁니다. 이기고 살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더 사랑하는 자'가 이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누가요*?* 더 사랑하는 자가 집니다. 왜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니다. 아버지가 말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도 없이 야단을 쳤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겼다기보다는 말 바꾼 사람이 진겁니다. 아무리 해도, 해도 안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말을 바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긴 겁니다.

자식 이기는 아버지는 없다

포도원지기가 왜 말을 바꾸었습니까? 자기 자식이거든요. 버린다, 버린다, 죽인다, 죽인다 해도 끝내 그럴 수 없으니 결국은 포도원지기가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못 바꾸잖습니까? 결국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 놈이 죽어야 하는데...' 도저히 안되니 인간을 살리는 대신에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말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홍수 사건 때 온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이 시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왜요? 후회가 되어서요?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니까 이제 심판 안 하겠다*(창 8:21)*? 이상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악하면 다시 해버려야죠. 어려서부터 악한데 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일종의 포기죠. 이 악한 놈들을 일일이 다 갊았다가는 씨도 남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놔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렇게 심판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바벨탑을 어떻게 무너뜨리시겠어요? '이놈들 봐라' 하면서 지진으로 흔들어 버릴까요? 아니면 벼락을 한방 때려 버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멋진 방법이죠? 일은 중지시키시면서 사람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천둥, 번개도 좋고, 지진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다친다는 거예요. 왜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홍수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인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지만 그래도 홍수심판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방법을 바꾸셨단 말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겨우 들포도나 맺고 있는 포도원을 다시 하나님께서 가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도무지 자녀노릇 할 것 같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고,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기로 하고 그들을 보며 아름답다고 노래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이제는 그 포도원에 났던 형극과 질려, 즉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전부 불로 태워버립니다. 질려와 형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불러들였던 다른 민족들입니다. 내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이들을 불러들였지만 징계가 끝난 다음, 내가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때에는 이 질려와 형극들을 깨끗이 불살라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곳곳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절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지면 가득히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뒷말씀이 더욱 재미있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보여 주십니다.

꽸으면 얼마나 꽸다고?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패면 얼마나 패겠느냐?' 아니면 '내가 패면 죽으라고 패겠느냐?'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죽으라고 팬 것이 아니요 적당히 견책했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망하고 다 잡혀가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한 짓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이상 깨끗이 없어져야 마땅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적당하게 견책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동풍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농작물을 깨끗이 말려버리는, 아주 극심한 재난을 가져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동풍이 불고 있는 때에, 말하자면 '내가 징계하지 않고 놔둬도 이 동풍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 즈음에 내가 폭풍으로 너희를 옮겼다'는 겁니다. '나 아니더라도 너희는 너희 소행으로 인해서 깨끗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냥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징계하는 척 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듯'이 이미 동풍으로 인해 너희가 다 잃어버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폭풍으로 조금 더 쳤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

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건 얼마 안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에서 동풍으로 잃어버릴 것을 빼면 그 차이가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견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하는 척 했을 뿐이었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징계를 하시고도 속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나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셔야 정확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다는 것 외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 *8*절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누구 덕분에 살았나요? 누구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노아를 찾았다는 얘깁니다. 우리말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데 원어의 의미를 직역한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입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서, 분노하는 그 눈길 속에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아픔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노아가 읽어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애비된 죄로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은 노아가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안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일 것 같으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을 하거나 야단을 치게 되면 사실은 부모님이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신발을 잘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신발도 참 비쌌거든요. 함부로 살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학교 가면 잘 잃어버려요. 신발 새로 사주면서 부모님이 뭐라 그럽니까? "또 잃어버리기만 해봐라 다시는 안 사준다." 혹시 그래도 또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안 사주시던가요? 또 사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는 안 사준다' 하시지만 또 사줍니다.

'말 안 들으면 대학 등록금 없다?' 우리 아들은 그 말을 참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긴 한데, 안 듣는다고 등록금 안 대줄 겁니까? 빚을 내서라도 대야지요. 노트북을 이백만원이나 들여 사주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아빠가 이거 사주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노트북이란다. 잃어버리면 안 사준다. 아니 또 사줄 능력이 없다' 지금까진 안 잃어버리고 잘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노트북 없이 공부 안되니까 잃어버리면 눈물을 머금고 또 사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자녀 삼은 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안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자녀로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안된다 하면 안되는 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로 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다하다 안되면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단다' 하면서 웃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을 바꾸시면서까지 사랑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짜증 많이 나고 힘들거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감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애들 잠 깨우는 게 좀 어렵습니다. '몇 시에 깨워달라 했으면 시간돼서 일어나라 하면 발딱 일어나야지 깨워달라 해놓고 왜 안 일어나? 그러면 다음부터 안 깨운다. 이제부

터는 네가 알아서 새벽에 일어나*!'* 해놓고 나가버립니다. 그게 며칠 가나요*?* 그 다음날 안 깨울 수 있나요*?* 성질은 나지만 가서 또 깨워야 합니다. 어제 '다시는 안 깨운다' 해도 그 다음날 또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 힘드시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를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이런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놈들아, 내가 너희를 치면 얼마나 쳤겠느냐*?*'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이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어떤 열매는 나무를 흔들어 떨어지게 해서 거두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과실을 떨어뜨리면 다시 주워 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흔들 때는 흔들지만 떨어진 과일은 전부 일일이 주워 담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그 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주로 군인들을 소집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전쟁하러 가야 한다고 나팔을 불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군인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처럼 앗수르, 애굽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무 때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음이 쉽게 잘 변하는 포도원지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포도원을 깨끗이 부셔버리겠다'고 말씀하셔 놓고도 여기 와서 '아~ 아름다운 내 포도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면서도 끝내 죽이지 못하시는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신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래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뭐라 그랬나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27*장 *1*절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하십니다. 리워야단 역시 꼬불꼬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과 동일한 것입니다. 뱀이나 리워야단이나 끝에 나오는 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지만 반면에 그 뱀, 사탄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날에나 변함없이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한번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엔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마음이 쉬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바꾸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광스런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그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그 날은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고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준비해두신 그 나라, 그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대해야 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닥친 작은 어려움을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개역, 이사야 53:1~3]*

성탄절이 되면 누가 제일 바쁠까요? 아마 한 대목 노리는 장사꾼들이 제일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화점이나 커다란 술집들이 치장을 더 많이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바쁜 일 있습니까?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 바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쯤부터 거의 매일 교회가 북적대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거의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교회 주변이며 천장 장식하느라 얼마나 많이 바빴는지 모릅니다. 성탄트리 만든다고 산에서 생나무 큰 걸 베다가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차도 잘 없던 시절에 그 큰 나무를 베다가 가져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열성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장식도 하고 연극도 하고... 연극인들 잘 하나요? 연극 같지도 않은 연극을 하면서도 참 바빴던 것이 성탄절 준비였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바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벽송 도는 교회도 작년에 보니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열심히 준비하고 성탄 전날 밤 새우고 다음날 낮 예배 때 자는 일이 많이 있었죠. 찬양 연습 열심히 했다가 정작 잘 안되는 때가 성탄절 낮 예배 때입니다. 밤새 찬송 부르고 다녔으니 낮에는 목도 가버리고 잠도 쏟아져서 찬양이 제일 안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이었고 바쁘기도 하고 힘들었죠. 요즘은 그런 열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뭘 준비하고 연습을 합니까? 아니면 이번엔 또 어느 파트가 어느 행사 맡아서 누가 뭘 해야 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까? 정말 기뻐서 성탄절에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이번 성탄절 어떻게 해서 때우고 넘어갈까 이런 건가요?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무슨 일에 바빠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짚어보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영감님이 계십니다. 빨간 복장에 흰 수염 달고... 요즘엔 수영복 입은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좌우지간 헷갈립니다만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에 오히려 더 유명해졌고 썰매 끄는 루돌프도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유명합니다. 아이들도 성탄절에 선물 하나 받는 것이 더 기다려지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뜻이 뭡니까? 성인의 탄생입니까? 예수님처럼 유명한 성인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성탄입니까? 의외로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위대한 성인 중의 한 사람, 그 성인이 태어난 날, 그래서 성탄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우리 주님의 탄생!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의 탄생? 이건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할 일입니까? 이것이 기쁜 일인지 슬퍼해야 할 일인지 미안해해야 할 일인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어디에서 탄생하셨나요? 예수님은 마굿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적절한 장소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니 당연히 궁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헤롯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났어야 어울리는 겁니까? 아니면 마구간에 태어나야 어울리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소, 양, 짐승들은 후일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제사 제물이요, 어린 양입니다. 양이 마구간에 나

서 조금 안되긴 안됐지만 비슷한 동네 아닙니까*?* 적합한 곳에 나셨죠. 천사와 목자들이 경배하던 영광스러운 장면도 잠시, 또 먼 곳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참 기구한 운명이다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탈출했다가 그를 노리는 헤롯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시 간신히 돌아옵니다. 그러나 태어났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저 먼 곳, 갈릴리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우린 뭘 그렇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슬픔이고 고난인지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 합니다.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의 고난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Passion)*에는 열정이란 뜻도 있는데 한편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수난을 가리켜서 특별히 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예수의 고난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로마군병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실감나게 그려놓은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당했어야 했을까*?*' 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것 뿐일까요*?*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영화의 그 참혹한 장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쉽지가 않아요. 우리와 너무나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력 바깥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못에 찔리고 살이 찢어지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던, 도무지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던 그 분이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한 고난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미 애벌레가 땅 속에서 십 수년을 머물러 있다가 껍질을 벗고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땅 속에 박혀있던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하늘을 나는 변화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변화일까요*?* 컴컴한 땅 속에 갇혀서 꼬무작꼬무작 거리고 있던 애벌레가 푸른 하늘을 맘껏 날아다닌다*?* 이것이 얼마만한 변화일까요*?* 여전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늘을 맘껏 날아다니던 매미에게 "얘, 너 다시 애벌레가 돼서 땅 속으로 들어가*!*"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맘껏 날고 맘껏 소리 지르고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던 매미가 다시 꼬치 속으로 들어가서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부자유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월급이 올라가는데 조금 깎이면 어떻습니까*?* 회사 나가기 싫습니다. 한 십 퍼센트 정도 깎여버리면 어떻습니까*?* 일 못합니다. 그 작은 변화도 우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마음껏 날다가 다시 꼬치 속에 갇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추락이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작은 변화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변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관계되거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열심히 걸어 다니던 분이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고 나서 말한 소감이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왜 차 안 사니*?* 차 사*!*"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돈을 넣어 다니며 절약하고 아끼며 돈 쓰는 법을 모르던 사람이 차를 사고 나면 주머니가 아주 헐겁게 변해버립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달라지기 시작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가고 싶은 대로 신나게 잘 가던 분이 어떤 일로 차가 없어지고 걸어 다니게 되면 못 다닙니다. 답답해서 못 살아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연세가 팔십입니다. 전에 자주 그러셔서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했는데 한 동안 안 그러시더니 작년에 딱 한번 태백에서 *80cc*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까지 내려 오셨습니다. 기차타고 버스타고 올려니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집에 있는 식구들 생각해서 제발 타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편한 겁니다. 이것이 좋답니다. 앞에 버스 하나가 꾸물꾸물 거려서 싹*!* 질러 오셨답니다. 가슴이 덜컥 합니다. 그래도 본인은 그것이 편하다는 걸

요. 거기다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니 오토바이 없앱시다." 그 말은 못합니다. 그렇게 쌩쌩 다니시던 분이 걸어다녀 보셔요. 아마 사는 낙이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년간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만 더 저축하면 집이든 아파트든 한 채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디선가 아주 옛날에 섰던 보증이 하나 뻥 터져서 몇 천만원을 대신 물어야 한다면... 당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몇날 며칠을 잠 못잡니다. 똑같이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진급을 했는데 진급이 안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진급은커녕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버리면요? 못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작은 일입니다. 이런 작은 일을 당하고도 견디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그것이 얼마만한 부자유요, 얼마나 큰 불편인지를 생각해 보셔요.

돈을 조금 잃어버려도 참 오래 갑니다. 그것도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에 잠이 안 오고 괴롭고 슬프고 가슴 아팠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작은 일입니다.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공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일까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통해서 생각이라도 좀 해 보자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때 기자들이 부인 낸시 여사에게 "백악관에 사시다가 나오시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랬답니다. 들어갈 때 *4*년, 중임하면 *8*년, *8*년 뒤에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올 때 기분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의 솔직한 면에 놀랐고, 한편으론 그게 그렇게 그럴까? 때가 되면 나와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 들어갔는데도? 이런 저런 예에 비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전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대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회의에서 제가 안건을 하나 내고 다른 분이 안건을 내고 토론을 하다가 제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계시던 분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구요. 전 왜 치는지 몰랐어요. 마치고 물었더니 답변이 걸작입니다. 회의에서 모 선생님의 안건이 부결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안건이 부결되고 다른 안건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박수를 쳤답니다. 그 분은 아주 명석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이 감히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없어서 이 분이 내는 안건이 늘 회의를 주도했고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맞는 말, 옳은 말임에도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분들의 마음 한 구석에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뚱딴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엉뚱한 안건을 냈고 그것이 더 옳겠다 싶어서 통과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 하는데 나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일 잘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바른 일이라도 내 의견이 항상 주도적이고 내 이야기대로만 되어 간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교회를 다니러 오셨다고 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효자제일교회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처음 왔던 분이 교회를 잠시 들여다 보고 '야~ 이 교회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닐 만한 교회는 아니네요' 이런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라는 말이 반드시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 의견대로 밀어붙여서 일이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옆의 좀 덜 대단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능

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 생각해서 적절하게 덮어가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적당하게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갖지 않으면 나의 대단함이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라고?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낮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나를 낮추어서 다가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잘난 사람들을 심판하실 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길래 그냥 어린 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심판하실 무시무시한 분이더란 말입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는 끝까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옆에 나보다는 조금 약한 형제를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선생님 차를 한 대 사시지요." 차를 사고 남을 분인데 자꾸 걸어 다니니까 차를 한 대 사시라고 했더니 그 분이 한 이야기가 "내가 차를 사면 부러워할 사람이 아직 내 주변에 많다."고 대답하셨어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가 필요한 분이예요. 꼭 필요하고 능력도 있는데 안 사는 이유가 '아직은, 내가 차를 사면 이걸 부러워할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는 까닭입니다. 가까운 이웃을 배려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겐 좀 필요합니다.

여학교 선생님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고 예쁜 아이들에게 '잘 한다' '예쁘다' 티를 내면 큰일 납니다. 거의 오해를 받을 만큼 그런 애들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사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질투를 할 리도 없는 애들에게는 노골적으로 "어제 너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애가 선생님을 티 나게 좋아하거든요. 공휴일 다음 날 학교가면 일부러 "아이고, 너 어제 선생님 보고 싶어서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 옆에서 애들이 와~ 웃고 말지 아무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런저런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배려를 잘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선생임을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낮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낮추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사건 중에 유명한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요한복음 13:13)*' 예수님께선 자신이 주 되시며 선생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한복음 13:14)*' 발을 씻기시기 전에 '너희들이 내발을 씻겨야 할 만큼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스승이요 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거나 제자들에게 잘 보일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 말대로 나는 주님이요 선생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저 능력 없는데요' 싸우면 못이기는 사람이 '졌다' 이건 정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감추고 졌다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입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잘났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좀 낮춰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아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약한 형제들을 생각해서 낮출 것을 낮추고 다른 형제들을 세우

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이요 선생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립보서 2:5~7)*'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많이 낮추신 것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서 2:7-8)*'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사람처럼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달에 월례회도 많이 하고 총회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회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아*!* 좋습니다*."* 하며 서로 밀어줘서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서 시키고... 예전에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회장 후보에 불릴까 싶어서 아예 먼저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니면 누가 회장하겠냐*?"*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럼 니가 회장해라. 난 니가 회장할 동안에는 월례회 참석 못한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지휘자 보니까 아이구, 그래서 무슨 지휘를 한다고*?* 당신이 지휘할 동안에 난 반주 못 해준다. 지휘자 꼴 보니까 찬양대 못 하겠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렀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 때에 주변 사람을 고려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화합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싸우더라도 바로바로 잘 풉니다. 뭘로 푸나요*?* 네, 술로 잘 풉니다. 식사 한 끼 하면 끝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앙금이 생기면 무엇으로 푸나요*?* 무엇으로 푸세요*?* 못 풀어요*?* 교회를 떠나버린다고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앙금이 생기면 성령의 감화로 안 풀어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의 감화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술보다 못한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 하십시다. 하다못해 안 믿는 사람들의 술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감화라는 것이 그 정도의 힘도 없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 이거 내가 취하고 있는 자세가 잘못 되었구나' 싶어 화해하고 사이 좋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의 술보다 못한 거 아닌가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 내 주변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거든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왜 안 오는데*?"*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 보기 싫어서*!"*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집안에 일이 바빠서...*"* *"*내가 일을 하나 시작했거든...*"* 이런 대답을 듣고 '바빠서 안 오나보다' 혹은 '일이 바빠서 안 오나보다' 하면 이미 다 떨어지고 없어요. 정답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 보기 싫어서 못 오겠다'는 겁이다. 내가 열심 있고 능력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있을 때에 이걸로 인해서 내 주변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다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잘 하는 그 부분에서 나를 낮추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의 성과를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정도 업적을 남겼다고 자랑하는 것 참 좋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남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이만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마음은 온통 상처로 얼룩져 있는데 일년 동안 이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남겼습니다'는 고백을 할 때에 꼭 덧붙

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형제들이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더욱 서로 위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붙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소득입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였는가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일을 통해서 형제를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을 함께 하든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고 형제끼리 더 친근하게 되었습니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거든 하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얼굴, 내 이름 내기 위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또 형제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볼품도 없는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연한 순 같다고 말합니다. 밟으면 형체도 없이 사그러 없어질 만큼 연하디 연한 순! 그렇게 연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끼로 찍어도 넘어가지 않을 아름드리 상수리나무는 아닙니까? 아니면 불에다 넣어도 타지 않을 생생한 소나무 같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데... 그 분은 우리를 위해서 마른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고 합니다. 수분도 없고 영양도 없는 그 마른땅에서 나온 줄기가 뭐가 그리 볼품이 있겠습니까? 전혀 볼품도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잔뜩 폼을 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2*절 중반쯤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폼 나는 자리만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보며 쳐다볼 수 있는 자리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3*절 중간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어쨌든지 얼굴 내어 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영광스런 보좌에 계셨던 그 분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셨습니다. 그 종을 따라가야 할 우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형제들의 상전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인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가 어쨌든 남 위에 서야 하고 상전노릇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낮춰요? 우리 형제나 자신을 직접 보지 말고 꼭 하나님을 거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사람이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저 사람이나 나나 같겠네' 싶으면 낮추기가 쉬워집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워지고 힘들 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시면 또 하나님을 먼저 보셔요.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참 못났다 싶어도 우리는 나 자신을 학대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러하거니와 내 이웃들도 내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시면 나 자신을 낮추기도 쉽고 형제를 올려놓기도 쉽습니다.

바빠야 할 성탄절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그저 인물 잘나고 잘난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한 형제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친구삼고 누구를 위해서 더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이 모두에게 바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느라 바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미워서 꼴도 보기 싫었던 형제가 있으면 찾아가고 마음속으로 미웠던 형제가 있으면 너무 바른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동안 네가 참 미웠는데 성탄절 다가와서 이제 용서하고 화해할께."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건 묻어놓고, "저녁이라도 한 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며 그냥 놀러 가셔요. 그렇게 낮추느라고 바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낮추셨다면... 미웠던 형제나 꼴도 보기 싫어도 낮추셔야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듭을 푸느라 바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